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txt

제목: ‘암 혈관 안정화 유전자’ 발견, 항암 치료법 개발 도움 기대  
날짜: 20161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25213237001  
ID: 01100201.2016122521323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은 빠른 성장과 전이를 위해 영양 공급로인 혈관을 스스로 만든다. 하지만 암세포가 만드는 주변 혈관의 구조와 기능은 정상 조직의 혈관보다 불안정하다. 따라서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세포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암 효과가 떨어진다. 이 때문에 암 혈관을 정상화해 항암 효과를 높이려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연세대 생화학과 권영근(사진) 교수팀이 이런 암 혈관 안정화에 핵심 역할을 하는 특정 유전자(CLEC14A)를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진은 CLEC14A의 정확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이 유전자만 없는 돌연변이 쥐를 만들고 여기에 암세포를 심었다. 돌연변이 쥐의 암세포 주위에 형성된 혈관은 일반 암 혈관보다 더 가늘고 벽에 틈이 많은 등 구조가 불안정했다. 또 돌연변이 쥐가 암 혈관의 구조 이상으로 과다 출혈을 일으켜 죽는 경우도 많았다. CLEC14A가 있어야 암 혈관의 구조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 권 교수는 “<span class='quot0'>새로운 항암 치료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span>”라면서 “<span class='quot0'>특히 비소세포성 폐암, 신장암 등 치료법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학술지 ‘임상연구저널’ 온라인판 최신호에 실렸다.민태원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txt

제목: [암과의 동행] AI ‘왓슨’ 암 진료접목… 10분내 해결책 제시  
날짜: 201612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8200329001  
ID: 01100201.20161218200329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알려주는 일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다. 현재는 컴퓨터와 소통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통해 프로그램과도 대화를 할 수 있다. 단순한 대화에서 나아가 암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어떤 치료법이 좋을지 컴퓨터가 알려준다면 어떨까? 지난 5일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미국 IBM사의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실제 의료현장에 활용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를 개소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길병원 본관 1층에 위치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는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을 기반으로 총 8개의 전문 진료과 30여명 전문의와 왓슨 전문 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 병리과, 내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가 환자 개개인에 대해 협진하는 다학제 진료를 진행한다. 인공지능 왓슨은 지난 2012년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시작해 암환자 진료를 터득해왔으며, 그 결과 선진 의료기관의 자체 제작 문헌과 300종의 의학저널, 200종의 교과서, 1200만 쪽에 달하는 전문자료까지 학습했다. 왓슨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교육받고 있어 프로그램 정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의료현장에 도입하면서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최상의 치료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왓슨에 접속해 솔루션을 얻기 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왓슨에 접속한 다음, 환자의 나이, 몸무게, 수술여부, 병명 등 환자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후 ‘ask watson’ 버튼을 누르면 왓슨이 제시하는 치료옵션 결과가 나온다. 이때 왓슨은 의학정보, 환자정보,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치료옵션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각 옵션의 배경색은 녹색, 오렌지, 레드로 나눠져 있는데, 녹색은 ‘추천’ 오렌지는 ‘고려해볼 만한 경우’ 레드는 ‘하지 말라’는 뜻이다. 왓슨은 각 옵션에 대해 왜 추천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생존율 등도 함께 보여준다. 또한 관련 연구 데이터나 초록, 원문 등도 열람이 가능하다. 백정흠 가천대길병원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단 기획실장(외과 교수)은 “왓슨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체 암의 85%까지 분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나중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암을 분석하기 어려운 단계가 올 수 있다. 그때 왓슨이 더 수준 높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BM 왓슨 인공지능 암센터는 인공지능과 다학제 진료의 결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백 교수는 “일반 진료의 가장 큰 불만은 교수를 만나고 ‘3분’ 진료하는 것이다. 다학제의 장점은 5∼6명의 교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때 환자의 만족도는 5배가 아니라 50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다”며 “의료진끼리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다학제를 통해 조율된 의견을 환자가 받을 수 있고, 여기에다 인공지능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믿음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txt

제목: 한미약품-아주의대 교수팀, 줄기세포 항암신약 개발 협약  
날짜: 20161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3040210002  
ID: 01100201.20161213040210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사진 왼쪽)은 최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이관순 대표와 손지웅 부사장, 아주대 김동연 총장과 유희석 의무부총장, 최경희 산학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영 아주의대 교수팀과 줄기세포 활용 혁신 항암신약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해영 교수팀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추출한 골수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사이토신 데아미나아제’(CD)유전자를 삽입한 세포치료제를 항암제로 산업화하는 전(前)임상시험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은 서 교수팀과 손잡고 이 항암신약 개발 연구에 임상시험 단계부터 참여해 산업화 시 우선 사업권을 가질 계획이다. 아주대는 교내 기업협업센터(ICC) 안에 별도의 공간을 공동연구시설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해영 교수는 “<span class='quot0'>글로벌 R&D 능력을 갖춘 한미약품과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 뇌종양 및 다양한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txt

제목: 암 혈관 정상화… 암 성장·전이 억제  
날짜: 201612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2212409001  
ID: 01100201.20161212212409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 고규영 단장과 박진성 연구원은 암 혈관을 일반 혈관처럼 정상화해 암 성장과 전이를 억제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은 암 혈관 내부 세포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TIE2 활성 항체를 사용하면 암 혈관의 구조적·기능적 이상을 안정적으로 바꿔 암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찾아냈다. 암세포 자체를 공격하는 대신 암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낸 것이다. 연구 성과는 암 연구 분야 최고 학술지인 ‘캔서 셀’ 온라인에 13일자로 게재됐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txt

제목: 노화된 조혈 줄기세포의 회춘 기술 개발  
날짜: 201612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11213855001  
ID: 01100201.201612112138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최인표, 정해용 박사 연구팀이 조혈 줄기세포의 노화를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내 젊은 세포로 회춘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혈액을 구성하는 조혈 줄기세포는 백혈구나 적혈구 및 혈소판 등 혈액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다. 이 세포는 나이가 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차츰 기능을 상실하는데 이상이 생기면 몸 전체의 혈액 세포에도 영향을 미쳐 면역저하나 빈혈, 암, 노화 등을 유발한다. 연구팀은 조혈 줄기세포에서 활성산소 조절 단백질인 TXNIP가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산소의 생성과 노화를 유도하는 인산화 효소 활성화(p38 MARK)에 관여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TXNIP가 결핍된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활성산소와 p38 MARK가 증가했고 이는 노화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최 박사는 “<span class='quot0'>역노화 기술로 면역질환 치료와 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네이처의 자연과학 분야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에 지난 8일 발표됐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txt

제목: 첫 수출 국산 원자로， 요르단서 준공식  
날짜: 2016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7210743001  
ID: 01100201.2016120721074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민국이 첫 원자로 수출을 완료했다. 원자로 도입국에서 공급국으로 전환된 의의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르단 연구용원자로(JRTR)가 핵연료 장전 후 6개월의 성능시험을 마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2009년 1억61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에 따른 것이다. 준공식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김종경 한국원자력연구원장, 하니 알물키 요르단 총리가 참석했다. 5㎿(메가와트)의 출력을 내는 JRTR은 요르단 북부 이르비드에 위치한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에 설치됐다. 원자로 외에도 동위원소 생산시설, 행정동 등도 건설됐다. 또 운영 요원 양성을 위한 요르단 기술자들의 교육훈련까지 마쳤다. JRTR은 중성자를 이용한 기초과학 연구와 신물질 개발연구를 수행한다. 의료용으로 생산되는 방사성동위원소는 암 환자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예정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전문가를 파견해 중성자 빔 장치 등 공동개발을 추진해 연구로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2년간 원자로의 성공적인 운전을 지원한다. 최 장관은 “<span class='quot0'>가까운 미래에 요르단이 도입할 예정인 발전용 원자로 사업에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span>”고 밝혔다.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txt

제목: [진료실에서] 가파르게 늘어나는 전립선암… 50대 이상은 주기적 검진 필요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93154001  
ID: 01100201.2016120419315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남성에서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미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남성암 중에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여건도 이를 따라 가는 실정이다.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여건이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수명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수록 전립선암 발생이 늘고 있다. 지난해 중암암등록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전립선암은 전체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건국대학교병원 비뇨기과 김형곤(사진) 교수에게 전립선질환과 치료에 대해 들어봤다. 전립선은 방광아래에 밤알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장기이다. 정액의 일부를 만들고, 정자에 영양을 보급하고 운동성을 도와주고, 요로감염의 방어기능이 있어 임신에는 꼭 필요하다. 문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 크기가 커지면서 노년기에 배뇨 불편감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60대 이상 남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립선비대증이다. 반면 전립선암은 연령별로 보면 45세 이하의 남성에서는 드물고 대개 50세 이후부터 나이에 따라 빈도가 급격히 높아진다. 전립선암은 전립선의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증식기능을 잃고 무질서하게 자기증식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유전적 소인과 남성 호르몬 영향, 음식 및 식이습관, 직업 등이 있다. 전립선은 요도를 감싸고 위치하고 있어 전립선암이 발생하면 요도가 눌려 소변을 보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데 전립선비대증에서 볼 수 있는 배뇨증상과 저장증상이 나타난다. 암이 요도 및 인접하는 방광 내로 진전된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출혈해 육안적으로 혈뇨를 보게 되기도 하지만 암의 크기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무증상인 경우도 많다. 또 전립선암이 진행되면 림프절이나 뼈로 잘 전이되기 때문에 체표에 존재하는 림프절로 전이한 경우에는 그 부위가 붓거나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뼈로 전이한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전이된 부위의 뼈가 약해진 경우에는 골절되기도 한다. 따라서 뼈 전이를 조사하기 위한 골주사검사와 림프절전이나 폐, 간으로의 원격전이를 알아보기 위한 CT검사나 MRI검사를 시행한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립선암 치료법에는 능동적 추적관찰, 호르몬요법, 외과요법, 방사선요법, 화학요법의 종류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암의 세포분화도가 좋고 암의 양이 적으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오랜 기간을 진행 없이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 주기적으로 암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능동적 추적관찰을 할 수가 있다</span>”고 말했다. 이미 서구사회에는 이런 능동적 추적관찰이 많은 경우에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여건은 조금 다른 형편이다. 이미 비뇨기과학회 등 여러 보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은 서구사회에 비해 악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암이 전립선내에 국한되어 있을 때는 수술로 암을 제거하고 암이 전립선피막을 넘어 진행되어 있거나 원격전이가 있다면 남성호르몬을 차단하는 호르몬치료를 시행한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비롯한 방사선치료, 호르몬 치료를 병합하는 다학제 치료가 이용되고 있다. 호르몬치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나 호르몬 치료의 효과가 없어졌을 때는 화학요법을 실시하지만 효과의 지속기간이 짧다. 치료에 따른 전립선암의 예후는 전신상태, 연령, 병기 및 암세포의 분화도 등에 따라서 다르다. 전체적으로 전립선암은 진행이 늦기 때문에 5년 생존률은 전립선내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70∼90%, 전립선 주위에 퍼져 있는 경우가 50∼70%, 림프절전이가 있는 경우가 30∼50%, 뼈나 폐 등으로 원격 전이한 경우가 20∼30%이다. 김형곤 교수는 “50대 초반의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립선암이 전신으로 전이된 경우를 여러 번 보아왔다”며 “전립선암은 호르몬요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른 암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립선암을 완치하려면 무엇보다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50대가 되면 주기적으로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txt

제목: 원자력병원 질환 관리, 식도암 진단-치료 방사성의약품 세계 첫 개발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72944001  
ID: 01100201.20161204172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함께 눈부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 100세 시대를 앞두게 되었지만, 인구 고령화로 암과 치매 등 난치병의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방사성의약품의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첨단 의료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사성의약품은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붙여 만든다. 현재 임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도당 유사체 ‘F-18 FDG’ 방사성의약품을 체내에 주사하면 포도당 섭취가 활발한 암 세포 주변에 방사성의약품이 집중적으로 모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해 암의 위치와 크기 등을 진단한다. 또한, ‘구리-64(Cu-64)’ 등과 같은 방사성의약품은 암을 진단하는 동시에 배출되는 방사선으로 암 세포를 파괴하여 암을 치료하기도 한다. 현재 원자력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재단이 방사성의약품 제조사로 등록돼 있다. 원자력병원이 1989년 국내 최초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2005년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124(I-124)’와 2012년 ‘구리-64(Cu-64)’의 대량 생산기술과 생산허가를 취득해 국내 다수기관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지원함으로써 방사성의약품 국산화가 크게 확대됐다. 방사성의약품의 생산기술 향상은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최근 원자력병원은 식도암의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방사성의약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는 암세포와 결합하는 항체 의약품 세툭시맙에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 ‘구리-64(Cu-64)’와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을 각각 붙인 이른바 ‘컨버전스 방사성의약품’이다. 기존 항체면역치료에 비해 종양의 크기가 61.5% 감소하는 등 종양성장 억제효과가 입증됐다. 기존 방사성의약품에 비해 암세포 결합력은 2배 높이고, 간에 대한 축적률은 낮춘 방사성의약품도 등장했다. 원자력병원이 ‘구리-64(Cu-64)’를 이용해 개발한 이 방사성의약품을 통하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통한 암 진단율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암 외의 염증도 진단할 수 있는 방사성의약품 ‘방사성지르코늄 옥살레이트(Zr-89 oxalate)’는 기존 포도당 유사체 ‘F-18 FDG’ 보다 높은 염증 진단율로 류마티스와 같은 염증성 질환 진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사면역치료는 차세대 암 치료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원자력병원 혈액암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유기술로 암세포만 공격하는 항체에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를 결합시킨 방사면역치료제 ‘방사성 요오드-리툭시맙’을 제조해 난치성·재발성 비호지킨림프종 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의 약 3배 이상의 치료효과를 확인했다. 현재는 이를 토대로 신규 임상시험을 기획 중이다. 원자력병원 노우철 원장은 “방사성의약품은 투여량이 적고, 신체 내에서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약물이므로, 환자들이 방사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질병의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 암 진단 및 치료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한층 끌어올린 다양한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하여 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txt

제목: 만 12세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5개월됐지만 27.8% 그쳐  
날짜: 201612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204172128002  
ID: 01100201.20161204172128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시행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지난 11월2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27.8%다. 4명 중 1명꼴로 접종받은 셈이다. 이는 해외의 경우와 비교하면 낮진 않지만, 국내의 다른 백신 접종률과 비교해보면 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보건통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은 매년 5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는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600여명이 새롭게 진단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여성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자궁경부암 발생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다. 그런데도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다수 사람들이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시행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낮은 접종률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백신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이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인식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과장은 “<span class='quot0'>실제 파악한 결과 학생이나 부모님, 교사들이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 자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무료접종을 알고 있더라도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등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괴담처럼 많이 퍼진 상태다</span>”고 설명했다. 공 과장은 “<span class='quot1'>언론 등에서 희귀한 케이스나 사실과 맞지 않는 케이스를 퍼트리는 경우도 있으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안예모)’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는 자연치유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희귀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부작용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많다</span>”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른 잘못된 믿음이 부모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해, 오히려 감염병이 증가하고 결국 미스트러스트를 믿게 되고 유행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불임 등이 꼽힌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타 백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지난 2013년 일본에서 나타난 이상사례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해당 증상은 ‘접종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과 긴장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불임과 관련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난소부전’ 증상에 대해 자궁경부암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명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도 자궁경부암 백신이 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다고 강조하며 안전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예방접종 대상자들 중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자녀가 있는 16만 가구에 자궁경부암 접종이 왜 필요하고, 부작용이 큰 문제가 아니며, 언제까지 맞아야 하는지 등을 안내하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또한 접종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공인식 과장은 “라디오나 TV 광고 등을 통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진행해 의심신고 건에 대한 리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5만명 정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고, 이중 15건이 의심신고가 들어온 상태다. 해당 건에 대해 하나하나 어떤 사례인지, 어떤 증상인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등 세부적으로 설명할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해당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백신과 분명하게 연관돼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txt

제목: [미래의학포럼] 빅데이터·AI 접목 ‘개인별 맞춤치료’ 준비 끝났다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30185201001  
ID: 01100201.20161130185201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전 세계 주요 국가는 물론 기업과 연구단체, 병원 등 많은 의과학자들이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또는 개인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 연구에 본격 나서고 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신년 연설에서 획기적인 의료비 지출 감축 방안으로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추진을 발표했다. 환자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해 난치병을 정복하고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의료비 부담 감축과 환자들의 치료 수준 향상 방법으로 정밀의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밀의료’의 적극 육성을 선언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진료·임상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환자 특성에 적합한(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밀의료를 진료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 내로 국민 건강정보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정밀의료 코호트(연구 참여자)’ 구축에 나선다. 성별, 연령, 유전정보, 생활습관 등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별로 정보를 수집해 연구하고, 이를 신약개발에 활용 가능하도록 연구자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코호트 구축을 통해 정부는 개별기관이 보유한 유전정보(10만명), 의료정보(병원), 건강정보(약 100만명), 생활환경·습관 정보를 ‘정밀의료 정보통합 시스템’ 하나로 관리한다. 또한 이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정밀의료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밀의료 발전 특별법’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검사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전체 의학과 생물 정보학 등 정밀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도 설립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250억원을 책정하고, 정밀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밀의료를 통해 우선 ‘암(癌)’ 정복에 나선다. 한국인 3대 암(폐·위·대장암)과 관련한 1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도 개발한다. 직장인, 신고령층(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에 적응력이 향상된 50∼60대 인구), 암 생존자들이 대상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내외 AI 기술을 활용해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처방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진단·치료지원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을 2021년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인프라와 연구개발이 구축되면 제약기업은 유전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신약개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유전질환 등 난치병 치료약 개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의료계와 산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김홍진 인성정보 U헬스산업본부 이사는 “모바일 등 스마트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는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수용도뿐 아니라 IT 기술 수준도 높아 의료와 ICT,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역량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또한 유전체 의학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으로 질병 치료 효과를 높이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span class='quot0'>체계적인 한국형 암 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환자 치료의 폭을 넓히는 일이므로 긍정적</span>”이라고 평가했다. 글=쿠키뉴스 송병기 전미옥 기자 songbk@kukinews.com, 사진=김지훈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txt

제목: [미래의학포럼] 유전학+게놈프로젝트 ‘정밀의학 시대’ 열다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30183104001  
ID: 01100201.2016113018310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다가올 바이오 헬스시대에는 빅데이터에 의한 질병 예측을 통해 수명이 연장되고 암 생존율이 증가할 것입니다.</span>” 서정선 서울대의대 유전체연구소장(마크로젠 이사회 회장)은 30일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2016 미래의학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 ‘바이오 의료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정밀 의료’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 소장은 “<span class='quot1'>IT와 모바일이 주도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물 인터넷(IoT)과 로봇을 통한 연결성 확대가 보편화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현실 세계와 사이버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바이오 헬스시대에는 빅데이터에 의한 질병 예측이 가능해질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밀 의학’에 대해선 “개인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환경 정보를 근거로 한 개인별 맞춤 의학”이라고 정의하고 “유전체 정보, 전자의료기록(EMR), 모바일헬스(Lifelog)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처리해 질병을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서 소장은 “<span class='quot1'>정밀의학은 유전학 150년 역사와 ‘인간 게놈(Genome)프로젝트’ 이후 15년이 만든 합작품</span>”이라고 단언했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사람 유전체 안에 있는 약 30억 염기쌍이 어떻게 배열돼 있는지 밝혀내 질병을 예측하는 작업으로 1990년부터 국제 공동 연구로 시작됐다. 서 소장은 “<span class='quot1'>정밀 의학의 단기 목표는 암</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개인 유전체 정보에 기반한 정밀 암 면역 치료가 대표적</span>”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은 2020년 완료를 목표로 ‘암 탐사 계획(Cancer Moonshot 2020)’을 올해 시작했다. 이는 10만명의 암 환자 게놈을 분석하고 그중 2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암 특성에 맞는 면역 치료와 백신 개발을 시도하는 프로젝트다. 정밀 의학은 장기적으로 ‘약물 유전체’ 연구와 기타 만성병 치료를 목표로 한다. 약물 유전체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처방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을 막으려는 연구 분야다. 서 소장은 “<span class='quot1'>이를 위해 100만명의 자발적 참여자(연구 코호트)를 구축해야 한다</span>”며 자원 봉사자와 연구자, 의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참여의학 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유승준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해 논의의 장을 펼쳤다. 정영기 과장은 “<span class='quot2'>정밀 의료를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해 미래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밀의료 연구·산업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중요과제로 꼽았다. 이어 일반인 최소 10만명의 정밀의료 자원을 수집해 연구·산업화 목적으로 개방하고 한국인 3대 전이암(폐·위·대장암)에 대한 맞춤형 진단·치료법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나 직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밀의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승준 센터장은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높은 의료 수준과 국민건강 데이터 등을 한국의 강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 인프라의 활용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span class='quot3'>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융합신산업 형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울러 정부의 정책 지원도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한 규제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었으면 좋겠다. 정부가 판을 깔아주고 기업은 융합신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보험 수가, 연구 개발에 대한 부처 간 논리, 개인정보보호 등 정밀의료의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유전체 정보가 개인정보가 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실제로 유전자를 기반으로 모든 진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규제를 낮추는 등 사회 규제 어뷰징(오남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span class='quot3'>정부는 민간산업에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면서 심사 역할로 전환해주길 바란다</span>”고 제안했다.민태원 기자, 쿠키뉴스 박예슬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txt

제목: [미래의학포럼] “AI·모바일 헬스케어 업체 10년 뒤 글로벌 톱10 선점”  
날짜: 2016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30180845001  
ID: 01100201.20161130180845001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span class='quot0'>2026년에는 인공지능(AI), 의료에 기반한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span>” “<span class='quot0'>개인 ‘헬스 아바타(사이버 의료 분신)’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건강을 돌보는 시대가 온다.</span>” 전문가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미래의학포럼’에서 조만간 우리 사회에 닥칠 미래상을 이같이 예측했다. 선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은 기조 강연에서 “<span class='quot1'>4차 산업혁명은 3D프린팅과 로봇공학 같은 물리학 기술,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 유전공학·스마트 의료 등 생물학 기술이 융복합되는 파괴적 혁신을 말한다</span>”며 “보건의료 산업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이사장은 이어 “<span class='quot2'>이런 변화들은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넘어 슈퍼 노멀(Super normal)이 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구글핏, 스탠다임 등 AI나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업체들이 세계 10대 기업을 선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공동주최한 제1회 미래의학포럼에는 국회 심재철 부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 유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정·관·학계와 보건의료·제약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1세션 ‘정밀 의료’에서 주제 발표한 서정선 서울대의대 유전체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3'>정밀 의학은 개인 유전체(Genome) 정보와 질병기록, 모바일 헬스 정보를 빅데이터 기술로 처리해 질병을 예측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선 10만명의 암 환자 게놈을 분석해 개별 암 특성에 맞게 면역치료를 시도하는 ‘암 탐사 2020계획(Cancer Moonshot 2020 plan)’을 올해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또 김주한 서울대의대 의료정보학 교수는 이어진 2세션 ‘스마트 헬스케어’ 주제 발표에서 “<span class='quot4'>정밀 의료가 실현되면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 같은 사이버 공간에 자신의 ‘헬스 아바타’를 구현하게 되고 잠자거나 일하는 시간에도 건강정보와 질병을 관리·예측할 수 있게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txt

제목: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 오픈… 클릭 한번에 보험 내역 ‘좌르르’ 같은 연령대 보증액 비교도 OK  
날짜: 201611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9040435001  
ID: 01100201.2016112904043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 내역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 보험 다보여’ 서비스가 28일 문을 열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현황, 보장내역, 보험료, 납입주기를 한번에 보여준다. 분석통계를 이용하면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의 다른 사람이 가입한 보험과 비교도 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내 보험 다보여’ 서비스를 체험해 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내 보험 다보여’ 배너(ins.credit4u.or.kr)를 클릭하면 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까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서비스 메뉴는 ‘계약 현황’ ‘정액형 보장 계약내용’ ‘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계약 현황에선 자신이 가입한 전체 보험과 이 가운데 유효계약이 몇 건인지를 알 수 있다.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총액도 볼 수 있다. 30대 초반인 기자는 CI(중대질병)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등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 매월 보험료로 약 48만원을 지출한다. 각 보험계약의 남은 보장기간도 표시됐다. 각 보험이 어느 나이까지 보장해주는지 확인하고, 연장 혹은 신규 가입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액형 보장 계약내용으로 넘어가면 보험별 상세내용이 나온다. 계약 상태를 ‘전체’로 놓고 조회하면 소멸된 보험을 포함해 모든 보험의 보장 시작, 종료일 등을 볼 수 있다. 보험 리스트를 하나씩 클릭하면 아래쪽에 상해사망, 암진단 등 가입한 보장내역별 보장금액 등이 노출된다. 홈페이지 하단 정액형 보장 분석통계는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서비스다.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과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금액을 비교해준다. 30대 남성의 평균 상해사망 보장금액은 1억2100만원이었다. 상해사망 보장금액이 조금 부족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받는 보험료도 모자랐다. 30대 남성의 평균은 3447만원인 데 비해 기자는 2000만원이었다. 상해 입원비, 급성심근경색 진단은 보장 내역이 없다. 앞으로 다른 보험을 들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의 보험 계약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 다만 개별 보험상품의 세부 보장 명칭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 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메뉴에선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실손형 보장 통계분석에선 중복 가입한 실손보험 보장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보장 내역별로 중복 가입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다. 1건만 가입한 경우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되고, 가입돼 있지 않으면 아무 표시도 나오지 않는다. 30대 남성의 실손의료보험 보장별 평균 가입률은 75∼78%다. 기타 실손 가운데 벌금 관련 보험가입률은 50%로 높은 편이다. ‘내 보험 다보여’는 2006년 6월 이후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보험정보 2억2000만건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에서 자동차보험 등은 빠져 있다. 신용정보원은 2018년부터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89)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 혁신적 내시경술로 고통↓ 효과↑  
날짜: 20161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2000135001  
ID: 01100201.2016112200013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는 한국인 소화기병 극복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전문센터다. 특히 위암, 대장암, 식도암, 담도·췌장암 등 중증 소화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내시경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내시경은 말 그대로 위장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암 검사를 위한 조직 채취는 물론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거울이다. 박종재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내시경센터장)는 21일 “<span class='quot0'>내시경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법의 발달과 더불어 위장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이상 병변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도려내는 것도 가능해졌다</span>”고 강조했다. 최근 소화기내시경 분야는 타 분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검사와 치료의 정확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방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늘 한발 앞선 진료를 추구해 온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 역시 과거 개복수술을 하지 않곤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난치성 소화기병도 혁신적인 내시경술로 합병증과 입원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연간 250여 명의 조기위암, 조기대장암 환자들이 이 곳에서 내시경 시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고 있다. 소화기내시경 시술의 꽃으로 불리는 내시경점막절제술과 점막하박리술(ESD) 시술건수도 연간 600여 건이다. 이를 포함해 각종 소화기내시경 시술건수는 연평균 약 2만여 건에 이른다. 그 뿐이 아니다. 식도암이나 위암 진행으로 식도 또는 위 배출구(유문부)가 막혀서 음식물 섭취가 여의치 않을 때 스텐트(금속성 그물망)삽입술, 풍선 확장술 등으로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소화기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치료도 활발히 시행 중이다.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는 위·식도, 십이지장 쪽의 이상을 체크하고 치료하는 상부내시경실, 주로 대장과 소장질환을 다루는 하부내시경실, 점막 하(下) 병변 감시 및 치료를 담당하는 내시경초음파실, 췌장·담도질환을 살피고 치료하는 췌담도내시경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부내시경실은 박영태(63) 교수와 박종재(55)·주문경(43) 교수팀이, 하부내시경실은 이범재(45) 교수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또 내시경초음파실은 박종재 교수가, 췌·담도내시경실은 김재선(55)·김효정(46) 교수팀이 각각 담당한다. 박영태 교수는 대한소화관운동학회장(2005∼2007년), 아시아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장(2008∼2011년), 대한소화기학회 부회장(2010∼2011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2011∼2012년)을 역임하는 등 위·식도질환 분야 권위자다. 고려대구로병원 개원 이듬해인 1984년 4월부터 고려대 의대 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로 일해 왔다. 현재 삼킴 장애, 비(非)심인성 흉통을 비롯해 위·식도역류질환 등 식도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김재선 교수는 췌장과 담도계에 생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담도내시경술’ 등 다양한 검사 및 시술을 하고 있다. 외과, 영상의학과, 종양내과 등과 함께 하는 다학제 협진 프로그램에 참여,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주는 환자 중심 진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 교수는 1995∼96년 방문연구원 신분으로 일본 도쿄 데이쿄(帝京)대학 부속 미노조구치(溝口)병원에서 담도내시경 시술 관련 기술을 연마했다. 또 1998년부터 2000년 1월까지 2년여 간 미국 갈베스톤 텍사스대를 방문, 내시경 및 초음파를 이용한 최신 담석증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고 돌아왔다. 이범재 교수는 대장·소장 질환 전문가다. 고려대안산병원 전임의와 구로병원 임상교수(2006∼2009년)를 거쳐 2010년부터 구로병원 소화기내과를 지키고 있다. 2009∼2010년 미국 노스웨스턴대, 2014∼2016년 샌디에고 캘리포니아대(UCSD)를 각각 방문,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발생원인을 분자생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대장암 관련 새로운 유전자 발굴을 위한 연구를 새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캡슐 내시경 및 이중 풍선을 이용한 소장 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에도 관심이 많다. 김효정 교수는 담석증, 담낭염,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등 췌·담도질환을 세부 전문 분야로 삼고 있다. 2003∼2006년 강원의대 소화기내과 조교수, 2007∼2010년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를 거쳐 2012년 3월부터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내시경센터 의료진에 합류했다. 주문경 교수는 위·식도 질환과 기능성 대장질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특히 위장관 출혈, 변비, 과민성 장 증후군, 속 쓰림, 명치 통증, 흑색 변, 토혈 등이 소화기암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감별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2010∼2012년 미시간대 소화기연구센터를 연구원 자격으로 방문, 2년간 기초 소화기학 분야를 집중 연구하고 오기도 했다. 주 교수는 2013년 3월, ‘비만 세포 활성화에 의한 프르스타글란딘 D2의 식도 미주신경 과민반응 유도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피지올 가스트로인테스트 리버’지에 게재하는 등 그동안 수십 편의 연구논문을 SCI급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박종재 내시경센터장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 칼로 도려내듯 제거 칼 대신 내시경으로 조기위암을 제거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다. 박종재 센터장은 소화기내과를 전공분야로 삼게 되면서 치료내시경으로 수술이나 다름없는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가 특히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치료법으로 불리는 내시경점막하박리술(ESD)의 매력에 빠지게 된 배경이다. ESD는 위 점막 아래층까지 파고든 조기 위암을 마치 칼로 도려내듯 내시경으로 깨끗이 제거하는 치료내시경 시술법이다. 박 센터장은 1996년 고려대 대학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8∼2000년 가천의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 2001∼2002년 하버드의대 부속 베스 이스라엘 병원 임상의사를 지냈다. 그는 최근 들어 각종 소화기병 환자 진료와 내시경 시술 외에도 학술활동으로 기초 및 임상의학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 미국소화기학회지, 유럽 내시경학회지 등에 해마다 연구 성과를 발표, 국내외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암치료 적정성 평가위원, 대한소화기학회 학술이사,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보험이사, 대한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글=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구성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폴립환자 식이·운동요법 통한 대장암 예방 탐색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529002  
ID: 01100201.20161120205529002  
카테고리: 사회  
본문: ◇용종제거 환자 대상 1차 예방적 개입의 유효성 평가연구(김동현 한림대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대장암 전 단계로 알려진 대장용종(폴립)이 있는 환자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다. 김 교수는 대장용종이 있는 환자들을 무작위로 식이/운동요법군과 기본적인 예방실천 책자만 제공하는 대조군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했다. 총 151 명을 모집했고, 연구기간을 3년 더 연장해 대장암 발생 여부를 관찰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의 연장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많이 하지만, 조건에 맞는 대상자 즉 고위험군 용종 절제 환자가 예상보다 매우 적었고, 2015년 메르스 사건으로 병원 내원 환자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span>”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참여 이후 관찰기간을 3년 연장해 대장암 재발가능성을 더 높인다면 두 그룹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전립선암 치료 ‘바이오마커’로서 유용성 검증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528001  
ID: 01100201.2016112020552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립선암의 새로운 암표지자 개발 및 호르몬 불응성 전립선암의 발생기전 연구(이현무 삼성서울병운 비뇨기과)이현무 교수에 따르면 전립선암 발생률은 1999년 인구 10만명 당 8.5명에서 2013년 26.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난이도의 진행된 전립선암의 표준 치료는 호르몬 차단 요법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 18∼48개월 동안 치료에 잘 반응한다. 하지만, 이후 거세 수준의 혈청 테스토스테론 수준에도 불구하고 질환이 진행하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진행하는데 이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2∼3년으로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이게 된다. 연구팀은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발생과 연관된 분자 기전을 살피고, 한국인의 전립선암 조직에서 이러한 인자의 발현 빈도와 패턴을 분석했다. 또한 치료에 대한 바이오 마커로서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했다.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은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이번 연구결과 ERG 및 SOX9라는 유전자의 발현 여부는 항암제치료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 마커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환자에 대한 맞춤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을규명했다. 이현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 결과는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발생기전을 규명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 및 새로운 항암제 치료 표적 발굴에 기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국인의 전립선암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해 한국인에 적합한 지침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span>”고 설명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폐암 가족력 있는 여성 저용량 CT검사 권고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427001  
ID: 01100201.20161120205427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폐암 조기발견을 위한 저선량 CT와 유전자 검사의 유효성 평가 및 치료 방침 표준화(이경수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흉부 엑스(X)선촬영으로 폐암 덩어리가 보여서 폐암 진단을 받으면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며, 치료 후 생존율도 낮게 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을 이용해 폐암유무를 알아보는 검사는 유용하나, 반복적으로 촬영할 경우 지나친 방사선 노출로 또 다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선 용량이 적은 저용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이 새로운 조기발견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저용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이 상당량의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대조군보다 폐암특이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을 의미 있게 낮춘다는 미국이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이경수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역설적으로 비고위험군에서 저용량 CT가 단순흉부X선 검사보다 높은 폐암 진단율과 함께 생존율이 유의하게 높였다. 고위험군의 저용량 CT가 생존율을 높인다는 보고가 되지 못한 것은 고위험군의 수가 비고위험군의 수보다 현격히 작았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비고위험군에서 저용량 CT의 (폐암진단)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비흡연 여성에서 폐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저용량 CT를 45세 이후 권고해 볼 만하다</span>”고 말했다. 병리조직과 영상검사를 연계한 연구결과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종양 전체를 스캔해 병리적 다양성과 침습력에 대한 사항들을 평가한 후 radiomics(맨눈으로는 평가가 불가능한 대량의 정량적 영상 형태를 자료특성 알고리즘을 통해 병변을 특성화하는 기법)와 비교한 결과, 폐암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다양한 영상기법을 통해 얻은 영상을 분석해 침습적 암과 비침습적 암을 구별할 수 있다고 확인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폐암 수술후 재발확률 계산 프로그램 집중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426001  
ID: 01100201.20161120205426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다중분자지표분석 및 영상학적검사의 조합적 폐암 조기진단 지표 탐색과 유효성 평가(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전상훈 교수는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을 하지 않는 1기 폐암의 경우 ‘어떤 환자가 재발하며 어떤 환자는 재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 해결을 위해 한국인 자료로 수술 후 재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노모그램을 만들고 이를 검증했다.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에서 수술 받은 1071명의 1기 폐선암 환자의 자료를 분석했다. 전상훈 교수팀은 자체 개발한 재발 예측 모델을 이용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환자에서 항암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의 5년 전체 생존율이 각각 87%, 77%로 확인됐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항암치료를 시행한 군에서의 5년 생존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호기 가스를 통한 분석으로 폐암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연구팀은 “폐암환자가 내쉬는 호기가스를 분석해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수술 전과 수술 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진단 정확도가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며 “이는 수술로 폐암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호기가스에서 폐암에 대한 특이적 가스가 검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는 호기가스 방법이 폐암의 조기발견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txt

제목: [암정복 프런티어] 35억 투입 1차 암부담 감축연구 성과들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205321001  
ID: 01100201.20161120205321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한암연구재단이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제1차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에는 총 35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5년간 수행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 우리나라 국민의 암부담 현황분석 및 감축방안 개발 연구, 국민 암부담 감축방안의 실효성 평가연구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암연구재단 구홍회 집행이사(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해당 연구들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응용연구 분야</span>”라며 “<span class='quot0'>국민들의 암 질환 부담을 감축 할 수 있는 암 관리방안 개발과 실효성을 평가하는 영역에 중점을 뒀다</span>”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연구 시작 이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약 16만2000명으로, 2007년 현재 암 유병자는 44만5300명으로 추정됐다. 또한 2008년 국내 암 사망자 수는 6만8912명이었고, 전체 사망의 28%를 차지하는 사망원인 1위다. 재단에 따르면 2001년 기준 국내에서 암 질환으로 지출된 총 비용은 5조9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2016년 11월말 현재 유효성평가 연구 7개 과제 결과가 도출됐고, 기획연구인 우리나라 암부담 분석 및 감축방안 개발 연구와 용종 제거환자 대상 1차 예방적 개입의 유효성 평가 연구는 결과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내년부터 실시되는 2차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은 국내 암부담 원인인 발병, 사망, 비용 등에 대한 실제 부담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 실용연구를 수행하고, 일반 국민들의 암질환에 의한 시간과 비용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침서도 개발 연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홍회 교수는 “<span class='quot1'>또한 발생률은 낮지만 치명률이 높은 희귀암 등 국내에서 의학적으로 등한시된 된 암에 대한 의학적 연구도 수행할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타 연구지원에서 소외된 암 연구를 적극 지원해 환자들의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span>”고 강조했다. 대한암연구재단이 수행한 ‘1차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정리=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美 보건원 지원 받아 자궁경부암 임상연구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195604001  
ID: 01100201.2016112019560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매년 22만 명 이상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30%인 7만여 명의 환자가 암 치료에 실패해 사망하고 있다. 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보다 나은 수준의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암 치료법 개발을 위해 연구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임상연구는 새로운 암 치료법이 표준 치료로 인정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암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은 대표적인 여성암인 자궁경부암의 국제 임상연구를 주관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는 재발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일 경우에만 방사선, 항암치료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원자력병원 자궁암난소암센터 유상영 박사팀은 암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암조직이 자궁벽의 절반 이상 혹은 림프공간을 침투한 경우도 암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이 겹칠 경우에는 고위험군 환자처럼 방사선, 항암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궁경부암 치료 관련 임상연구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며, 유상영 박사는 미국 부인종양연구회의 아시아 최초 책임연구자로 선정되어 임상시험을 주도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기준이 도입될 경우 자궁경부암 수술 환자의 완치율이 현재 75%에서 9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대한부인종양연구회가 주관하고 원자력병원 자궁암난소암센터 연구진이 참여한 자궁경부암의 재발위험도에 관련된 다기관 임상연구가 2016년도 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 라인에 인용되는 성과를 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는 미국 주요 암센터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이곳에서 정해진 암진료 지침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암진료 가이드라인이 된다. 원자력병원은 난치성 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는 차세대 치료기술인 방사면역치료의 다양한 임상시험도 시행하고 있다. 방사면역치료는 방사선치료의 효과와 표적항체에 의한 면역작용의 효과가 결합한 치료로 표적항체를 이용해 암세포에만 방사선을 쏘여 정상세포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최소화해 암치료에 높은 효과를 보이는 첨단 방사선치료 분야이다. 원자력병원 혈액암센터 강혜진 박사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유기술로 제작한 방사면역치료제(방사성 요오드-리툭시맙)로 난치성/재발성 비호지킨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의 약 3배 이상의 치료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임상시험을 기획 중이다. 원자력병원은 방사면역치료를 위한 치료제 제조 및 임상시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하여 암이나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개발 과정 중 인체에 해가 없는 적은 양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해 기존의 임상시험 방법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신약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 원자력병원 임상연구부장도 겸하고 있는 유상영 박사는 “<span class='quot0'>원자력병원은 암 진료 뿐 아니라 연구와 임상을 융합한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양한 암 치료법이 세계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만큼 환자들은 국내 의료진의 치료과정에 믿음을 갖고 암 극복 의지를 북돋우길 바란다</span>”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안윤옥 대한암연구재단 이사장 “투병자 의료비 감축 실용적 연구에 힘 모으겠다”  
날짜: 20161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20194538001  
ID: 01100201.20161120194538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악성종양인 '암(癌)'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의 질환이다. 최근에는 진보된 진단법과 치료법, 치료약물들이 개발되면서 생존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럼에도 암은 중증질환으로 여전히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높다. 암이 불치병으로 인식되던 1980년대 말 국내 의학자들은 암 정복을 위한 다양한 의학 연구자 지원을 위해 뜻을 모은다. 이에 1988년 창립총회를 열고 1989년 1월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곳이 '대한암연구재단'이다.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과 암 예방과 치료 분야에서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암연구재단은 국내 연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순수한 학술 목적을 갖는 곳입니다."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28년여간 대한암연구재단 업무를 맡아왔던 안윤옥 이사장(서울대의과대학 명예교수)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대한암연구재단은?=“지난 1988년 여름 서울에서 국내 의학계는 최초로 대규모 암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진복 박사(서울의대 명예교수)가 대회장을 맡은 아시아·태평양암학술대회였습니다. 당시 학술대회 개최 후에 고(故) 김진복 박사 등 국내 의학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하게 된 거죠” 대한암연구재단(이하 재단)은 1988년 창립총회 이후 1989년 1월 당시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단인가를 받고, 설립자산 2억3000만원으로 출범했다. 당시 재단은 정관을 통해 “<span class='quot1'>암의 원인 규명, 새로운 진단법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 대한암학회의 연구·학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암의 예방·치료 등으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span>”고 명시했다. 안윤옥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재단은 암 정복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핵심과제</span>”라며 그동안 암연구지원사업, 국내 우수 암연구 논문 시상, 암연구 분야 젊은 의학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성과는?=재단은 암연구 지원사업을 통해 1989년부터 2002년까지 46명의 연구자들에게 암 연구비를 지원했다. 특히 세계적인 위암수술 권위자이자 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김진복 박사의 이름을 딴 ‘김진복 암연구상’을 지난 2006년 제정해 국내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안 이사장은 “국내에서 암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학회나 단체가 많다. 김진복 암연구상 대상은 순수하게 국내에서 이뤄진 연구, 국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연구 등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복 암연구상 수상자들에게는 2010년까지 2000만원의 상금이 연구비로 지원됐고, 2011년부터는 상금이 3000만원으로 늘었다. 젊은 의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암연구 박사학위 논문 저술 지원’도 재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재단은 암연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4명을 선정해 1인당 8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명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재단 설립 당시부터 국내외 의학자들의 암연구 교류 활동도 적극 펼쳐왔다. 재단 설립 당시인 1989년 제1회 서울국제암심포지엄(Seoul International Cancer Symposium, SICS)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6회의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는 서울국제위암포럼도 매년 열리고 있다. 안 이사장은 “<span class='quot2'>국내외 암연구 학자들이 만나 최근 연구와 임상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span>”고 평가했다. ◇암부담 감축 대규모 연구=대한암연구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의 암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규모 장기 연구인 국민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1차 암부담 감축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5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며, 26명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재단 측은 연구비 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 연구 과제 선정 심사를 위탁해 각 분야별 과제를 선정했다. 1차 연구지원 과제 중 기획연구로 △우리나라 암부담 분석 및 암부담 감축방안 개발이 선정돼 1억6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됐다. 감축방안 유효성 평가 연구에는 △폐암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유효성 평가 △감상선암 발병원인 및 조기진단/조기치료의 유효성 평가 △전립선암 조기지단 및 치료처치의 유효성 평가 등이 수행됐다. 또한 기획연구 결과에 따른 감축방안 유효성 평가연구로 △위암 일차 예방을 위한 인구집단 고위험 전략의 효과 예측 △용종 제거환자 대상 1차 예방적 개입의 유효성 평가 △한국 여성의 유방암 검진 지침개발 근거창출 △암 생존 코호트 구축을 통한 암 생존 향상 요인 탐색 등이 수행됐다. 안윤옥 이사장은 “<span class='quot2'>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자, 국민들의 암부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연구</span>”라며 “<span class='quot2'>연구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연구</span>”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은?=“암정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 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인과 환자들을 위한 암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올바른 암 예방·치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재단은 2017년부터 2020년까 제2차 암부담 감축연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2단계 연구에서는 학술적 가치는 낮아도 꼭 필요하고 유용한 응용연구와 희귀암질환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안 이사장은 “국내 타 연구지원기관에서 지원 우선순위가 낮았던 순수 국내 암연구들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암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연구들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이사장은 “<span class='quot2'>앞으로 재단은 국민 암부담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연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span>”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암정보 알리기에도 나선다. “의학자들은 의료윤리를 지키며 적정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비과학적인 정보에 질환 치료를 맡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치료 정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암치료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어 의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한 안윤옥 이사장은 “재단 사업을 통해 올바른 암 치료와 예방 정보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2.txt

제목: [슬로 뉴스] 국내에 들어온 ‘AI 닥터’ 사람보다 나을까  
날짜: 20161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11040417797  
ID: 01100201.2016111104041779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AI) 진료'가 첫선을 보입니다. 가천대 인천길병원이 IBM의 의료용 AI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를 도입해 암 환자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당초 지난달 중순부터 진료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왓슨 전용 진료실' 마련, 내부 프로세스와의 연결 작업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늦어졌습니다. 올해 3월 바둑기사 이세돌과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알파고'의 위력을 여실히 지켜봤기 때문일까요. 미래 의료의 아이콘처럼 떠오른 'AI 진료'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사전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아직 생소한 '왓슨 진료'에 대한 일부 과장이나 오해 또한 없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국내 환자 정보의 해외 유출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br/><br/>지난 7일 찾은 인천 남동구 길병원 본관 1층 로비 한쪽에선 ‘IBM 왓슨 AI 암센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81.3㎡(24평) 규모의 AI 암센터는 환자 진료공간과 ‘다학제 진료실’(여러 진료과목 의사들이 왓슨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법 등을 논의하는 곳), 코디네이터실 등으로 이뤄집니다.<br/><br/> 병원 측은 올해 폐·유방·대장·위·자궁경부·난소암 등 6개 암 치료에 왓슨을 우선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전체 암의 85%로 확대합니다. 최근 왓슨 진료 예약 전용전화를 개설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도 뒀습니다. 길병원 이언(신경외과 교수)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단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AI 진료는 암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난치성 신경질환 등 의료 전 분야로 확산될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0'>각종 임상연구, 신약개발 등에도 적용돼 미래 대학병원은 AI 없이는 존재하기 힘든 세상이 올 것</span>”이라고 내다봤습니다.<br/><br/> “<span class='quot1'>방대한 데이터 분석, 최적의 암 치료법 제시</span>”<br/><br/> AI는 진료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요. 왓슨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계적 외형의 AI 로봇이 아니라 클라우드(인터넷 접속을 통해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의 ‘인지 컴퓨터’입니다. 수학적 언어가 아니라 인간처럼 자연언어 처리가 가능해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추론까지 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br/><br/> 왓슨은 2012년 미국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MSKCC)’에서 처음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암 환자 진료를 터득했습니다. 지금도 훈련을 통해 계속 진화 중입니다. IBM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왓슨은 290종의 의학 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는 물론 1200만쪽에 달하는 의료정보를 이미 학습했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담당 의사가 암 환자 정보와 의료기록, 조직검사 결과, 유전자 데이터 등 100여 가지 항목을 왓슨에 입력하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 10∼20초 안에 제시해 줍니다. 이언 단장은 “<span class='quot3'>매년 2배로 늘어나는 의료 정보와 최신 의학 문헌을 의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왓슨이 빠르고 정확한 암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돕는 ‘또 하나의 조력자(secondry opinion)’ 역할을 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차량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을 제공해 줄 순 있지만, 그 길을 갈지 다른 길을 선택할지는 운전자의 몫이듯 왓슨도 마찬가지”라면서 “의료진의 효율적인 결정에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일 뿐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것은 결국 의사”라고 덧붙였습니다.<br/><br/>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발표에 따르면 왓슨의 실력은 전문의사를 능가합니다. 왓슨이 제시한 암 치료법의 정확도는 대장암 98%, 방광암 91%, 췌장암 94%, 신장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에 달합니다.<br/><br/> 암 치료에서 의사의 오진·오판율은 20%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왓슨 진료를 통해 잘못된 판단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br/><br/> 맞춤형 암 치료법을 제공받으면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돼 의료비용 감소에도 기여합니다. 대개 암 환자는 암 진단을 받으면 2∼3곳, 많게는 10곳 이상 병원을 찾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환자를 보는 담당의사가 과연 내 진료 과정과 기록을 면밀히 살펴봤을까, 매일 쏟아지는 학설과 진료 가이드라인, 신약(특히 최신 항암제) 정보 등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정할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br/><br/> 환자 정보 불법 수집, 유출 가능성 대비해야<br/><br/> 해외 환자 데이터 기반의 왓슨이 국내 암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길병원 안희경 혈액종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4'>암 발생이 인종이나 국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표준 암 치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고 그 근거가 충분하다</span>”면서 “<span class='quot4'>미국 환자 데이터 위주라서 국내 적용에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긴 어렵다</span>”고 말했습니다.<br/><br/> 국내 의료법 저촉 여부도 관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왓슨이 ‘보다 발전된 의학 교과서’ 개념으로, 평소 의사들이 진단과 처방을 내림에 있어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참고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최근 결론 내렸습니다. 즉 의료기기나 장비가 아닌 만큼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의료신기술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의료법상 왓슨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br/><br/>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span class='quot5'>치료법에 대한 최종 판단과 처방은 의사 몫인 만큼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의사에게 있다</span>”고 밝혔습니다.<br/><br/> 환자 입장에선 왓슨 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이 관심사입니다. 이언 단장은 “왓슨은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현재로선 진료 수가(진료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왓슨을 이용하는 데 환자가 부담하는 별도 비용은 없다. 단, 제도가 정비되고 수가로 인정받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br/><br/>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과 유출을 막는 겁니다. 수집된 국내 환자 정보가 해외로 빠져나가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br/><br/> 특히 길병원은 초창기엔 왓슨 프로그램에 직접 로그인하는 방식을 활용하지만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면 환자의 모든 의료 정보가 담겨 있는 병원 자체 ‘전자의무기록(EMR)’과 직접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정보의 대량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br/><br/> 길병원뿐 아니라 향후 왓슨 도입을 추진 중인 국내 의료기관들 모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안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3.txt

제목: 코오롱생명과학 관절염약 5000억 기술수출  
날짜: 201611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102002520949  
ID: 01100201.201611020025209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코오롱생명과학은 1일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퇴행성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수술 없이 단 1회 주사제 투여로 1년 이상 통증완화 및 활동성 증가 효과를 내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다.<br/><br/> 총 기술수출 금액은 약 5000억원(457억엔)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의 단일국 기술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가다. 계약금은 273억원(25억엔)으로 책정됐고, 이후 인보사의 일본 내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로 4716억원(432억엔)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제품 출시 후에는 일정 수준의 로열티도 별도로 받게 된다.<br/><br/> 향후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일본 시장에서 인보사의 독점적 개발 및 판매 권리를 갖고 일본 임상시험 및 품목 허가를 진행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제품을 생산해 일본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미쓰비시다나베제약은 일본 내 류머티스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50위권 글로벌 제약회사다. 일본의 40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환자는 현재 약 25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일본 특유의 좌식문화와 인구 노령화로 매년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은 전 세계 의약품 시장 매출액의 7∼9%를 차지한다.<br/><br/>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17년간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국내에서는 임상3상까지 완료한 뒤 지난 7월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냈다. 미국에서는 코오롱의 현지법인 티슈진(Tissugene)사가 인보사에 대한 임상3상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티슈진은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를 디모드(DMOAD·퇴행성관절염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는 약물)로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임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현재 진행하고 있다.<br/><br/>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이번 계약 체결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유명한 일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다른 국가에 대한 기술수출도 탄력을 받게 될 것</span>”이라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4월 2018년까지 3년간 약 1100억원을 바이오신약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 항암제(종양살상 치료제), 암치료 백신 등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신성장동력인 바이오신약 분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4.txt

제목: “항암제 사용으로 발생한 난청, 감초 뿌리 추출물로 예방 가능”  
날짜: 201610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4174503718  
ID: 01100201.201610241745037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약재 감초 뿌리가 시스플라틴 항암제를 사용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인 난청 방어에 도움이 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 아주대병원은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와 김연주 강사 연구팀이 이독성(耳毒性) 약물 시스플라틴 사용 시 ‘코넥신43’이란 단백질이 난청을 일으키는데 관여한다는 사실을 규명, 국제 학술지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나아가 연구팀은 이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는데 감초 뿌리 추출물 ‘카베녹솔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처음으로 밝혀냈다.<br/><br/> 시스플라틴은 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 항암제지만, 부작용으로 난청을 유발하는 게 흠이다. 또 내이에는 청각기능 유지를 위한 국소 칼륨 순환에 관여하는 ‘간극결합’이라는 이온채널이 존재하는데, 이 채널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코넥신 단백질이다.<br/><br/> 연구팀은 복강 내 시스플라틴제제 주사로 난청을 얻은 암 동물모델 생쥐(A군)와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카베녹솔론을 병용 투여한 암 동물모델 생쥐(B군)의 청력검사 및 청각유모세포 소실 정도를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A군은 청력 저하로 40데시벨(㏈) 이하 낮은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됐다. 반면 카베녹솔론을 병용한 B군 생쥐는 25㏈ 정도의 낮은 소리도 들을 만큼 청력이 잘 유지·보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br/><br/> 카베녹솔론은 감초 뿌리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개발된 항궤양제다. 연구팀은 그동안 이 카베녹솔론을 고막 내 주사 등과 같이 국소적으로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난청 치료제로 산업화할 가능성을 검증해왔다.<br/><br/> 정 교수는 “<span class='quot0'>약물이 온몸에 작용하지 않고 귓속 달팽이관에서만 작용하도록 제한하면 시스플라틴의 난청 부작용 방지 효과 이상의 난청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안티옥시단츠 앤드 리독스 시스널링’(ARS)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5.txt

제목: 서울대 약학대 교수 연구팀, 고혈압 치료제 활용한 폐암 예방법 제시  
날짜: 201610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23201304892  
ID: 01100201.201610232013048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고혈압 치료제를 활용한 폐암 예방법을 새로 제시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호영(사진) 서울대 약학대 교수 연구팀이 흡연이나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폐암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고혈압 치료제를 이용한 폐암 예방법도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팀은 먼저 흡연 및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에서 폐암 생성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조건에 노출된 쥐의 폐 조직 상피세포가 암 세포로 형질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칼슘채널 차단제를 상피세포에 처리한 결과 폐 상피세포의 형질 전환과 폐 암세포 생성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는 칼슘채널 차단제가 담배 및 스트레스에서 유발되는 폐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성과는 폐암 예방법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칼슘채널 차단제는 현재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 중이므로 향후 임상실험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폐암 예방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밝혔다.<br/><br/> 이번 연구 관련 논문은 지난달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와 ‘암 연구’에도 게재됐다. <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6.txt

제목: 아프리카발톱개구리 유전체 해독 성공, 암·선천성 기형 등 질병 연구에 도움될 듯  
날짜: 2016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9210422959  
ID: 01100201.201610192104229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권태준(사진)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관련 논문을 20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7개국에서 60명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2009년부터 7년간 진행됐다.<br/><br/>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유전자 발현 조절이 쉬워 인간을 포함한 많은 척추동물의 발생과정에서 중요한 유전자를 연구하는 분야에 사용된다. <br/><br/> 하지만 인간을 비롯한 다른 동물이 부모에게 하나씩 물려받아 2개의 염색체 그룹을 가지는 것에 비해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염색체 그룹이 4개여서 분석이 까다로웠다. <br/><br/> 이번 유전체 해독을 통해 인간 유전자의 기능을 찾아내거나 암 등 인간 질병을 연구하는 새로운 모델로 개구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권 교수는 19일 “<span class='quot0'>그간 식물에서만 볼 수 있었던 4배체 유전체를 동물에서 최초로 확인하고 진화적으로 유전자 변화를 살핀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로운 유전자가 생성되는 과정과 같은 기초 연구뿐 아니라 암이나 선천성 기형처럼 배체수 변화가 흔히 나타나는 질병 연구에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7.txt

제목: [신약강국 현장을 가다] CJ헬스케어 구본철 연구소장 “우수 두뇌 많아 신약개발은 가장 큰 성장동력”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2521648  
ID: 01100201.20161016202521648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땅은 좁지만 우수한 두뇌(브레인)가 많은 대한민국에서 ‘신약개발’은 가장 해 볼 만한 비즈니스죠. 박근혜 정부에서 외치는 ‘창조경제’에 가장 들어맞는 사업이 바로 ‘제약산업’이지 않습니까.” CJ헬스케어 구본철 연구소장은 “신약이야 말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신약 및 바이오, 개량신약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회사 뿐 아니라 국가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br/><br/> CJ헬스케어는 1984년 CJ제일제당의 제약사업부로 사업을 시작, 2014년에 4월 CJ그룹의 제약 전문 계열사로 출범했다. 구 연구소장도 같은 시기, SK바이오팜을 거쳐 CJ헬스케어로 자리를 옮겼다.<br/><br/>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CJ헬스케어 연구소에서 그를 만났다. 구 연구소장에게 신약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묻자, “결국 ‘사람’과 ‘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약개발이 성공하기까지는 10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임상비용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신약후보 물질이 신약으로 탄생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확률이 10% 안팎이다. 여기에 좋은 인재가 뒷받침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많은 리스크(위험부담)를 감수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r/><br/> 한때 CJ헬스케어가 제약 전문 계열사로 출범하자, 일각에선 ‘CJ가 제약산업을?’이라며 반신반의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꾸준한 성과를 냈다. 회사는 1986년 B형 간염예방백신 ‘헤팍신-B’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또 빈혈치료제 EPO제제(제품명 에포카인)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더불어 1997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녹농균백신 신약이 ‘대한민국 7호 신약’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br/><br/> 지금도 CJ헬스케어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는 ‘신약’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회사는 내년 상장도 앞두고 있다. 현재 CJ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신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CJ-12420’과 항구토제 ‘NEPA’, 류머티스 관절염치료제 ‘JAK Inhibitor’ 등이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와 항구토제는 임상 3상에 들어간 상태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는 현재 전임상 단계다. 아울러 회사가 개발중인 바이오의약품은 빈혈치료제 CJ-40001(임상 1상), 수족구 치료제 CJ-40010(전임상), 안과질환 치료제 CJ-40012(후보물질), 독감백신(임상 2상), 3세대 두창 치료제 CJ-40011(전임상) 등이다. 이밖에도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을 목표로 한 개량신악 개발도 진행 중이다. <br/><br/> “우리 역량에서 신약개발 단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후부터가 문제죠. 세계적인 제약사 화이자나 존슨앤드존슨은 신약을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막대한 임상비용과 마케팅 여력을 갖췄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특허 기간 동안 신약의 가치를 충분히 돌려받아야 하거든요. 국내 제약사가 미국이나 유럽 등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천억원의 돈을 쏟아야 하는데 시간과 자금 모두 여의치 않습니다. 신약을 발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글로벌제약사와 협업을 해 선진국에 진출하고, 중남미나 동남아 등의 국가에서는 직접 진출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br/><br/> 그는 결국 ‘글로벌’ 진출이야 말로 우리가 가야 할 일이라고 했다. 구 연구소장은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한정돼 있어서 시장 규모를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좋은 신약을 발굴해 한미약품처럼 글로벌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기술수출)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한미약품,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에 기술수출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는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기술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1990년대 이후부터 벤처 붐이 일었다. 당시에도 이미 글로벌기업과의 라이센스 아웃 성과는 나오고 있었다. 이제 앞으로 CJ헬스케어를 비롯해 2∼3년 내에 국내 제약업계에서 좋은 성과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br/><br/> 성과도 있다. 회사는 중국 제약사 뤄신사에 1000억원 규모의 위식도약류질환 신약 CJ-12420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CJ-12420의 국내 출시는 2018년, 글로벌 출시는 2021년을 각각 목표로 하고 있다.<br/><br/> 회사는 국내·외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R&D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벤처·학계·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유망 신약 후보물질 및 기술을 발굴,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다. 지난 1월 태스크포스를 구성, 유망 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지역 벤처 600여 개 사의 1000여건의 과제를 검토해왔다. 또한 직접 해외 현지를 방문해 암, 면역, 소화기 질환 분야에서 좋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벤처사들과 미팅을 진행하는 등 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구 연구소장은 “<span class='quot0'>신약 자체개발, 공동 개발 및 유수 벤처사의 좋은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 도입 등을 통해 회사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위해 주력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신약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구 연구소장은 “신약 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막대한 임상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가 혁신신약 약가 우대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이같은 지원책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인재들이 대부분 학교로 임용되길 바라거나 해외로 나간다. 산업의 영역으로 와서 도전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정부가 우수한 인력들이 신약개발 등 기초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8.txt

제목: [암과의 동행] “인공지능을 의료에 접목시켜라” 대형병원들 첨단의학 인프라 박차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1135310  
ID: 01100201.201610162011353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대형병원들이 인공지능 연구(AI), 융복합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융·복합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들은 미래융·복합 연구와 사업화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생명공학기술(BT) 등을 결합한 헬스케어 사업화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국내 주요 병원들이 첨단 의료기술 연구에 뛰어다는 것은 병원의 ‘생존’이라는 절박함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헬스케어를 주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경쟁력 강화라는 의지가 담겨있다.<br/><br/>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은 오래전부터 의료연구 분야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헬스케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병원은 혁신파크를 통해 융복합 의료기기, 헬스케어 ICT, 재생의학,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신약 연구 등에 나설 것이다. 헬스케어 클러스터의 구축 확장을 통해 의료복합연구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헬스케어혁신파크에 임상연구센터 건립 등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방침이다.<br/><br/> 연세의료원 윤도흠 의료원장은 최근 ‘스타트업 세브란스 100’을 선언했다. 의료서비스의 100년을 내다보는 인프라 구축, 정밀의료와 인공지능(AI) 시대를 준비하는 연구·개발(R&D), 세계적인 헬스케어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구현 등 임기 내 중점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윤 의료원장은 “미래 의료환경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AI가 생각보다 초기 투자가 엄청나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만 확실한 로드맵을 세울 것”이라며 “외국 수입한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한국형 AI 의료’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는 진료 공간과 연구, 교육 공간을 분리하고, 연세대와 연결되는 공간에 ‘메디컬 이노베이션 파크’를 설립해 산·학융복합연구를 추진한다.<br/><br/> 가천대학교 길병원은 IBM의 인공지능(AI) 왓슨 기반의 의료정보분석서비스 ‘왓슨 포 온콜로지’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첨단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다. 아울러 가천대 뇌과학연구원은 아시아 최초로 연구용 7.0T(테슬라)급 MRI 및 초고해상도 PET시스템 등의 최신 뇌영상 연구시스템을 갖췄다. 고해상도 양전자 방출 등의 첨단 의학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진단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뇌연구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br/><br/> 서울성모병원도 미래 의료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 암 치료기술’ 등 연구의 사업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유효성이 입증된 암 치료기술에 ‘구글 알파고’처럼 무수한 치료 데이터를 가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은 스탠퍼드대학과 글로벌 의료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방사선 암 치료계획장치, 난소암, 림프종암 등 악성 암에 대한 세포치료제 개발에 착수키로 했다. 승기배 서울성모병원장은 “<span class='quot0'>두 기관이 일궈낸 연구성과를 단순히 논문발표 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활용하고 의료기술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의학계의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성과물 창출을 위해 집중할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29.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선 인한 ‘직업성 암’ 걱정되십니까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200711901  
ID: 01100201.201610162007119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원자력발전소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A씨는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동료 중 같은 질환으로 입원한 선례가 있어 근무 중 접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성 암이 의심되는 상태다. A씨의 피부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 또한 방사선으로 인한 직업성 암은 어떤 것이 있을까. <br/><br/> 방사선은 인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NA를 손상시켜 유전적 결함을 불러오기도 하고, 각종 암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 외에도 피부의 홍반이나 궤양, 백내장, 혈액 및 조혈기계 질환, 수정체 혼탁, 장기 기능부전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상의학과 의사, 방사선사,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라듐 다이얼도장공, 지하광부, 비행기 승무원, 우라늄 광부 등 방사선을 가까이 접하는 직종에 근무할 경우 직업성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br/><b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피부암(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급·만성 골수성백혈병 등이 엑스(Χ)선 또는 감마(γ)선과 같은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암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병한 경우 평가절차를 거쳐 ‘직업성 암’으로 인정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r/><br/>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한 암의 경우 먼저 해당 질환과 관련한 기저질환은 없었는지, 방사선에 노출될만한 생활습관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서 배재하는 작업이 선행된다. 이후 방사선 피폭 정도를 파악하는데 노출 기간, 강도 등 작업장 환경이 질병을 유발할 수준인지 업무관련성 평가에 들어간다. 김세영 부산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사업장 내의 질병유발물질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개인질환에 대해 평가한다”며 “방사선에 노출된 시기와 기간,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달라진다. <br/><br/> 또 직접노출인지 간접노출인지, 보호 장비의 노출차단 정도는 어떤지 등 다양한 소인을 복합적으로 검증한다. 해당질환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검증결과 직업성 암으로 진단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진단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여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게 되면 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br/><br/> A씨의 경우처럼 한 사업장내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에게서 동일한 질환이 발병됐다면 유병률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br/><br/> 이러한 직업성 질환이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아 진단과 검사를 받아야한다.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의심이 든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방사선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한 불안은 금물이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노출원이 물리적으로 차폐(遮蔽)된 공간에서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br/><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0.txt

제목: [질환 통계-전립선암] 고지방식 가급적 피하고 저지방 식품·과일 채소류 섭취해야 예방 도움  
날짜: 2016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16195737680  
ID: 01100201.2016101619573768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립선은 방광 바로 밑, 직장 앞쪽에 있는 밤톨만 한 크기의 남성 생식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전립선에서 발생하는 암의 대부분은 전립선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이다. 전립선암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나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각종 배뇨 문제가 발생한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줄기도 가늘어지며,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또는 소변을 자주 보고 참기 어렵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한다. 암이 더 진행되면 요관이 막혀서 신장이 붓는 수신증, 신부전 증상, 암이 전이된 뼈의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br/><br/> 5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수명이 10년 넘게 남았다고 예상되는 50세 이상 남성들에게는 매년 혈중(혈청) 전립선특이항원(PSA) 측정 검사와 직장수지검사가 권고된다. 반면 75세 이상이면서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기적인 전립선암 검진을 권하지 않는다.<br/><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2011년∼2015년)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현황을 보면 2010년 3만5688명에 불과하던 환자는 2015년 6만1695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요양급여비 역시 2011년 910억원에서 2015년 125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기준 연령별 환자수는 70대가 2만968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11년에 비해 1만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어 △60대 1만7690명(2011년 1만3548명) △80세 이상 1만2134명(2011년 6554명) △50대 4783명(2011년 3546명)의 순이었다.<br/><br/>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식생활은 환경과 함께 전립선암의 발병과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붉은색 육류나 유제품 등의 고지방식은 전립선암의 성장을 자극한다고 하므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적게 먹고, 저지방 식품과 신선한 과일, 채소, 콩 종류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암을 예방하거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br/><br/>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물질 중 하나가 리코펜(lycopene, 라이코펜)이다.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동식물에 널리 분포돼 있는 노란빛 또는 붉은빛 색소의 한 무리)의 한 종류로 토마토와 수박 등의 빨간 색소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전립선 상피세포의 양성 및 악성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코펜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 토마토는 다른 과일보다 당분이 적어서 대개 설탕을 뿌려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비타민 B₁이 손실되니 그냥 먹는 것이 좋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1.txt

제목: 카이스트 이해신 교수팀, 찔러도 피 안나는 주삿바늘 개발… 지혈 어려운 환자에 유용  
날짜: 201610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6183538883  
ID: 01100201.20161006183538883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주삿바늘이 개발됐다. 홍합이 바위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원리를 모방한 생체 재료를 활용했다. 혈우병, 당뇨병, 오랜 암 환자, 아스피린 장기 복용자 등 정상 지혈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카이스트 화학과 이해신 교수팀은 홍합의 족사(足絲) 구조 성분을 이용해 주삿바늘의 지혈 재료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br/><br/> 연구팀은 홍합에서 분비되는 섬유 형태 물질인 ‘족사’ 구조에 존재하는 ‘카테콜아민’ 성분을 도입한 ‘접착성 물질’(키토산 카테콜)을 주삿바늘에 필름 형태로 코팅했다. 혈액에 필름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젤리 형태 ‘하이드로젤’로 바뀌면서 상처 부위 피를 멈추게 한다.<br/><br/> 이 교수는 “주삿바늘에 코팅되는 지혈 재료는 주사 전 바늘 표면에 단단히 코팅돼야 하고 주사 후에는 혈관 내벽 또는 피부에 붙어 지혈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지혈 재료들은 기계적 물성이 약해 주사 과정에 발생하는 마찰력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br/><br/> 이어 “홍합의 특성을 이용한 주삿바늘은 동물실험에서 모든 혈관 및 근육 주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혈액응고가 잘 안 되는 혈우병 동물에서도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발표됐다. <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2.txt

제목: 日, 3년 연속 노벨과학상… 생리의학상 오스미 교수  
날짜: 201610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1003212741710  
ID: 01100201.201610032127417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세포 내 청소부’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Autophagy·자가포식)’ 현상을 발견해 암이나 당뇨병, 치매, 파킨슨병 등 난치병 치료 연구에 기여한 일본 과학자에게 돌아갔다.<br/><br/>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2014년부터 3년 연속 노벨 과학상을 거머쥠으로써 기초과학 강국의 면모를 입증했다.<br/><br/>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3일 일본 도쿄공업대 오스미 요시노리(71·사진) 명예교수를 2016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오스미 교수의 발견은 세포가 어떻게 세포 내 물질을 청소하고 재활용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냈다</span>”고 평가했다.<br/><br/> 오토파지는 세포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단백질과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메커니즘이다. 세포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불필요한 구성 요소 혹은 노화되거나 변이된 소기관을 파괴하는 식이다. 감염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체내 항상성을 유지한다. 오토파지는 ‘자기(self)’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토(auto)’와 ‘먹는다’는 뜻의 ‘파제인(phagein)’의 합성어다.<br/><br/>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의약연구단 류훈 박사는 “<span class='quot1'>세포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단백질 등이 이상을 일으키기 전에 청소부가 덤프트럭에 쓰레기를 실어 버리듯이, 뭐든지 분해하는 세포 내 기관인 ‘리소좀’에 투척하는 기능</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이런 활동을 통해 새로운 단백질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span>”고 설명했다.<br/><br/> 오토파지의 개념은 1960년대 보고됐지만 오스미 교수는 1988년 현미경 관찰로 세포 내(액포)에서 처음 오토파지 현상을 발견했다. 이어 92년 효모 실험을 통해 오토파지의 작동 메커니즘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이듬해 관련 유전자 14개를 찾아냈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백찬기 교수는 “<span class='quot2'>오토파지는 생명체의 유지 및 발달에 있어 필수 과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이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됨으로써 암, 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 치매 등 퇴행성뇌질환, 각종 노화질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오토파지 현상과 여러 질병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일부 질병의 경우 10년 안에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미 교수는 수상 소식을 접한 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3'>과학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해 주고 싶다</span>”고 했다.<br/><br/> 일본은 지난해 오무라 사토시 일본 기타사토대 특별영예교수에 이어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을 배출했다. 또 지금까지 모두 22명(미국 국적자 포함)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품에 안았다. 오스미 교수에게는 800만 크로네(약 11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3.txt

제목: 한미약품 또 쾌거… 1조원대 신약 수출  
날짜: 201609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9213709435  
ID: 01100201.201609292137094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미약품이 다국적제약사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신약’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8조원대 규모의 기술수출을 기록한 데 이어 다시 기술수출 ‘대박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br/><br/>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RAF 표적 항암신약 ‘HM95573’ 판권을 9억1000만 달러(약 1조원)에 넘기는 기술수출 계약을 제넨텍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약금 8000만 달러(879억원) 외에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 등에 성공할 경우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8억3000만 달러(9120억원)를 받게 된다.<br/><br/> 제넨텍은 이번 계약으로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관련 기술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한미약품은 RAF 표적치료제 개발 완료에 이어 상업화까지 성공할 경우 판매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로열티도 따로 받는다. 이번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br/><br/> RAF는 세포 내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MAP kinase·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중 하나다. 3개의 아형(A-RAF, B-RAF, C-RAF)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B-RAF, C-RAF가 암 발생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항암제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보유한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span>”며 “<span class='quot0'>제넨텍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HM95573이 암으로 고통 받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4.txt

제목: 한국, 첫 노벨 과학상 누가 받을까  
날짜: 201609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8000610471  
ID: 01100201.2016092800061047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나라 첫 노벨 과학상에 근접한 한국인은 누구일까. 국내 권위 있는 연구자들은 서울대 석좌교수이면서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김빛내리(46·여) 교수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br/><br/>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7일∼이달 12일 기초연구본부 전·현직 전문위원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노벨상 생리·의학상 분야에 김 교수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27일 밝혔다.<br/><br/> 김 교수는 ‘마이크로 RNA’ 연구의 최고 권위자다. 마이크로 RNA는 동식물의 세포 속에서 유전자가 과도하거나 부족하게 활동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뇨병, 암 같은 질병이 발생한다.<br/><br/> 김 교수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60편의 관련 논문을 썼고, 30%는 네이처, 사이언스, 셀 등 이른바 ‘3대 과학 학술지’에 게재됐다. 현재 셀과 사이언스의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br/><br/> 화학상엔 유룡(56) 카이스트(KAIST) 화학과 교수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 교수는 석유화학 공정에 쓰이는 촉매의 일종인 ‘제올라이트(나노 다공성 물질)’ 연구 분야 개척자다. 2011년 유네스코와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이 지난 10년간의 연구성과 순으로 집계한 ‘세계 화학자 100인’ 중 39위에 올랐다. 또 매년 노벨상 수상자를 예측·발표하는 톰슨로이터가 2014년 화학상 후보로 지목하기도 했다.<br/><br/> 이밖에 하버드대 김필립·포스텍 임지순 교수(이상 물리학상), 미국 잭슨랩 유전체의학연구소장인 찰스 리(한국명 이장철) 박사·서울대 김진수 교수(이상 생리의학상), 서울대 현택환·포스텍 김기문 교수(이상 화학상) 등도 추천을 받았다. 김필립 교수는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이며 찰스 리 박사는 개인별 맞춤형 암 치료연구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br/><br/> 한편 연구자들은 앞으로 노벨 과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생리의학(24%), 화학(20%), 물리학(15%) 순으로 꼽았다. 다만 한국인이 최초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묻은 질문에 ‘6∼10년’이라고 답한 이들이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1∼15년’(23%) ‘16∼20년’(22%) 등으로 조사돼 응답자의 78%가 한국이 20년 안에 노벨상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br/><br/> 또 노벨상을 받으려면 ‘한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한 장기적 지원’(48%)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연구주제 지원’(17%) ‘과학기술 정책의 일관성 유지’(14%) 등을 꼽았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5.txt

제목: [기획] 국내서도 ‘AI 진료’ 의사 대체할까  
날짜: 201609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6000606560  
ID: 01100201.2016092600060656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왓슨’은 자율주행차보다는 내비게이션에 가깝다. 운전할 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꼭 그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 모든 책임은 의사가 진다.”<br/><br/> 지난 8일 암 환자 치료를 돕는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 서비스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기반정밀의료추진단장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잘못된 진료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탓이다.<br/><br/> 25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의사가 암 환자에게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계가 모든 의학 정보를 소화하도록 해 어떤 약을 처방할지,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지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도 영국에서 암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br/><br/> 국내에서도 IBM이 가천대 길병원, SK C&C와 각각 손잡고 인공지능 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은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로 명명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컴퓨터 서비스를 활용해 다음 달부터 암 진료를 시작한다. SK C&C는 고려대 ‘KU-MAGIC’ 연구원과 인공지능 Aibril(에이브릴) 감염병 서비스 개발 협약(MOU)을 체결했다. 에이브릴은 SK C&C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칭하는 플랫폼이다.<br/><br/> 가천대 길병원은 암 치료를, SK C&C는 감염병 진단을 목적으로 한다. KU-MAGIC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감염병은 동일 증상이라도 원인과 병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법을 잘못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료진이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해 오진을 줄이고 낮은 발생 확률의 감염병도 감지할 수 있어야만 감염병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span>” 고 말했다.<br/><br/> 하지만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 탓에 오히려 진료를 잘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간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인공지능이 ‘대체’가 아닌 ‘집단 지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br/><br/> 이언 단장은 “왓슨도 하나의 의사처럼 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왓슨은 의견을 제시할 뿐이고, 여러 의사의 의견과 더해서 최종 결정은 진료를 하는 의사가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는 판단력이 있고 실용적 사고가 가능하다.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딜레마도 해결할 수 있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한 집단 지성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왓슨이 개인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판단은 의사의 몫이다”라고 말했다.<br/><br/>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6.txt

제목: 현대해상 암 회복까지 보장하는 ‘암스트롱보험’ 눈길  
날짜: 201609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5193234177  
ID: 01100201.2016092519323417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해상이 암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메디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4기암을 집중 보장하는 암에 강한 암보험 ‘암스트롱암보험’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br/><br/> 암스트롱암보험은 암 특화 패키지 보장인 ‘메디케어서비스’를 제공해 암에 대한 대비를 너머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회복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고객에게 전문의료진 건강상담, 병원 진료예약 대행, 전담간호사 방문, 24시간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지원한다.<br/><br/> 암치료관리 특약에 가입하면 프리미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발병 초기에는 암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심리치료, 면역기능 감소에 대비한 자가면역세포보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치료가 진행되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운동·영양 관리 프로그램, 면역력·세포건강도·PET-CT 검사도 받을 수 있다.<br/><br/> 또 이 상품은 고액의 치료비용이 필요한 4기암을 집중 보장한다. 최초 암 진단 시 진단금을 지급하며, 해당 암이 4기로 진행되면 추가 진단금을 지원해 기존 암보험의 공백을 해소했다. 입원 일당은 입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되고 수술이 동반된 입원의 경우 일당이 추가 지급돼 보장이 한층 두터워졌으며, 현대해상 암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객은 면책기간과 보험금지급 감액기간 없이 전액 보장 받을 수 있다.<br/><br/>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3/5/10/15년 주기의 갱신형 또는 20/30년, 80/90/100세 만기의 비갱신형으로 선택 가능하다. 보험료는 종합형, 40세, 15년납 기준으로 5만원 수준이다. 김진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성 요오드도 안 통해요”… 절망감에 경제부담 이중고  
날짜: 2016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21215444992  
ID: 01100201.2016092121544499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50대 초반 주부 A씨는 10년 전 갑상선암을 진단받아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받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까지 마쳤다. 그 사이 갑상선암이 한 번 더 재발했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한 번 더 했다. 그리고 최근 암이 또 다시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러 번 반복된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A씨는 누적 방사성 투여 용량을 초과한 상태였다. 따라서 남아있는 치료법은 표적항암제 뿐이다.<br/><br/> 갑상선암 중 ‘역형성암’, ‘수질암’은 치료가 어려운 악성 암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전체 갑상선암 환자의 0.6% 정도다. 흔치는 않지만 워낙 악명이 높아 많이 알려져 있다. 반면 발생비율이 98.7%에 달할 정도로 환자 수가 많은 분화 갑상선암은 초기에 발견해 수술과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으면 치료 예후가 매우 좋다. 갑상선암의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깝고 ‘착한 암’으로 불리는 이유다.<br/><br/> 하지만 착한 분화갑상선암 중 역형성암이나 수질암만큼 치료가 어려운 암이 있다. 바로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다. 전체 갑상선암 환자 10명 중 1명 정도가 이 경우에 속한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는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의 10년 생존율은 10%에 불과하다.<br/><br/> 세포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알맞게 특수화된 구조로 변하는 분화 과정을 거친다. 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져 요오드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암이 진행되고 원격전이가 발생하면 갑상선암의 분화도가 낮아져 요오드를 흡수하는 능력이 점차 떨어진다. 첫 치료 후에 방사성 요오드를 잘 섭취하는 세포는 소멸되고, 분화가 덜 된 세포만 남게 되는 것도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는 또 다른 원인이다.<br/><br/> 이렇듯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안 듣고, 재발·전이·진행이 확인된 분화 갑상선암 환자들의 치료 대안은 표적항암제 한 가지 뿐이다. 다행히 임상시험을 통해 무진행생존기간을 18.3개월 연장하고, 64.8%의 높은 반응률을 보인 새로운 표적항암제가 작년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의 2015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새로운 표적항암제의 높은 반응률을 근거로 해 다른 치료제 보다 선호되는 치료제로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신약은 아직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갑상선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1년 전 갑상선암이 폐에 전이 돼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약효가 전 같지 않아서 의료진으로부터 장기적으로는 다른 치료제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 때문에 지금까지 돈을 많이 썼는데 건강보험도 안 되는 약까지 쓰면 가족들에게 더 큰 짐이 될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br/><br/> 전문가들은 갑상선암의 경우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병 연령대가 낮아 재발확률도 이론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특히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듣지 않는 환자의 경우 병기가 높거나, 재발·전이된 환자가 많아 이미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B씨는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보험이 안 되면 그림의 떡이다. 마지막 생명줄까지 붙잡고 싶어 하는 환자들에게 제발 희망고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암 투병만으로도 힘든데 비용 부담까지 이중고를 떠안아야 하는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또 다른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시급한 실정이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8.txt

제목: “수술 대신 빛으로 암 치료” UNIST 연구팀, ‘광역동 치료’ 물질 개발  
날짜: 201609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19211928331  
ID: 01100201.2016091921192833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권태혁·임미희·이현우 울산과학기술원(UNIST) 자연과학부 공동연구팀은 빛을 이용해 암 조직만 골라 파괴하는 ‘광역동 치료’의 원리를 규명하고 광역동 치료에 효과적인 물질을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광역동 치료에 적합한 분자 설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작용원리, 실제 암세포에 적용한 실험결과를 도출했다. 광역동 치료는 주변의 산소를 활성산소로 만드는 광감각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작용원리가 규명되지 못했다. 이들은 또 산소를 활성산소로 잘 만드는 물질인 이리듐을 기반으로 몇 가지 광감각제를 만들었다. 그 결과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나 녹색 빛보다 파장이 긴 빨간색 빛을 활용하는 물질일수록 활성산소를 더 잘 만들어 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점도 밝혀냈다.<br/><br/>김현길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39.txt

제목: 길병원, IBM 인공지능 ‘왓슨’ 내달부터 암치료에 활용한다  
날짜: 201609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9000333518  
ID: 01100201.201609090003335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치료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된다(사진).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이하 왓슨)’로 명명된 클라우드 기반의 인공지능 컴퓨터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가천대 길병원에서 활용된다.<br/><br/> IBM과 가천대 길병원은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왓슨은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들이 암환자에게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하도록 돕는다.<br/><br/> 왓슨은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 등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학습했다. 1초에 책 100만권을 읽는 수준이다. 의사들은 왓슨을 활용해 최신 연구 결과와 임상 가이드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br/><br/> 로버트 메르켈 IBM 왓슨 헬스종양학 및 유전학 글로벌 총괄사장은 “<span class='quot0'>의학 문헌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 2020년에는 40일마다 정보량이 2배로 성장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실적으로 모든 정보를 의사가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왓슨은 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이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 사업단장은 “<span class='quot1'>치료법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의사이고, 왓슨은 의사가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span>”고 강조했다.<br/><br/> 가천대 길병원은 왓슨을 유방암, 폐암, 대장암, 직장암, 위암 등 국내에서 많이 발병하는 주요 암 치료에 다음 달부터 활용할 예정이다. IBM은 길병원과 함께 한국어와 국내 의료 가이드라인에 맞춘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br/><br/>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0.txt

제목: “바이오헬스 육성”… 수출 2배 ↑·일자리 18만개 창출  
날짜: 2016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8181242668  
ID: 01100201.20160908181242668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2020년까지 보건산업 수출을 현재의 배인 20조원까지 늘리고 일자리도 18만개 더 창출하는 보건산업 종합 청사진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정밀의료 기술 및 희귀·난치병 치료제 개발 등으로 국민 건강수명도 76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br/><br/>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그간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문별 대책은 있었지만 종합 육성 방안이 수립된 것은 처음이다.<br/><br/> 먼저 정밀의료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정밀의료는 유전체 정보 등 건강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암 환자의 경우 현재는 표준치료에 따라 항암제를 처방하지만 정밀의료 도입 시 가족력, 생활습관 정보 등을 종합해 표적치료제를 처방한다. 이를 위해 최소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정밀의료 자원을 수집·축적할 예정이다. 3대 진행성 암인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체 자료도 확보한다. 표적치료제 개발을 통해 2014년 8.4%였던 3대 진행성 암의 5년 생존율을 2025년 14.4%까지 높일 방침이다. 정밀의료 기반 치료 시 국민의 건강수명도 2013년 73세에서 2025년 76세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손상된 인체 기능을 복원하는 첨단재생의료법도 제정해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대한 신속한 치료를 지원한다. 병원 내 신속 적용 제도를 도입해 환자가 사용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2∼5년에서 3개월 내외로 대폭 단축한다.<br/><br/>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시장에 대한 투자도 늘린다. 현재 3개에 불과한 글로벌 신약을 2020년까지 17개로 늘리고, 2018년까지 국내 기업 2곳이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미국·유럽(100%), 일본(59%)에 비해 떨어지는 백신 자급률(39%)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116억원을 투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한다. 2019년 3300억 달러로 확대될 글로벌 화장품 시장 공략을 위해 피부과학 원천기술과 항노화 제품의 원천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글로벌 톱10 화장품 기업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br/> 또 2018년까지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2조8400억원을 투입한다.<br/><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1.txt

제목: [신약강국 현장을 가다] 녹십자 박두홍 종합연구소장, 신약 제품화 완성까지 ‘가치 사슬’ 움직여야  
날짜: 2016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4193819914  
ID: 01100201.2016090419381991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가치를 키워가는 ‘가치 사슬(Value Chain)’이 한국에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제품화 최종 단계를 책임지는 제약기업의 역량과 성공경험의 축적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r/><br/> 녹십자 박두홍 종합연구소장(부사장)은 ‘신약강국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묻자 이같이 밝혔다. 박 소장은 “<span class='quot0'>신약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투입되고, 후보물질 도출부터 CMC 개발, 비임상, 임상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제품화가 완성되는 프로세스</span>”라며 “<span class='quot0'>이 과정이 성공하기까지는 어느 한 연구자의 역량만으로 부족하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감당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그를 만난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녹십자 중앙연구소다. 연면적 2만8330㎡(8600평) 규모의 이곳은 우리나라 백신 및 혈액제제 분야 연구개발(R&D)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회사 창립후 50여년간 연구자들은 이곳에서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며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녹십자는 B형간염 백신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국산 신약인 헌터증후군 치료제를 개발했다. <br/><br/> 박 소장은 녹십자의 신약 후보 물질 연구를 담당하는 목암연구소의 수석연구원과 소장을 거쳐, 지난 2012년 말부터 녹십자 종합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회사에서 23여년을 연구개발에만 주력해왔다. 목암연구소와 종합연구소가 서로 공조하며 신약 개발 및 임상에서 좋은 성과물을 내고 있다. 지난 20년 간 국내 연구개발 상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박 소장은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며 “당시만 해도 제네릭 중심의 제약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녹십자를 포함해 한미약품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해 성과를 내는 단계에 왔다”고 술회했다.<br/><br/> 박두홍 소장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안 팔리면 소용이 없다. 차별화 된 의약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신약개발에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사는 혈액제제와 백신 분야에서 집중을 해 온 결과,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내놓았다. 앞으로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br/><br/> 녹십자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백신, 바이오의약품 합성신약 등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뉜다. 녹십자는 40여년 동안 백신과 혈액제제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다. 인플루엔자 4가 예방백신(유정란), 조류인플루엔자A(H5N1) 백신, 수두백신,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백신, 탄저균 백신 등 다양한 백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혈액제제 분야에서도 기대가 되는 제품도 있다. 지난 2년 간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이하 IVIG)’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br/><br/> 눈에 띄는 분야는 ‘바이오의약품’ 영역이다. 녹십자는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인 ‘헌터라제’(미국 임상 2상)과, 선천성 면역결핍증 치료제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미국 허가 신청)’, A형 혈우병 치료제인 ‘그린진에프’(글로벌 3상)를 국내에서 기출시했다. 또 다른 바이오의약품으로는 B형간염 항체치료제 ‘GC1102’(2상)를 준비 중이다. <br/><br/> 앞으로 기대가 되는 치료는 항암제다. 녹십자는 대장암 치료제 ‘GC1118A’와 유방암(허셉틴의 바이오베터) 치료제 ‘MGAH22’ 등을 개발해 임상을 진행 중에 있다. 박 소장은 대장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머크가 개발한 얼비툭스가 대표적인 대장암치료제인데 우리는 이 표적항암제와 다른 부위를 바인딩한다. 기존 항암제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다만 국내에서 임상3상을 끌어가기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2상 초반부터는 라이센싱아웃을 통한 개발 전략으로 계획 중</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최근 제약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면역’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이다. 녹십자는 백신 개발을 오랫동안 하면서 면역 분야에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았다. 박 소장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이용해 암과 싸우는 ‘면역항암제’도 관심 분야다. 면역관련 바인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살피고 후보물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신약개발 단계 마다 위기는 따르기 마련이다. 박 소장은 “신약개발은 정신(spirit)만 갖고는 안되고,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오랜 연구개발을 통해 터득한 것은 문제를 조기에 빠르게 노출해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다. ‘문제가 있는 것을 없게 하는 것’이 연구 아니겠느냐”며 “후보물질이 나왔을 때 임상 시험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자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왔다. 쉽게 설명하면, 모든 연구자가 자신이 개발하는 후보물질에 대한 애착이 강할 수 밖에 없다. 프로젝트의 리더는 자신의 약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흐려질 수 있다. 이럴 때 안전성, 약의 효능 등을 객관적으로 체크하고 제품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제약산업을 꼽았지만 여전히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소장은 “<span class='quot0'>정부의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일관되고 길게 가져기발 바란다</span>”고 당부했다. 녹십자는 SK케미칼 등과 선의의 경쟁도 펼치고 있다. 그는 “<span class='quot0'>우리는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곳을 늘 찾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한미약품 같이 랩스커버리 플랫폼 등의 강점을 가진 회사들과 콜라보를 한다면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신약개발과 관련 박두홍 소장은 “우리나라가 제약 분야에 있어서 사실 매출이나 규모는 아직 다른 영역에 비해 영세하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가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2.txt

제목: 정밀의료를 국가전략으로… ‘醫토피아’ 열리나  
날짜: 2016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4192656742  
ID: 01100201.20160904192656742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최근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발표한 가운데, 그 중 하나인 ‘정밀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체정보와 진료정보를 고려한 맞춤의료(유전체 의학)와 건강, 생활환경, 습관(Lifelog) 정보에 기반한 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가 통합된 맞춤형 예측 의료(예방·진단·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본격 추진을 선언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의학계에서 정밀의료는 진료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에 높이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여겨지고 있다.<br/><br/>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5년 내에 국민 건강정보와 AI(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가 개발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에 나선다. 국민들의 성별, 연령, 유전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별 정보를 수집해 연구 및 신약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자원 연계·활용시스템 구축이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의 핵심이다. <br/><br/>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건강정보, 인체자원정보 등 정밀의료를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였다. 하지만 각 기관과 연계가 미흡하고 정보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정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을 통해 정부는 개별기관이 보유한 유전정보(10만명), 의료정보(병원), 건강정보(약 100만명), 생활환경·습관 정보를 ‘정밀의료 정보통합 시스템’ 하나로 관리한다. 또한 이를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미국 100만 코호트(구축예정), 일본 15만 코호트(기구축)를 기반으로 국제공동연구 컨소시엄도 추진 중이다.<br/><br/> 맞춤형 의료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정밀의료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밀의료발전특별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말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검사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며, 유전체 의학,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등 정밀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도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전문가에 대한 재교육 과정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250억원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며 현재 5개 과제에 대한 예산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밀의료분야에 정부는 5년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br/><br/> 정밀의료를 통해 암 부터 정복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인 3대 암(폐암, 위암, 대장암)과 관련한 1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항암 진단·치료법이 개발되고 실제 환자에 적용한 환자는 유전체, 생활습관 등 자신의 특성에 맞는 치료법과 의약품을 처방받게 된다.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 등 불필요한 비용은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해 이에 맞는 건강관리로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br/><br/>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및 첨단 모바일 기기’도 개발한다. 직장인, 신고령층(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디지털 도구에 적응력이 향상된 50∼60대 인구), 암 생존자들이 그 대상이다. 또한 올 초 이세돌 기사와 바둑대전으로 화제가 됐던 AI 인공지능 기술도 활용된다. 정부는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정밀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진단·치료 지원 시스템(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도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시스템이 실제 환자 치료 등 임상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국내 연구중심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상·임상적 유효성 검증도 진행된다. <br/><br/> 이러한 기반이 마련되면 제약기업은 유전체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 신약개발 성공확률을 높이고, 유전질환 등 난치병 치료약 개발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다. 연구자 또한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연구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br/><br/> 정부의 정밀의료 발전 추진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먼저 산업계는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한 전반적인 헬스케어 산업이 진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br/> 김홍진 인성정보 U헬스산업본부 이사는 “모바일 등 스마트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영역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시장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새로운 기술의 수용도가 높고 IT기술 수준도 상당하기 때문에 의료와 ICT,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있게 성장할 역량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이사는 “<span class='quot0'>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정보, 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span>”고 덧붙엿다.<br/><br/> 의료계는 유전체 의학 발전 및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현장의 질병 치료효과를 높이는 등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br/>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span class='quot1'>체계적인 한국형 암 치료시스템을 만드는 시도는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의 폭을 넓히는 일이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span class='quot1'>다만 국내의 의료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인데 국민의 의료정보 등을 산업계에 개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의 수순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span>”고 말했다. <br/><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3.txt

제목: [인터뷰] 박웅양 삼성유전체연구소장 “유전체의학 치료활용 수준까지 향상”  
날짜: 201609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904192656097  
ID: 01100201.2016090419265609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나이, 성별, 생활패턴, 유전체 등의 정보가 현재의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에 관한 빅데이터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등을 예측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span>” 박웅양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장은 정밀의료를 통해 변화될 미래의료의 모습에 대해 이같이 예견했다. 박 소장은 “<span class='quot1'>정밀의료는 기존의 유전체 의학과 관련 빅데이터 등의 연구가 실제 환자 치료에 활용될만한 수준까지 올랐다는 것을 보여준다</span>”며 “<span class='quot1'>환자 치료에 있어 ‘정답’을 찾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박 소장이 속한 삼성유전체연구소에서는 유전체 연구와 유전체 분석으로 나온 생물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술 등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계는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 분석, 암 유발 유전체 파악 및 치료법 연구 등 유전체와 관련한 연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정밀의료 개발을 추진한 배경에는 이러한 높은 의료수준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인 3명 중 1명에게 발병하며 재발률이 높은 ‘암’도 정밀의료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r/><br/> 박 소장은 “<span class='quot1'>이전에는 동일한 항암제를 여러 암 환자에게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유전체 등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맞는 정교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암 환자 개개인에게 가장 최적화된 표적 항암제를 찾아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감소하는 방향</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정밀의료에 있어 새롭게 떠오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NGS)은 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으로 통해 나오는 여러 개의 유전자와 맞는 표적항암제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던 분석기법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도 크게 절약돼 활용도가 높다. 한 사람의 유전체 분석 시 보통 1TB(테라바이트) 상당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되는 지도 중요한 지점이다. 유전체 검사를 시행함으로 인해 환자에 맞는 치료제를 매칭하는 한편, 다양한 데이터를 마련해 표적 항암제 등 치료제의 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br/><br/>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치료법에 대한 해답이 100%나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표적 항암제의 수는 암의 종류 및 다양한 암 유발기전에 비하면 적은 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료 효과는 기대해볼만 하다.<br/><br/> 박웅양 소장은 “대개 암 환자의 유전체 분석으로 50%의 환자는 어떤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결과가 나온다. 이는 대개 기존 치료법에 비해 2배 정도 치료 반응이 좋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소장은 “<span class='quot1'>유전자 검사로 유전자의 변이가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실시해 실제 치료에 있어 활용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 의료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활발한 표적항암제의 개발과 치료제 적용 대상 암종 및 치료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전미옥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4.txt

제목: [헬스 파일] 자외선 노출 피부암 주의  
날짜: 2016082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29175001852  
ID: 01100201.201608291750018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국적으로 온열질환 환자를 2000여명이나 발생시킨 폭염이 한풀 꺾였다. 하지만 지금부터 가을볕을 경계해야 한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하지만, 한 낮엔 따가운 가을 햇살을 받으면서 늦더위가 이어지는 날씨도 피부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br/><br/>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자칫 소홀히 하면 피부암에 노출될 수 있다.<br/><br/> 피부암은 피부에 암세포가 발생해 성장하고 다른 기관에까지 전이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암은 악성 흑색종 같이 극히 일부만 제외하곤 대부분 조기 진단할 경우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다. 다만 피부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점이나 다른 피부병으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 전이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각 발견으로 벌써 전이가 시작된 경우가 적잖다.<br/><br/> 피부암은 자외선, 흡연,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오래된 화상 흉터와 같은 상처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중 피부암 발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원인이 바로 자외선이다. 악성흑색종과 기저세포암은 어린 시절의 자외선 노출이 어른이 된 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피부암 예방을 위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인공 태닝(살 태우기)을 2013년부터 금지하고 있는 이유다.<br/><br/>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특히 자외선차단제(선크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선크림은 자외선B 차단지수 SPF 30 이상과 자외선A 차단지수 PA+ 이상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br/><br/> 또 오랜 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2시간마다 1번씩 선크림을 덧바르고, 긴 소매의 옷을 입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부러 피부를 갈색 톤으로 태우는 인공 태닝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피부암 발생을 재촉하는 행위나 다름없다.<br/><br/> 피부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검은 점이 새로 생겼다든지 이미 있던 점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고 통증을 느끼게 됐다면 일단 피부암을 의심하고, 전문의 진찰을 받아봐야 한다.<br/><br/>글=김희수 국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 삽화=공희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5.txt

제목: ‘당생물학적 뇌치유 상담 무료 세미나’ 여는 손매남 박사 “뇌 세포 건강이 정신 건강 원리”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16203944676  
ID: 01100201.2016081620394467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뇌세포가 건강하면 뇌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이번 뇌 치유상담 무료강좌엔 당생물학(Glycobiology)을 집중적으로 소개합니다. 당생물학은 건강과 질환에 있어서 당(Sugar)의 역할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입니다.”<br/><br/>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 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남 박사는 22일(월) 오후 1∼4시 서울 충정로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801호에서 ‘당생물학적 뇌 치유 상담 무료 세미나’를 개최한다.<br/><br/> 이번 강좌는 정신건강의 근본이 되는 뇌를 통한 치유상담을 연구하는 한국상담개발원이 몸과 마음, 정신적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 코헨대학교의 후원을 받아 특별히 마련됐다.<br/><br/> 자연계는 200여 종류의 단당류(monosaccharides)가 존재하지만 이 중 8가지 당(갈락토스, 포도당, 만노스, 퓨코스, 엔-아세틸뉴라민, 엔-아세틸갈락토사민, 엔-아세칠글로코사민, 자일로스)만 우리 몸에 유익한 필수 영양소 역할을 한다.<br/><br/> 이 8가지의 당을 ‘글리코 영양소’라 부르며 이 당들은 세포간의 교신(의사소통)을 통해 면역기능에 필수물질로 작용, 스스로를 질병에서 치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br/><br/><br/><br/> 세포건강은 치유의 근본<br/><br/> 60조 내지 100조 세포로 구성된 우리 몸은 1개의 세포에 10만개의 당사슬이 있어 이들이 자연치유력과 면역기능, 항상성 기능을 유지해 세포를 건강케 함으로 몸의 건강을 지킨다. 그러나 당사슬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면역장애나 뇌 정신건강에도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자가면역질환만 분류해도 100가지가 넘으며 관절염, 제1형 당뇨병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질병은 면역기능이 건강한 조직들을 공격해 생기는 병이다. 면역기능이 너무 약하면 감기나 독감·암이나 에이즈 등의 저면역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면역기능이 너무 활발하여서 생기는 과면역장애인 각종 알레르기, 천식, 비염, 습진,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br/><br/><br/><br/> 뇌세포건강은 정신건강의 원리<br/><br/> 뇌 신경세포가 잘못 기능하게 되면 중추신경계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뇌간증이나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등의 뇌 신경학적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뇌 정신장애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자폐증, 학습장애, ADHD, 불안장애, 중독 등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글리코영양소는 태아기의 뇌 발달 뿐만 아니라 뇌신경조직의 주 구성요소인 당지질을 합성하는 물질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글리코영양소는 신경수초와 뇌신경세포막의 주요 구성 물질이기에 부족하면 뇌기능의 이상을 초래,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뇌 세포 건강은 정신건강의 원리며 뇌치유상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br/><br/><br/><br/> 몸과 정신의 건강은 세포건강에 달려있다.<br/><br/> 우리 몸의 세포는 면역세포, 근육세포, 내피세포, 뇌신경세포 등 200여 가지가 넘고 수명도 각각 다르다. 그렇지만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특히 뇌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글리코영양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정신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이번 세미나서 자세히 다룬다.<br/><br/> 미국 코헨대학교 에서는 세미나와 함께 출간되는 “세포건강, 뇌 정신건강”의 당생물학적 뇌 치유 상담 저서를 상담대학원의 교재로 선정했으며, 치유상담자료로 제공키로 했다.<br/><br/>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에서는 가을학기 정규 수강생도 모집하며 이는 9월5일(월) 개강한다. 이번 무료세미나와 신입생 관련 문의는 1544-7509로 전화하면 된다.(www.kcdi.co.kr/web/)<br/><br/>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5) 서울성모병원 피부암흑색종클리닉] 한국형 흑색종 연구 ‘새바람’  
날짜: 201608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16043055816  
ID: 01100201.2016081604305581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양권에선 흔치 않은 병이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피부암, 한국형 흑색종 연구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br/><br/> 서울성모병원은 15일 암병원 피부암흑색종클리닉 다학제 협진팀이 최근 1년간 다양한 통합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 악성흑색종 환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국형 진단 및 치료법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는 피부암흑색종 다학제 협진 교수진 20여명이 모두 참여한다. 성형외과 이종원·김지민 교수팀, 피부과 박영민·이지현·서현민 교수팀, 정형외과 정양국·신승한 교수팀, 핵의학과 유이령·박혜림 교수팀, 종양내과 강진형 교수팀, 방사선종양학과 원용균 교수팀, 병리과 박경신 교수팀, 안과 양석우 교수팀이 그들이다.<br/><br/> 팀장은 성형외과 이종원(60) 교수가 맡았다. 재건성형 전문가인 이 교수는 최근 10년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인공뼈 대체수술법과 줄기세포를 바탕으로 한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을 집중 연구해왔다. 포스텍(포항공과대) 기계공학과 조동우 교수팀과 공동으로 실제조직과 같은 성분의 인공조직을 만들 수 있는 3D 바이오 잉크도 개발했다. 실제 조직이나 장기를 여러 화학물질로 처리해 세포만 제거한 조직으로 바이오 잉크를 만들고, 여기에 중간엽 줄기세포를 넣어 인공 조직을 만드는 신기술이다.<br/><br/> 이 교수는 앞으로 협진 팀원들과 함께 악성흑색종과 관련이 있는 브라프(BRAF) 유전자 확인 및 맞춤 치료기술,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한국형 흑색종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법을 찾을 계획이다. 악성흑색종과 감별이 필요한 다양한 피부 질환에 대한 한국형 진단 및 치료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관련 학술연구 정보도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월 1회 개최하던 협진회의(월례회)도 최근 2주에 한 번씩 월 2회로 늘렸다.<br/><br/> 피부암에는 악성흑색종과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등 3종류가 있다. 이 가운데 악성흑색종은 검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검은 점 형태로 자라는 피부암이다. 우리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멜라닌세포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생길 수 있다. 자외선 노출이 심한 피부에 많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만약 손바닥이나 발바닥 등 멜라닌 색소세포가 많지 않은 부위에 갑자기 점 같은 게 생겼다면 악성흑색종으로 발전할 확률이 높다</span>”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br/> 현재 한국인 피부암 조(粗)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8.3명꼴이다. 조발생률이란 해당 관찰기간 중 조사대상 인구집단에서 새롭게 발견된 환자 수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피부암흑색종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3223명(남자 1437명, 여자 1786명)으로 집계됐다.<br/><br/> 미국에선 해마다 비(非)흑색종 피부암의 하나인 기저세포암 환자가 약 80만명, 편평상피세포암 환자가 약 2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 흑색종 환자 발생도 연간 약 6만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미국의사협회지).<br/><br/> 피부암은 햇빛 속 자외선 노출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햇빛 노출이 많은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흑색종,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등 각종 피부암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br/><br/> 서울성모병원 피부암흑색종클리닉 다학제 협진팀은 이 같은 역학 못지않게 약물에 대한 반응과 피부암 환자들의 생존율 조사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데이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데이터를 비축하기 위해서다. 이 교수팀은 향후 한국인 흑색종에 대한 유전자 지도를 작성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흑색종 진단 및 치료지침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동양인의 발병 패턴이 서양인과 차이가 있듯이 흑색종 발병 양상도 꽤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 만큼 약을 쓸 때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치료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지금까지 국가중앙암등록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암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진 한국인 흑색종 환자의 남녀 성비는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0.8대 1이다.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많은 편이다.<br/><br/> 연령별로는 60대가 전체의 24.4%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50대 20.4%, 80대 이상 13.2%, 40대 10.5%, 70대 10.4%, 30대 4.8% 등의 순서다. 우리나라 흑색종 환자 10명 중 6.8명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이란 말이다.<br/><br/> 누구에게 발생하든 악성흑색종은 가능한 한 초기에 발견, 그 뿌리를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주위 혈관과 림프절을 타고 다른 장기로 전이도 잘 되는 암이라서 첫 진단 시 전신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수적</span>”이라고 말했다.<br/><br/> 이 교수팀은 흑색종 진단 및 치료 시 림프종조영술, 감마선 촬영기, PET-CT 등 다양한 방사선 검사와 핵의학 검사들을 총동원한다. 의심되는 병변이 있을 때는 조직검사도 병행한다. 정밀 진단 및 개인 맞춤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다.<br/><br/> 수술이 가능할 때는 일반적인 암 수술보다 더 꼼꼼하고 보다 많은 조직을 살릴 수 있는 모스(Moh’s) 미세수술을 통해 절제범위를 최소화함으로써 미용효과까지 높여주고 있다. 수술 후 발생하는 연부조직 결손은 체계적인 재건수술을 통해 정상화를 도모한다.<br/><br/>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때는 인터페론 주사와 함께 베무라페닙, 이필리무맙, 다브라페닙, 니볼루맙 등 면역항암제를 쓴다. 분자생물학 및 종양면역학의 발전으로 개발된 면역항암제 치료는 체내의 면역세포를 조절하여 암세포를 공격하고 조절하는 방법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7.txt

제목: 대사물질 조절로 난치병 치료 길 열었다  
날짜: 201608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9202334854  
ID: 01100201.2016080920233485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생체 대사물질이 줄기세포 초기 분화단계의 타이밍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윤홍덕(사진) 서울대 교수팀이 대사물질 중 하나인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양적 변화에 따라 줄기세포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세포 분화 초기에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양을 증가시키면 세포분화가 지연되는 것을 확인한 후 해당 물질의 양적 변화가 줄기세포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앞으로 대사물질 조절이 암을 비롯한 난치병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8.txt

제목: 차바이오텍, 美 최고 항체신약 개발사와 항암면역세포치료제 개발 합작법인 설립  
날짜: 201608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8201331968  
ID: 01100201.2016080820133196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바이오텍(대표 최종수·사진)은 미국 최고의 항체신약 개발 전문회사인 ‘소렌토 써래퓨틱스’사와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고 ‘CAR-NK’ 세포치료제를 공동 개발해 산업화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CAR-NK 치료제란 기존 암 치료법 중 하나인 ACK(활성화된 자연 살해 세포) 치료를 보완, 항암 효과를 강화한 것이다.<br/><br/> NK세포를 70%이상 활성화한 ACK세포를 암 환자한테 투여하면 암세포가 일부만 죽는 경우가 적잖았다. 하지만 CAR-NK치료제를 투여하면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히 표적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다. 크루즈 미사일과 같이 표적 암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CAR(키메릭 항원 수용체) 유전자를 결합해놓은 덕분이다. 소렌토 써래퓨틱스사는 이런 CAR유전자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바이오기업이다. 미국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다.<br/><br/> 차바이오텍은 자사의 NK세포 대량생산 기술에 소렌토 써래퓨틱스사의 CAR유전자 제작기술을 더하면 획기적인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49.txt

제목: [진료실에서] 어떤 폐암환자의 우군 ‘면역항암제’ 2∼3달새 호전돼 일상생활도 가능  
날짜: 201608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7205625274  
ID: 01100201.2016080720562527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몇 달 전 40대 남성 폐암 환자가 보호자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을 찾았다. 환자는 이미 화학항암제 등 3가지 종류의 항암치료를 시도했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폐암 중 가장 흔한 유형인 비소세포폐암중 선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였는데 흉수가 차서 호흡이 힘들고 뼈 전이, 림프 전이가 심하여 극심한 통증으로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환자에게 사용해볼 수 있는 치료옵션은 면역항암제였다. 2주 간격으로 면역항암제를 네 차례 투여했을 때 약효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종양의 크기도 현저히 줄어든데다 이전에 있던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됐다. 면역항암제로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br/><br/> 지난 4월부터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면역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항암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면역항암제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항암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예로 다른 장기에 암이 전이된 4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니볼루맙으로 치료했을 때 환자의 51%가 1년 시점에서 생존한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비소세포폐암은 암세포가 발생한 폐의 구성세포 종류에 따라 편평 비소세포폐암과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으로 나뉘는데 편평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화학항암제(도세탁셀)이 나온 이후 근 20여년 간 새로운 치료제가 없었을 정도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다. 때문에 니볼루맙의 등장은 폐암의 조직학적 특성과 상관없이 기존 화학항암제 대비 생존기간을 연장시켰다는 점과 부작용이 적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br/><br/>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암세포를 찾아내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암세포가 이 면역반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면역반응을 억제하거나 회피하는 기전을 통해 점점 더 증식하게 된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로 인해 비활성화 된 면역세포를 다시 활성화시키거나 암세포로 인한 면역세포의 비활성화를 막아서 암을 치료한다. 즉, 암세포를 없애는 동시에 정상세포까지 파괴하는 화학항암제나 특정한 유전자 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항암제와는 다르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면역항암제의 전에 없던 새로운 기전은 생존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항암치료에 수반되는 부작용 발생 빈도와 독성을 낮춘다. <br/><br/> 이처럼 환자들에게는 혁신적인 치료제이나 면역항암제가 새롭게 개발된 신약인 만큼 치료에 앞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환자의 전신 상태, 비소세포폐암 종류, 유전자 변이 등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부작용이 적으나 기존의 약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이기 때문에 초기에 환자 상태를 긴밀하게 살피고 치료 중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면역 항암제를 사용한 임상 경험이 많은 종양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가의 항암제이기 때문에 비용효과성도 고려해야 한다.<br/><br/> 폐암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조기발견이 어렵고 치료 예후도 나쁘다. 폐암 치료에 있어 면역항암제는 앞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암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br/><br/>김혜련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0.txt

제목: 암 전이 조기 발견 가능한 영상진단 기술 개발  
날짜: 201608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801200628558  
ID: 01100201.201608012006285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癌) 전이를 보다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영상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몸 안에서 부작용과 독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추가 연구를 거쳐 5∼10년 내에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br/><br/> 경북대병원 핵의학교실 전용현(사진)·이재태 교수팀은 고려대-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융합대학원 임동권 교수와 함께 암 전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각종 질병의 오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체영상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스몰’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 암의 전이 여부는 통상 ‘감시 림프절’을 탐지해 확인한다. 암이 가장 먼저 전이되는 게 ‘감시 림프절’이다.<br/><br/> 연구팀은 “기존에는 암 조직에 염색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감시 림프절을 찾아낸 뒤 직접 떼어 내 전이 여부를 확인했다”면서 “이번에 조직을 떼 내지 않고 영상 촬영을 통해 감시 림프절 전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 연구진은 암 세포에 민감한 방사선 동위원소에 미세한 금 입자를 결합해 민감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인 ‘조영제’를 개발했다. 조영제는 영상 촬영에서 표적이 되는 기관이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전 교수는 “<span class='quot0'>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환의 조기 진단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1.txt

제목: 암 치료용 ‘마이크로 로봇’ 나왔다  
날짜: 2016072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6181008805  
ID: 01100201.2016072618100880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조직을 스스로 찾아가고, 탑재한 항암제를 정확히 방출해 암을 치료하는 의료용 ‘마이크로 로봇’이 개발됐다. 암세포의 중심부까지 침투하고 인체에 거부 반응이 없는 면역세포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일보한 항암치료 기술로 평가받는다.<br/><br/>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석호 교수와 한지원 박사 연구팀은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에 자성(磁性)을 띠는 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구조체와 항암제를 함께 탑재해 대장·유방·췌장 등 고형장기에 생긴 암을 추적·치료하는 직경 2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의 로봇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 대식세포는 몸 안에 침입한 세균 등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항암제와 자성을 띠는 산화철, 생체에 적합한 폴리머(고분자) 등으로 나노 입자를 만든 뒤에 쥐에서 뽑은 대식세포와 결합했다. 대식세포는 나노 입자를 외부물질로 인식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만든 대식세포 기반 약물 전달체를 주사로 혈관에 투입한 후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혈관을 타고 암 발생부위까지 능동적으로 이동한다. 이런 성향 때문에 ‘마이크로 로봇’으로 불린다.<br/><br/> 수없이 많은 마이크로 로봇을 암 부위에 위치시킨 뒤 외부에서 열이나 초음파를 쬐어주면 자동으로 터지면서 항암제를 내뿜어 치료를 한다. 연구팀은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에 적용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50∼60% 높은 암세포 사멸 효과를 얻었다. 한 박사는 “<span class='quot0'>대식세포는 특히 혈관이 거의 없는 암 조직의 중심부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항암제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2.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72)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클리닉] 시대 이끄는 名칼잡이들  
날짜: 201607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25172726766  
ID: 01100201.2016072517272676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고려대구로병원 산부인과가 각종 부인과 질환을 로봇수술로 치료해 한국 여성건강 지킴이의 선두에 서겠다고 25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새로 도입한 로봇수술 시스템 ‘다빈치Xi’를 올해 들어 각종 부인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 도화선이다. 로봇 수술이란 첨단 수술 기구인 로봇을 환자의 몸에 장착하고 수술자가 원격 조종하여 시행하는 복강경(골반경) 수술을 말한다.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그 틈으로 내시경을 집어넣어 수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복강경 수술을 ‘골반경’ 수술로 부른다.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이 주로 자궁, 난소, 생식기 등 골반 내 장기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br/><br/> 다빈치Xi 시스템은 환부를 3차원 입체영상으로 확대해 보여주는 수술용 카메라와 로봇 손(팔)을 환자의 몸속에 삽입한 후 의사가 원격 조종해 수술을 진행한다. 현재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클리닉에서 사용하는 다빈치Xi 모델은 현존하는 최고 사양의 로봇수술 시스템이다. 기존 기종보다 훨씬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집도의가 다양한 각도에서 수술시야를 확보하고, 실제와 거의 똑같은 초고화질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환부를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주위 신경과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을 정교하게 진행해 수술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br/><br/> 첨단 의료장비일수록 뛰어난 의료진과 함께 할 때 효과가 배가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로봇수술클리닉은 같은 기종의 로봇수술 장비를 갖춘 국내 어느 병원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최우수 교수들로 의료진을 구축했다.<br/><br/> 현재 산부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신정호(44) 교수와 이재관(51), 김용진(45), 홍진화(42) 교수팀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골반경클리닉, 부인암클리닉, 폐경기클리닉, 불임클리닉, 가임력보존클리닉 등 5개 특수클리닉을 기반으로 로봇수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로봇수술에 관한 최신 정보와 지식은 물론 수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워크숍과 심포지엄도 수시로 연다. 1980년대 중후반 부인과 질환 치료에 골반경 수술을 도입해 국내 최초로 골반경 광범위 전(全)자궁절제 수술에 성공하며 국내 의료계에 ‘골반경 바람’을 일으킨데 이어 지금은 ‘로봇 골반경(복강경) 수술’ 시대를 선도할 기세다.<br/><br/> 로봇수술은 집도의가 로봇 팔을 빌려서 진행하는 수술이라 복강경 수술경험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안전성과 치료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신정호 교수팀은 최근 30년간 연평균 1000건 이상의 골반경 수술을 집도해 왔다. 그 결과 로봇수술을 임상에 적용하는데 흔들림이 없다.<br/><br/> 특히 자타 공인 ‘칼잡이’로 정평이 난 이재관 교수는 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에 대한 골반경 수술 경험을 로봇수술에서 그대로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인암 전문 홍진화 교수는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복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난소암 치료에도 로봇 골반경 수술을 적용해 높은 생존율을 시현하고 있다. 부인암 수술 시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 시야가 더 넓어지고 선명해진다. 림프절 절제나 ‘자궁방 조직’ 절제와 같은 고난이도 수술을 할 때 합병증, 신경 손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점이 있다.<br/><br/> 현재 로봇수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부인과 질환은 자궁근종이다. 자궁근종절제술은 자궁을 보전하면서 근종만 절제한 후 정확하고 정교하게 봉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자궁 근종의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깊을 경우 복강경 수술만으로는 정밀도에 한계가 있어 향후 임신 시 자궁파열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 그동안 자궁근종 환자가 미혼 여성일 경우 개복수술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br/><br/> 홍 교수는 “<span class='quot0'>자궁근종을 절제해야 하지만 가임 능력을 유지시켜야 하는 경우에 특히 로봇수술이 유용하다</span>”며 “<span class='quot0'>수술 시 미세한 손 떨림까지도 잡을 수 있어 보다 세밀한 봉합을 통해 수술 후유증 및 합병증을 극소화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수술 흉터도 작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이점까지 누리게 된다. 불임 전문인 김용진 교수는 “<span class='quot1'>불임환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 로봇을 활용하면 조직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술 후 임신 성공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span>”고 덧붙였다.<br/><br/> 로봇수술은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폐경 이후 자궁이나 방광, 직장 등이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병이다. 이 분야는 신정호 교수가 전문이다. 신 교수는 최근 로봇수술을 골반 장기 탈출증 치료에 적용해 장·노년 여성들을 100명 이상 구해줬다. 신 교수는 그물망으로 장기를 받쳐줘 질 쪽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는 한국형 그물망 수술법도 개발했다. 신 교수는 “<span class='quot2'>골반경 수술 시 로봇을 이용하면 수술 후 환자 삶의 질도 훨씬 좋아져 만족도가 높다</span>”며 “<span class='quot2'>부인과 질환 치료에서 로봇수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3.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김태유 서울대암병원장] “축적된 연구 바탕 정밀의료에 총력”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200248434  
ID: 01100201.201607172002484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서울대암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암(癌)분야의 정밀의료 플랫폼을 잘 구축하고, 모든 환자가 최상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실현에 앞장 설 것입니다.</span>”<br/><br/> 서울대병원 김태유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1'>최근 의료가 ‘근거중심의료’에서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요인을 분석해 치료하는 ‘정밀의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암병원도 그간 축적된 임상·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밀의료의 임상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그는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서울대암병원 수장이다. 서울대병원은 2011년 3월 지상 6층·지하 4층 규모의 암병원을 개원했다. 암종별 센터 16개, 통합암센터 10개, 암정보교육센터·종양임상시험센터 등 총 28개 센터를 두고 암 치료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로 개원 5년차를 맞은 서울대암병원은 그 동안 진료역량 강화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왔다. 일평균 외래환자수는 2011년 1280명에서 2015년 1909명으로 약 49% 늘었고, 외래총환자수 2011년 24만8349명에서 2015년 47만5270명으로 약 91%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암수술 건수만 해도 무려 780건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는 서울대병원의 풍부한 임상·연구경험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접목시킨 덕분이라는 게 김 병원장의 설명이다. <br/><br/> 서울대암병원은 2014년 선정된 보건복지부 지정 연구중심병원 암유닛(Unit)과의 연계를 강화해 임상과 연구를 융합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암맞춤치료센터를 신설했다. 김태유 원장은 “암은 유전자 변화에 의해 생기는데,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암을 일으킨 유전자 변화는 다를 수 있다. 센터에서 유전체 기반 맞춤치료를 시행하는데 이는 암세포의 유전자변이 200∼300개를 차세대유전자기술이라는 방법으로 한 번에 분석해 각 환자에 맞는 올바른 항암제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폐암에서의 EGFR, ALK 유전자, 유방암에서의 HER2 유전자, 대장암에서의 RAS 유전자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br/><br/>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유전체 분석을 위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병원에서도 암환자의 정밀 유전자 분석을 위한 오픈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파운데이션 메디슨’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필요하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NGS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해 급여화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병원에서도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자 맞춤형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r/><br/> 이어 그는 “검증되고 신뢰가 있는 유전체 분석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곧 모든 대한민국 암환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며, 공공의료기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 파운데이션 메디슨은 암 유전체 의학 분야 연구자에게 파운데이션원(FoundationONE)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방암, 폐암 등의 진단과 이 과정에서 도출된 유전정보를 바탕으로 표적 항암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만 약 2만5000여건 임상서비스가 이뤄졌다. <br/><br/> 지난 10여년 사이 암치료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김 원장은 “과거의 진료패턴은 환자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이미 의료계가 맞춤치료 시대로 접어들었고 미래에는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암 치료의 전망은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4.txt

제목: [암과의 동행] 원자력병원 방사선영향클리닉, 방사선 피폭 전문 치료… 재난대응 연구 병행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4547238  
ID: 01100201.2016071719454723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원자력병원은 2010년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전문 진료를 위해 개설한 ‘방사선영향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방사선 재난에 대응한 전문적인 진료, 연구,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br/><br/>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방사선영향클리닉은 축적된 방사선 의료대응 시스템의 운영 노하우로 일본에서 귀국한 방송 취재진, 거주자, 유학생 등 다양한 환자에게 유형별 대응방안의 수립을 통해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방사선영향클리닉은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약 2300여 건의 진료를 실시했다.<br/><br/> 방사선영향클리닉은 여러 진료과의 다학제 진료시스템, 원스톱 외래진료와 함께 입원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동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검진을 통해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의 건강문제를 선별해 고위험군은 추적관찰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생활방사선과 의료방사선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해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종합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br/><br/> 높은 방사선량에 피폭 될 경우 신체 여러 곳에 이상증상이 일어나는 급성방사선증후군과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방사선 피폭 피부손상 치료를 위해 암 치료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함께 전문 연구원도 필요한데, 암전문 병원인 원자력병원의 방사선영향클리닉은 진료와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br/><br/>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 연구소는 있지만, 연계된 병원이 환자 발생시에만 가동되며 일반인 대상 외래진료 창구는 없다. 프랑스도 연구소와 병원이 별도로 존재하며 군 병원에서 담당한다. <br/><br/> 방사선영향클리닉은 2014년 방사선 피폭 환자를 위한 핵심 의료기술인 방사선 피폭 선량평가에 대해 국제표준 ISO 15189를 인정받고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 방사선 피폭 선량평가는 방사선에 피폭된 환자의 염색체를 분석해 피폭선량를 추적하는 기술로서 환자의 치료경과를 평가하고 신속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검사결과를 제공하는 기술인만큼 평가기술의 정확성 및 국제적 공인이 요구되는 분야이다.<br/><br/> 최근에는 방사선영향클리닉의 인체에 대한 방사선피폭 영향검사가 보건복지부의 신 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방사선 관련 작업종사자들과 일반국민들이 좀 더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방사선안전 분야의 연구결과가 의료현장에서 실용화되는 첫 사례로서 산업현장의 방사선안전과 작업종사자 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다.<br/><br/> 진영우 방사선영향클리닉 센터장은 “<span class='quot0'>방사선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피폭환자 발생에 대비한 적절한 의료적 대책으로, 방사선영향클리닉은 적절한 의료적 대책을 통해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span>”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5.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삼성서울병원 근치적 방광 적출 100례 달성 外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2555178  
ID: 01100201.2016071719255517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삼성서울병원 근치적 방광 적출 100례 달성<br/><br/>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08년 첫 수술을 시작한 이래 8년만에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방광 적출술 100례를 돌파했다. ‘근치적 방광 적출술’은 방광암이 방광 근육 조직을 침범했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재발과 진행 위험이 높을 때 시행하는 수술이다. 방광을 포함해 남성은 전립선과 정낭, 여성은 자궁, 난소, 난관까지 적출할 정도로 광범위한 수술이 시행된다.<br/><br/> 병원 측은 “로봇을 이용한 방광 적출술이 개복술에 비해 합병증 발생은 적은 반면, 생존율 등 치료 결과는 유사하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세계 각국 여러 병원들이 점차 술기 적용을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옵디보 대장암 등에서 효과<br/><br/>면역항암제 옵디보가 신세포암, 방광암, 대장암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임상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임상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옵디보 단독요법이 신세포암 및 방광암에서, 옵디보 단독 및 여보이와의 병용요법이 대장암에서 지속적인 효과를 보였다. 프랑스 빌레쥐프의 구스타브 루시연구소 베르나르드 에스쿠디에르 박사는 “과거 진행성 신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12% 미만에 불과했다. 의사들은 그간 옵디보가 장기 생존율을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 CheckMate-025에 나타난 생존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CA209-003과 CA209-010 두 임상시험 결과는 과거 치료받은 적이 있는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가 옵디보를 통해 4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줬다. 이는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옵션으로서 옵디보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직업성 암’ 호흡기계서 최다 발생  
날짜: 2016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7192245707  
ID: 01100201.2016071719224570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 몸속에 암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만약 암이 생겼을 때는 ‘무엇 때문에?’라는 의문을 갖게된다. 잘못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지나친 흡연과 음주 등 암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많다.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중 하나가 직업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다. 이러한 ‘직업성 암’이란 직업 환경 등 직업적 요인을 통해 발암물질에 노출되면서 생기는 암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으로 인한 암 사망률은 전체 암 사망의 약 9.7% 정도로 추정된다.<br/><br/> 대표적인 직업성 암으로는 호흡기계 암, 림프조혈계 암, 방광암, 간암, 갑상선암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호흡기계 암인 폐암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992∼2005년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99건 중, 호흡기계 암이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폐암이 52건을 차지했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화학 물질과 관련한 직업이나 생산 공정 분야의 직업 등이 직업성 암과 연관이 높다</span>”고 말했다. 우선 화학 물질에 따른 암의 종류로는 비소와 비소화합물이 폐암과 피부암, 석면이 폐암과 중피종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벤젠이 백혈병, 콜타르와 광물성 오일이 피부암, 염화비닐이 간암과 폐암, 뇌암, 백혈병, 림프종 발생과 연관돼 있다. 이 외에도 니켈과 니켈 화합물이 부비동암과 폐암, 검댕이 피부암과 폐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br/><br/> 생산 공정에 따른 직업성 암으로는 알루미늄을 생산할 때 폐암과 방광암, 림프육종을 발생시킬 수 있고, 고무 공장에서는 방광암, 백혈병,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 황색 물감 및 빨간 아닐린 물감 제조시에는 방광암, 철과 강철 주조 시에는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암을 일으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대표적인 물질은 석면, 벤젠, 벤지딘,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등이 있다.<br/><br/> 직업성 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비롯해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 교수는 “발암물질에 직업적인 노출이 있었고, 해당 암과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보상이 이루어진다. 작업환경측정 자료 등을 통해 발암물질에 일정 정도 이상으로 노출되었음이 확인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10여 년 전 과거의 노출자료를 구하긴 쉽지 않기에 실제로 직업성 암으로 보상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pan class='quot0'>일반적으로 직업성 암은 전체 암의 4%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나, 국내에서는 실제로 직업성 암으로 보상되는 사례는 이에 10분 1도 채 안 된다고</span>”고 지적했다. <br/><br/> 현재 국내 작업장 발암물질에 대한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작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체계가 열악하다. 또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인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7.txt

제목: 전자파, 100m만 벗어나면 인체 무해  
날짜: 201607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4040133441  
ID: 01100201.20160714040133441  
카테고리: 국제  
본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사드 괴담’이긴 하지만 국방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측면도 강하다.<br/><br/> 우선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다’ ‘불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span class='quot0'>지역 주민이나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br/><br/> 사드의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직접적으로 이 전자파에 노출된다면 건강에 치명적이다. 그러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범위는 전방 100m 반경이다. 사드 레이더는 기지 외부 울타리로부터 500m 안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전자파가 기지 근처 주민에게 불임·암을 유발한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br/><br/> 국방부는 전자파가 성주 참외 등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도 ‘괴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사드가 배치될 방공 기지는 해발 400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레이더를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해 주변 농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br/><br/> 다만 전자파가 하늘을 향해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 탓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역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 5.5㎞ 떨어진 공역을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드가 배치된 뒤 조치할 예정이다.<br/><br/> 또 국방부는 ‘사드가 중국 미사일을 공격한다’는 의혹에 대해 성주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중국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없다고 했다.<br/><br/>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2014년 2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 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갑자기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미국 측에 1조원가량의 분담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br/><br/>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8.txt

제목: 암 세포 악성 정도·전이 가능성 조기에 확인 가능한 단백질 발견  
날짜: 201607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3183039746  
ID: 01100201.2016071318303974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세포의 악성 정도와 전이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해냈다. 피 속의 특정 단백질 양을 측정하면 암을 간편하게 찾아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br/><br/> 고려대 생명과학부 김준(사진) 교수팀은 인간과 동물의 세포실험을 통해 암 세포의 전이와 악성이 심하면 ‘RPS3’라는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고 정상세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br/><br/> 연구팀은 유방암과 피부 흑색종, 섬유육종 등의 암 세포를 배양해 분석한 결과 ‘RPS3’ 단백질은 암의 악성 정도에 비례해 분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따라서 생체 내에서 혈액으로 나온 ‘RPS3’의 양을 조사하면 암 발생 가능성과 진행 정도를 추정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세포 실험단계를 넘어 암 환자의 혈액에서 똑같은 결과가 증명된다면 간편하게 암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져 암 정복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전문 국제학술지 ‘온코타깃’ 최신호에 발표됐다. <br/><br/>민태원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59.txt

제목: 충북도, 바이오연구 벤처 7곳과 1700억 투자협약  
날짜: 201607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712211702595  
ID: 01100201.2016071221170259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충북도는 12일 도청에서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분야의 연구중심 벤처기업 7곳과 1700억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br/><br/> 이번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은 ㈜지플러스생명과학, ㈜메디튤립, ㈜피글, ㈜바이로큐어, ㈜케이메디쿱, ㈜클리노믹스, ㈜SCB라이프사이언스로 국내 대학 교수들이 창업한 연구중심의 벤처기업이다.<br/><br/> 수도권과 다른 지방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청주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에 연구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지플러스생명과학은 유전자가위 편집기술을 이용해 식물에서 치료용 단백질을 생산하는 회사로 5년 이내에 세계 최대의 식물 유전자가위 연구소를 오송에 세울 계획이다.<br/><br/> 메디튤립은 세계 최초로 암 조직 채취와 장기 봉합이 가능한 복강경·흉강경 스테플러를 개발해 세계적인 기업과 기술 이전 협상을 하고 있다. 바이로큐어는 다양한 종류의 항암바이러스를 발견했고 피글은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 의료기기를 개발했다. 케이메디쿱은 녹내장과 안구건조 환자들에게 치료가 가능한 메디컬 푸드를 제공하고 있다. 클리노믹스는 혈액 암 유전자를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CB라이프사이언스는 줄기세포 분리기와 배양기가 일체형으로 된 로봇을 개발했다.<br/><br/> 정부는 2009년 대구와 충북 등 2곳을 첨복단지로 지정했다. 오송 첨복단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 113만1000㎡의 부지에 총 사업비 4조3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된다. 이미 신약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연구개발지원기관이 가동되고 있다.청주=홍성헌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0.txt

제목: “암세포가 흘린 유전자 조각 정보 조직검사 대신 액체검사로 알아낸다”  
날짜: 2016062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27171734641  
ID: 01100201.2016062717173464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생체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 분석하는 조직검사(조직생검)가 조만간 사라지게 되거나, 존속한다고 해도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간단한 혈액검사나 체액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액체검사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br/><br/> 손주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학술대회에서 액체검사와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span>”며 “<span class='quot0'>액체검사를 이용한 맞춤 항암치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span>”고 27일 밝혔다. 조직검사는 생체 내 일부 조직을 채취해 분석하는 진단의학기술이다. 대개 암이 의심될 때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반면 액체검사는 생체 내 조직을 찌르거나(천자) 째지(절개) 않고 혈액, 복수, 타액 등 체액 속에 섞여있는 유전자 조각을 건져내 분석한다.<br/><br/> 손 교수는 “<span class='quot1'>혈액이나 체액을 이용하면 CT, MRI, 초음파 등 방사선 영상에 잡힐 정도로 암 덩어리가 커지기 전에도 암세포가 흘린 돌연변이 암 유전자 조각을 탐지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달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시판을 승인한 ‘코바스 EGFR 돌연변이 테스트’가 대표적이다. 이 검사는 폐암 조직에서 혈액으로 방출된 암 관련 유전자 조각을 환자의 핏속에서 검출하는 액체검사법 중 하나다. EGFR 돌연변이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표적치료제(엘로티닙)를 폐암 환자에게 써도 될지 확인해야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손 교수는 “<span class='quot1'>액체검사는 개인 맞춤 항암치료를 위해 필요한 암유전자 변이 정보를 채혈(採血)처럼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span>”이라며 “<span class='quot1'>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조직검사를 보완하고 대체하는 진단법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span>”고 내다봤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암 극복 정보를 당신 손 안에… 병원마다 앱 개발 붐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210232247  
ID: 01100201.2016061921023224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환자 100만명 시대를 맞으며 암질환 및 치료과정에 대해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스마트폰의 활용이 늘면서 손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개발도 크게 늘었다. 이들 앱은 단순한 정보제공을 넘어 치료를 위한 일정관리부터 치료 후의 관리까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내가 다니는 병원, 내가 먹는 약을 만드는 제약사에서 개발하며 환자의 신뢰도 높다.<br/><br/> 그렇다면 암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암환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정보요구도가 가장 높다. 단순히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들이 아닌 세계의학논문 등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또 자신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는 ‘을’이 되기 때문에 궁금해도 “잘 치료해주겠지”라며 참는 암환자들도 많다. 또 응급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질환자인지 알려줄 수 있는 앱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투병일지,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의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현재 개발돼 있는 앱들은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을까. 삼성서울병원 ‘건강다이어리-암환자수첩’은 일정(치료나 검사, 외래 등의 일정관리), 암치료의 이해(병원이 제공하는 암에 대한 검증된 정보), 치료후 관리(치료 후 생활, 꼭 필요한 연락처), 나의 다이어리(나의 다짐과 심신 기록)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아산스마트암병원’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암 치료과정을 한눈에 보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용은 암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검사 치료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일정’을 비롯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차트’, 주기적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을 위해 항암제에 대한 설명 및 주의점을 알려주는 ‘나의 약관리’, 통증·불편감·불안·우울감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나의 삶의 질’ 메뉴 등 유익한 내용을 제공한다.<br/><br/> 충북지역암센터는 암환자들을 위한 ICT(Info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을 통해 통증·부작용·식이·운동 등에 대해 기록을 하면 입력된 정보가 의료진에게 요약된 통계로 제공된다. 의료진은 이를 통해 환자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위별 통증정도, 돌발통증, 수면 중 통증을 비롯해 구토·피로·설사·변비·발진 등 항암 부작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입력해 보다 세세한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앱 중 한국릴리 ‘지피지기 암치료’앱은 암환자가 자신의 질환 및 치료과정에 대해 쉽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한다. 암정보, 나의치료, 힐링공간, 정부정책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는데 암환자의 다양한 증상 및 관리, 식생활, 생활백서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온라인 질의응답 메뉴도 마련해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2.txt

제목: 음식섭취 조금만 신경써도 암 예방 도움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2611580  
ID: 01100201.20160619192611580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암세포가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식습관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듯이, 암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 중 식생활에 의한 요인이 20∼30% 정도를 차지한다.<br/><br/> 따라서 암을 미리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채소와 과일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강조한다.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는 항산화영양소, 식물생리활성물질, 식이섬유 등이 있다. 채소와 과일에 이러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br/><br/> 발암물질 작용 억제하는 ‘항산화제’<br/><br/> 항산화제는 신체 내에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발암물질의 작용을 억제해 세포와 DNA 손상 예방 작용을 한다. 항산화제 성분으로는 비타민C, 비타민E, 비타민A를 비롯해 비타민A의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등이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영양보충제를 통해 섭취 가능하나, 채소나 과일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암 예방효과가 더욱 크다. 비타민C 식품으로는 토마토·풋고추·브로콜리·감귤류·딸기·키위·곡류가 있다. 비타민E 식품은 견과류인 아몬드·호두·땅콩 등과 옥수수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고구마가 있으며, 비타민A 식품은 간·우유·계란 노른자가 대표적이다. 셀레늄은 쌀·밀가루·닭·생선 등에 함유돼 있다.<br/><br/> 바이러스 제거하는 ‘식물생리활성물질’<br/><br/> 식물생리활성물질은 식물성 식품에 미량으로 함유돼 있는 성분으로, 신체 내에서 항산화작용·해독작용·면역기능 증진·호르몬 역할조절·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작용을 한다. 대표적으로 자두·딸기·적포도·키위·건포도·토마토·현미는 발암물질의 활성을 억제하며, 녹차와 포도는 항암효과가 있다. 배추·브로콜리·케일·양배추·순무 등은 대장암에 좋다. 대두·두부·된장·청국장·콩나물·감자·옥수수·땅콩·멜론·건포도 등은 유방암 예방효과가 있다. 오렌지·자몽·귤·레몬 등은 폐를 보호하고, 마늘·양파·부추·파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등의 예방에 좋은 식품이다.<br/><br/> 발암물질 배설 돕는 ‘식이섬유’<br/><br/> 식이섬유는 체내 소화효소의 부재로 인해 소화할 수 없는 다당류로 장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변비를 예방하며, 발암물질의 장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발암물질의 배설을 촉진시켜 암을 예방한다. 밀제품·현미·호밀·쌀·채소·식물의 줄기·밀겨·보리·귀리·강낭콩 등 곡류와 사과·바나나·감귤류 등 과일이나 채소에 함유돼 있다.<br/><br/> 올바른 식습관도 암 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끼 여섯 가지 식품군(곡류, 채소류, 콩류, 과일류, 유제품류, 당류)을 골고루 섭취하고, 유제품류 및 과일류는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br/><br/> 또한 짠 음식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특히 김치나 젓갈 등 소금에 절인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10% 높은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고농도의 소금은 위 점막의 세포를 자극해 음식 속의 발암물질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 간접적인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br/><br/> 이미 많이 알려져 있듯이 탄 음식도 피해야 한다. 쇠고기·돼지고기 등과 같은 육류를 그릴이나 숯불로 구운 형태로 섭취할 경우, 고기들이 탈 가능성이 높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붉은 육류나 육가공품의 섭취도 줄여야 한다. 붉은 고기와 육가공품은 대장암 및 직장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접촉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 <br/><br/>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3.txt

제목: 동성제약, 내년 3월엔 신약연구소 개설… 광역학 부문 집중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2407681  
ID: 01100201.201606191924076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성제약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신약개발연구소를 개설한다. 지난 2014년 12월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연구소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외부 인사 영입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대구경북첨복단지에 제2연구소가 준공될 예정이다. 제2연구소에서는 동성제약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인 광역학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가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br/><br/> 동성제약은 “<span class='quot0'>내년에 제2연구소가 설립되고, 광역학치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br/> 현재 동성제약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광역학 치료는 PDT(Photodynamic Therapy)라고도 불리며 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이 광과민제가 종양조직에 달라붙은 후 이를 적정 파장의 레이저광으로 조사해 광과민제가 빛을 받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세포괴사를 통해 암 종양을 제거하는 방식이다.<br/><br/> 동성제약은 바로 이 광역학 치료에 사용되는 광과민제 ‘포토론’에 주목하고 있다. 2세대 광과민제인 포토론은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방법 그리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 치료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4.txt

제목: 면역항암제 ‘옵디보’, 폐암 환자들의 새 희망 자리매김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2203626  
ID: 01100201.2016061919220362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새로운 임상 결과가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연례회의에서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항암 치료가 암세포에 직접 작용, 공격해서 죽이는 것이었다면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세포를 활용해 암세포를 찾아내 싸우게 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면역항암제가 항암치료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특히 면역항암제는 환자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환자들의 관심도 높다. 이유는 우선 장기생존율을 향상시키고,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효능 측면이 하나다. 또 기존 화학항암제가 가진 독성이나 내성 문제가 없고 부작용이 적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다.<br/><br/> 대표적인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3상 임상연구(CheckMate-057, CheckMate-017) 결과에 따르면 중요한 지표가 되는 2년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암환자의 전체생존율(1차 유효성 평가변수)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CheckMate-057 임상 연구에서 옵디보 투여군의 2년 시점 전체생존율은 29%였으나 비교 대상 항암제인 도세탁셀 투여군은 16%였다. CheckMate-017에서 옵디보 투여군의 2년 시점 전체생존율은 23%, 도세탁셀 투여군은 8%였다.<br/><br/> 이와 관련 미국 폭스체이스암센터 흉부종양내과 호세인 보르가이 교수는 “다양한 조직학적 특성이 있고 안티(Anti) PD-1 면역항암제로 치료받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최장 기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다. 이번 연구에서는 옵디보가 폐암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의 전체생존율을 장기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br/><br/> 국내에서는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이 세계 최초 anti PD-1항체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 니볼루맙)’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 4월1일자로 비소세포폐암 및 흑색종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옵디보는 PD-L1 발현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최초의 anti PD-1항체 면역항암제다. 한국BMS 측은 “지난 1999년 화학항암제 도세탁셀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허가 받은 이후, 이보다 우수한 효과를 가진 치료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PD-L1 발현여부와 관계없이 편평,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등장은 의료진 및 환자들이 기다려온 희소식”이라고 설명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5.txt

제목: [신약강국 현장을 가다] 이경준 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장, 선진 외국기관과 네트워크 강화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2201758  
ID: 01100201.201606191922017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신약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국제용’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하는 한편, 외국 유수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다져야합니다.</span>”<br/><br/> 이경준 JW중외제약 신약연구센터장(수석상무)은 “<span class='quot1'>혁신신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장 빠르게 도입한 것이 JW중외제약</span>”이라며 “<span class='quot1'>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가 집중하고 있는 일반신약과 개량신약을 넘어 세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혁신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span>”고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br/><br/> “대한민국 기업들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움직이더라도 오래 전부터 혁신신약 개발에 성공해 온 글로벌 제약사들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신약을 개발해 전세계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약을 공급한 온 ‘노하우(Know-how)’를 배우기 위해서는 꾸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br/><br/> JW중외제약은 다른 제약사와 차별화된 연구개발(R&D) 전략으로 미국, 일본 등과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꼽았다. JW중외제약은 축적된 기술과 인력을 바탕으로 1983년 ‘중앙연구소’를 비롯해 지난 1992년 국내 최초 한·일 합작연구소인 ‘C&C신약연구소’를 설립했다. 2000년에는 미국 시애틀에 화학 유전체학 전문 연구기관 ‘JW Theriac’을 세웠다. 이 연구소는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외부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고 신약 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2000년 설립됐다. 현재 활성화합물을 이용한 세포내 약물 메카니즘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기반 기술로는 암 관련 세포 신호 전달계 조절 물질 스크리닝(HT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최근 제약업계가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개방형 혁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일례로 미국에 설립한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회사의 대표적인 R&D 프로젝트인 ‘CWP291’의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br/><br/> JW중외제약은 항암제 개발에 주력해 왔다. JW중외제약이 퍼스트 인 클래스(first in class)로 개발하고 있는 wnt 표적항암제 ‘CWP291’ 임상 1상 결과는 조만간 발표된다. 이 약물은 암의 재발과 전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wnt 경로를 차단하는 혁신신약이다. 회사는 최근 CWP291의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임상 1상 시험을 지난해 12월까지 총 6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현재 통계분석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상 1상 통계분석 후, 주요 결과는 이달 도출될 전망으로 회사는 9월경 최종 결과보고서를 완료해 최종 결과와 앞으로 임상 진행계획에 대한 자율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임상 1상 결과를 근거로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수출(라이센스 아웃)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r/><br/> JW중외제약은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유명 제약사와 공동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에도 적극적이다. 회사는 일본 쥬가이제약사와 공동투자로 설립한 C&C신약연구소를 통해 통풍치료제·항암제·항염증제 등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경준 센터장은 “<span class='quot2'>지금까지는 다국적 제약사와 판매 등 공동 마케팅에 대한 제휴를 진행했을 뿐 국적이 다른 제약사가 신약개발만을 목적으로 공동 투자해 설립한 연구법인은 C&C신약연구소가 유일하다</span>”고 했다. 통풍치료제 ‘URC102’는 임상시험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14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2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현재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4개 대형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 시험의 조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쟁품의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전략을 결정해 갈 예정이다. <br/><br/> 그는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은 결국 ‘사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나 GSK와 같은 기업이 성공적으로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연구인력”이라며 “결국 승패는 사람에 달려있다. 때문에 인재를 양성하고, 좋은 연구인력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br/><br/> 그는 JW신약의 자회사 JW크레아젠의 대표도 맡고 있다. JW크레아젠은 세계 최초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신장암치료제(CreaVax-RCC)를 개발해 2007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2013년 12월 수출용 의약품으로 전환해 해외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간암치료제(CreaVax-HCC)는 국내 5개 병원에서 15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기관 임상2상을 완료하고, 2014년 3월에 임상3상 IND 승인이 완료되어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 센터장은 “<span class='quot1'>차기 목표가 바로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혁신신약 개발을 선도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회사는 차별화된 R&D 전략을 통해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 당뇨병치료제 가드렛 등 개발에 성공했다. 그는 “<span class='quot1'>앞으로도 연구 단계에 있는 신약후보물질을 도입해 국내에서 개발 단계를 완료하는 ‘연구개발 역발상 전략’을 추진할 것</span>”이라고 전했다. <br/><br/> 신약개발 과정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는 질문에 그는 “<span class='quot1'>개발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span>”며 “<span class='quot1'>신약후보물질 발굴 단계부터 약 개발, 임상시험 단계 단계마다 책임자를 두고 ‘위기 관리(Risk management)’를 해왔다</span>”며 “<span class='quot1'>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과감하게 개발을 접는 경우도 있고, 또 예상 외로 성공확률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약 개발을 끝까지 진행해 성공한 사례도 많다</span>”고 설명했다. <br/><br/> 끝으로 그는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 “<span class='quot1'>한 개의 신약이 상업화 되기까지 적어도 7년에서 10여년의 세월이 걸린다</span>”며 “<span class='quot1'>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허가당국에 미국 FDA나 유럽 EMA처럼 보다 많은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장기간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이어 “기업들이 좋은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해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벤처, 소규모 제약사들이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펀드 조성, 그리고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6.txt

제목: 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기존치료에 온열치료 더해 치료 효과 높여  
날짜: 201606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9191643872  
ID: 01100201.2016061919164387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진단 후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치료, 항암치료를 한다. 이들 3대 암 치료법 외에 최근 제4의 암 치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고주파 온열 암치료’이다. <br/><br/>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두 전극 사이에 인체를 놓고 인체에 13.56㎒ 고주파 전류를 유도해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서, 고주파 전류가 인체를 통과할 때 이온농도가 많은 암 세포주위에 전기가 많이 흘러 가열효과에 의해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파괴되어 사멸하는 원리를 이용한 최신 암 치료법이다.<br/><br/> 기존의 온열치료는 43도 이상의 온도로 치료하는데, 43∼44도 이상의 열이 가해질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높고 종양 및 종양주변의 혈관이 파괴되어 방사선치료 등을 병행할 경우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최근에 개발된 온코써미아 고주파 온열암치료기는 38.5∼42.5도 사이의 온도를 암세포에만 지속적으로 조사해 암세포만 괴멸시키는 장점이 있다.<br/><br/> 온열치료는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와 함께 사용하였을 때 치료 상승효과가 임상적으로 증명되었고, 온열치료 단독 항암효과도 일부 보고 되고 있다.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는 각각 높은 부작용 위험으로 전신 상태 및 종양 위치를 고려해 선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온열치료는 전신 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고형암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수술,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를 할 수 없는 말기 암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치료법이다. <br/><br/> 암 치료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은 다양한 암 치료기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많은 암환자를 치료해 왔는데, 지난 2014년에는 고주파 온열암치료 시스템인 온코써미아를 도입해 재발성,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항암치료 또는 방사선치료와 병합요법으로 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더 이상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고통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단독으로도 시행하고 있다. <br/><br/> 올해 초 대장암으로 원자력병원을 찾은 52세의 남자환자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모두 받았으나 재발했고, 골반 내 종양의 침범으로 장은 파열되어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장기간의 치료로 환자의 몸과 마음은 지쳐있었으며, 암성 통증과 종양으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어 환자 삶의 질도 악화되고 있었다. 주변 장기의 독성 위험으로 더 이상의 방사선 치료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열치료를 시행했는데, 2개월의 치료 후 경과는 놀라웠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온열치료 단독으로는 종양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데, 컴퓨터 단층 촬영 상 종양의 괴사가 관찰된 것이다. 통증과 삶의 질도 완화됐으며 환자는 현재 추가적인 온열치료를 계획하고 있다. <br/><br/> 지난 4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온열암치료학회에서 원자력병원과 연구소는 암성장 억제 효과와 관련해 온코써미아 온열암치료와 방사선치료의 순서를 정하는 쥐 실험을 통해, 온열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방사선치료 그리고 온열치료의 순서로 시행하는 것에 비해 효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br/><br/> 현재 국내에서는 온열암치료와 관련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원자력병원도 국내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를 처음 도입한 업체와 연구협력을 맺고, 치료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의 암치료로 치료가 어려운 많은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7.txt

제목: ‘오토파지’ 작동방식 세계 첫 발견… 퇴행성 뇌질환 등 신약 개발 기대  
날짜: 201606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16020306934  
ID: 01100201.201606160203069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영양분이 결핍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세포는 스스로 단백질을 분해한다. 세포 내 불필요한 구성요소와 소기관을 제거해 위험에 맞닥뜨릴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오토파지(autophagy)’ 또는 ‘자가포식’으로 부른다. 이 오토파지가 이뤄지는 신호전달 경로를 국내 연구진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백성희(사진)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오토파지의 작동 방식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저명 과학학술지 ‘네이처’ 15일자에 실렸다. 연구팀은 핵 안에서의 유전자 발현이 오토파지 작동에서 중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진핵생물의 핵 내 DNA에 결합하고 있는 염기성 단백질인 ‘히스톤 단백질’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데 필수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정 아래 히스톤 단백질의 변형과 안정화 과정 등을 관찰해 오토파지가 유도되는 신호전달 경로를 찾아냈다. 백 교수는 “<span class='quot0'>오토파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암이나 퇴행성 뇌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개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8.txt

제목: ‘난공불락’ 췌장암 잡는 비법 나오나  
날짜: 201606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7193723529  
ID: 01100201.201606071937235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췌장암은 암 가운데서도 치료가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일본 연구팀이 췌장암 발병 때 작동하는 특정 유전자를 찾아냈다. 이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면 암의 증식을 막을 수 있어 췌장암 치료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br/><br/> 일본 게이오대 오카노 히데유키 교수(생리학)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 연구팀은 실험용 쥐에 췌장암 환자로부터 채취한 암세포를 이식한 뒤 관찰을 진행했다.<br/><br/> 그 결과 암세포를 이식한 쥐에게서는 ‘무사시(ムサシ)’라는 유전자 활동이 왕성해진 사실을 발견했다. 1990년대에 발견된 이 유전자는 평상시에는 다른 유전자 작용을 조절하거나 줄기세포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잉 기능할 경우 종양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 연구팀은 이 유전자가 항암제 내성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이 유전자의 기능을 중지시키자 암이 증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카노 교수는 “<span class='quot0'>무사시를 겨냥한 새로운 항암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연구 내용은 과학학술지 ‘네이처’ 인터넷판에 등재됐다.<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69.txt

제목: 악성 뇌종양, 맞춤형 치료의 길 열었다  
날짜: 201606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606203157859  
ID: 01100201.2016060620315785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악성 뇌종양의 유전체 변화 과정을 분석해 맞춤형 치료의 길을 열었다.<br/><br/>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난치암연구사업단 남도현(사진) 교수 연구팀이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과 함께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인 ‘교모세포종’이 재발하는 과정의 유전체 진화 패턴을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br/><br/> 교모세포종은 방사선 및 항암제 치료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뇌종양이다. 대부분 환자가 재발해 죽음에 이른다. 진단 후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연구팀은 한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의 교모세포종 환자 114명의 원발암-재발암 유전체 진화 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63% 환자에서 암의 재발 후 종양의 유전형 타입이 변화됐고, 15%에서 과돌연변이가 나타났으며 11%에서는 추가적인 LTBP4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환자의 예후가 나빠졌다.<br/><br/> 이는 관련 유전자를 제어하면 뇌종양 치료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으로 LTBP4 유전자가 재발성 뇌종양 치료의 신규 표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이를 타깃으로 하는 면역치료 및 표적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저명 과학학술지인 ‘네이처’ 자매지 ‘네이처 제네틱스’에 게재됐다.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0.txt

제목: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12월까지 확대  
날짜: 2016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18183310717  
ID: 01100201.2016051818331071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전자 산업 진흥을 위해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금지·제한된 유전자 검사 항목 19개에 대한 완화도 추진된다.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에 쓰이는 치료제는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아도 허가가 날 수 있게 된다.<br/><br/>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윤리법은 유전자 치료를 유전질환이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법을 고쳐 연구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전자 검사가 금지·제한된 19개 항목도 이달부터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완화 방안을 찾는다.<br/><br/> 또 정부는 ‘원격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위해 10월 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약사법에 따라 ‘약국 내 약사와 대면해야’ 약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일부 치료제에서 실시 중인 ‘조건부 허가’를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제까지 확대한다. 난치병 등에 쓰이는 의약품 가운데 효과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전이라도 저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br/><br/>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배아 기증자의 병력 정보 확인도 세포 검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배아를 기증한 사람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이나 바이러스성 간염 등에 걸렸는지 등을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br/><br/>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에서 비동결난자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신산업투자위원회의 건의는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아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연구용 난자의 기증이 가능해져 난자 매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처방된 약품을 택배로 배송하게 해 달라는 건의도 ‘미해결 과제’가 됐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0'>유통 중 변질과 오염 가능성이 있고 약사의 지도 기능이 약화돼 사고 우려가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1.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날짜: 201605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6183357138  
ID: 01100201.201605061833571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중풍, 심근경색 등 혈관의 노화, 즉 동맥경화증의 무서운 합병증이다. 혈관의 노화를 막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티에이징일 것이다. 이런 혈관의 노화를 촉진 시키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 대사증후군과 비만이다. <br/><br/> 대사증후군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이 한 사람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발병하는 것을 말한다. 각각을 떼어놓으면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심장병과 암 발생을 높이고 사망률을 증가시킨다. 한국인 경우 최근 비만이 증가되면서 성인의 세 명 중 한 명은 대사증후군에 해당되는 매우 흔한 질병이다. <br/><br/> 예전에 그렇게 많지 않던 비만이 왜 갑자기 증가하게 된 것인가.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유전자는 ‘체지방과 비만 관련 단백질(FTO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는 원래 고대 시대에 사냥 중심으로 식사를 하는 원시인들이 며칠씩 음식을 먹지 못할 때 내장의 지방을 연소해서 에너지로 만드는 좋은 유전자였다. 그러나 현대인에게는 지나치게 음식이 공급되면서 이 유전자는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바뀌게 되었다. 여기에 이동 수단의 발달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이 고착되면서 비만이 가속되는 것이다. <br/><br/> 비만의 주된 식사 원인은 지방일까, 탄수화물일까. 한국인의 식단에는 고기보다 밥 국수 빵 등 탄수화물이 주된 구성인데 이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주된 요인이다.<br/><br/>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반복되면 몸속에서 탄수화물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자주 분비가 되는데 반복되는 인슐린 분비로 인해 인슐린 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더 높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 한다. 이 인슐린이 몸 속의 지방세포를 키워서 비만이 되게 하고 지방간을 축적시켜 고지혈증을 일으키는 주원인이 되게 한다. <br/><br/> 특히 빠른 시간 내 혈당을 올려서 인슐린을 높게 만드는 당지수(GI지수)가 높은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쉽게 부서지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 생각하면 좋다. 예를 들면 고구마보다는 감자. 포도보다는 수박, 호밀빵 보다는 식빵 등이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다.<br/><br/> 또한 탄수화물의 대사를 좋게 만드는 미네랄 영양소 중 크롬 마그네슘 아연 망간 셀레니움 등이 있다. 이들 미량 영양소는 인체에서 당의 대사 및 인슐린 기능, 미토콘트리아 기능 등을 좋게 해줌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기여한다. <br/><br/>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의 핵심은 크게 뱃살 줄이기와 허벅지 근육 늘리기로 요약된다. 운동에는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근력운동)이 있는데 이런 운동 종류와 함께 운동의 빈도, 운동의 강도, 운동의 시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br/><br/> 혈관의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것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다. 반대로 혈관의 노화를 촉진 시키는 것이 욕심과 게으름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비만이 아닌 근육질의 건강함을 유지하도록 매일 절제의 삶과 부지런함의 삶을 살도록 하자. 성경은 육체를 훈련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듯 한다고 말한다.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영성의 필요 조건인 것이다. <br/><br/> “<span class='quot0'>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에베소서 5:29)</span>” <br/><br/>김경철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2.txt

제목: 국군수도병원장에 유근영 서울대 교수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2212416949  
ID: 01100201.201605022124169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유근영(사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2일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국군수도병원장에 취임했다. 유 신임 원장은 국립암센터 원장과 대한예방의학회장을 역임한 암 치료·연구의 권위자다. 아시아·태평양 암 예방기구(APOCP) 사무총장도 맡고 있다. 유 원장은 “<span class='quot0'>전문 의료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군수도병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span>”고 밝혔다.<br/><br/>최현수 군사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3.txt

제목: 피차이 구글 CEO “미래엔 디바이스 사라지고 AI로 대체”  
날짜: 201605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502001427313  
ID: 01100201.20160502001427313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미래에는 (컴퓨터 같은) 디바이스는 사라지게 된다. 대신 인공지능(AI)이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돕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는 모바일 퍼스트 시대를 지나 AI 퍼스트 시대가 될 것이다.”<br/><br/> 순다 피차이(사진)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1일 주주들에게 최근 성과를 담아 전달하는 ‘창업자의 편지’에서 AI의 잠재력을 연신 강조했다.<br/><br/> 편지는 원래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작성해 왔지만 올해는 피차이 CEO가 직접 썼다.<br/><br/> 피차이는 편지에서 지난 3월 있었던 AI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결을 언급했다. 그는 “알파고의 승리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라며 “그러나 AI와의 경쟁에서 인류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가 일상적인 업무나 여행은 물론 기후변화나 암 정복 같은 인류의 모든 일을 도울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br/><br/> 피차이는 또 컴퓨터와 휴대전화, 가상현실(VR) 등의 기기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서 AI 퍼스트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구글은 머신러닝 등 각종 인공기능 기술을 구글포토와 구글번역에 쓰고 있다. 매직리프(Magic Leaf)와 같은 가상현실 업체에도 투자 중이다. 2010년 ‘모바일 퍼스트’를 화두로 내세운 이후 6년 만에 방향을 확 바꾼 것이다.<br/><br/> 피차이는 편지 말미에 “<span class='quot0'>우리는 인터넷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한다</span>”며 구글의 사명을 거론한 뒤 “<span class='quot0'>기술 발전을 통해 정보를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궁극적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4.txt

제목: 일터 신학 웹 사이트 ‘토우’ 한국어 공식 서비스 개시  
날짜: 201604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4205756319  
ID: 01100201.20160424205756319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전 세계 16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일터 신학 온라인 서비스 ‘토우(TOW·Theology of Work)’가 최근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 <br/><br/> 토우는 일과 관련된 신학을 연구해 보급하기 위해 만든 프로젝트다. 미국 뉴욕에 있는 투자회사 ‘아르케고스 캐피탈 매니지먼트(Archegos Capital Management)’ 앤디 밀스 회장, ‘일과 영성’의 저자 팀 켈러 뉴욕 리디머장로교회 목사, 일터 신학자로 유명한 폴 스티븐스 리전트칼리지 교수 등 138명이 참여하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기독 직장인과 일터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잘 알려져 있다. <br/><br/> 토우 한국어 서비스는 국내 일터 사역단체인 ‘페이스앤워크 인스티튜트(대표 김윤희)’가 맡았다. 김윤희 대표는 “<span class='quot0'>토우가 제공하는 일터 신학 콘텐츠를 비롯해 한국 실정에 맞는 일터 신학 자료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기 위해 토우 한국어 사이트(theologyofwork.org/ko)를 공식 개설했다</span>”고 말했다.<br/><br/> 토우 한국어 사이트는 일과 관련된 ‘성경 주석’과 관련 콘텐츠를 글 사진 오디오 비디오 등으로 제공한다. <br/><br/> 성경 주석 코너에선 ‘사회 자본의 필요성(학 1:1∼2:19)’ ‘부(富)로 인한 무관심(암 3:9∼15, 6:1∼7)’ ‘불의한 방법으로 일하는 것(호 4:1∼10)’ 등 관련 성경 구절과 해설을 제공한다. ‘예금자와 채권자’ ‘적정한 금액의 채무’ ‘공급하심을 늘리고 가난을 줄이려면’ 등 평소 직장인들이 일과 관련해 고민하는 주제를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설명하는 코너도 있다.<br/><br/> 두 코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아래에는 ‘댓글’ 기능이 있어 온라인상에서 해당 주제를 놓고 토론할 수도 있다. ‘추천’ 기능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할 수도 있다.<br/><br/> 토우 한국어 사이트는 필요한 주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세부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 창세기 출애굽기 등 성경의 각 장별로, 갈등 경쟁 경제 사회 금융 등 주제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모든 콘텐츠에 ‘가난’ ‘가난의 이유’ ‘가업’ 등 태그가 달려있어 태그별로도 찾아볼 수 있다. <br/><br/> 김 대표는 “<span class='quot0'>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는 크리스천 직장인을 격려하고 이들을 도우려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br/>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5.txt

제목: 유전자 치료 연구 범위 없애 바이오 기업 100개 육성한다  
날짜: 201604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21181114444  
ID: 01100201.2016042118111444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정부가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을 철폐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저성장, 고실업’이 특징인 ‘뉴노멀’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다.<br/><br/>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산업의 규제 개선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유전자 치료 관련 연구는 암과 유전질환 등에서만 허가된다. 이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해 임상연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pan class='quot0'>중장기적으로 유전자 치료제 연구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안전성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span>”고 말했다. 골수와 제대혈 등 인체자원을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일도 지금보다 쉬워진다.<br/><br/>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1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키우기로 했다. 2025년까지 바이오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br/><br/>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 웃고 ‘서바릭스’ 울고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90005711  
ID: 01100201.201604171900057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정부가 오는 6월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약 20만원 상당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로 접종을 시행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두 가지 백신인 한국MSD의 ‘가다실’과 GSK의 ‘서바릭스’ 가격을 개별 산정키로 결정했다. 백신 가격은 가다실이 서바릭스보다 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br/><br/>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위해 국내 시판 허가된 ‘서바릭스’, ‘가다실’ 두 백신의 조달단가를 각각 개별 산정해 4월 중에 백신조달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 이번 가격 이원화 결정은 정부가 두 백신의 차이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조달단가를 결정할 때 도입목적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 효능, 안전성 및 접종 편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각 백신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가격으로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만 백신의 차이가 있으면 다른 가격으로 결정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두 백신을 모두 도입할 예정이다. 백신에 대한 식약처 허가 효능에서 두 백신에 차이가 있어 백신별로 조달단가를 산정했다”고 덧붙였다.<br/><br/> 두 제약회사는 그동안 자궁경부암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을 위한 가격 개별 산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국MSD측은 “<span class='quot1'>질병관리본부가 자궁경부암 백신별로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가격이원화 방침을 정할 것</span>”이라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결국 가격 개별 산정으로 결론이 내려졌다.<br/><br/> 그동안 한국MSD는 가다실이 서바릭스보다 높은 가격으로 NIP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4가 백신인 가다실이 자궁경부암 뿐 아니라 HPV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기 사마귀 등도 예방하는 만큼 자궁경부암 예방만을 적응증으로 한 서바릭스보다보다 가격면에서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br/><br/> GSK는 가다실과 서바릭스를 같은 가격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 성기 사마귀 예방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불어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사업인 만큼 ‘자궁경부암 예방효과’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GSK 측은 “4가 백신이냐, 2가 백신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에 있어서는 동일한 효과를 가진 백신이므로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동일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국가 건보재정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br/><br/>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부가 서바릭스와 가다실의 가격 이원화 결정을 내리면서 한국MSD가 시장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GSK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정부의 가격 이원화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백신 수요자들이 2가지 백신 중 어떤 백신을 선택을 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7.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원자력의학원 유방암 전이 촉진 기전 규명 外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5859377  
ID: 01100201.2016041718585937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원자력의학원 유방암 전이 촉진 기전 규명=한국원자력의학원은 유방암 전이의 핵심과정을 촉진하는 기전을 규명해 암 전이억제 기술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원자력의학원 한영훈 박사팀은 세포내 특정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알엔에이(microRNA) 중에서 암 전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질 MDM2와 E-cadherin의 발현을 동시에 억제하는 마이크로알엔에이 ‘miR-5003-3p’를 찾아냈다. <br/><br/> 연구팀은 유방암 전이 조직에서 많이 발현되는 ‘miR-5003-3p’가 발암 단백질(MDM2)을 억제해 암 전이 유도 단백질(Snail)을 안정화시켜 전이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br/><br/><br/><br/>◇비소세포성 폐암, 세포 돌연변이 종류 따라 치료효과 달라=비소세포성 폐암의 경우 세포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 치료제의 치료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사용되는 1차 치료로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의 효과가 수용체 돌연변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br/><br/>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최진혁 교수팀(이현우·최용원 교수)은 2011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아주대병원에서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 폐암으로 진단받고 1차 항암화학요법 치료로 EGFR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인 게피티닙(gefitinib)을 투여 받은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생존기간과 예후인자를 분석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br/><br/><br/><br/>◇면역항암제 ‘옵디보’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획득=면역항암제 ‘옵디보’가 흑색종 환자에 이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도 쓰일 수 있게 됐다. 폐암은 한국에서 사망자가 많은 암 중 하나다. 특히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폐암이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항PD-1 면역항암제 옵디보주(성분명·니볼루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PD-L1 발현여부와 관계 없이 이전 화학요법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국내의 추가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br/><br/><br/><br/>◇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없다’=최근 일본의 일부 여성들이 제기한 자궁경부암 백신(HPV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학계의 입장이 나왔다.<br/><br/>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부인종양학회는 최근 논란이 된 자궁경부암 백신 논란과 관련해 “<span class='quot0'>백신은 장기간 안전성 입증이 충분히 됐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span>”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본 일부 여성들과 법조인들은 일본 정부와 백신 제조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종양학회는 6월 자궁경부암 백신의 우리나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앞두고, 일본 소수단체의 주장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br/><br/><br/><br/>◇서울아산병원 21일 ‘암환자 통증과 부종치료’ 강좌=서울아산병원은 21일 오후 2시부터 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암환자 통증과 부종치료’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br/><br/> 이날 강좌는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와 종양내과 김정은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이번 강좌에서는 암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통증과 부종에 관한 올바른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한 명쾌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일반인의 궁금증을 듣는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미세먼지, 암 발병 연관 드러났지만 마스크 외엔 대처법 없어…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4922318  
ID: 01100201.2016041718492231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꽃과 새싹들이 피어나는 계절인 봄은 눈을 즐겁지만 호흡기에는 치명적인 계절이다.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박은영 국립암센터 발암원관리사업 과장은 미세먼지는 봄철에만 유의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라며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과장은 “미세먼지가 봄철에 특히 강조되지만 사실 미세먼지의 건강 위해성은 계절과 상관없이 그 농도가 문제다. 겨울철에도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는 날이 많다”고 말했다.<br/><br/> 미세먼지는 무수히 많은 자연적, 인위적 배출원에서 기인한 여러 오염물질이 혼합돼 만들어지며, 수송 교통, 발전, 산업 활동 바이오매스(생물연료) 연소, 가정의 난방 및 요리 등 많은 곳에서 배출된다. 지난 2013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해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한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입자는 매우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이와 관련 지난달 대만에서는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암 위험이 상승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은영 과장은 해당 연구만으로 일반화시키기엔 부족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박 과장은 “<span class='quot0'>대만의 연구는 대기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해 초미세먼지 4년 평균 자료를 이용해 간암 발생률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발암기전으로 염증반응을 제시한 것으로 하나의 논문일 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재까지 미세먼지가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암종은 폐암뿐이다</span>”고 설명했다.<br/><br/> 물론 박 과장은 미세먼지와 암과의 상관관계는 인정했다. 그는 “미세먼지에 발암성이 있다는 결론은 역학연구와 동물실험을 통한 암 연구, 암 관련 기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일관성을 보이며 확인됐다”며 “폐암의 위험 증가는 유럽, 북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수백만명과 수천의 폐암 사례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와 환자-대조군 연구들에서 한결같이 관찰됐다. 또한 대기오염과 연관된 위험 증가는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 대부분이 초미세먼지 연평균 노출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수행됐다는 사실이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재의 건강 기반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낮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생각보다 적은 농도의 미세먼지로 인해서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br/><br/> 현재 미세먼지를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 박은영 과장의 입장이다. 박 과장은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쓴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에게 이를 대처법으로 제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어린이 등 민감인구집단에서는 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Air Korea)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처법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 정도다.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처법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br/><br/>박예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79.txt

제목: [신약강국 현장을 가다] 이양구 동성제약 대표, 광역학·항암치료 분야 연구에 ‘올인’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82941528  
ID: 01100201.2016041718294152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이한 동성제약은 정로환, 세븐에이트 등 유독 롱런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 특히 끓이지 않는 염색약 양귀비 1호 개발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갈색머리 ‘훼미닌’, 7∼8분 만에 염색이 되는 ‘세븐에이트’, 흔들어 쓰는 염색약 ‘이지엔 쉐이킹 푸딩 헤어컬러’까지 동성제약의 역사가 곧 염모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한 시장을 선점 해왔다. <br/><br/>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이 지금의 동성제약을 염모제 리딩기업으로 이끌고 온 원동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그런 동성제약이 내년에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염모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 품목 강화와 함께, 광역학 치료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제2연구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연구적 성과를 이뤄낼 예정이다. <br/><br/> 이양구(사진) 동성제약 대표는 “‘Health From Nature’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100년 기업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며 “‘Health From Nature’는 자연에서 의약품, 화장품의 소재를 가져와 제품에 실현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동성제약은 실크프로테인과 벌독(벌침액) 등을 주요 원료로 의약품과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경우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개발한 벌독을 함유한 여드름전용 화장품 에이씨케어 개발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br/><br/> 동성제약의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는 바로 광역학 치료분야이다. PDT(Photodynamic Therapy)라고도 불리는 광역학 치료란 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이다.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이 되는데, 광과민제가 종양조직에 달라붙은 후 이를 적정파장의 레이저광으로 조사하면 광과민제가 빛을 받아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세포괴사를 통해 암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법이다. <br/><br/> 과거 1세대 광과민제를 사용했을 때는 광과민제가 암세포에 영향을 주기까지 최대 72시간이 걸렸고, 치료 이후에도 4주간 햇빛을 차단해야 했다. 그러나 동성제약이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은 암세포에 달라붙기까지 단 3시간이면 되고, 차광시간도 2일로 현저히 줄었다. <br/><br/> 이양구 대표는 “지난해에는 포토론이 식약처로부터 췌장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했으며 현재 서울아산병원 췌담도 내과에서 임상을 시행하고 있다. 1세대 약물에 비해 뛰어난 효과와 편리한 시술 방법, 그리고 낮은 부작용으로 광역학 치료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br/><br/> 이 대표는 “무엇보다 췌장암은 발병 후 1년 내 사망률이 74%, 5년 내 사망률이 94%에 이르는 가장 예후가 나쁜 암으로 유명하다.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인 Endoscopy 지에 발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췌장암에 포토론을 이용한 광역학 치료가 효과적인 임상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췌장암 치료에 새로운 접근으로서 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2세대 광과민제에 대한 시장성 및 기대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동성제약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핵심 전략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br/> 동성제약은 올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신약개발연구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양구 대표는 “2014년 12월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2년여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대구경북첨복단지 내에 제2연구소를 설립하고 광역학 치료와 항암치료영역의 연구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 대구경북첨복단지에 설립된 제2연구소를 위해 올 초 새롭게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등 동성제약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양구 대표는 “<span class='quot0'>제2연구소에서는 광역학 치료 연구가 메인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암정복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0.txt

제목: [조민규 기자의 ‘건강 백과’] 의료정보는 자주 찾는 병원부터 클릭을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74902115  
ID: 01100201.20160417174902115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인터넷 환경이 비약적으로 좋아지며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런 환경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정보인척 가장한 광고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인터넷 정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정보라면 ‘아니면 말고’라면 쉽게 넘길 수 있겠지만 질병에 대한 정보라면 다르다.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있어 질병정보는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br/><br/> 대다수 의료진은 “<span class='quot0'>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을 맹신하기보다는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따라오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한다. 하지만 ‘3분 진료’의 국내 의료현실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부족함이 많다.<br/><br/> 그렇다면 환자나 가족은 인터넷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를 가야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내원하는(또는 내원할) 병·의원의 홈페이지를 찾는 것이다. 일부 광고성으로 과대·과장하는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설명이 있다. 또 대학병원급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어 활용하기 좋다.<br/><br/>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를 찾는 것도 해답이다. 대표적인 질병정보 제공기관은 질병관리본부와 국가암정보센터가 있다. 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최근 해외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큰데 어떤 질병인지, 국내외 상황은 어떤지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홈페이지를 찾으면 된다. 또 국립의과학지식센터(library.nih.go.kr)에서는 전문 의학학술논문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암환자라면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는 필수다. 소아암·희귀암을 포함한 100여개의 암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의가 작성·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암의 예방과 진단, 치료, 생활가이드 등의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br/><br/> 참고로 알아두면 유익한 정부기관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이 있는데 생활속 건강정보부터 내가먹는 의약품 정보와 진료비확인 등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in’(hi.nhis.or.kr)에서는 건강검진·나의건강관리·건강생활·의학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자가건강진단의 증상평가 코너는 현재 증상을 통해 진료과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br/><br/> 보건복지부(www.mohw.go.kr)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찾아볼 수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에서는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1.txt

제목: [암과의 동행-원자력병원 스마트 암 진료] 방사선 기술 세계가 인정… IAEA와도 협력  
날짜: 201604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7174901538  
ID: 01100201.201604171749015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수술, 항암요법과 함께 대표적인 암 치료 방법인 방사선치료는 최근 ‘정위신체방사선치료’와 같이 고선량 방사선을 이용하는 경우, 치료기간이 현저히 단축될 뿐 아니라 우수한 치료성적을 보여 크게 각광받고 있다. <br/><br/> 정위신체방사선치료(SBRT: Stereotactic Body Radiation Therapy)란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해 표적인 암세포를 정확히 정렬한 뒤 치료에 필요한 양의 방사선을 여러 방향에서 표적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정상조직은 손상시키지 않고 암 부위만 치료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암 종 특성이나 노령으로 인해 수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대체 치료법으로 활용되고 있다.<br/><br/> 고선량 방사선은 직접적으로 종양 세포를 사멸시킬 뿐 아니라, 종양 내 혈관을 손상시켜 간접적인 세포사멸을 일으킨다. 또한 이를 통해 종양세포를 파괴하는 종양항원의 발생과 면역체계 관련 물질인 싸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해 치료 효과가 크게 높아진다. 저선량 방사선에 의해서는 종양 내 혈관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다.<br/><br/> 1963년 개원 이래 방사선을 이용한 암 진단과 치료 그리고 연구에 전념해 온 암 전문병원인 원자력병원은 국내 최초로 코발트 치료기를 도입해 국내 방사선 암 치료 시대를 열었으며, 2002년 국내 최초 사이버나이프 도입 및 2009년 래피드아크 도입으로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정위신체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br/><br/> 현재, 원자력병원은 정위신체방사선치료 성적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데, 작년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소화기암 환자들 중 복부의 임파절에 암이 전이된 88명을 대상으로, 정위신체방사선 치료를 시행해 5년 이상 무병 생존율이 31%에 달하는 치료성적을 발표해 생존율이 매우 낮은 전이 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br/><br/> 이 같은 방사선 암치료 기술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원자력병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사선 기술분야 협력사업인 ‘아태지역 정위적방사선치료기술 보급사업’에도 참여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위적방사선치료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자문을 수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총 111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사선종양학 의사 및 의학물리 전문가들이 교육훈련을 받았으며, 간암 및 폐암에 대한 정위적방사선치료의 가이드라인이 제작, 배포됐다. <br/><br/> 사업총괄책임자인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조철구 박사는 “첨단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선진국 위상을 높이고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었다“며, “원자력병원이 아시아에서 최다 사이버나이프 치료실적을 가지고 있던 점이 사업주도국 진출에 큰 도움이 됐으며, 지난 4년 동안의 기술보급성과를 IAEA에서 인정받아 후속사업도 향후 4년 간 수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br/><br/> 한편, 올해 초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미숙 박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개최하는 간암 방사선치료 프로토콜 개발 회의에 초청받아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의 저명 전문가들과 함께 정위신체방사선치료 프로토콜을 검토하고 임상적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한국의 간암 방사선치료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2.txt

제목: 암 치료과정 한눈에… 환자 위한 건강관리 앱 출시  
날짜: 201604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11190106834  
ID: 01100201.2016041119010683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암병원(원장 유창식·외과 교수)에서 암 환자들이 자신의 암 치료 과정을 한 눈에 보고 맞춤 건강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 ‘아산스마트암병원’(사진)을 새로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앱은 암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검사, 치료 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나의 일정’ 메뉴를 비롯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차트’ 메뉴와 ‘약 관리’ ‘진료예약’ ‘암 통합정보’ ‘나의 삶의 질’ 메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창식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아산스마트암병원 앱을 활용하면 암 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자신의 상태에 꼭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span>”고 말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3.txt

제목: 양자역학 김명식 교수 등 호암상 수상자 6명 선정  
날짜: 2016040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5195706378  
ID: 01100201.2016040519570637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호암재단은 5일 ‘2016년도 제26회 호암상 수상자’에 김명식(54)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교수 등 6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br/><br/> 과학상에 선정된 김 교수는 양자역학계의 세계적 대가다. 양자역학의 근본이 되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양자교환법칙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통일을 위한 기초 마련에 기여했다.<br/><br/> 공학상은 한국 최초의 이족보행(二足步行) 로봇인 휴보를 제작한 오준호(62) 카이스트 교수가 수상했다. 휴보는 지난해 미국 국방부의 ‘다르파 로봇 챌린지’(DRC)에서 우승했다.<br/><br/> 의학상에는 래리 곽(57) 미국 시티 오브 호프 병원 교수가 선정됐다. 곽 박사는 혈액암의 일종인 여포성 림프종 표면 단백질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했다.<br/><br/> 황동규(78) 시인은 예술상을 받는다. 황 시인은 1958년 등단한 이후 한국현대시의 지평을 넓혀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즐거운 편지’와 ‘풍장’ 등이 대표작이다.<br/><br/> 사회봉사상 수상자로는 들꽃청소년세상 공동대표인 김현수(61)·조순실(59) 부부가 뽑혔다. 이들은 22년간 가출 청소년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대안학교, 직업훈련장을 설립하는 등 청소년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br/><br/> 상금은 3억원이며 순금으로 제작된 메달 등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1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호암아트홀에서 열린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0년 제정한 호암상은 올해까지 총 133명의 수상자를 배출, 214억원의 상금을 수여했다.<br/><br/>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4.txt

제목: [난소암 백과] 대부분 3∼4기에 발견… 1차 치료 중요성 더 커  
날짜: 201604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403190438594  
ID: 01100201.2016040319043859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상피성 난소암이란=난소암은 발생하는 조직에 따라 크게 상피세포암, 배세포종양(생식세포종양) 및 성삭기질종양으로 구분되며 이중 상피세포암(상피성 세포암)은 전체 난소암 환자의 약 90%를 차지한다. 상피성 난소암은 세포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액성 난소암과 점액성 난소암이 주를 이룬다.<br/><br/> ◇난소암의 병기=난소암의 병기는 수술을 한 이후에야 정해지게 되며, 1∼4기로 나눈다. 1기는 암이 난소에 국한된 경우이다. 2기는 암이 한쪽 혹은 양쪽 난소에서 발견되고 골반으로 전이(골반 분계선 아래)된 경우, 혹은 원발성 복막암을 말한다. 3기는 암이 한쪽 혹은 양쪽 난소에서 발견되고 세포학?조직학적으로 골반 외부의 복강으로 전이되거나 후복막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다. 4기는 복강 외부로의 전이를 말한다.<br/><br/> ◇침묵의 살인자=난소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하기까지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불분명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3∼4기인 진행성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사망률이 높은 특징을 일컬어 ‘침묵의 살인자’라 칭한다.<br/><br/> ◇아바스틴이란=난소암, 자궁경부암, 직결장암, 폐암, 유방암, 교모세포종, 신세포암 등 총 7개 암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적치료제다. 상피성 난소암(난관암, 원발성 복막암 포함) 환자의 1차 치료, 백금계 약물에 민감성이 있는 재발 환자의 치료,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 재발 환자의 치료에서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5년부터 저항성 재발 환자에게 보험 급여가 인정되고 있다.<br/><br/> ◇신생혈관생성 억제제란=종양의 크기가 2㎜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필수적이다. 신생혈관은 암 세포가 분비하는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 )가 혈관내피세포 표면에 있는 VEGF 수용체에 결합하여 생성된다. 아바스틴은 최초의 신생혈관생성 억제제로, VEGF와 VEGF 수용체의 결합을 차단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억제한다.<br/><br/> ◇난소암 치료 옵션 비교=난소암의 치료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난소암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표적치료제는 2개다. 1차 치료로는 아바스틴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유방암의 경우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표적치료제는 7개이며, 그 중 5개 치료제가 1차 요법으로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 중 2개 (허셉틴, 타이커브)는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br/><br/>◇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난소암 환자란=▲복강 외부로 암이 원격 전이된 4기 환자 ▲3∼4 기 환자 중 내과적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 ▲수술 후 잔존암의 크기가 1cm 를 넘는 불완전 수술이 된 환자를 의미한다. <br/><br/>송병기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5.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후생유전학과 야곱의 지혜  
날짜: 201603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5173615890  
ID: 01100201.20160325173615890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2003년 인간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30억 개의 염기서열 비밀이 풀렸을 때만 해도 이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밝혀져서 불치병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인간의 질병이나 운명은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바뀌어 간다. 이를 포스트게놈이라 하며 그것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후생유전학(epigenetics)이다. <br/><br/> 즉 후생유전학은 선천적인 돌연변이가 아닌 후천적으로 음식, 생활 습관, 스트레스 등이 DNA에 영향을 주어 사람에 대한 질병을 일으키거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하는 최신 학문을 말한다. 후생유전학의 한 분야 중 하나는 산모일 때 먹는 음식에 따라 자녀의 질병이 결정된다는 ‘태아 재프로그램(fetal reprograming)’이라는 개념이 있다. <br/><br/> 보통 어른들이 태교를 강조하고 산모의 음식과 정서를 신경 쓰는 것이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이는 그 분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로 내린 결론이다. 현대의학에서는 유전학적으로 이를 분명히 증명한 것이다. <br/><br/> 대표적인 연구로는 임신한 어미 쥐에 각기 엽산의 양이 다른 음식을 먹였더니 자녀 쥐의 피부색이 검거나 얼룩무늬 혹은 희거나 노란 피부를 보인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구티 쥐에서는 검거나 얼룩무늬(아롱진) 피부의 쥐를 건강하거나 오래 사는 쥐, 노란 피부의 쥐는 암, 당뇨 등 여러 질병에 걸린 쥐라 판단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산모 때 먹는 특정 음식과 스트레스 등의 환경이 후세대에 영향을 주어 질병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r/><br/>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야곱이 장인 라반과 헤어질 때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 엉뚱한 제안을 한다. 새로 태어난 양과 송아지의 피부가 아롱(얼룩)지면 자신의 것으로 하고 정상적인 피부로 태어나면 장인의 것으로 한다는 제안이다. 돌연변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적으므로 장인은 이 제안을 받는다.<br/><br/> 그 후 야곱은 임신한 양에게 살구와 단풍나무를 먹이는데 살구는 엽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다. 앞의 실험대로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양은 얼룩지고 검은 양을 낳고 얼룩 양은 유전적으로 우성이라 자손이 계속 얼룩 양으로 번창한다. 이런 방식으로 야곱은 라반의 양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br/><br/> 야곱이 후생유전학의 원리를 알았을 리는 없었겠지만 임신 중에 무엇을 먹는지가 후손의 질병을 결정하는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의 특징이나 질병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지기도 하지만(nature),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다(nurture). <br/><br/> 설사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 났든 그렇지 않든, 매일의 일상에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를 멀리하며 적절한 운동과 수면을 통해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알도록 하자. <br/><br/>김경철(차의과학대학교 차움병원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6.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고급 인력·노하우 축적… 토종항암제 개발 탄력  
날짜: 201603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20174912240  
ID: 01100201.2016032017491224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8조원 기술수출 신화’의 주인공인 한미약품에 이어 또 다른 성공신화를 기록할 제약사는 어디일까.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 비용을 대폭 늘리고 토종항암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br/><br/> 한미약품은 항암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제약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미국 제약사 스펙트럼에 기술수출한 항암신약 ‘포지오티닙’의 미국 임상2상 시험을 시작했다. 포지오티닙은 다양한 암에서 관찰되는 HER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신약으로 한미약품이 국내에서 비소세포폐암·유방암에 대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작년 2월 포지오티닙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펙트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span class='quot0'>스펙트럼을 통해 포지오티닙의 치료효과가 하루빨리 전세계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길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또한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T790 내성 표적 비소세포폐암약 ‘HM61713’은 글로벌 2상을 진행 중이다. <br/><br/> 유한양행은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미국의 항체신약 개발 전문회사 소렌토와 면역항암제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합작투자회사 ‘이뮨온시아’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작회사 설립이 유한양행의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 신호로 보여진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유한양행은 이뮨온시아의 지분 51%를 확보해 현재 개발된 소렌토의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3개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주도할 계획이다. 이뮨온시아는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한 개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독점 실시권을 갖고, 나머지 2종에 대해서는 전 세계 독점 실시권을 갖는다. 내년 하반기에는 3개의 면역 항체 중 1개가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br/>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은 “<span class='quot1'>이뮨온시아는 항암제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면역치료제의 연구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유한양행은 향후 10년간 60% 이상의 암치료에 면역항암제가 활용되며, 연간 350억 달러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r/><br/> R&D 투자 비율을 꾸준히 늘려온 종근당 역시 항암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임상 1상을 끝낸 ‘CKD-516’는 종근당이 밀고 있는 차세대 항암제다. CKD-516은 종양 내에 이미 존재하는 혈관을 파괴해 세포의 괴사를 유도하는 약이다. 종양세포에 대한 약제 내성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 항암제와 항암요법과 병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분야 최초로 먹을 수 있는 항암제다. <br/><br/> 대화제약은 BMS 위암치료제인 ‘탁솔’의 세계 최초 경구용 개량신약 ‘DHP107’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마쳤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 국내 출시, 상반기 미국 FDA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방암 적응증 확대도 노리고 있다. <br/><br/> 녹십자는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바이오베터 ‘MGAH22’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대장암치료제 바이오신약 ‘GC1118’를 개발 중이다. 간암 유전자치료제의 ‘JX-594’는 임상시험 2상을 마치고 3상 준비중이다.<br/><br/>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항암제 등 신약개발에 있어 좋은 인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술수출을 이룩하는 등 자신감이 붙었다. 고령화시대, 암환자 증가로 인해 항암제 수요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제 국산 항암신약으로 승부수를 던질 때”라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7.txt

제목: 암 막는 유전자 찾았다… UNIST 고명곤 연구팀 규명  
날짜: 201603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6211037838  
ID: 01100201.201603162110378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을 막는 새로운 유전자(DNA)를 찾아냈다. 이 유전자를 활용하면 악성 백혈병 등 혈액암은 물론 간암 대장암 폐암 같은 고형암(solid cancer) 치료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br/><br/>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고명곤 교수가 이끄는 국제 공동연구팀은 동물실험을 통해 ‘TET’ 단백질이 없거나 부족하면 악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쥐의 조혈모세포에서 높게 발현되는 ‘TET2’와 ‘TET3’ 단백질을 모두 없앴더니 1주일 안에 조직 및 세포에서 암의 징후를 관찰했다. 이 쥐들은 4∼5주 안에 악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모두 죽었다.<br/><br/> TET 단백질은 DNA에 작용하는 효소다. 이 단백질이 결손되면 DNA 손상을 초래한다. 이런 손상이 자꾸 쌓이면 암세포가 촉진된다. 고 교수는 “<span class='quot0'>TET 단백질의 발현 수준이나 활성을 유전자 단위에서 조절하면 악성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TET 단백질은 간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에서도 암 억제 유전자로 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8.txt

제목: 구글 ‘500배 장사’… 20억원 들여 1조 홍보 효과  
날짜: 201603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5220916645  
ID: 01100201.20160315220916645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구글에 진정한 승리를 안겨줬다. 알파고가 인공지능(AI)의 대명사처럼 인식되는 등 구글이 홍보효과를 톡톡히 거두면서 향후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br/><br/> 구글은 앞서 이 9단과의 대국에서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알파고가 승리하더라도 상금은 구글이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및 바둑 관련 자선단체에 기부한다. 여기에 대국 개최에 드는 호텔 대관료 등 일체의 비용을 구글 딥마인드가 부담한다. 이번 대국 개최 비용은 상금을 포함해 약 2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br/><br/> 하지만 20억원으로 구글이 거둬들이는 홍보효과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국 중계 화면에는 구글 딥마인드 로고가 상시 나오는 데다 전 세계 언론들이 알파고와의 대국 관련 기사를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다. <br/><br/> ‘AI 분야 선두주자’라는 이미지도 덤으로 챙기게 됐다. 이전까지만 해도 AI 분야 선두는 IBM으로 인식됐었다. IBM은 이미 1997년 AI ‘딥블루’를 개발해 체스 세계 챔피언을 꺾었고, AI ‘왓슨’을 개발해 암 치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는 사업 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선도 업체에 집중되게 된다. 구글은 이번 대국 홍보효과를 등에 업고 향후 AI 분야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br/><br/> 이밖에도 이 9단과의 대국에서 구글은 알파고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9단과의 대국에서 알파고가 패한 지난 13일 대국 직후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span class='quot0'>이번 대국을 통해 알파고의 약점을 보완할 것</span>”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파고는 인간이 입력한 기존 기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학습(머신러닝)을 하는데, 데이터가 많을수록 승률과 정교함이 높아지는 구조다. 구글 딥마인드 입장에서는 세계 최정상 바둑 기사와의 대국을 통해 기존에 입력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보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만으로도 대국 비용이 아깝지 않게 됐다. <br/><br/>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89.txt

제목: 전남의대 약리학교실 김경근 교수, 대장암 조기 선별 검사법 특허 출원  
날짜: 201603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4210028558  
ID: 01100201.2016031421002855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남의대 약리학교실 김경근(사진) 교수는 화순전남대병원 종양내과 정익주 교수, 소화기내과 주영은 교수, 병리과 이재혁 교수 등과 함께 소화기계 암 억제에 관여하는 유전자(APC)가 소실된 후 대장선종이 선암으로 변하는 과정을 연구한 결과 ‘키테닌(KITENIN)과 ErbB4 CYT-2 이소폼(isoform)이란 두 유전자가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br/><br/> 김 교수팀은 종양을 가진 생쥐들과 대장암 환자에게서 떼어낸 암 조직 표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검증하는데도 성공해 키네틴 유전자를 이용한 대장암 조기선별 검사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br/><br/> 연구결과는 미국암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CR)’ 최근호에 게재됐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0.txt

제목: 비타민B군, 뇌 기능 활성화 돕는다… 치매 예방에 좋은 봄철 음식 6선  
날짜: 2016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1202224763  
ID: 01100201.20160311202224763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는 건강하지 못한 식사와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유발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평소 몸을 다지기 위한 운동과 더불어 꾸준한 뇌자극 훈련을 통해 두뇌 건강을 증진시켜야 하는 이유다.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몸 건강과 명철한 기억력을 간직하는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뇌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br/><br/>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B군은 심장병과 당뇨 위험을 막고 빈혈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또 소화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한다.<br/><br/> 최근 주목되는 것은 비타민B군과 인지기능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건국대병원 신경과 한설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비타민B군, 특히 비타민B�扇굳�, 비타민로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비타민B군이 부족해지면 인지기능도 비례해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span>”고 소개했다.<br/><br/> 실제 비타민B군은 우리 신경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서 비타민B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br/><br/> 추위로 잔뜩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봄철에는 겨우내 운동이 부족한 상태인 데다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 비타민B군과 비타민C 등 영양소 요구량도 늘어나기 마련. 건강한 제철 먹을거리를 통해 우리 몸과 두뇌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더는 치매가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들어보자. <br/><br/>사진·자료 제공=치매, 음식이 답이다(싸이프레스)<br/><br/>(1) 도다리쑥국(열량 2017㎉, 탄수화물 4.3g, 단백질 35.8g, 지방 5.5g)<br/><br/>도다리는 단백질이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지만 지방은 0.7%에 불과한 생선이다. 비타민B�發�B�碧�E, 니아신(비타민B��)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글루타민산, 글리신, 알리닌, 라이신 같은 아미노산도 균형 있게 들어 있다. 빠른 두뇌 회전이 요구될 때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다. 입맛도 돋우고 머리를 맑게 해 치매 예방에 좋다. 쑥은 무기질과 비타민 A, B��, C를 많이 함유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쑥의 독특한 향기는 ‘치네올’이라는 정유 성분 때문이며 봄철 입맛을 돋운다. 또 쑥에 들어있는 키페올키닉산과 페놀릭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이 강해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도다리 160g, 무 50g, 쑥 20g, 쪽파 10g, 국간장 5㎖, 다진 마늘 3g, 소금 약간, 육수 국물용 멸치 5g, 다시마 3g, 대파 10g<br/><br/><만드는 법><br/><br/>①무는 나박 썰고 쪽파는 3∼4㎝ 간격으로 잘라 준비한다. ②멸치, 다시마, 대파를 찬물에 넣고 육수를 낸다. 다시마는 물이 끓고 3분이 지나면 걷어내고 나머지는 익은 뒤 건져낸다. ③육수에 나박 썬 무와 국 간장을 넣고 한소끔 끓기 시작하면 도다리를 넣는다. ④도다리가 익으면 다진마늘, 쑥, 쪽파, 소금을 넣고 살짝 끓인다.<br/><br/>(2) 미나리해물전(열량 29㎉, 탄수화물 33,5g, 단백질 31.5g, 지방 4.5g)<br/><br/>미나리는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와 플라본, 칼륨, 칼슘, 철분이 많이 들어 있는 알칼리성 식품이다. 엽록소, 엽산, 철분 함유량도 풍부해 빈혈을 예방하는 데 좋다. 혈류를 개선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 캄펜, β-피넨, 미리스틴, 카르바크롤, 시아노사이드 등의 정유 성분 때문에 독특한 향이 있어 풍미를 더한다. 특히 카르바크롤은 항염증 작용이 강해 신경세포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 시아노사이드는 신경세포 보호기능이 있어 치매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홍합살 20g, 오징어 30g, 새우살 30g, 미나리 25g, 양파 10g, 홍고추 5g, 부침가루 40g, 물 50㎖, 식용유 5㎖<br/><br/><만드는 법><br/><br/>①홍합살과 새우살은 소금물에 흔들어 씻은 뒤 건져내 물기를 뺀다.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 가늘게 썬다. ②미나리는 3㎝ 간격으로 썬다. 양파는 채썰고 홍고추는 어슷하게 썰어둔다. ③부침가루에 물을 넣고 거품기로 저어 부침반죽을 만든다. ④반죽에 가늘게 썬 오징어, 홍합살, 새우살, 미나리, 양파, 홍고추를 넣고 잘 섞는다. ⑤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입 크기로 동그랗게 부친다.<br/><br/>(3) 두릅·파프리카·무쌈말이(열량 68㎉, 탄수화물 9.4g, 단백질 1.7g, 지방 3.1g)<br/><br/>두릅은 단백질이 많고 지방, 당질, 섬유질, 인, 칼슘, 철분, 비타민B�發�B��, 비타민C 성분과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 성분은 혈당을 내리고 혈중 저밀도(LDL) 콜레스테롤을 낮춰 당뇨와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한다. 그 결과 퇴행성 뇌혈관질환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흔히 피망으로 불리는 파프리카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빛깔만큼 맛과 효능도 다르다. 빨간색 파프리카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고, 주황색 파프리카는 베타카로틴이 많다. 노란색 파프리카는 생피라진이란 물질이 많아 심혈관계 질환 예방,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억제에 좋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두릅 50g, 빨간색 파프리카 20g, 노란색 파프리카 20g, 주황색 파프리카 20g, 쌈무 20g, 소금 약간<br/><br/><만드는 법><br/><br/>①두릅은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 물기를 빼서 준비한다. ②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는 채 썰어 준비하고 쌈무도 물기를 제거해 둔다. ③물기를 뺀 쌈무에 두릅과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를 넣고 돌돌 만다. ④믹싱볼에 고추장 참기름 식초 통깨 설탕을 넣고 섞어 초고추장을 만든 후 함께 곁들여 낸다.<br/><br/>(4) 냉이참깨죽(열량 251㎉, 탄수화물 42.4g, 단백질 6.9g, 지방 6.1g)<br/><br/>십자화과 식물인 냉이의 어린 순과 잎을 잘게 썬 뒤 죽에 넣어 끓여 먹으면 밥맛이 좋아지고 기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 냉이에는 단백질, 비타민, 회분, 섬유질, 탄수화물, 칼슘, 인 등의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 있다. 특히 단백질과 비타민A, 칼슘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냉이는 간에 쌓인 독을 풀어주고 간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게 하며 지방간을 치료하는 데도 좋다. 또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가진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노화로 인한 뇌신경세포의 퇴행을 막아준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냉이 40g, 맵쌀 30g, 참깨 5g, 간장 5g, 다진 마늘 3g, 참기름 3㎖, 육수(무20g, 양파 10g, 다시마 약간)<br/><br/><만드는 법><br/><br/>①육수를 만든다. 다시마를 찬물에 최소 1시간 이상 담가둔 다음 무와 양파를 넣고 끓인다.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건져내고 무와 양파는 더 끊인다. ②맵쌀과 찹쌀을 깨끗이 씻어 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육수에 넣는다. 중간 불에서 넘치지 않게 끓인다. ③냉이는 깨끗이 다듬어 데친 후 1∼2㎝ 크기로 썰어 간장과 다진 마늘을 넣어 무쳐 놓는다. ④참깨는 믹서에 곱게 갈아 준비하고 ②의 쌀이 끓어 밥알이 퍼지면 잘게 썬 냉이와 참깨를 넣어 끓인 다음 참기름을 넣어 완성한다.<br/><br/>(5) 달래봄동무침(열량 79㎉, 탄수화물 13.6g, 단백질 3.4g, 지방 1.9g)<br/><br/>달래는 특유의 향이 된장찌개나 간장 양념장에 잘 어울린다. 파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희고 동그란 달래의 알뿌리는 국물요리에 개운한 맛을 더해준다. 비타민 A·B�發�C 등이 골고루 들어 있고 칼슘과 칼륨 함유량도 풍부하다. 달래는 보통　짜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익한 봄나물이다. 달래의 칼륨 성분은 우리 몸속에 있는 쓸데없는 염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달래는 고혈압 환자에게 약용식물로 통한다. 달래는 또한 마늘이나 양파와 마찬가지로 알싸하고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알리신과 알리닌이 많이 들어 있어 항산화효과 역시 강력하다. 봄철에 달래 나물을 자주, 많이 섭취하면 치매 등 퇴행성 뇌질환 발생위험을 줄일 수 있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달래 40g, 봄동 30g, 양념장(고추장 10g, 고춧가루 3g, 식초 10㎖, 설탕 5g, 참깨 2g, 소금 약간)<br/><br/><만드는 법><br/><br/>①달래와 봄동은 깨끗하게 씻어서 한입 크기로 썰어둔다. ②볼에 고추장, 고춧가루, 식초, 설탕, 참깨, 소금 약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든다. ③먹기 직전에 달래와 봄동에 양념장을 얹어 재료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가볍게 무쳐 식탁에 올린다.<br/><br/>(6) 주꾸미샐러드(열량 101㎉, 탄수화물 12g, 단백질 7.3g, 지방 3.1g)<br/><br/>해마다 3∼5월 서해안 일대에서 주꾸미 축제가 열릴 만큼 각광을 받는 식재료다. 양질의 단백질과 칼슘, 칼륨, 인, 셀레늄, 철 등 필수 미네랄이 풍부해서다. 비타민A·C, 시아노코발라민(비타민B )이 많아 빈혈예방, 시력보호, 면역증강에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오메가3도 많이 함유, 심혈관질환과 암 예방은 물론 알츠하이머 치매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 몸에 좋은 유기산 성분인 타우린과 불포화지방산(DHA)이 많아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작용도 한다. 낙지보다 덜 질기고 오징어보다 감칠맛이 더 나는 주꾸미는 살짝 데쳐 통째 먹어야 제 맛이 난다.<br/><br/><식재료><br/><br/>1인분 기준 주꾸미 70g, 양파 20g, 양상추 30g, 라디치오 10g, 치커리 5g, 비타민 10g, 풋고추 2g, 고추기름 드레싱(고추기름 5㎖, 올리브오일 5㎖, 매실청 5㎖, 식초 2㎖, 소금과 후추 약간)<br/><br/><만드는 법><br/><br/>①주꾸미는 손질해 끓는 물에 데친 뒤 찬물에 식혀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②양파, 풋고추는 채 썰어 준비한다. ③양상추, 라디치오, 치커리, 비타민 채소는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 찬물에 담근다. ④볼에 드레싱 재료를 잘 섞어 고추기름 드레싱을 만들고, 그릇에 재료를 담아 곁들인다. 소스는 따로내 조절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1.txt

제목: [책과 길-암연대기] 암은 현대병?… 고대인도 암 앓았다  
날짜: 201603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1041104047  
ID: 01100201.2016031104110404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span class='quot0'>우리 모두 언젠가는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span>”<br/><br/> 당신이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이유는 암일 가능성이 높다. 암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암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br/><br/> “우리가 무찌른 감염성 질병들은 하나의 인자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정체를 파악해서 죽이거나 백신으로 무찌를 수 있는 적들이었다. 하지만 암의 경우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 뒤죽박죽 엉망이 된 증상들을 비롯해 그 모든 요인들을 통째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너머에 존재할 것이다. 암은 질병이 아니다. 암은 하나의 현상이다.”<br/><br/> 뉴욕타임스 등에 우주과학 기사를 기고해 온 미국의 과학저널리스트 조지 존슨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자 암 공부를 시작했다. “<span class='quot0'>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세포 하나가 사람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에일리언 같은 괴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일까?</span>” 이것이 그의 핵심적 질문이었다. 그는 수백 편의 논문을 읽고, 각종 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들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알아낸 암에 대한 최신의 지식을 ‘암연대기’라는 책 한 권에 담아냈다.<br/><br/> 우리 주변에는 암에 대한 정보가 넘쳐난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 대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이 책은 알게 한다. 예컨대, 암이 현대병이라는 건 오해다. 저자는 고대사 박물관들을 뒤져 고대인들이 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암 발병률이 현대에 와서 급증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다. 암이 유전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미국으로 이주한 흑인 노예의 후손들과 그대로 아프리카에 남아 있는 그들의 친족들을 비교해본 1950년대 연구에서 미국의 흑인들에게서 훨씬 더 많은 암이 발병한다는 게 확인됐다. 고기를 피하고 채식 중심의 저지방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비타민 C와 E 같은 항산화제를 둘러싼 믿음도, 휴대전화가 뇌종양을 유발한다는 것도, 심지어 흡연이 암의 원인이라는 것도 미심쩍은 얘기들이다.<br/><br/> 이 책에서 가장 공들여 설명하는 것은 암세포의 성장과정이다. 세포 재생 과정에서 태어난 돌연변이 세포가 우리 몸의 수많은 방어 시스템을 통과해 어떻게 하나의 종양으로 정착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종양이 어떻게 무한한 번식력으로 우리 몸을 침탈하게 되는지 상세하게 보여준다.<br/><br/>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암과의 싸움이라는 인류의 목표가 착각이 아닌가, 의학이 암과 싸워온 방식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닌가 의심한다. 우리 몸속에서 매초 400만개의 세포가 세포분열을 하고, 세포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는 게 자연스런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span class='quot0'>암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span>”는 시각을 제시한다. “<span class='quot0'>신체는 암이라는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암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span>”이라는 것이다.<br/><br/> “<span class='quot0'>암은 언제나 인류와 함께 해왔고, 암에 걸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며, 온갖 주의사항을 제아무리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유전자 속에 들어 있는 무언가가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어쩐지 위안이 되었다.</span>”<br/><br/>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2.txt

제목: “포도주 내 ‘레스베라트롤’, 심혈관 질환 억제”… 포스텍 류성호 교수팀 원리 규명  
날짜: 201603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10195851857  
ID: 01100201.2016031019585185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포도주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원리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다.<br/><br/> 포스텍 류성호(사진) 교수팀은 포도주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이 인체 단백질 ‘엠톨’의 활성화를 억제해 심장 건강을 돕는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신호에 발표됐다.<br/><br/> 레스베라트롤은 포도껍질에 많이 들어 있는 천연 생리물질로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물질이 몸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br/><br/> 류 교수는 “<span class='quot0'>레스베라트롤이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 효과를 내려면 ‘자가소화작용’(손상세포 수리)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세포 실험을 통해 레스베라트롤의 자가소화작용이 엠톨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span>”고 말했다.<br/><br/>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암, 당뇨병, 퇴행성 신경질환,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도 낸다.<br/><br/> 류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로 레스베라트롤의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물질을 개발하고 부작용을 예측하는 기술을 고안할 수 있게 됐다</span>”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3.txt

제목: [장윤형 기자의 이슈 체크-비타민 C 보충제] 툭하면 효능 논란 … 객관적 근거 더 명확해져야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2239584  
ID: 01100201.2016030618223958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만약 종합비타민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어떨까. <br/><br/> 이러한 논란의 불씨가 된 것이 최근 발표된 비타민C 관련 연구다. ‘비타민제 먹지마라’를 외치는 명승권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비타민C를 음식이 아닌 보충제의 형태로 복용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메타분석 결과 확인됐다</span>”고 밝혔다.<br/><br/> 국제학회지에 발표된 비타민C 보충제와 암예방의 관련성을 조사한 7편의 임상시험을 메타 분석한 결과, 이 같이 결론 내렸다. <br/><br/> 연구에 따르면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 연구(총 6만2619명 대상자)를 종합해 메타분석한 결과, 음식이 아닌 보충제의 형태로 비타민C를 복용한 군과 위약(placebo)을 복용한 군 사이에 암 발생률 혹은 암 사망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교수는 “천연비타민과 합성비타민은 화학 구조식은 동일하지만, 입체적 구조는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냐 보충제의 형태냐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 비타민C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암, 심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된 바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종합비타민도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있는지 검증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br/><br/> 반면 비타민C를 비롯한 종합비타민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이왕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비타민C가 투여량에 따라 암세포 증식 억제뿐 아니라 암세포 사멸까지 유도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다.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C가 암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에서 비타민C의 적정량 투여하지 않았을 수 있다. 비타민 용량을 높이는 등의 실험 조건을 맞춘다면 암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우리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 또한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위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그럼에도 논란은 가시질 않는다. 종합비타민이 질병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원 연구진이 만 65세 노인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종합비타민과 위약을 12년간 섭취하게 한 뒤 기억력 시험을 한 결과, 비타민을 먹은 실험군과 가짜약을 먹은 대조군의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존스홉킨스대 연구에서 비타민 섭취와 심장질환 예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때 베타카로틴 섭취가 폐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와 충격을 주기도 했다. <br/><br/> 다만 건강식품회사나 제약사들은 현대인들이 음식을 통해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제 섭취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br/><br/> 명 박사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엄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건기식이 마치 혈당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잘못됐다. 건기식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식약처도 건기식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 종합비타민이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섣불리 결론내리기는 이르다. 하지만 비타민 연구가 좀 더 객관적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br/><b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4.txt

제목: 최창운 한국원자력의학원 신임 원장 “방사능 재난 비상진료 기능 확대”  
날짜: 201603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306180232188  
ID: 01100201.2016030618023218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와 임상을 융합해 국내 방사선의학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span>”는 포부를 밝힌 최창운(사진) 신임 원장이 지난 1월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최창운 원장은 1995년 한국원자력의학원 산하 원자력병원에 핵의학과 전문의로 입사한 이래 연구소장, 병원장,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등 의학원 산하의 각 단별 요직을 두루 거쳤다.<br/><br/> 방사선은 의료 현장에서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영상 진단 영상과 암 치료에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방사면역치료와 같이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표적치료와 정밀 진단 등 과학기술이 접목된 첨단 의료를 대표하는 분이다. 최창운 원장은 방사선의학이 지금까지는 암 진단과 치료에 집중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치매, 대사성 질환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내 기술력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br/><br/> ◇‘효율 높이고 실용성 강화’, 국민에게 득이 되는 방사선의학=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의학연구소와 함께 암진료에 특화된 원자력병원, 방사선 재난 시 의료적인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 원장은 연구, 암 진료, 방사선비상진료의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의학원의 국가적 임무라는 포부를 밝혔다. <br/><br/> 그 첫 단계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각 사업단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과 실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임무중심형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방사선임상연구조직 신설 등으로 협력 연구 시너지를 강화하며,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부 출연금 사업 재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br/><br/> 특히 방사선 재난 대비 의료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 의료 공공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의학원은 지난 2002년 국가적 차원에서 방사선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방사선 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산하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만큼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비상진료기능 확대와 동시에 일반 국민들을 위한 방사선 클리닉,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br/><br/> ◇튼튼한 병원경영을 바탕으로 의료 공공성 실현=최 원장은 병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병상가동률 증대와 함께 다학제통합진료, 집중영양치료 프로그램 등 신규 의료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br/><br/> 내부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도입한 ‘텐퍼센트 캠페인’도 반응이 좋다. 직원들이 10%씩 업무목표를 높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구축, 실질적인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원장 취임 후 전년대비 7% 가량 진료수익이 증대되는 성과도 얻었다. 이러한 내실 있는 병원경영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무료의료봉사, 이동건강검진 확대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보건소 재가 암환자 연계서비스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기능을 높여 기관의 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등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계획이다.<br/><br/> 의학원은 특히 방사선 의학 기술을 이용한 신약산업 성장기반 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해 착공한 방사성의약품 복합연구센터 건설이 완료되면 향후 방사성 의약품의 개발공정에 대한 연구 지원이 강화된다. 최 원장은 “<span class='quot1'>치료용 방사성의약품 개발기반을 마련해 난치성 질환치료제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줄 창구가 될 것</span>”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5.txt

제목: 조윤제 포스텍 교수, 올 포스코청암상 과학상 수상자에  
날짜: 201602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5192051976  
ID: 01100201.20160225192051976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조윤제(사진) 포스텍 교수가 올해 포스코청암상 과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포스코청암재단이 25일 밝혔다. 포스코청암상 교육상은 금오공업고등학교가, 봉사상은 무료진료소를 운영해 온 ‘라파엘 클리닉’이 각각 수상했다. 조 교수는 암과 같은 종양을 억제하는 단백질 등의 구조와 치유 메커니즘을 밝혀낸 공로다. 포스코청암재단이 주관하는 포스코청암상은 과학·교육·봉사 3개 부문을 선정하며 상금은 2억원이다.<br/><br/>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백신 중년여성에도 효과 있을까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32691  
ID: 01100201.2016022118093269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 여아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 동네 병의원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40∼50대 여성들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진다. 또한 3회 접종 대신 2회 접종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도 많다.<br/><br/> 결론은 중년 여성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효과가 일부 있고, 일정 연령에서는 2회 접종과 3회 접종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2회 접종만 해도 된다는 점이다. <br/><br/> 이는 대한부인종양학회가 건강한여성재단 후원으로 발표한 부인암 진료권고안 개정 3판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권고안에 담겨 있다. 부인암 진료권고안은 2006년 1판, 2010년 2판에 이어 3판이 공표됐다. 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해당 권고안은 진료 최신 지침으로, 진료 오류나 무분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의료를 근거중심 자료로 제시하고 진료 표준화를 위해 개정됐다.<br/><br/> 자궁경부암 백신을 2회 접종과 관련, 기존에 연구에서는 6개월에 걸쳐 총 3회 접종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권고안은 4가 백신인 ‘가다실’과 2가 백신인 ‘서바릭스’ 모두에서 9세와 13세 사이에 2회 접종과 3회 접종이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규정했다. <br/><br/> 그렇다면 성경험이 있거나 바이러스 접촉 확률이 높은 중년 여성에게서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효과가가 있을까?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다. 권고안에서는 4가 백신이 27세와 45세 사이, 2가 백신은 26세와 45세 사이의 연령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접종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br/><br/> 그럼에도 백신의 최적 접종 연령은 국내 성행태 연구와 면역원성 연구를 토대로 11∼12세로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적정 접종 연령은 가다실, 서바릭스 백신 모두 9세와 25세 사이 성 접촉이 있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권고안은 3회 접종 연령 기준도 제시했다. 4가 백신의 경우 9∼26세 여성, 2가 백신은 9∼25세 여성이라고 한정지었다. <br/><br/> 임산부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서로 다른 백신 간 교차접종에 대한 예방효과다. 4가 백신 접종 시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31형에 대한 교차 예방효과가 있다고 규정했으며, 2가 백신 접종 시에도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인유두종바이러스 31, 33, 45형에 대한 교차 예방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br/><br/> 배덕수 대한부인종양학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인암에 대한 수술을 비롯한 진료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발 앞으로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번 진료권고안 개정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제약사가 9가 등의 자궁경부암 백신 개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이들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자궁경부암 백신에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7.txt

제목: [2016 눈길끄는 암 치료법-광역학치료] 암 덩어리에만 선택 축적-괴사 시켜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9994  
ID: 01100201.201602211809299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민일보 건강섹션 암과의 동행에서는 '2016년 주목 해야 할 암치료'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최근 암 치료분야에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많은 임상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광역학 치료', '면역항암제', '온열암치료'에 대해 소개합니다.<br/><br/>빛을 이용해 암 세포를 파괴하는 광역학치료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빛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광과민제를 정맥에 주사하면 암 덩어리에만 선택적으로 축적돼 빛으로 암 덩어리만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광역학치료를 영화속 뱀파이어로 비유하기도 한다. 지난 2013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광역학학술대회에 참가해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했던 러시아연방정부 산하 영상의학연구센터 미하일 A. 카플란 박사는 “광역학 치료를 설명하기 가장 쉬운 것은 영화속에 나오는 뱀파이어다. 뱀파이어가 햇빛에 노출되면 타들어가는 증상처럼, 광감작제에 반응한 암세포가 빛에 의해 사멸되는 원리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며 “현존하는 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발전된 치료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br/><br/> 최근에는 여러 암치료에 대한 광역학치료의 임상결과들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암치료법 중에서 그 동안 비주류로 자리잡고 있던 광역학치료가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 암치료에서는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주치료법으로서 떠오를 전망이다.<br/><br/>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 췌장암에 대한 치료를 예로 들어 보자. 췌장암은 국내의 경우 췌장암은 1년 이내 사망률이 최고 74%, 5년 이내 사망률이 최고 94% 에 이르는 가장 예후가 아주 나쁜 암종이며, 이는 여타 국가와도 크게 차이가 없다. 지난 2013년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로서 승인했다. 그 주된 이유가 젬자를 단독투여한 기존의 치료법과 비교하여 아브락산을 병용했을 경우에 환자의 생존기간을 평균 2.1개월 남짓 연장해 준다는 결과 때문이다. 이 임상시험에서 ‘아브락산’과 ‘젬자’ 병용투여群은 평균 생존기간이 8.7개월로 연장되어 ‘젬자’ 단독투여群의 6.6개월 보다 약 2.1개월 연장됐다. 지난 17년 동안 전이성 췌장암 환자의 평균수명을 연장해 주는 어떠한 약제나 치료법이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생명연장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br/><br/> 그런데 2015년 박도현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수술할 수 없거나, 기존의 화학요법에 실패한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최초로 초음파 유도하의 내시경적 광역학치료를 시행했다. 해당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Endoscopy(내시경학)에 발표했다. 해당 임상심험 결과는 아무런 치료를 기대할 수 없었던 췌장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br/><br/> 박도현 교수가 당시 치료에 사용한 광민감제는 기존의 1세대 광민감제보다 훨씬 개선된 2세대 약물이다. 2세대 광민감제는 종양침투 깊이의 증가와 치료 후 차광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광민감제이다. 기존 1세대 광민감제의 경우 시술 후 4주간 햇빛을 보지 말아야하는 단점이 있었으나, 2세대 광민감제는 기간을 2일로 단축시켰다.<br/><br/> 췌장암 뿐만이 아니라 광역학치료는 피부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식도암 등 다양한 고형종양의 치료영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외과적, 수술적 절제로 인한 장기기능 소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다른 화학요법과 같이 사용하는 ‘동시 항암화학 광역학치료법’을 통해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를 할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뿐 아니라 항암치료의 치료율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br/><br/> 그 동안 전통적인 약물치료에만 의존해 왔던 광역학치료가 여러 암치료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이제는 변방에서 중앙무대로 성큼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역학치료를 하는 국내 의료진들은 “<span class='quot0'>수십 년에 걸친 많은 연구에서 광역학치료 효과가 입증됐고, 앞으로 국내에서도 광역학에 대한 활발한 임상 적용과 연구가 이뤄질 것</span>”으로 전망했다. 또한 광역학치료는 화학과 약학, 생물학, 물리학, 공학 등 자연과학 전 분야가 의학에 접목된 융합기술로 미래 암 진단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br/><br/>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8.txt

제목: [2016 눈길끄는 암 치료법-온열암치료] 고주파 등 열 가해 암세포 자살유도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6285  
ID: 01100201.2016022118092628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제4의 항암치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고주파온열암치료’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 기본적인 암 치료의 보조적 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온열치료에 대한 의학자들의 많은 임상연구가 발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고주파온열암치료는 다양한 암종과 암치료에 따른 환자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br/> 온열치료(Hyperthermia)는 암 조직에 고주파 등 열을 가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살을 유도해 서서해 파괴시키는 방식의 치료방법이다. 이는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열을 가하는 것으로, 암 세포에 대한 인체의 면역기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많은 임상 연구자들이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혹은 면역치료 등과의 병용방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육종, 악성흑색종, 두경부암, 폐암, 신경교종, 췌장암, 식도암, 유방암, 방광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을 대상으로 한다.<br/><br/> 암환자 대상의 ‘온열치료’가 방사선치료와 면역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에 대한 치료 상승 효과가 있다는 임상연구들이 발표됐다.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주최로 지난해 12월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내외 임상 결과가 제시됐다. 국내 온열암치료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회장 김승철·이화의료원장)은 지난 2010년 6월 설립됐으며, 온열암치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표로 한다.<br/><br/> 김승철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온열암과 관련한 전임상·임상 시험이 20개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임상시험들이 종료되는 2017년 또는 2018년에는 한국의 여러 연구들과 해외 연구들을 공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다시 한번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 최근 임상 연구에 따르면 온열치료는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치료 효과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는 암세포 살상 기본 작용기전은 자유산소기를 만들어 암세포 DNA를 공격한다. 하지만 저산소 상태, pH가 낮은 경우, 세포 유전자 복제기(S-phase)에서의 암 세포는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갖는다. 이때 암 조직에 온열치료를 시행하면 혈류가 증가되고, 세포에는 산소가 풍부해진다. 이런 혈류 증가와 산소 농도 상승이 암세포가 방사선 치료에 민감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br/><br/> 또한 세포독성 항암제와 온열치료 병용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온열치료의 직접적인 암 세포 살상 능력과 열 치료가 항암제의 효과를 증대 시킨다는 실험실 및 임상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자들은 온열치료로 유도되는 열 기울기(temperature gradients)가 암치료에 있어 중요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온열치료기기 온코써미아를 개발했다. 온코써미아는 조직에 대한 거시적 온열치료 기능과 악성세포의 특이적인 치료가 가능한 미시적 온열치료 기능(nanothermia)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전용량 결합방식의 온열치료기기다. 이윤한 연세대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지난해 학술대회에서 “<span class='quot0'>온코써미아는 전임상시험을 통해 암세포의 세포자살(apoptosis)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과 암줄기세포를 줄여 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암치료에 온코써미아를 적용할 경우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고 말했다.<br/><br/> 국내에서 고주파온열암치료기(Oncothermia)는 지난 2007년 하스피가 국내에 처음 소개했다. 이 장비(온코써미아 EHY-2000)는 암발생 부위 또는 전이 부위에 13.56MHz의 고주파를 통과 시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자연사 (Apoptosis) 또는 괴사(Necrosis)시킨다. 또한 선택적으로 암 조직에만 에너지를 가해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이 치료기기는 생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암세포에 산소 공급을 막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 암세포를 파괴한다. 송병기 기자<br/><br/>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99.txt

제목: [2016 눈길끄는 암 치료법-면역항암제] 암 접근방식 달라 부작용 적고 안전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5620  
ID: 01100201.201602211809256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말기 암으로 투병중이던 지미 카터(91)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암이 완치됐다고 공개 선언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로 전이돼 수술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간에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더니 뇌에서 약 2㎜크기의 종양 4개가 또 발견됐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희망이 된 것은 ‘면역항암제’였다. 전이된 암에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를 투여받았고, 암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br/><br/> 최근 등장한 면역항암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놀라운 치료 효과까지 기대되기 때문이다. 1세대 항암제들은 독성이 강했다. 때문에 암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상세포까지 구분 없이 사멸시켜 환자에게 구토나 탈모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어 등장한 치료제가 1997년 등장한 2세대인 ‘표적항암제’다.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다만 표적항암제는 암 유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것, 치료제 내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표적항암제는 수많은 유전체 과학자, 의사들에 의해 개발이 진행 중인 약물이다. 뒤이어 등장한 것이 3세대 치료제인 면역항암제다. 면역항암제는 체내 면역체계에 합성 면역 단백질과 같은 요소를 추가, 면역체계를 활성화 해 종양 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이다. 이는 면역세포 표면에 있는 PD-1, CTLA-4, LAG-3 등 억제기전의 수용체와 종양세포 사이의 신호경로에 작용해 종양세포를 억제한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사멸시켜 환자에게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하지만 면역항암제는 암세포 변형으로 생기는 약의 내성 문제나 부작용 등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FDA에서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내 준 것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결과에 근거한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인 방영주 교수는 “임상을 통해 면역항암제가 기존 세포독성치료제에 비해 치료효과와 생존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은 것이 밝혀졌다”면서도, “다만 일부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이 약이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이 오용 또는 남용될 위험이 있다. 의사들이 신중하게 약을 투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br/><br/> 한편 주요 제약사들도 차세대 항암제로 알려진 면역항암제를 출시했거나, 개발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는 한국MSD ‘키트루다’와 BMS의 ‘옵디보’와 ‘여보이’ 등이 있다. 면역항암제는 흑색종암, 두경부암 등을 비롯해 최근 폐암에도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제약사인 로슈, 화이자, 사노피, 노바티스, 암젠 등도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br/><br/> 문제는 면역항암제도 내성 가능성이나 유전자 변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은 외부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적응한다. 암세포가 진화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도 변화한다. 면역항암제로 치료할 경우, 일부 환자에서 일정 투여 시간이 지나면 생존곡선에서 평형상태를 유지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항암제 투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 몸에서 면역계의 교란이 일어나 암이 재발될 우려도 있다.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면역항암제의 1회 투약 비용이 약 1000만원에 육박하다 보니 환자 가격 부담이 크다는 점에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는 국내에서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가 고가의 약값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br/><br/> 정부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된다고 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있어, 향후 제약사와 정부가 약가 협상을 통해 보험급여 적용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면역항암제가 흑색종,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암에 적응증을 가진 약물이기 때문에 보험급여가 될 경우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이 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이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한계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0.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 난소암 표적치료 3파전… 여성암 사망률 3위 극복 기대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925109  
ID: 01100201.2016022118092510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난소는 자궁의 양측에 위치한 생식기관으로 난자를 생산하며, 월경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배란 및 여성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난소암은 발병 초기에는 절제수술을 하지만 이후에도 암이 줄어들지 않거나, 재발될 위험이 있을 경우 표적항암제를 투여할 경우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br/><br/> 난소암은 종양을 먼저 제거한 뒤, 항암치료를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기· 4기의 난소암은 광범위하게 전이하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에서 개복을 하더라도 암의 완전한 절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을 우선 실시해 암이 작아진 이후에 수술을 하기도 한다. <br/><br/> 특히 난소암 치료제에서 효과가 좋은 표적항암제들의 등장으로 난소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를 제외하고 특정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치료하는 치료제로, 암환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다. 현재 출시된 난소암 치료제는 ‘아바스틴’, ‘케릭스’ 등이 대표적이며, ‘린파자’가 최근 국내에 출시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됐다. <br/><br/>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로슈의 ‘아바스틴’이 난소암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됐다. 아바스틴은 유방암, 폐암 등 다양한 영역의 질병에서 적응증을 갖고 있는 치료제로, 난소암 영역에서는 최초로 국내에서 급여를 적용받았다. 아바스틴의 난소암 건강보험적용의 근거가 된 것은 AURELIA 임상 연구다. 이 연구를 통해 재발성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과 항암화학요법 병용 투여군과 항암화학요법 단독 투여군을 비교해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 연장(6.7개월 vs. 3.4개월) 및 객관적 반응률의 향상(27.3% vs. 11.8%, P=0.001)을 확인했다. <br/><br/> 얀센의 ‘케릭스’ 역시 국내 난소암 환자들에게 지난해부터 처방 가능한 약물이다. 케릭스는 지난 1998년에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로 허가돼 2013년에 난소암 2차 이상 단독요법과 2차 이상에서 카보플라틴 병용요법으로 보험급여가 승인됐다. 한때 쉐링푸라우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발매를 포기했다가 얀센과 합병된 뒤 공급문제를 겪는 우여곡절 끝에 나왔다. <br/><br/> 최근 출시된 린파자 역시 주목 받는 난소암 표적항암제다. 린파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난소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적응증을 획득했다. 린파자는 바이오마커 중심의 분석에서 BRCA 변이 난소암 환자에게 유지 요법을 진행했을 때 해당군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11.2개월로, 위약군(4.3개월)에 비해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린파자는 난소암에서 바이오마커를 진단에 활용한 최초의 난소암 치료제라는 점으로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영태 연세대 의과대 산부인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린파자는 난소암에서 바이오마커를 진단에 활용한 최초 표적치료제로 의료진으로서 이번 국내 시판 승인을 통해 BRCA 유전자 변이로 재발하는 환자들 치료 및 삶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br/> 잇따른 표적항암제들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난소암 여성 환우들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여성에서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이어 난소암은 사망률이 3번째로 높기 때문이다.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3∼4%로 매우 낮다. 무엇보다 난소암 환자는 2차 치료 후 환자의 약 70% 이상에서 5년 이내 암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난제다. 비싼 약값에 비해 환자들의 생존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1.txt

제목: [암과의 동행] 악성흑색종 동양인이라고 안심하면 곤란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80814706  
ID: 01100201.2016022118081470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달 15일 타계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의 사인은 악성흑색종이었다. 피부암 중 가장 위험하다는 악성흑색종은 피부에서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악성으로 변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비교적 멜라닌 세포가 적은 서양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 들어 동양인에게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br/><br/> 지난달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악성흑생종 환자는 2009년 2819명이었던데 비해 2013년에 3761명으로 33.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 악성흑생종은 이제 더 이상 머나먼 곳의 얘기가 아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기양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서양인은 주로 몸통에서 악성흑색종이 생기는 반면, 동양인은 반 이상이 주로 발바닥, 발톱, 손톱 등 몸의 끝부분에서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증상도 따로 없기 때문에 이미 병기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br/><br/> 악성흑색종이 가장 처음 생길 때는 표피 아래에서 옆으로만 번지는데 이를 제자리 흑색종이라고 한다. 이때는 수술로 깨끗이 제거만 하면 예후가 매우 좋다. 그러나 만약 종양이 표피와 진피의 경계를 짓는 막을 뚫고 진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을 타고 전이할 수 있다. 특히 악성흑색종은 전이가 굉장히 빠르다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표피에서부터 침투한 깊이가 1㎜를 기준으로 그 이하(1기)면 전이율이 2%도 안 되지만, 1㎜가 넘어갈 경우(2기) 전이율은 10%가 넘어간다. 만일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3기) 생존률이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br/><br/> 그럼 악성흑색종은 왜 생기는 것일까. 정기양 교수는 일반적으로 악성흑색종은 햇빛이나 자외선 노출로 인해 생기거나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동양인의 악성흑생종 환자 증가 추세도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만 손톱이나 발바닥 등에 생기는 것은 압박이나 압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는 상태다.<br/><br/> 따라서 정 교수는 악성흑생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br/><br/> 간혹 악성흑색종을 일반 점이나 검버섯으로 오해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피부 안에서는 전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br/><br/> 또한 악성흑색종은 침투깊이가 1㎜를 넘는지 안 넘는지 등 매우 사소한 차이로 인해 예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악성흑색종을 알아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 검사받아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br/><br/> 한편 이와 관련해 정기양 교수는 양성 점과 악성 점을 구분하는 기준 5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양성 점은 장축을 그으면 대칭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점의 주변 경계가 명확하고, 진하든 옅든 색이 균일한 것은 양성이다. 6㎜ 이상의 큰 점은 나쁠 확률이 높고, 악성 점은 색이나 크기 등 서서히 변형이 일어난다.<br/><br/> 박예슬 기자 yes22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2.txt

제목: [암과의 동행] 침·피 한방울로 암 진단 척척… 첨단기술 어디까지 진화할까  
날짜: 20160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221175819644  
ID: 01100201.2016022117581964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단 한 방울의 침이나 혈액을 통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다. 최근 제약사, 벤처기업, 연구자들이 새로운 암 진단기기 개발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가능하며, 3분의 1은 조기진단과 치료로 완치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로 극복이 가능하다. 암은 조기 발견만 해도 완치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최근 암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br/><br/> 해외에서는 침 한 방울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타액 속에 암 유전자정보(DNA)를 검출하는 ‘액체 생체검사’ 방식으로 집에서 10분이면 암 진단이 가능하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데이비드 웡 종양학 교수가 개발의 주인공이다. 그는 “타액을 이용한 암 진단 키트는 환자의 집이나 치과, 약국 등 어디서든 조기 검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놀라운 진단 정확성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br/><br/> 국내에서도 다양한 암 진단 기술이 개발 중이다. 색깔로 대장암과 유방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자, 나노캡슐이 담긴 주사 한 번으로 24시간 이내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송현석 선임연구원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오석 전임연구원팀과 공동으로 빠른 시간 안에 두 종류의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는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와 예일대학교 연구진도 참여했다.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형광물질을 이용해 암 조직을 찾아내는 것으로, 형광물질이 사람의 몸속에서 암 조직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도록 만든 것이다. 그 다음 적외선과 같은 인체 투과율이 높은 빛을 쪼이면 암 조직에서 형광 빛을 내 암 부위를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원리다.<br/><br/> 안국약품은 난소암 진단키트 ‘오바체크(OvaCheck) Dx’로 500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용 임상시험을 마쳤다. 오바체크 Dx는 난소암의 조기진단 정확도를 기존 방법 보다 20% 이상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안국약품은 바이오마커 3종 기술을 기반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종 진단장치에 대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br/><br/> 혈액검사만으로 암 진단이 가능한 기술도 있다. 파나진은 혈액검사 암진단 기술인 ‘c-melting’ 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암 진단방법처럼 고통이 따르는 조직을 채취하지 않고도 혈류를 순환하는 종양의 DNA를 탐지해 분석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c-melting은 조직 채취없이 혈액 내 DNA 검출로 초고감도 진단이 가능해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파나진은 폐암과 대장암의 주요 바이오마커들에 대해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br/><br/> 99달러만 내면 244가지의 개인 건강 정보와 유전적 특성, 암 발병 가능성까지 예측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까지 등장했다. 유전자 검사 기관 ‘23앤미(23andme)’에 사람의 타액을 보내기만 하면 1주일 안에 개인의 유전자 특성, 암이나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 등을 분석해주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러한 암 진단기술 발전은 고령화사회에 진입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려는 사람들의 요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 많은 첨단화된 암 진단기술이 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3.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47) 코 알레르기 전문 영동한의원 김남선 원장팀] 한방 ‘칵테일 요법’으로…  
날짜: 201601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9040740375  
ID: 01100201.2016011904074037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에이즈에는 물론 유전자 타입이 달라 표적치료가 어려운 진행 암을 치료할 때 두 가지 이상 약물을 동시에 쓰는 경우가 있다. 여러 약물을 같이 써 파괴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현대의학의 다제(多劑) 병용요법, 즉 ‘칵테일 요법’이다.<br/><br/> 한방에도 이런 치료법이 있다. 한 가지 질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코에서 폐에 이르는 호흡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한 번에 두 마리 토끼 잡기 식이다. 알레르기 비염부터 기관지천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폐섬유화증까지 다양한 호흡기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 심지어 키가 작아 고민하던 소아청소년은 코 알레르기 치료 후 키가 쑥쑥 자라는 효과를 덤으로 얻기도 한다.<br/><br/> 코 알레르기 전문 영동한의원(원장 김남선)이 주로 처방하는 한약 ‘김씨영동탕(金氏永東湯)’ 얘기다. 이 처방에는 전통 한약 소청룡탕(小靑龍湯)과 소건중탕(小建中湯)을 기반으로 신이화(辛夷花), 금은화(金銀花), 삼백초(三白草) 등 35가지 약초가 배합돼 있다. 여기에 체질에 따라 손상된 폐·기관지 점막을 재생하고 면역력도 강화시키는 녹용(鹿茸), 녹각교(鹿角膠), 우슬(牛膝), 홍화자(紅花子), 토사자(娼悠?, 속단(續斷) 등 한약재를 적절히 가감한다.<br/><br/> 김남선(64) 영동한의원 원장에 따르면 소청룡탕은 코와 기관지, 폐에 작용해 기침, 가래, 콧물, 코 막힘을 잡는다. 소건중탕은 위와 장·콩팥의 면역력을 올리고 수독(水毒)을 빼는 역할을 한다. 금은화는 염증과 점막의 부종을 치료한다. 신이화는 호흡곤란과 숨찬 증상, 코 막힘, 입 호흡 습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녹용과 녹각교는 흡연, 미세먼지, 자동차배기가스 등 공해물질로 손상된 폐포(肺胞)를 재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결과 녹용·녹각교에 포함된 ‘판토크린(pantocrine)’ 성분이 죽은 폐포에 새싹을 틔우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화자는 폐의 점액 순환 부족을 근본적으로 다스려 폐 기능을 활성화시킨다.<br/><br/> 영동한의원이 알레르기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을 잘 고치는 의료기관으로 유명세를 탄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전국 어느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은 서울 강남지역답게 주위가 산만해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머리가 띵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며 한의원을 찾는 초중고생 환자가 많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진찰을 하면 신기하게 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다</span>”고 회고했다.<br/><br/> 김 원장이 코 질환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배경이다. 같은 동양권이면서도 동양의학, 한의학, 중의학 등의 이름으로 전통의학을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일본, 대만, 중국의 최신 연구보고서도 열심히 구해 읽었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소아 알레르기는 콧물, 코 막힘 증상 외에 정상적인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아 흥미로웠다</span>”고 강조했다.<br/><br/> 유아기, 성장기 코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가 약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축농증이나 만성비염으로 발전하고 성장·발육에 악영향을 주며 정서불안까지 합병하기 일쑤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발육을 위해 코 알레르기 퇴치가 우선이라는 말이다.<br/><br/> 영동한의원이 주목하는 코 알레르기의 한의학적 원인은 수독이다. 수독이 몸에 쌓여 넘치는 것이 콧물이라고 보는 까닭이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수독이 폐, 기관지, 코 점막에 쌓였다가 찬 공기, 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소인을 만나면 재채기나 콧물을 유발한다</span>”고 말했다.<br/><br/> 같은 이치로 수독이 기관지에 쌓이면 가래, 기침을 유발하고 천식의 원인이 된다. 폐에 쌓이면 폐렴,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으로 발전하며, 성장판이 자리한 관절과 척추에 쌓이면 키 성장을 방해한다. 성장판 연골의 온도가 낮아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덩달아 성장세포 분열이 둔화돼서다.<br/><br/> 실제 영동한의원이 수독으로 콧물·코막힘, 수족냉증 증상이 있는 여중고생 152명을 조사한 결과 같은 연령대의 평균 키에 못 미치는 학생이 8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span class='quot0'>수독을 제거하면 알레르기 비염은 물론 키가 잘 자라는 성장 및 발육 촉진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span>”고 말했다.<br/><br/>◇김남선 박사는<br/> ‘코 박사’ 소문에 외국인도 북적… 틈만 나면 외국어 ‘열공’<br/><br/><br/>1952년 경기도 용인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복고를 거쳐 1978년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했다. 석·박사학위는 1984년 모교 경희대에서 취득했다. 현재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위원, 전(全)일본 침구학회 정회원이다. 미국 LA 경산대학교 한의대(KSU) 교수와 경희대 한의대 외래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br/><br/> 우연인지 필연인지 코가 잘 생긴 이 한의사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코 알레르기 치료의 권위자다. 한의원을 처음 연 것은 1979년이다. 그간 진료한 환자가 50만여명에 이른다.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천식, 아토피 환자다.<br/><br/> 김 박사의 진료철학은 ‘난치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치료하자’이다. 그 탓일까. 그는 누구보다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늘 연구한다. 글이나 미디어를 통해 환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려 애쓴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대만, 중국에서 세계동양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가 개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에 해마다 참가해 한방 임상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큰 호응을 얻은 ‘명의가 가르쳐주는 코 알레르기 치료법’ 외에도 ‘코가 잘 생긴 코 박사의 코 알레르기 이야기’ ‘코 건강한 아이가 키도 쑥쑥 크는 이유’ ‘기침·천식·비염 한방으로 잠재우기’ 등 저서도 20권이나 된다.<br/><br/> 신동우 국회의원(새누리당),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김윤 삼양그룹 회장과 막역한 사이다. 모두 고교 동창이다. 서울대병원 내과 오병희(병원장), 강남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유형준.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오정환, 인천성모병원 성형외과 김봉겸, 한양대류마티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신규, 가천대길병원 산부인과 박종민 교수도 마찬가지다.<br/><br/> 김 박사는 요즘 틈만 나면 하는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가족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와 즐기는 골프다. 다른 하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익히기다. 그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를 통역 없이 직접 봐주기 위해서다. <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4.txt

제목: [인사] 관세청 外  
날짜: 201601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8213457629  
ID: 01100201.2016011821345762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관세청<국장급>△인천세관장 김대섭<br/><br/>◆특허청<일반직 고위공무원>△산업재산정책국장 김태만△특허심판원 심판장 권혁중△기획조정관 손영식<br/><br/>◆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경영기획본부장 이세열△전문위원 서남덕△방사선규제단장 정재학△비상대책단장 김균태△원자력안전연구실장 강성식△법령기준실장 이진호<br/><br/>◆한국천문연구원△광학천문본부장 경재만△우주과학〃 조경석△행정부장 곽우근△우주위험감시센터장 조중현<br/><br/>◆삼성서울병원△진료부원장 박윤수△기획총괄 고광철△QI실장 박승우△건강의학본부 건강의학센터장 최윤호△진료운영실 실차장 정철원△암병원 위암센터장 김재준△〃 간암〃 백승운△〃 암치유〃 안진석△심장뇌혈관병원 심장뇌혈관병원장대행 전은석△〃 심장센터장 권현철△대외협력실장 이준혁△전략기획팀장 손태성△CRM〃 양광모△QPS〃 이준행△환자행복〃 성기선△위기대응·PI〃 김덕경△골관절센터장 문영완△감염병대응〃 정두련△연구전략실장 윤엽△연구전략실 실차장 유규하△중개융합의학연구소장 고재욱△디지털헬스케어연구센터장 장동경△임상역학연구〃 서지영/엘리세오(공동)△임상의학연구소장 박영석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5.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사노피, 서울대와 항암면역세포치료게 개발 外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4316372  
ID: 01100201.2016011718431637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사노피, 서울대와 항암면역세포치료게 개발=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최근 서울대 산업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과 차세대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플랫폼(Immune Cell Therapy Platform) 개발을 내용으로 공동 연구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협약은 서울대 의과대학 정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신규 항체와 KAIST 전상용 교수팀이 개발한 신규 펩타이드를 서울대 의과대학 최경호 교수팀의 면역세포기술을 이용해 면역세포에 결합시키는 내용이다. 공동연구는 개선된 항암 면역 세포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br/><br/>◇아스트라제네카 오시머티닙 유럽서 시판 승인 권고=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유럽의약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오시머티닙(AZD9291)80㎎’의 시판 승인을 권고하는 긍정적인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오시머티닙은 1일 1회 투여 정제로, 국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T790M 변이 양성 비소세포성폐암 성인 환자를 위한 치료제이다. 이번 결정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 저해제(EGFR-TKI)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질환이 진행된 비소세포성폐암 환자 및 EGFR-TKI 치료를 받지 않았던 T790M 변이 환자의 오시머티닙으로의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포함한다.<br/><br/>◇암젠코리아 ‘키프롤리스’ 식약처 허가=암젠코리아는 자사의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 ‘키프롤리스(성분 카필조밉)’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키프롤리스는 세포 내 단백질 축적을 유도하는 프로테아좀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제다.<br/><br/>◇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6.txt

제목: [암과의 동행] 믿을수 있는 암정보는 어디에?  
날짜: 201601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7180347101  
ID: 01100201.20160117180347101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내가 암이라면, 또는 내주위에 암 환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하지”이다. 다음으로 정보수집에 나서는데 문제는 정확하고 최신의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있어 제대로 된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br/><br/> 가장 대표적으로 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립암센터가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www.cancer.go.kr)이다. 국가암정보센터는 다빈도 암 17종을 시작으로 소아암·희귀암을 포함한 100개의 암 데이터를 국립암센터 소속 전문의가 작성·검토해 구축했다. 암의 명칭별, 계통별로 분류해 암의 예방·진단·치료·생활가이드 등의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암 관련통계를 비롯해 암 정보를 리플렛, 소책자, 그림동화, 동영상 강좌, 애니메이션 등 쉽고 재미있게 제공한다. 전화상담(1577-8899)도 효과적인데 암 전문 상담사가 암예방, 암의 진단·치료·재활·식생활, 완화의료, 호스피스 등 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 암검진 및 중증(암)환자 등록·신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재가암환자 서비스를 원할 때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보건팀(재가암환자관리)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확인신청, 응급의료비 대불 및 신약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여부 등을 알려주고, ‘건강정보’ 앱을 통해서도 병원별 진료비, 내가먹는 약 알아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r/><br/>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서비스 문의는 국가암정보센터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가능하며, 병원의 사회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등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한국의료지원재단 등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외 병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r/><br/> 한편 환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호객을 하는 경우도 있어 활동 회원이 적은 곳보다는 많은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곳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7.txt

제목: [김경철의 닥터 바이블] 장수 시대 품위 있게 살아가는 법  
날짜: 20160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5180634535  
ID: 01100201.201601151806345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 평균 수명은 1960년 52세에서 2014년 81세로 크게 늘었다. 2014년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0세 이상의 장수 노인은 전국적으로 1만 4592명이나 되었다. 노아 홍수 이전의 구약 시대의 평균 수명이 912년이나 되었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 175세, 야곱 145세, 요셉 110세로 수명이 급강하 하더니 그 이후 인류의 수명은 더욱 짧아졌다. <br/><br/> 시편 기자는 인생의 나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했다. 최근의 수명 증가는 인류가 다시 창세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하다. 유엔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100년 경에는 100세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br/><br/> 인류가 다시 오래 살게 되면서 많은 신체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양산하고 있지만 그래도 손주에 증손주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어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숨길 수 없는 본능이리라. 문제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이다. <br/><br/> 노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텔로미어(telomere)이다. 텔로미어란 염색체 양 끝에 있는 뚜껑 같은 부분을 가리킨다. 특정 염기서열이 수천 번 이상 되풀이되는 구조와 길이를 지니고 있어서 염색체의 말단 부위가 분해 되거나 염색체끼리 서로 융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흔적을 남기는데 DNA의 끝부분인 텔로미어가 짧아져가는 것이 그것이다. <br/><br/> 앞선 관찰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많거나 장내세균 등 내독소가 많은 경우 텔로미어의 길이가 더 짧아졌음을 보여주었다. 최근의 실험실적 연구에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늘임으로써 생명의 수명을 연장하는 시도가 있어왔다. 이런 이론이 현대의 인류에게 불노초를 안겨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최근 텔로미어에 대한 임상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무엇이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br/><br/> 예를 들면 5년간의 지중해식 식이요법을 통해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졌고, 전립선 암환자가 1년간 운동 등을 통해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연구가 발표 되었다. 6주간의 기공이나 명상 등을 통해서도 텔로미어가 길어졌다는 연구 등도 있었다. 이런 연구들은 성공적인 노화가 단순히 생명의 연장이 아닌 건강한 상태에서의 연장임을 지향한다. <br/><br/> 올해는 독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단순히 외모의 안티에이징을 넘어 몸의 안티에이징, 즉 활기차고 튼튼한 몸을 통해 활력 있게 살아가기다. 마음의 안티에이징도 필요하다. 우울과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즐겁게 살아가기다. 뇌의 안티에이징도 언급하려고 한다. 치매의 공포를 이겨내고 올바른 판단과 총명함을 잃지 않는 품위 있는 노화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등에 대해 총체적인 항노화를 다루고자 한다. <br/><br/> 무엇보다 영혼의 안티에이징이 중요하다. 80세에 소명을 좇아 길을 떠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청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영적 건강함을 포함한 진정한 장수의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잠 10:27)<br/><br/><차의과학대학교 교수><br/>◇약력 △연세대 의대(노화과학 박사) △강서미즈메디병원 가정의학과장, 파푸아뉴기니 국제협력의사(KOICA)·서울경기누가회장 역임 △차의과학대학교 차움병원 안티에이징 센터장.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8.txt

제목: 효모에 항암제 담아 암세포에 전달 기술 개발… KAIST·GIST 연구진 공동연구  
날짜: 2016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12211537901  
ID: 01100201.201601122115379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빵·맥주 발효에 쓰이는 ‘효모’에 항암제를 담아 표적 암세포에 전달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인공 소재와 달리 독성이 없는 데다 항암 효능이 3배 이상 높아 기존 암 치료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전상용(사진) 교수팀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영수 교수팀과 공동으로 효모 기반의 바이오 소재를 이용해 항암제를 암세포에 전달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효모에 존재하는 ‘액포’(막으로 싸인 세포소기관)가 항암제 전달 수단으로 활용됐다.<br/><br/> 연구팀은 기존 효모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유방암에 결합할 수 있는 ‘표적 물질’로 만들었다. 여기에 항암제인 ‘독소루비신’을 담아 약 100㎚ 크기의 암 치료용 약물 전달체를 구축했다. 이어 유방암에 걸린 쥐에 투여했더니 기존 치료제보다 3배 이상의 항암제를 암 조직에 전달했다.<br/><br/> 전 교수는 “인공 소재들은 생체 적합성이 낮고 몸속에 장기간 남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효모의 액포는 인간 세포막에 존재하는 성분과 비슷해 암세포와의 막 융합이 수월하고 항암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말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0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45)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 환자 마음까지 치유… ‘암과의 전쟁’서 승기  
날짜: 2016010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4191022897  
ID: 01100201.2016010419102289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을 치료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몸 속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을 할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지를 결정해야 한다.<br/><br/> 암 치료에 다학제 협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다학제 협진이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하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를 볼 일이 거의 없는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병리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타과 의사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정도(正道)를 찾는 과정이다.<br/><br/> 물론 수술을 결정해도 간단치 않다.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복수술, 복강경 수술, 냉동수술, 로봇수술 등 다양한 의료술을 총동원해 부작용이나 큰 후유증 없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하기 때문이다.<br/><br/>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센터장 김열홍·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암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이 모든 무기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곳이다. 특히 대장·직장암, 갑상선암, 자궁암·난소암,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 치료에 로봇수술을 접목시켜 미래의학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br/><br/> 로봇수술은 혈관상태, 혈류흐름, 조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안전성과 정교함도 뛰어나다. 한 개의 배꼽 구멍에 여러 개의 미세한 로봇 팔을 삽입해 수술 후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환부를 10배 이상 확대한 3차원 화면을 보며 시술하므로 주위 정상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br/><br/> 첨단 수술 장비는 뛰어난 의료진과 함께 했을 때 더 큰 효과를 얻게 마련이다.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가 그런 곳이다. 대장암·직장암 수술 분야 대가로 인정받는 김선한 외과 교수, 전립선암 수술 최고 권위자 천준 비뇨기과 교수, 아시아 최다 방광암 로봇수술 기록을 자랑하는 강석호 비뇨기과 교수 등 세계최고 의료진이 포진하고 있다.<br/><br/> 후두부 머리카락 경계선을 이용해 흉터가 눈에 띄지 않는 갑상선수술을 선도하는 정광윤 이비인후과 교수와 입안으로 수술해 작은 흉터마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경구(經口) 갑상선수술을 세계최초로 선보인 김훈엽 내분비외과 교수, 흉터 없는 유방재건성형 수술로 유명한 윤을식 성형외과 교수도 있다.<br/><br/>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는 김열홍 센터장을 중심으로 암 세포의 특정 유전자변화를 타깃으로 삼아 정밀 항암 표적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국적 임상시험 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암의 진행과 전이를 막는 표적치료제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br/><br/> 표적치료제를 이용한 최적의 정밀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김 센터장은 암 치료 역사를 바꿀 유전자 검사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해 혈액에 떠다니는 암세포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면 조직검사 없이 피 한 방울만으로 암환자의 몸속에 어떤 유전자변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br/><br/> 고려대안암병원 암센터는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암 치유 희망병동 안암동(安癌棟)’을 바탕으로 환자와 동행하는 의료기관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안암동은 암센터가 있는 행정구역 안암동(安岩洞)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환자가 내 집같이 편안하게 머물며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br/><br/> 병동에는 국내 어느 병원에도 없는 ‘희망우체국’이 있다. 일반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체국이 아니라 우편물을 보내면 1년 뒤 배달되는 느린 우체국이다. 안암동서 치료를 받은 암 환자가 1년 뒤 자신의 투병생활을 돌아보거나, 가족의 곁을 떠나기 전 남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곳이다.<br/><br/> 김열홍 교수는 “암은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설사 암 진단을 받아도 적절하게 치료하고 잘 관리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정도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희망을 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0.txt

제목: [한설희 칼럼] 매생이국 내어준 장모의 특별한 사랑  
날짜: 2016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3182329175  
ID: 01100201.2016010318232917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운 사위에게 매생이국 준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아무리 밉살맞은 사위일지언정 입천장을 데고야 말게 하는 뜨거운 매생이국을 내주는 장모가 있을까 싶다 만은 어느 모로 보아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말이다. 매생이는 가늘고 조직이 촘촘하며 점도가 높기 때문에 뜨겁게 끓여 놓아도 모락모락 김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그러니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영락없이 입천장이 벗겨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매생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가를 알고 나면 장모의 깊은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br/><br/> 매생이는 겨울철 오염되지 않은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는데, 겉모양이 파래와 비슷한 녹조류다. 매생이라는 이름은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순수 우리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매생이의 학명은 Capsosiphon fulvescens인데 의학 논문집을 조사해보면 어렵지 않게 매생이의 의학적 효능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Cancer Cell International라는 학술지 2015년 판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매생이는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는 물론 강력한 항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 안에서 발생되는 유해산소를 중화시켜주는 효소의 생산과 활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해 산소의 양이 증가되어 우리 몸은 세포가 노화하거나 손상되고 암 세포로 변환되기 쉬운 상태로 변하게 된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노화와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br/><br/> 둘째, 2014년 유럽 영양학회지와 2015년 Marine Drugs에 잇달아 매생이 추출물이 당뇨 및 그 합병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보고가 발표됐다. 특히 중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제 2형 당뇨병의 경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 내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당산화물(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AGE)’이라는 화합물이 합성된다. 그런데 이 AGE라는 물질이 노화와 당뇨병 합병증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매생이의 생활성 성분이 AGE의 생성을 억제하여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는 것이다. <br/><br/> 셋째, 매생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물성은 혈액의 항응고 작용인데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준다’는 속설이 사실이었음을 말해준다. 혈전생성을 억제하여 뇌졸중 위험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해조류들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포화지방의 함량이 낮고 오메가-3, EPA, DHA, 리놀렌산(linoleic acid) 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매우 높다. 매생이도 예외는 아니어서 혈중의 지방 농도를 낮춰주는 저지방 식품인 동시에 열량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제격이다. 겨울철 운동량이 부족하여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려는 사람에게 좋은 무기가 되어준다. <br/><br/> 다섯째, 매생이는 엽록소 이외 다양한 비타민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비타민의 보고라 할 수 있는데 특히, 비타민 A, B1, B12, C, D, E, 리보플라빈, 니아신, 엽산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 생체 기능 활성에 도움을 준다. 빈혈을 예방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스트레스와 우울증 해소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매생이에는 요오드,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등 무기염류(미네랄) 의 함량이 풍부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웬만한 감기 기운 정도야 매생이국 한 사발이면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이쯤 되면 미운 사위에게 준다는 매생이국이 어쩌면 장모의 사랑이 가득 담긴 건강식일지 모른다. “<span class='quot0'>다시 장가든다면 목포와 해남 사이쯤, 매생이국 끓일 줄 아는 어머니를 둔, 매생이처럼 달고 향기로운 여자와 살고 싶다</span>”로 시작되는 시인 정일근의 ‘매생이’라는 시가 생각나는 겨울이다.<br/><br/>한설희 건국대병원 신경과 교수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1.txt

제목: [탐방-건국대병원 폐암센터] 막강 팀워크 구축… 예후·환자신뢰도 높여  
날짜: 20160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3174312092  
ID: 01100201.2016010317431209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원인은 ‘흡연’이다. 하지만 최근 흡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폐암 발생이 증가하면서 학자들은 비흡연자 폐암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br/><br/> 이계영 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겸 폐암센터 소장은 아시아권에서 비흡연자인 여성에게서 폐암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흡연 여성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요리과정에서 노출되는 발암성 연기와 그 외 유전학적 원인들이 비흡연자 여성에게의 폐암 발생 원인인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흡연자만 폐암에 걸린다는 선입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pan>”고 강조했다.<br/><br/> 여성 폐암 환자의 증가와 함께 주목할 점은 이들에게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같은 폐암이라도 유전자변이로 발생한 경우라면 표적항암제가 큰 치료효과를 거둔다. 이 교수는 “비흡연 폐암환자에게서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진행성 폐암환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면 해당 유전자에 맞는 약물을 투여한다. 이것이 표적항암제 치료의 원리”라고 설명했다.<br/><br/> 건국대병원 폐암센터에서는 진행성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항암제의 표적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면 표적항암제 치료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유전자 변이를 검사하는 것이 환자의 치료 방법과 예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span>”라며 “<span class='quot0'>EGFR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검사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고 ALK 유전자 검사도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진단 당시 조기 폐암이라면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3기라면 두 가지 이상의 치료법을 적용해야한다. 폐암치료에 있어 의료진의 경험과 팀워크가 중요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건국대병원 폐암센터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 교수는 “팀워크가 좋아 각 진료과의 폐암 전문가가 한 데 모여 환자의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방사선 치료 후 수술을 할지, 항암치료 후 수술을 할지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폐암 전문가 팀을 구성해 3기 환자를 대상으로 다학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 예후가 좋고 의료진에 대한 환자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폐암 4기 이상 즉 다른 장기로 전이했다면 항암치료가 최선의 치료방법이다. 이 교수는 “환자마다 암의 특성이 다르다. 암 조직학적 특성에 맞춰 항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암센터 내 병리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폐암은 1,2기 환자에서 절반 가까이 재발하는 악명 높은 암이다. 이 때문에 병원은 치료를 마친 환자라도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강조하고 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점을 의료진에게도 교육하고 강조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재발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span>”고 당부했다.<br/><br/> 한편, 이계영 교수는 폐암의 낮은 생존율을 타파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기진단법이 개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현재 체액을 이용한 폐암 검사법을 연구 중</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또한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저선량 CT 검진 방법을 비흡연자에게도 검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한다</span>”고 강조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2.txt

제목: 최대 18% 싼 온라인전용 車보험 잇따라  
날짜: 201512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8200259654  
ID: 01100201.20151228200259654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새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보험업계에선 핀테크 경쟁이 시작됐다.<br/><br/> 롯데손보는 28일 보험 온라인슈퍼마켓 ‘보험다모아(e-insmarket.or.kr)’와 자체 홈페이지 ‘롯데하우머치 다이렉트(lottehowmuchdirect.com)’에서 온라인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를 시작했다. 기존의 통신판매 보험보다 보험료가 17.6%가 더 저렴하다. 판매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기존에 보험 가격을 규제하던 1보험 2가격 제도가 없어지면서 온라인 전용보험 출시를 서둘렀다</span>”며 “<span class='quot0'>다른 보험사들도 온라인 상품을 곧 내놓을 것으로 안다</span>”고 말했다.<br/><br/> 현대해상은 새해 첫날에, 메리츠화재는 1월 4일에 각각 온라인 보험 전용 사이트를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기존 보험료보다 15∼18% 저렴한 자동차보험을 선보이면서 운전자를 위한 연금보험, 실손보험 등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기존 설계사나 텔레마케팅의 반발도 있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는 큰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1'>가장 비교하기 쉬운 자동차보험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span>”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지난 23일 인터넷에서만 판매하는 암보험을 선보였다. 생보업계는 비교적 비교가 쉬운 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생명은 온라인보험 판매뿐 아니라 핀테크 산업 전반을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의 인터넷 대출중계(P2P크라우드펀딩)업체인 디안롱과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P2P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디안롱과의 합작은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전사혁신실 부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온라인 신용평가 모델 개발, 인공지능 자산관리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br/><br/> 금융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내년 4월 1일부터 보험다모아에서 개인 맞춤형 자동차보험 가격 비교가 가능해지고 여행자보험이나 어린이보험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개편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새해에는 온라인 보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3.txt

제목: [올해 과학기술 10대 뉴스] ‘스마트 인공피부 개발’ 등 꼽혀  
날짜: 2015122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4223130183  
ID: 01100201.2015122422313018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람 피부처럼 신축성 있고 부드러우며 온도와 습도,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스마트 인공피부 개발'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 방역체계 재정비 시급' 등이 올해 주목을 끈 과학기술 10대 뉴스로 꼽혔다.<br/><b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부섭)는 3200여명의 과학기술인 및 일반인 투표로 6건의 연구 성과와 4건의 과학기술 뉴스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 인공피부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대형 교수팀이 개발했다. 내장된 센서들이 인공피부에 닿는 물체의 온도와 습도는 물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고,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까지 감지할 수 있다. 발열체는 인공피부 온도를 체온 정도로 따뜻하게 해준다. 연구진은 인공피부의 센서에서 감지된 촉각 신호를 쥐의 말초신경을 통해 뇌까지 전달하는데도 성공했다. 실제와 똑같은 기능의 '인공 손발' 제작도 조만한 실현될 전망이다.<br/><br/> 사람 몸의 체온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인 열전(熱電)소재 기술(성균관대), 섬유처럼 자유자재로 휘는 배터리 기술(삼성SDI·LG화학), 암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마이크로RNA 비밀 규명(서울대), 무한 재사용이 가능한 신소재 '그래핀 연료전지 촉매' 개발(울산과학기술원), 가볍고 강도 높은 친환경 철강 신소재 개발(포스텍) 등이 주요 연구 성과에 포함됐다. 또 국내 제약업계 사상 최고인 8조원대 신약 수출계약(한미약품), 핀테크 금융혁신-전자화폐 시대 개막, 스마트 원자로 수출 첫걸음 등의 소식이 과학기술 뉴스로 선정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4.txt

제목: ‘칼데스몬’ 단백질, 진행성 방광암에 많이 발현… 을지대병원 박진성 교수팀 처음 밝혀  
날짜: 201512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1185421610  
ID: 01100201.2015122118542161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람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특정 단백질로 방광암의 진행 및 악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내 의료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br/><br/> 을지대학교병원 비뇨기과 박진성(사진) 교수팀은 방광암 조직과 정상 방광 조직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600여개를 조사, 분석했다. <br/><br/> 그 결과 ‘칼데스몬(Caldesmon)’이라는 단백질이 정상 조직보다 방광암세포, 특히 근육층까지 암세포가 침범한 진행성 방광암일수록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칼데스몬 단백질이 방광암의 발생 또는 진행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이다. 칼데스몬은 사람의 내장기관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그동안 세포의 미세섬유 조절이나 세포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었다.<br/><br/> 이에 따라 박 교수팀은 일차성 표재성 방광암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과연 칼데스몬 발현이 암의 진행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다시 실시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칼데스몬이 발현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재발 위험이 3.5배나 높고, 암의 진행 및 성장속도도 5.3배나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br/><br/> 박 교수팀은 이 단백질 유전자를 조작하면 암 세포의 이동이나 침윤(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후속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방광암 표적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진다.<br/><br/> 박 교수는 “방광암이 근육층까지 파고들면 재발 및 사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새 종양 표지자 칼데스몬 발현 정도를 보면 그 위험도를 평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항암 표적치료 분야 국제 학술지 ‘온코타깃(Oncotarget)’ 최근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5.txt

제목: [암과의 동행] 다시 뜨는 온열암치료… 학회 “면역반응 증진시켜 방사선 치료등 병용시 큰 성과”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1338881  
ID: 01100201.201512201813388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환자 대상의 ‘온열치료’가 방사선치료와 면역치료, 항암화학요법 등에 대한 치료 상승 효과가 있다는 최근의 임상연구들이 발표됐다. 대한온열암치료연구회 주최로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내외 연구자들의 임상 결과가 제시됐다.<br/><br/> 온열치료(Hyperthermia)는 암 조직에 고주파 등 열을 가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자살을 유도해 서서해 파괴시키는 방식의 치료방법이다. 이는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열을 가하는 것으로, 암 세포에 대한 인체의 면역기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많은 임상 연구자들이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혹은 면역치료 등과의 병용방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는 육종, 악성흑색종, 두경부암, 폐암, 신경교종, 췌장암, 식도암, 유방암, 방광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을 대상으로 한다.<br/><br/> 최근 임상 연구에 따르면 온열치료는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요법 치료 효과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치료는 암세포 살상 기본 작용기전은 자유산소기를 만들어 암세포 DNA를 공격한다. 하지만 저산소 상태, pH가 낮은 경우, 세포 유전자 복제기(S-phase)에서의 암 세포는 방사선 치료에 저항성을 갖는다. 이때 암 조직에 온열치료를 시행하면 혈류가 증가되고, 세포에는 산소가 풍부해진다. 이런 혈류 증가와 산소 농도 상승이 암세포가 방사선 치료에 민감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세포독성 항암제와 온열치료 병용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온열치료의 직접적인 암 세포 살상 능력과 열 치료가 항암제의 효과를 증대 시킨다는 실험실 및 임상실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온열치료는 암조직 부위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물질의 세포막 투과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암세포에 보다 높은 농도의 항암제가 투입되게 만든다는 것이다.<br/><br/> 최근 연구에서는 온열치료의 중요한 기능은 항암 면역기능 증강작용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자들은 지난 20여년 동안의 전임상과 임상시험 결과는 39∼45℃의 온도로 암을 가열하면 항암 면역 효과가 좋아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온열암치료의 미래 전망’을 발표한 미국 미네소타대학 송창원 교수는 “암 조직은 정상조직에 비해 혈관이 덜 발달돼 있다. 국소 온열치료 즉 종양조직부위에서 경도의 온도상승(39∼41℃)은 종양조직내의 산소분압을 상승시키거나 항암제의 분포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암줄기세포를 줄여주며, 대식세포의 식세포 활동을 활발하게 허거나 세포독성 T-세포의 작용을 활성화 하는 등 암 면역반응을 증진시켜 방사선치료나 항암제 치료와 병용할 경우 암치료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 과학자들은 온열치료로 유도되는 열 기울기가 암치료에 있어 중요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찾아, 이를 기반으로 온열치료기기 온코써미아를 개발했다. 온코써미아는 조직에 대한 거시적 온열치료 기능과 악성세포의 특이적인 치료가 가능한 미시적 온열치료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정전용량 결합방식의 온열치료기기다. 이윤한 연세대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0'>온코써미아는 전임상시험을 통해 암세포의 세포자살을 유도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것과 암줄기세포를 줄여 주고 줄기세포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을 확인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이는 암치료에 온코써미아를 적용할 경우 암세포 전이와 재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pan>”고 말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6.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블린사이토] 혈액암중 진행속도 빠른 ‘급성 림프모구성’에 효과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80130025  
ID: 01100201.20151220180130025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이름도 낯설고 환자에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암이 있다. 혈액암 중에서도 질병 진행 속도가 급속도로 빠른 혈액암이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이다. 이 질환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암이다. 이 백혈병은 혈액 및 골수 내 림프구 계통 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이다. 암이 재발되는 경우 환자의 생존기간은 극히 짧다. 올해 한국에서만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진단 받는 성인 환자는 약 210∼230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적지 않은 환자들이 원인 불명의 이 백혈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상황이다.<br/><br/> 이와 관련 최근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에 좋은 효과가 있는 면역항암제가 국내에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암젠코리아가 국내에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놓은 혈액암 치료제 ‘블린사이토’가 바로 그 약물이다. <br/><br/> 암젠코리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블린사이토주 35μg(성분명·블리나투모맙)’가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의 치료제로 시판을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br/><br/> 블린사이토 약물은 이중특이성 CD19 항체와 CD3 T세포 항체가 연결된 플랫폼인 ‘BITE’로, B-계통에 기반된 세포의 표면에 발현된 CD19와 T세포 표면에 발현된 CD3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해 스스로 종양 세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법인 바이트(BITE) 플랫폼을 활용한 치료제로, 현재 치료 대안이 없는 난치성 암부터 여러 혈액암까지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br/><br/> 바이트 항체는 T세포를 종양 세포로 유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활성화된 T세포를 통해 종양 세포를 사멸시키는 것이 전체적 구조다.<br/><br/> 블린사이토의 치료 주기는 4주간의 지속적인 정맥 투여와 이후의 2주간의 휴지 기간으로 구성된다. 블린사이토는 45kg 이상인 환자에서 1일차부터 7일차까지9㎍/일 용량으로 정맥 투여하고 8일차부터 28일차까지(1차 주기)는 28㎍/일 용량으로 투여하며, 이후 2주간의 치료 휴지 기간을 갖는 용법용량으로 승인됐다. 블린사이토 치료는 이 약을 유도요법으로 최대 2회주기 투여한 후 공고요법으로 추가적인 3회 주기를 투여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다.<br/><br/> 블린사이토는 임상시험 결과 좋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및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또한 올해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성인 필라델피아 염색체-음성 재발성 혹은 불응성 전구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로 조건부 시판허가를 승인한 바 있다. <br/><br/> 한편 이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감염, 발열, 두통,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말단부위 부종, 구토, 변비 및 빈혈 등이다. <br/><br/>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7.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국립암센터 소아암 환우 공연 外  
날짜: 201512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20174924343  
ID: 01100201.2015122017492434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립암센터 소아암 환우 공연=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21일 저녁 7시 국립암센터 국가암예방검진동 8층 국제회의장에서 소아암 아이들이 프로 뮤지션과 협연하는 ‘소아암 아이들이 연주하는 기적의 하모니’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 중인 10명의 소아암 환아들이 복합예술 앙상블 그룹 ‘사운드클러스터’의 프로 뮤지션 8명과 협연으로 진행된다.<br/><br/><br/><br/>◇한미약품,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코가드 출시=한미약품(대표이사 이관순)이 항암보조용 구내염치료제 ‘뮤코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무향무취의 가글제인 뮤코가드는 암환자 치료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 안 염증을 가글로써 치료·예방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br/><br/><br/><br/>◇동산병원 자궁경부암 단일공 로봇수술 성공=계명대 동산병원이 지난해 자궁내막암을 단일공 로봇으로 수술한데 이어 자궁경부암까지 ‘단일공 로봇수술’에 성공했다. 이번 수술은 미국 존스 홉킨스병원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이다. 동산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이자 암센터장인 산부인과 조치흠 교수는 지난 7일 50세 자궁경부암 환자에게 단일공 로봇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br/><br/><br/><br/>◇미분화 갑상선암도 조기 진단·치료 중요=예후가 나쁜 미분화 갑상선암도 조기에 치료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하정훈 교수팀(내분비내과 박영주, 고대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이도영 교수)은 이 결과를 갑상선 질환의 연구와 진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갑상선학회지 ‘갑상선’ 온라인판 11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완전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4.3%에 그쳤다. 반면 저분화와 일부 미분화 환자의 생존율은 각각 65.8%와 81.3%에 달했다. 또 수술이 가능한 미분화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71.4%)도 미분화가 많이 진행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의 생존율(26.5%)보다 크게 높았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8.txt

제목: 암 발병 최대 90%, 유전 아닌 본인 탓… 흡연·비만 등 잘못된 습관이 원인  
날짜: 201512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7214702394  
ID: 01100201.2015121721470239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 대부분은 유전이 아닌 현대인의 나쁜 생활습관 때문에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 미국 스토니브룩대학 연구팀은 16일(현지시간)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흔한 암의 70∼90%가 운동부족, 환경오염, 스트레스, 흡연, 잘못된 식습관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BBC방송 등이 전했다. 다만 뇌암 등 일부 암은 신체 내부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br/><br/> 이번 연구는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 연구결과 암은 유전적 요인 등 불운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전했다.<br/><br/> 젠민위안 교수는 55세에 금연한 사람은 85세에 금연한 사람과 비교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절반이었고, B형간염 백신이 간암의 가장 흔한 형태인 간세포 암종에 걸릴 확률을 70% 낮춘다는 사례를 제시했다.<br/><br/> 영국 암연구센터의 엠마 스미스는 “<span class='quot0'>수많은 암 사례를 손쉽게 피할 수 있다는 뜻</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우리는 외부적 요인을 통제할 힘이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 그는 “<span class='quot0'>금연, 건강한 식단, 적정 체중 유지 등의 변화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런다고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확률은 크게 낮출 수 있다</span>”고 덧붙였다.<br/><br/> 정건희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19.txt

제목: 나노입자 이용한 망막질환 치료법 개발  
날짜: 201512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16212732607  
ID: 01100201.2015121621273260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나노입자를 이용해 실명을 초래하는 망막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나노입자는 크기가 10억분의 1m인 초미세 입자다. 그동안 의학계에서 영상 진단이나 약물 운송체로만 활용됐다. 나노입자 자체를 질병 치료에 적용해 효과를 입증하기는 세계 최초다.<br/><br/>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나노바이오측정센터 이태걸 박사팀과 서울대 의대 김정훈 교수팀은 금과 규소(실리카) 나노입자를 망막병증이 있는 쥐의 안구에 투여한 결과 나노입자가 혈관을 생성하는 단백질 ‘VEGF’와 결합해 그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br/><br/> 망막질환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병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신생혈관’이 실명의 주원인이다. 미숙아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 노인성황반변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태걸 박사는 “나노입자가 투여되면 신체는 이물질로 판단해 입자 주변을 특이 단백질로 균일하게 코팅하기 때문에 VEGF와 결합하는 성질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VEGF가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br/><br/> 연구팀은 나노입자의 종류보다 ‘크기’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밝혀냈다. 나노입자의 크기가 100㎚일 때보다 20㎚일 때 더 효과적이었다.<br/><br/>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나노 메디신’ 최신호에 발표됐으며 관련 기술은 미국에 특허 출원됐다. 이 박사는 “<span class='quot0'>금이나 규소는 몸에 무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 나노입자의 독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암이나 류머티즘 질환 등 혈관 생성과 관련된 질병에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0.txt

제목: 1217억 투입 국립부산과학관 11일 개관  
날짜: 201512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420813  
ID: 01100201.20160107221420813  
카테고리: 지역>부산  
본문: 부산·울산·경남지역 과학꿈나무들의 요람인 국립부산과학관이 착공 3년 만에 문을 연다.<br/><br/> 국립부산과학관은 11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br/><br/>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내 11만3000㎡ 부지에 총사업비 1217억원으로 건립된 국립부산과학관은 지역 밀착형 과학테마파크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br/><br/> 동남권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항공우주, 선박, 에너지, 방사선 의학을 주제로 180여개의 다양한 과학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br/><br/> 자동차와 항공우주관에는 고대인들이 발명한 바퀴를 시작으로 엔진과 자동차의 진화, 항공,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도전과 창조를 다양한 전시물로 보여준다. 선박관에는 잠수함이 수중에서 무게중심을 바로 잡는 원리를 익히고, 선박 설계·조립·운항을 체험할 수 있다.<br/><br/> 에너지·방사선관에는 풍력·조력·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활용기술을 배우고 방사선을 활용해 난치병인 암을 치유하는 첨단 방사선의학의 원리를 체험한다. 특히 천문관측소에는 국내 과학관에서 가장 규모가 큰 360㎜ 굴절천체망원경을 보유하고 있다.<br/><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1.txt

제목: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 이사장 “건강에 좋은 수소수… 수소샘으로 간편하게 드세요”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1004629  
ID: 01100201.201601072210046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건강관련 제품은 물론 각종 기능성 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수소수(水素水)는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미 일본 음료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상품 중 하나다. <br/><br/> 이처럼 수소수의 탁월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며 판매되고 있는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의 인기가 높다. <br/><br/> ‘수소샘’은 수소(H2)가 환원제, 즉 강력한 항산화제인점에 착안, 이를 상시 음용함으로써 몸 안의 활성(독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허품으로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76) 이사장과 소장 임동수(58)박사가 만들었다. <br/><br/> 김 이사장은 42년간 의료기기에만 매달려 연구해 온 한국 의료기 시장의 산 증인으로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공로로 대통령 포장 동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솔고는 아태지역 최우수헬스케어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br/><br/> 수소수 제품개발에 앞장선 소장 임동수(58)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장 이상적인 항산화 물질 농도를 가진 수소수를 생성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span>”고 말한다. 임 소장은 서울대와 KAIS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애크론(Akron)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고분자공학)를 받았다.<br/><br/> 김 이사장과 임 박사가 개발한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은 가벼워서 잘 날아가는 성질의 수소를 장시간 녹이기 위해 6중 티타늄백금을 이용한 전기분해 시스템으로 잘게 쪼개진 수소 분자를 물 분자 사이에 용존시키는 기술을 담은 제품이다. <br/><br/> 이 분야에서만 13개 특허출원을 이룬 임 박사는 “<span class='quot1'>최대 용존 수소량이 1,200ppb 이상, 용존 기간이 3일, 고온에서도 수소가 용존되는 기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업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버튼 조작만으로 수소수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 ‘수소샘’은 정수나 생수를 생성기에 넣으면 간편하게 수소수가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음용수 뿐 아니라 요리와 세정 등에도 적절히 사용해 항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 성인 평균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으나 이만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해산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주는 수소수 음용이야말로 충분한 수분도 섭취하고 건강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br/><br/> 수소수를 음용해 건강에 도움을 얻은 체험사례가 많다. 김만철 씨(71세)는 “<span class='quot2'>수소수 음용 후 혈압약과 전립선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다</span>”고 했고, 극심한 당뇨로 고생했다는 엄순자 씨(74세)는 “<span class='quot2'>수소수를 하루 1.2L씩 마시니 얼굴의 검버섯이 엷어지고 혈당수치도 200에서 110으로 떨어졌다</span>”고 했다. 이밖에 수소수 장기음용으로 치매, 불면증, 비염 및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암, 고지혈증, 탈모, 변비 등의 증상에 효과를 얻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br/><br/> 수소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부작용이 없고 몸에 유익하다고 전하는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수소수 체험사례를 살펴보면 당뇨와 혈압 등 만성병에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물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수소샘 기기가 내세우는 제일 큰 장점</span>”이라고 밝혔다.<br/><br/> 김 이사장은 수소수의 이 신기한 효능을 알리기 위해 임동수 박사와 공저로 『백세건강 수소수가 답이다』(상상나무)를 출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책에는 수소수가 어떻게 인체에 유익한지 항산화작용의 이론과 원리, 수소수 생성기의 활용도가 담겨 있다.<br/><br/>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지구촌 모든 인류가 건강해져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여긴다</span>”고 전했다. (1522-4547,www.sspark24.com)<br/><br/>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2.txt

제목: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 이사장 “건강에 좋은 수소수… 수소샘으로 간편하게 드세요”  
날짜: 201512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202182136737  
ID: 01100201.2015120218213673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건강관련 제품은 물론 각종 기능성 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수소수(水素水)는 건강에 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미 일본 음료시장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인기 상품 중 하나다. <br/><br/> 이처럼 수소수의 탁월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며 판매되고 있는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의 인기가 높다. <br/><br/> ‘수소샘’은 수소(H2)가 환원제, 즉 강력한 항산화제인점에 착안, 이를 상시 음용함으로써 몸 안의 활성(독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특허품으로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76) 이사장과 소장 임동수(58)박사가 만들었다. <br/><br/> 김 이사장은 42년간 의료기기에만 매달려 연구해 온 한국 의료기 시장의 산 증인으로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공로로 대통령 포장 동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솔고는 아태지역 최우수헬스케어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br/><br/> 수소수 제품개발에 앞장선 소장 임동수(58) 박사는 “<span class='quot0'>가장 이상적인 항산화 물질 농도를 가진 수소수를 생성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span>”고 말한다. 임 소장은 서울대와 KAIS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애크론(Akron)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고분자공학)를 받았다.<br/><br/> 김 이사장과 임 박사가 개발한 수소수 생성기 ‘수소샘’은 가벼워서 잘 날아가는 성질의 수소를 장시간 녹이기 위해 6중 티타늄백금을 이용한 전기분해 시스템으로 잘게 쪼개진 수소 분자를 물 분자 사이에 용존시키는 기술을 담은 제품이다. <br/><br/> 이 분야에서만 13개 특허출원을 이룬 임 박사는 “<span class='quot1'>최대 용존 수소량이 1,200ppb 이상, 용존 기간이 3일, 고온에서도 수소가 용존되는 기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업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span>”고 밝혔다. <br/><br/> 버튼 조작만으로 수소수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 ‘수소샘’은 정수나 생수를 생성기에 넣으면 간편하게 수소수가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음용수 뿐 아니라 요리와 세정 등에도 적절히 사용해 항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br/><br/> 성인 평균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으나 이만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유해산소를 선택적으로 제거해주는 수소수 음용이야말로 충분한 수분도 섭취하고 건강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다. <br/><br/> 수소수를 음용해 건강에 도움을 얻은 체험사례가 많다. 김만철 씨(71세)는 “<span class='quot2'>수소수 음용 후 혈압약과 전립선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다</span>”고 했고, 극심한 당뇨로 고생했다는 엄순자 씨(74세)는 “<span class='quot2'>수소수를 하루 1.2L씩 마시니 얼굴의 검버섯이 엷어지고 혈당수치도 200에서 110으로 떨어졌다</span>”고 했다. 이밖에 수소수 장기음용으로 치매, 불면증, 비염 및 아토피 등의 피부질환과 암, 고지혈증, 탈모, 변비 등의 증상에 효과를 얻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br/><br/> 수소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부작용이 없고 몸에 유익하다고 전하는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수소수 체험사례를 살펴보면 당뇨와 혈압 등 만성병에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물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수소샘 기기가 내세우는 제일 큰 장점</span>”이라고 밝혔다.<br/><br/> 김 이사장은 수소수의 이 신기한 효능을 알리기 위해 임동수 박사와 공저로 『백세건강 수소수가 답이다』(상상나무)를 출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다. 책에는 수소수가 어떻게 인체에 유익한지 항산화작용의 이론과 원리, 수소수 생성기의 활용도가 담겨 있다.<br/><br/>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지구촌 모든 인류가 건강해져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여긴다</span>”고 전했다. (1522-4547,www.sspark24.com)<br/><br/>김무정 선임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3.txt

제목: 대장암, 내시경 하나로 진단·치료한다… IBS 김대형·최승홍 연구위원팀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1130214713739  
ID: 01100201.2015113021471373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내시경 하나로 대장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br/><br/>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 김대형 최승홍 연구위원팀은 첨단 신소재 ‘그래핀’과 나노입자 기술을 접목해 대장암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다기능 대장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됐다.<br/><br/> 전체 암 중 발병률이 세 번째로 높은 대장암은 보통 내시경으로 검진한다. 하지만 확진까지 추가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은 종양은 제때 발견하기가 어렵다. 연구진은 내시경 전면에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는 센서를 갖춘 투명한 그래핀 복합체를 붙여 별도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게 했다. 또 암세포에만 결합하는 나노치료입자를 정맥주사로 주입한 뒤 내시경에 달린 광원을 통해 빛을 쪼이면 암세포를 파괴하고 빛에 반응한 나노치료입자는 항암 약물을 동시에 풀어 치료하게 했다. 쥐 실험을 통해 이 내시경 장비의 효과를 확인했다.<br/><br/> 김대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그래핀과 나노입자를 동시에 의료기기에 적용하기는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임상시험을 거쳐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질병 진단·치료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4.txt

제목: 대장암, 내시경 하나로 진단·치료한다… IBS 김대형·최승홍 연구위원팀  
날짜: 201511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834801  
ID: 01100201.201601072208348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내시경 하나로 대장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선보였다.<br/><br/>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연구단 김대형 최승홍 연구위원팀은 첨단 신소재 ‘그래핀’과 나노입자 기술을 접목해 대장암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다기능 대장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됐다.<br/><br/> 전체 암 중 발병률이 세 번째로 높은 대장암은 보통 내시경으로 검진한다. 하지만 확진까지 추가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작은 종양은 제때 발견하기가 어렵다. 연구진은 내시경 전면에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는 센서를 갖춘 투명한 그래핀 복합체를 붙여 별도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게 했다. 또 암세포에만 결합하는 나노치료입자를 정맥주사로 주입한 뒤 내시경에 달린 광원을 통해 빛을 쪼이면 암세포를 파괴하고 빛에 반응한 나노치료입자는 항암 약물을 동시에 풀어 치료하게 했다. 쥐 실험을 통해 이 내시경 장비의 효과를 확인했다.<br/><br/> 김대형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그래핀과 나노입자를 동시에 의료기기에 적용하기는 처음</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향후 임상시험을 거쳐 로봇을 이용한 다양한 질병 진단·치료에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기대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5.txt

제목: 위암 환자마다 치료효과 다른 이유 밝혀냈다  
날짜: 20151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446124  
ID: 01100201.20160107220446124  
카테고리: 사회  
본문: ‘진행성 위암’(암세포가 위 점막 아래까지 침범한 상태)이 유전체에 따라 4가지 형태로 구분돼 발생한다는 사실을 국내 의료진이 처음 밝혀냈다. 같은 위암이라도 사람마다 치료 효과가 다른 원인을 찾아낸 것이다. 이번 연구는 암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정확히 분석해 치료법을 달리하는 ‘맞춤형 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r/><br/>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 김성(소화기외과·사진) 이지연(혈액종양내과) 김경미(병리과) 교수팀은 머크와 릴리 등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최근 진행성 위암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4∼2008년 수술받은 진행성 위암 환자 300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MSS/EMT, MSS/TP53(-), MSS/TP53(+), MSI)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br/><br/> 유전자 돌연변이가 거의 없는 MSS/EMT형은 젊은 층, 특히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며 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증상이 거의 없어 치료 경과가 나쁜 경우가 많다. 반면 MSI형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는 대신 암의 진행이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었다. 암 억제유전자(TP53)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나머지 두 유형도 진행 유형이 다르고 예후 및 재발 위험도가 달랐다. 이번 연구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 최근호에 발표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6.txt

제목: ‘온라인 보험슈퍼’ 30일 개장… 싸고 알찬 상품 골라담는다  
날짜: 2015112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20241623  
ID: 01100201.20160107220241623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자동차 보험이나 여행 보험, 실손의료보험처럼 꼭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이제 인터넷에서 가격과 혜택을 비교해 보고 고를 수 있게 됐다.<br/><br/>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e-insumarket.or.kr)를 23일 선보였다. 국내 36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207가지 보험을 그 자리에서 비교하고 가입까지 연결해 주는 사이트다. 30일부터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br/><br/>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홍보대사인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와 함께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시연 행사에서 보험다모아에 접속해 자동차보험과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았다. 차종과 나이, 원하는 보장범위 등을 입력하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자동차보험부터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span class='quot0'>보험다모아는 보험사들이 감독 당국만 쳐다보던 시선을 돌려 시장을 쳐다보게 만드는 경쟁 인프라가 될 것</span>”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br/><br/> 지금도 연금보험 등 일부는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검색하면 각 보험사의 보험료와 혜택을 비교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협회의 자료는 까다로운 전문 용어와 너무 많은 상품 숫자 때문에 이용하기도 불편하다.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보험 영업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보험다모아는 알기 쉽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종류도 늘렸다. 각 보험사의 자료와 연결해 실시간으로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더 찾지 않아도 한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다.<br/><br/> 우선 30일부터 보험다모아에 접속하면 자동차보험과 실손·여행·연금·보장성·저축성보험 등 모두 6가지 카테고리를 접하게 된다. 여행보험은 국내외·유학생 등으로 다시 세분해서 찾아볼 수 있고, 보장성 보험도 질병·상해·운전자·골프·화재 등으로 세분해서 비교해 놓았다. 보험종류를 골라 필요한 정보를 넣으면 보험료가 저렴한 순서대로 검색된다. 보험 가입은 각 보험사 사이트로 연결돼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에 들거나 전화로 1대 1 상담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br/><br/> 금융위 이동훈 보험과장은 “<span class='quot1'>지금은 표준적인 가격 비교만 할 수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사고 이력 등 할인·할증 요인을 반영한 실제 개인별 자동차 보험료가 산출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다듬을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암보험과 어린이보험 등도 비교검색이 가능하게 만들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br/><br/> 보험사들은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시연 행사에서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과 한화생명의 연금보험이 가장 저렴한 보험으로 화면에 뜨는 것에도 다른 보험사 담당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br/><br/> 보험다모아가 보험업계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시연을 지켜본 생보협회 이수창 회장은 “<span class='quot2'>보험업계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는 출발점에 와 있는 느낌</span>”이라고 말했고, 삼성화재 안민수 사장은 “<span class='quot2'>보험사들이 가격을 올리기 어렵게 됐다</span>”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자동차보험 등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가격 비교가 쉽지 않고, 설계사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크다</span>”며 “<span class='quot3'>사이트를 연 뒤 반응을 지켜봐야 영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7.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 김한수 교수는... 편도 줄기세포주 세계 최초 수립  
날짜: 20151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653922  
ID: 01100201.201601072156539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91년 여의도고등학교, 1997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인턴 및 전공의 과정을 이수했다.<br/><br/>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이다. 이에 앞서 2002∼2003년에는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강사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을 지냈다. 현재 이대목동병원 두경부암·갑상선센터장과 홍보실장을 겸임하고 있다.<br/><br/> 주 전문 분야는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질환이다. 두경부에 생기는 양성 및 악성 종양과 갑상선암, 인후두 및 성대 이상에 의한 음성언어장애(목소리 이상)를 바로잡는 일이다.<br/><br/> 김 교수는 최신 의학 연구동향과 기술을 익히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1년과 2003년에는 미국 아이오와대학과 일본 구마모토대학 및 노구치 갑상선 클리닉을 방문해 선진 수술기법을 익히고 다듬었다. 이듬해엔 독일 괴팅겐대학을 다녀왔다. 아이오와대학에선 두경부 분야 해부실습을 익혔고 구마모토대학 등에선 갑상선 암 치료법을 연구했다. 괴팅겐대학에선 구강암, 특히 인후두암의 레이저수술법을 집중 수련했다.<br/><br/> 또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년 동안 다시 미국에 건너가 웨이크 포레스트대학 조직공학재생의학연구소에서 두경부암으로 인해 결손된 안면 및 경부 조직을 줄기세포치료 등으로 재건하는 방법을 연구했다.<br/><br/> 김 교수는 이 대학에서 배운 3D프린팅 및 조직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편도 줄기세포주를 세계 최초로 수립하고, 부갑상선 조직까지 만들어 동물에 적용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시행해 국내외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br/><br/> 김 교수는 요즘 하루 평균 80여명의 목질환자를 돌본다. 대부분 목에서 혹이 잡힌다거나 목소리가 이상하다며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이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종일 수술실에서 지낸다.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눈에 안 띄게 해주는 ‘현미경하 최소 절개 수술’ 분야에서 김 교수가 국내 최고수 실력자란 소리를 듣는 이유다.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8.txt

제목: 통합의학 암재활 주력 ‘다스람요양병원’, 첨단 고주파온열암 치료기 도입 운용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2070  
ID: 01100201.2016010721553207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다스람요양병원(원장 홍영한·사진)이 최근 통합의학 암재활치료를 위해 첨단 고주파 온열암치료기(Oncothermia, EHY-2000 PLUS)를 도입해 운영한다. 다스람요양병원은 암 진단 후에 수술을 앞둔 환자이거나 수술 후 회복중인 환자·항암·방사선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치료효과를 높이고 항암과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개선하는 치료를 제공한다. <br/><br/> 일반적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3∼4명중에 한명꼴로 암환자일 정도로 주변엔 암환자 최근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환자복을 입은 암환자들에게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치료는 현대의학의 표준 암 치료이다. 표준 암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말하는데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말해주듯이 암 치료에 있어 표준 암 치료가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 또한 커서 환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br/><br/> 부작용이 크다고 표준 암 치료를 피해서는 안된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표준 암치료 프로토콜을 따라야한다. 이러한 가운데 주목을 받는 것이 통합의학 암치료다. 이에 대해 홍영한 원장은 “암환자들은 수술과 치료 후 재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상 표준 암 치료(수술·항암·방사선치료)후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게 사실이다. 환자가 마음 놓고 편안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통합의학적인 암재활병원이 많이 생겨나야한다”고 강조했다.<br/><br/> 다스람요양병원이 도입한 제4세대 최첨단 고주파 온열암치료기(Oncothermia, EHY-2000 PLUS)는 암조직에 선택적으로 열을 가해 암세포 대사율을 증가시킨다. 또한 산소의 공급을 막아 암세포 증식 억제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해,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br/><br/> 홍영한 원장은 “<span class='quot0'>미슬토 항암면역요법 및 자닥신 면역주사, 고용량 비탑민C 주사 등도 항암, 방사선치료와 병행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고 항암, 방사선치료의 부작용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pan>”고 설명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29.txt

제목: [암정보 게시판] 혈액 속 암세포 측정기 개발 外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41874  
ID: 01100201.2016010721554187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혈액 속 암세포 측정기 개발=국내 연구팀이 특정 물질이 몸 속 암세포와 빠르게 결합해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한층 더 조기진단이 간단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 연구팀이 10분 이내에 혈중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세포분리기술과 함께 분리된 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암세포 측정이 가능하다. 이번 기술은 혈중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향후 휴대용 자가 암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br/><br/>◇삼성서울병원 개인 맞춤 암치료 클리닉 운영=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센터장 손태성)가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 암치료 클리닉’을 본격 운영한다. 개인 맞춤 암 치료 클리닉은 환자마다 유전체를 분석해 달리 치료하는 방식이다. 암환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환자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환자에게 꼭 맞는 표적항암제를 찾아내는 한편, 그에 따른 혁신 신약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삼성유전체연구소의 ‘캔서스캔(CancerSCAN)’이란 암유전체진단키트를 이용해 암 속성부터 파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br/><br/><br/><br/>◇서울시동부병원 19일 ‘식도염 강좌’=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현정)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식도염의 예방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건강강좌를 연다.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 내용물이 식도내로 역류하여 식도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가슴쓰림이나 산역류 같은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식도 역류병’이라고도 일컫는다. 강좌는 동부병원 내과 전문의 유연화 과장이 강사로 나서 △식도염의 올바른 이해 △식도염의 증상 및 치료 △식도염의 예방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문의: 02-920-9388)<br/><br/><br/><br/>◇췌장암 면역치료제 리아백스 환자 처방=젬백스&카엘이 개발한 췌장암 면역 치료제 리아백스주가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시작으로 췌장암 환자에게 본격 처방이 진행된다. 리아백스주는 지난 4월 시판 허가 이후로 젬백스&카엘 계열회사인 삼성제약을 통해 생산과 병원 유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 해왔다. 이번 처방을 시작으로 본격 시판되며, 전국 16개 병원에서 임상시험 연구 시작과 동시에 판매된다.<br/><br/><br/><br/>◇라보라토리 신파 유방암 치료제 식약처 허가=스페인 제약기업 라보라토리 신파 코리아는 최근 유방암 치료제 ‘신파 아나스트로졸정(1mg)’, ‘신파 레트로졸(2.5mg)’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 허가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아나스트로졸과 레트로졸은 호르몬성 항암제 중 아로마타제(aromatase) 저해제로 분류되는 약물로 유방암 치료에 수술 후 보조 치료로 또는 유방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 의학전문지인 란셋지가 소개한 런던 퀸 메리(Queen Mary) 대학 연구팀의 4000명 대상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나스트로졸이 기존 약물 치료보다 더 경제적이면서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0.txt

제목: [암과의 동행] 췌장암 생존율 8%… 환자 이중고 덜어줘야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6738  
ID: 01100201.2016010721553673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표적인 사망률 1위인 폐암의 5년 생존율은 10년 동안 11%에서 20%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췌장암은 여전히 한 자리수인 8%에 머물러 있는데 전체 암환자의 생존율이 68.1%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고, 10대 암 중에 유일하게 5년 생존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두 질환 모두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생존율의 차이는 치료제의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br/><br/> 실제로 다양한 표적 치료제들이 등장해 생존율이 올라간 폐암과 달리, 지난 10년간 췌장암 분야의 신약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져 왔다. 췌장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는 젬시타빈으로 1990년도 초반부터 사용되어 약 20여년간 사용되고 있으며, 유일하게 국내 보험 급여가 되는 치료제다. 하지만 젬시타빈 역시 췌장암 생존 기간 연장이라는 큰 벽을 넘기는 어려웠다.<br/><br/> 최근 췌장암 생존율 연장이라는 마의 벽을 넘은 치료제가 등장했는데 젬시타빈과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함께 사용했을 때 생존 기간을 두 달 연장 시킨 것이다. 주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아브락산과 젬시타빈을 함께 사용하면 사망 위험을 29% 감소시키며, 젬시타빈만 사용했을 때 보다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이 8.7개월로 기존 치료제 보다 2개월이라는 시간을 연장 시켰다. 이와 같은 아브락산의 효과는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를 인체 단백질인 알부민에 부착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바탕이 됐다. 알부민은 인체 내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단백질이므로 용해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 기술을 통해 기존 항암제 대비, 아브락산은 정상세포에는 적은 영향을 주고 암세포에는 집중적으로 작용해 더욱 많은 양의 치료제가 암세포에 도달 할 수 있다.<br/><br/>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박준오 교수는 췌장암에서 신약의 생존 기간 두달 연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span class='quot0'>1년 생존이 어려운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서 2개월의 생존을 연장시켰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엄청난 효과라고 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실제로 임상을 하면 아브락산으로 치료 받은 환자들이 1년-2년까지도 생존하는 환자들이 꽤 많다</span>”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췌장암의 전체적인 치료 예후는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생존 기간 2개월을 연장시킨 약제를 비롯해 다양한 병용요법을 시도함으로써 전체적인 췌장암 환자들의 치료 성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br/><br/> 반면 이와 같은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해도 실제 환자 치료까지 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생존 기간을 연장한 아브락산은 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매우 낮다. 국제 치료 가이드라인에 새로운 치료제가 권고돼도 국내 신약이 보험급여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아주대 인문사회의학교실 허윤정 교수는 “<span class='quot1'>췌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병 자체만으로 매우 힘겨운데,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해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중고를 겪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span>”고 강조했다. <br/><br/> 한편 췌장암의 90% 이상은 췌관의 샘세포에 암이 생긴 선암이다. 유전적 요인 중 췌장암의 90% 이상에서 K-Ras 유전자의 변형이 발견되고, 모든 암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이상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다. 증상은 복통과 체중감소, 황달, 소화장애, 당뇨의 발생이나 악화 등이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1.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렌비마] 갑상선암 표적치료제로 시판 승인 받아  
날짜: 201511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5531112  
ID: 01100201.2016010721553111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중에서 조기에 치료만 잘 받으면 거의 완치에 이를 수 있는 암이 있다. 바로 ‘갑상선암’이다. 갑상선암은 국내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2012년 신규 진단을 받은 환자 수만 4만4000여명에 이른다. 다만 갑상선암은 비교적 조기 암 상태로 발견되고, 암세포의 성장·전이가 느리기 때문에 치료효과가 좋다. 실제 1기 갑상선암의 10년 생존율은 98%에 달하며, 말기로 분류되는 3기에 수술해도 10년 생존율이 70%나 된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치료가 가능하나, 암의 진행이 이루어지면 손을 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암이 전이되거나 미분화 갑상선암의 경우 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br/><br/> 특히 갑상선암을 제거했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효과가 없는 환자들의 경우 암으로 인해 사망 위험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럴 때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항암제가 바로 ‘표적치료제’다. 현재 처방되고 있는 갑상선암 표적치료제로는 바이엘헬스케어의 ‘넥사바가’ 대표적이며, 최근 등장한 표적치료제도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br/><br/> 글로벌 제약사인 한국에자이는 자체 개발한 신규 항암제 ‘렌비마캡슐(성분명 렌바티닙메실산염, 이하 렌비마)’이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국소 재발성 또는 전이성의 진행성 분화 갑상선암 치료제 용도로 지난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유럽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본사인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서 렌비마의 시판이 승인됐다. <br/><br/> 렌비마는 국부 재발성 또는 전이 진행,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분화 갑상선암을 적응증으로 하여 지난 2015년 2월 미국에서 시판 허가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절제 불가 갑상선암의 치료 용도로 지난 2015년 5월 시판 허가된 바 있다. <br/><br/> 렌비마의 이번 시판 허가는 방사선 요오드에 불응한 분화 갑상선암에 대한 3상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연구과정에서 렌비마는 위약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무진행 생존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객관적 반응률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상시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이상반응은 고혈압, 설사, 피로, 무기력증, 식욕 감퇴, 체중 감소, 구토 등이었다.<br/><br/> 에자이의 츠쿠바 연구소에서 발견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렌비마는 경구 투여 분자 표적치료제로로, 혈관내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VEGFR),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 종양 유전자 KIT, 혈소판 유도 성장인자 수용체(PDGFR)와 같은 일부 분자의 활성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렌비마는 종양 신생 혈관 생성 및 갑상선암 확산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VEGFR)와 더불어 섬유모세포 성장인자 수용체(FGFR)를 동시에 억제한다. <br/><br/> 이번 렌비마 승인을 통해 에자이는 한국의 갑상선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함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시판 승인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에자이는 갑상선암과 싸우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렌비마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임상적 이점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2.txt

제목: 적색·가공육 매주 2회 섭취 땐 대장암 발병률 18% 높아진다… 옥스퍼드대 연구팀 발표  
날짜: 201511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707620  
ID: 01100201.20160107214707620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가공육과 적색육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운데 가공육이나 적색육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또 나왔다.<br/><br/>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팀 키 옥스퍼드대 교수와 캐스린 브래드버리 박사는 3일(현지시간) 리버풀에서 열린 국립암연구소(NCRI) 학술회의에서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1주일에 2번 먹는 사람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br/><br/> 또 가공육을 1주일에 4번 먹는 사람은 같은 기간 1번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42%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 연구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0∼69세 남녀 50만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발병률은 흡연에 비하면 훨씬 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 이번 조사에서 1주일에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4번 먹는 경우 대장암 발병률은 인구 1000명에 78명 정도였다. 2011년 영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인구 1000명당 약 66명인 것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다.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201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약 57명이다.<br/><br/> 의외의 결과도 나왔다. 연구에서 과일, 채소, 곡물 등 식이섬유 음식을 다량 섭취한 사람은 적게 섭취한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률이 그다지 낮지 않았다.<br/><br/> 국내 암 연구기관인 국가암정보센터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 채소를 하루 200g 이상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해 왔다.<br/><br/>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3.txt

제목: [사람 살리는 ‘3D프린팅’] 스르륵, 간·콩팥 ‘출력’… 의료 패러다임 바뀐다  
날짜: 2015103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318841  
ID: 01100201.2016010721431884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br/> <br/>3D 프린터가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다.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프린터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소재의 입체적 물체를 제작할 수 있는 이 기특한 의료기기가 이제 의료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을 넘어 의료기기, 재생의료, 의약품 제조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br/><br/>3차원 인체 모형으로 수술 부위 ‘한눈에’<br/><br/> 3D 프린팅 기술의 최대 장점은 복잡한 형상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병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CT, MRI 같은 영상촬영 장비를 통해 얻은 체내 정보는 영상분석 소프트웨어와 컴퓨터디자인소프트웨어(CAD)를 거쳐 3D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된다. 이걸 바탕으로 3D 프린터는 체내 장기와 똑같은 형태를 출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체 장기 모형’은 샴쌍둥이 분리 같은 고난도 수술에 활용된다. 지난 6월 중국 상하이 푸단대는 생후 3개월 샴쌍둥이의 붙어있는 엉덩이와 척추뼈 아래쪽 부분분리 수술을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했다. 의료진은 CT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척추뼈 부위를 그대로 출력해 수술 계획을 세우고 몇 차례 연습한 뒤 실제 수술을 진행했다.<br/><br/> 국내 의료현장에서 3D 프린팅 인체 모형의 활용은 흔한 풍경이 됐다. 서울성모병원 심혈관센터 송현·강준규 교수팀은 2013년 3D 프린터로 출력한 환자의 대동맥 모형을 이용해 혈관 분리수술에 성공했다. <br/><br/>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백정환 교수팀은 2013년 부비동암(코암) 제거 수술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다. 수술 전에 암 위치와 제거해야 할 뼈 부위 등을 잡았다. 모형에 맞춰 수술했더니 수술 시간이 줄고 수술 정확도는 높아졌다.<br/><br/> 서울아산병원은 지금까지 20건의 신장암 수술(부분절제술)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다. 3D 프린터로 찍어낸 실제 신장 크기 모형을 통해 혈관과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이 병원의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는 “<span class='quot0'>3차원 인체 모형을 갖고 수술할 경우 대상 암을 훨씬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자궁경부암, 폐암 등 다양한 장기의 암 수술이나 간 이식 등에 적용하려 노력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맞춤형 장기’로 사람 살리는 시대 온다<br/><br/> 단순 보형물을 몸속에 집어넣는 것뿐 아니라 3D 프린팅으로 살아있는 세포나 단백질을 출력하는 일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른바 ‘바이오 프린팅(Bio-printing) 기술’ 덕분이다. 바이오 프린팅은 세포를 원하는 모양과 위치, 패턴으로 쌓아 올려 3차원 구조의 생체 조직이나 장기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이오 잉크’다. 바이오 잉크는 프린팅하려는 조직의 세포와 이 세포의 증식·분화를 도와주는 지지체(젤 상태 고분자 물질)라고 할 수 있다. 손상된 인체 부위에 심으면 그곳에 원하는 조직, 장기가 자라나는 것이다.<br/><br/> 미국 샌디에이고의 의료기 연구회사인 ‘오르가노보’는 3D 프린팅으로 혈관과 뼈, 콩팥, 간 조직을 찍어내는 데 성공했다. 특히 간은 40일 동안 살아남아 ‘인공 장기’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미국 미네소타대와 메릴랜드대,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손상된 쥐의 신경 조직을 되살리기도 했다.<br/><br/>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김정범 교수는 최근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척수손상 환자를 고치는 연구를 시작했다. 다친 부위의 척수세포를 3D 프린터로 찍어내 이식하는 것이다. 환자에게서 채취한 피부 세포를 활용하기 때문에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환자 맞춤형’ 척수 조직을 만들 수 있다.<br/><br/> 하지만 아직 바이오 프린팅은 동물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체에 적용되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r/><br/>3D를 넘어 4D 프린팅으로<br/><br/> 지금의 3D 프린팅에 ‘시간’ 개념을 가미한 4D 프린팅 기술 연구도 발걸음을 떼고 있다. 4D 프린팅은 시간에 따라 스스로 모양을 바꾸는 물체를 만드는 기술이다. 지난해 미국 존스홉킨스대가 몸속에서 스스로 조립돼 암세포 하나를 집어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면서 주목받았다.<br/><br/> 4D 프린팅 제품을 만들려면 온도나 습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스스로 모습이 변하는 ‘스마트 소재’(형상기억합금 등)를 개발해야 한다. 이들 소재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인체에 이식하는 것이다. 4D 프린팅 제품은 체내에서 특정 조건(열, 진동 등)에 놓이면 스스로 모습이 변한다.<br/><br/> 예를 들어 암,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많이 받는데, 사람마다 체형이나 증상이 각기 달라 스텐트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여러 번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한호성 교수는 “<span class='quot1'>이럴 때 4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스텐트를 만들어 체내에 삽입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원하는 곳에 맞게 적용될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span class='quot1'>4D 프린팅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하면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치료 효과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span>”이라고 했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4.txt

제목: 표적 항암제도 안 듣는 암 전이 원인 찾았다… 서울대 이호영 교수팀 첫 규명  
날짜: 2015102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4110464  
ID: 01100201.2016010721411046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표적 항암제를 써도 듣지 않고 계속 퍼지는 ‘내성 현상’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국내 연구진이 찾아냈다. 차세대 암 치료제로 주목받는 표적 항암제의 걸림돌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서울대 약대 이호영(사진) 교수팀은 종양과 그 주변에 모인 정상세포(미세환경세포) 사이의 상호작용이 표적 항암제의 암 전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개발되는 각종 표적 항암제 중에는 임상시험에서 암을 도로 전이시켜 환자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드는 내성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br/><br/> 연구팀은 암 전이 때문에 계속 상용화가 좌절됐던 ‘IGF-1R 표적 항암제’를 대상으로 왜 이런 전이가 일어나는지 관찰했다. 이 항암제는 폐암·대장암 등 주요 암 생장에 핵심 역할을 하는 ‘IGF-1R’ 단백질만 골라 억제하는 약이다.<br/><br/> 연구팀은 이 항암제가 표적을 공략하면서 다른 특정 단백질이 대거 생기도록 자극하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 단백질의 영향 때문에 종양과 주변 림프구 등 암이 아닌 ‘이웃 세포들’이 모여 복잡한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새 혈관 생성이 촉진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렇게 생긴 혈관은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퍼질 때 통로 역할을 한다</span>”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게재됐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5.txt

제목: [암수술 잘하는 병원-고대안암병원 김진 교수] ‘대장암’ 다양한 치료법… 환자 선택폭 넓혀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8388  
ID: 01100201.20160107213058388  
카테고리: 사회  
본문: 대장암으로 고통 받는 한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대장암은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 순위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대장암은 한국 남성을 괴롭히는 두 번째 암으로 꼽힌다.<br/><br/> 대장암 환자가 많아지는 만큼 그 치료방식도 발전하고 새로워지고 있다. 기본이 되는 개복수술부터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그것이다. 특히 대장암 중 직장암에서 로봇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로봇을 이용해 직장암을 완벽히 제거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장항문외과 김진 교수를 지난 8일 만났다.<br/><br/> 김 교수는 복강경과 로봇을 이용해 직장암과 결장암을 제거한다. 그는 대장암을 치료하는 각각의 방식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했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강경 수술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며 로봇은 복강경 단점을 보완하고 정교하고 미세한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개복 수술은 주변 장기와의 유착정도가 심한 재발 암환자에게 좋은 수술법이라고 덧붙였다.<br/><br/> 직장암 환자에게 로봇을 적용했을 때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것은 암의 특성 때문이다. 직장암은 일반적인 대장암과 달리 골반강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어 암 덩어리까지 접근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로봇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로봇은 3차원 확대 영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해부학적 구조를 개복만큼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좁은 공간에서 로봇 관절을 다양한 각도로 움직이며 안정적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결장암과 직장암에 대한 치료는 최소 침습 수술이란 방식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암을 제거하는 원칙은 신경과 혈관 등 암 주변 구조물들을 건드리지 않고 깔끔하게, 예쁘게 암 조직만을 떼어내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좁은 공간에서 정밀한 절개를 요구하는 직장암의 경우 로봇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span>”고 소개했다. 문제는 역시 치료비다. 일부 영역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강경과 달리 로봇은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큰 수술법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합병증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존율 비교에서는 복강경과 아직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데이터는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환자에게 다양한 수술법을 설명하고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한다</span>”고 말했다.<br/><br/>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설명이 고맙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각 수술법의 장점의 차이는 있지만 암을 제거하는 원칙은 똑같다</span>”며 “<span class='quot0'>모든 설명을 들은 환자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span>”고 강조했다.<br/><br/> 한편 김 교수는 조기 단계에서 발견율이 높은 위암과 달리 대장암은 여전히 중증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span class='quot0'>검진이 활발한 위암과 달리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에 대해 환자가 갖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span>”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대장암의 무서운 증가세를 강조하며 50세 이상은 대장내시경을 3년에서 5년 사이 꼭 해볼 것을 권장했다. 또 대장암의 원인으로 꼽히는 육류를 고집하는 식단보다 육류와 생선, 야채 등 다양한 식품군으로 이뤄진 식단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6.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MSD ‘키트루다’·BMS ‘옵디보’ 등] 비소세포폐암 극복 희망 전해주는 면역항암제들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46540  
ID: 01100201.20160107213046540  
카테고리: 사회  
본문: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암(癌) 중 사망률이 높은 암이 ‘폐암’이다. 폐암은 발병한 이후 쉽게 전이될 뿐만 아니라, 전이 이후에는 속수무책으로 암이 퍼져 사망위험이 높다.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폐암은 국내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암이자,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다.<br/><br/> 이러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새 장을 열어준 치료제가 바로 ‘면역항암제’다. 차세대 면역항암제들이 흑색종에 이어 폐암 영역까지 치료가 확대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BMS의 ‘옵디보(니볼루맙)’ 등은 본래 흑색종에 적응증을 받은 치료제들이지만 최근 폐암으로 치료 영역을 확대했다. <br/><br/> 옵디보는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신청서 제출 이후 석달만에, 편평 비소세포폐암 2차 약제로 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 승인도 받았다. 옵디보 3상 임상결과에 따르면 이 약물은 PD-1(programmed death receptor-1) 발현 여부와 무관하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생존률 42%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약물인 ‘탁소텔(도세탁셀)’ 투여군 대비 24%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다. <br/><br/> 최근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 FDA는 종양에서 PD-L1 발현이 확인되고,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도중 또는 이후에 진행이 확인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3주 1회 용법으로 2㎎/㎏ 투여하는 치료제로 키트루다를 승인했다.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EGFR 혹은 ALK종양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은 키트루다를 투여 받기 전에, 이러한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에도 질병의 진행이 확인된 경우에 투여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키트루다는 편평세포 뿐 아니라 비편평세포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승인 받은 유일한 항 PD-1치료제가 됐다.<br/><br/> 이러한 결과는 KEYNOTE-001 임상에서 근거한 것이다. PD-L1 발현 종양 비율 점수가 50% 이상인 환자에게 키트루다를 투여한 결과, 전체반응률이 41%로 나타나 키트루다는 FDA 혁신적 치료제 지정을 받았으며 신속 승인됐다. <br/><br/> 의료계가 면역항암제가 폐암 치료제 있어서도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를 넘어서는 차세대 항암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획기적인 치료제이지만, 내성 위험과 적용 가능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를 3세대 치료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체내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 FDA에서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내 준 것은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결과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br/><br/> 앞으로 이러한 면역항암제들이 폐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다만 면역항암제 등장으로 인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도와줄 새로운 면역요법이 도입되면서 환자들의 치료 영역이 확대되고,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게 볼 수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7.txt

제목: [암과의 동행] 림프종, 희귀병 인식 벗고 치료 새 전기 맞나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57453  
ID: 01100201.2016010721305745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희귀병처럼 매우 생소하게 들리는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새로 진단 받는 암 중 2.1%(2012년 기준, 2014년 발표)에 달하며 국내 발생 암 순위 10위(2012년 기준, 2014년 발표)다. ‘러브 스토리’나 ‘라스트 콘서트’와 같은 고전 영화부터 드라마 ‘가을동화’의 송혜교까지 미디어 속 난치병으로 ‘백혈병’이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림프종’이 더 흔하게 발생 하는 셈이다. <br/><br/> 림프종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해 특징과 예후도 각기 다르고, 림프종 중에서도 희귀한 림프종이 있다. 양모(68)씨는 최근 이유 없이 목과 입술이 부어오르고 밤이 되면 고열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외투세포 림프종’을 진단 받았다. 이 병은 국내 환자가 300여명 뿐인데 재발이 잦고 재발 시 기존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 1∼2년 밖에 더 살지 못한다.<br/><br/> 림프종은 전신의 림프 조직 세포들이 악성 세포로 변해 생기는 암 이다. 림프종이 발생하는 림프계는 전신에 퍼져 있는데, 주로 체내 미생물에 대한 여과 기능 을 수행한다. 폐암, 위암, 대장암 등처럼 발생한 부위에 따라 구분되는 고형암과 달리 림프종은 전신에 퍼져있는 혈관 내 림프조직에 발생하기 때문에 전신에 전이될 수 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발견이 늦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로 림프조직이 많이 모여 있는 신체 부위가 부어올라 병원을 찾았다가 발견한다. 전문가들은 목, 겨드랑이, 팔꿈치 귀 뒤 등이 통증 없이 2주 이상 부어 있거나 열이 나고 야간에 식은땀이 나며 체중이 갑자기 많이 줄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고 권한다.<br/><br/> 1832년 토마스 호지킨에 의해 처음 기술된 림프종은 조직검사에서 리드-스텐버그세포(RS 세포) 유무에 따라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나뉜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어떤 종류의 세포에서 종양이 시작 되었는지에 따라 B세포 림프종과 T세포 림프종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림프종을 진단받는 환자의 95%는 비호지킨 림프종 이다. 특히, 비호지킨 림프종은 림프절뿐만 아니라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부위를 침범 했느냐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br/><br/> 김석진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span class='quot0'>림프종은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질환</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정보에 더해 다양한 아형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어려워 치료가 쉽지 않아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br/><br/> 림프종은 대부분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를 시작한다. 한 가지 약제로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작용기전과 독성을 가진 치료제를 조합해 치료한다. 림프종 3∼4기는 완치 되었다가도 30% 가량은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재발하게 되면 화학요법이 잘 듣지 않는 편이다.<br/><br/> 최근에는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실패한 희귀 림프종 치료에 새로운 치료가 가능해졌다. 외투세포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 중에서도 반복적인 재발이 특징인 예후가 좋지 않은 아형으로서 특히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병하기 때문에 재발 시 부작용이 심한 치료는 선택하기 어려워서 반복적인 재발 후에는 그 치료가 어렵다. <br/><br/> 최근까지는 기존 치료에 실패한 이후에도 약제의 조합을 바꿔 항암화학요법을 반복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었다. 새로운 치료제(성분명 이브루티닙)는 경구용 치료제 로, 항암제 투여를 위한 입원이나 주사시설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일 약제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화학요법을 피할 수 있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1'>복합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반복한 환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체력 또한 저하돼 효과적인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새로운 경구용 치료제는 환자들이 입원치료 없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기존 화학요법 대비 부작용이 적다</span>”고 설명했다. 이영수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8.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예방접종후 이상반응땐 즉각 의료기관 찾아야  
날짜: 2015101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3035382  
ID: 01100201.2016010721303538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예방접종은 약독화 생백신이나 비활성화 백신을 인체에 주입해 인체 내에서 능동적, 수동적으로 면역력을 유도하거나 갖추게 하는 과정이다. 여러 감염성 질환의 발생을 일차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br/><br/> ◇예방접종 백신 종류=약독화 생백신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병원체의 독성을 약화시킨 것이다. 체내에서 증식을 하지만 질병을 일으키지 못하고 면역 체계만을 자극해서 면역을 유도한다. 소량으로도 면역이 유도될 수 있으며 실제 질병에 걸려서 만들어진 것과 유사한 면역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드물지만 돌연변이를 일으켜 독성을 회복하게 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비활성화 백신은 병원체를 배양시켜서 열이나 화학 약품으로 비활성화 시켜 제조한다. 인체 내에서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백신에 비해 많은 양을 여러 번 접종해야 한다. 면역 효과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생성되는 항체가 질병방어와 무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인체 내 항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성을 회복하거나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br/><br/> ◇백신 접종 방법=예방접종 경로와 부위는 약제에 따라 다르다. 접종 방법이나 부위가 잘못된 경우에는 충분한 예방 효과가 생기지 않거나 이상 반응 발생이 증가한다. 보통 주사로는 근육, 피하, 피내주사법등이 있으며 경구용 백신의 경우는 투여 후 내뱉거나 5∼10분 이내에 토하면 같은 양을 다시 한번 투여해야 한다. 규정된 양보다 소량이나 다량을 접종하거나 일회 규정량을 한번에 접종하지 않고 몇 번에 나누어서 접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r/><br/> ◇독감예방접종(인플루엔자)=인플루엔자는 해마다 발생률이 다르지만 수년 간격으로 세계적인 유행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건조하고 추운 11월 말에서 다음 해 4월 사이에 유행하는데 2∼3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인플루엔자의 증상으로는 고열과 몸살, 인후통, 두통이 흔하다. 간혹 인플루엔자와 감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기는 합병증 없이 대부분 1주일 내로 증상이 좋아지는 반면,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심하고 폐렴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은 정상인에게서는 드물지만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나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에게서는 입원이나 사망자수가 정상인의 수십 배 이상이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극 권유된다.<br/><br/> ◇예방접종 금기·주의사항=예방접종 금기 사항은 백신을 접종 할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고, 주의해서 접종해야 하는 경우는 백신 접종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면역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이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경한 압통이나 발적, 부종 40.5℃ 미만의 발열, 38℃이하의 미열이 있으면서 호흡 기계나 소화기계 증상이 있는 사람, 항생제 치료 중인 사람, 최근 질병에서 회복된 사람, 기족 중 임신부가 있는 경우, 과거의 경미한 이상 반응, 모유 수유, 경련성 질환, 예방접종 이상 반응 가족력 등은 예방 접종의 금기 사항이 아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즉시 접종기관의 의료인 또는 관할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br/><br/><자료=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39.txt

제목: 한국과학기술정보硏, 제7회 지식창조대상 수상자 ‘웨어러블 2차전지 개발’ 최장욱 교수 등 10명 선정  
날짜: 201510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859085  
ID: 01100201.2016010721285908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5일 제7회 지식창조대상 시상식을 열고 최장욱 카이스트 교수 등 10명을 수상자로 발표했다. KISTI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인용 횟수가 세계 상위 1% 안에 드는 논문을 추출한 뒤 학술적 공헌도가 높은 과학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br/><br/> 최 교수는 2차전지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다. 구부리는 동작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웨어러블 2차전지를 개발했다. 현재 스마트워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br/><br/>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과 교수는 메모리 소자와 반도체 물질·공정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이다. 최근 낸드플래시보다 저장하고 쓰는 속도가 1000배 빠르고 크기는 절반 이하인 차세대 저항변화메모리(ReRAM) 개발에 성공했다.<br/><br/> 그가 2010년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한 저항변화메모리 관련 논문은 지금까지 700회 가까이 인용됐다.<br/><br/> 김재윤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다양한 나노생체재료를 이용한 약물전달·세포전달·면역치료 분야 권위자다. 최근에는 복잡한 수술과정 없이 간단한 주사만으로 암·전염병 등 각종 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3D 백신 전달체’ 개발 성과를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표지 논문으로 게재했다.<br/><br/> 문주호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박은정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선양국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신현석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 임종환 목포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장석복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 장석필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교수도 수상자로 뽑혔다.<br/><br/>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0.txt

제목: [한마당-김명호] 체르노빌  
날짜: 2015101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724741  
ID: 01100201.20160107212724741  
카테고리: 국제  
본문: 20세기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옛 소련 지역의 우크라이나 서북부 체르노빌. 1986년 4월 26일 원자로가 폭발해 방사능 가스와 물질이 4.5㎞ 높이의 공중으로 날아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거쳐 유럽을 강타했으며, 러시아 한국 일본을 지나 북미까지 도달했다. 발생 후 6년 동안 사망자 8200명, 거주민 13만명 이주, 영향 지역 내 갑상선 질환·백혈병·암 발생률 50% 이상 증가, 방사능 후유증 환자 43만명.<br/><br/> 30년 가까운 이 ‘죽음의 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지난주에 있었다. 멧돼지, 노루, 붉은사슴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연구진의 발표가 있었다. 늑대는 다른 지역보다 7배나 많았다고 한다. 사고 후 20년 동안 동물 개체수를 추적해 온 연구진은 ‘원전 사고보다 사냥이나 개발 같은 인간의 위협이 자연 생태계에 더 해롭다’는 분석을 학술지에 실었다.<br/><br/> 체르노빌 관련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보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아 처참하고 황량하게 된 시가지나 농촌 풍경이 나온다. 원전 사고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대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원전 사고보다 인간들의 행위가 훨씬 더 자연을 망가뜨릴 확률이 높다니…. 꽤나 역설적이다. 자연한테는 인간의 탐욕적 행위가 최대의 적인 셈이다.<br/><br/> 다크 투어리즘이란 제법 인기 있는 여행 상품이 있다.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것이다. 일종의 역사교훈 여행인데, 400만명이 학살당했던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체르노빌도 인기 장소란다. 참혹한 원전 사고를 상기해보자는 취지이긴 한데, 다시 인간의 탐욕이 체르노빌을 상품화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br/><br/> 체르노빌에서 개체수가 서서히 늘어나는 야생동물들이 인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듯하다. “<span class='quot0'>너만 잘하면 지구는 평화스럽고 안전해∼.</span>”<br/><br/>김명호 논설위원 mhkim@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1.txt

제목: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 이사장 “수소수, 몸속 유해산소 제거해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날짜: 201510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514381  
ID: 01100201.2016010721251438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장수국으로 인정받는 일본의 거대한 음료시장에서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수(水素水)입니다. 건강에 관해서 아주 철저한 일본이 수소수의 효능을 인정하고 이를 상품화 한 것입니다.”<br/><br/> 백세건강연구소 김서곤(76) 이사장은 요즘 온통 수소수 연구에 푹 빠져 있다. 수소(H2)가 환원제 즉 강력한 항산화제인점을 착안해 이를 상시 음용해 몸 안의 활성(독성)산소를 제거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기본원리이다.<br/><br/> 김 이사장은 42년간 의료기기에만 매달려 연구해 온 한국 의료기 시장의 산 증인이다. 특히 국민보건복지 향상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공로로 대통령 포장 동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더구나 그가 운영하는 ㈜솔고는 아태지역 최우수헬스케어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br/><br/> 김 이사장의 의료기기 사업은 그가 30대 초반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수술기구 등을 본 따 관련제품을 만든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br/><br/> “스웨덴 철강회사가 발행한 ‘스테인리스의모든 것’이라는 책자에서 영감을 얻어 수술기구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정밀한 기술력이 요구되는 의료기구 사업에서 7전8기 도전 끝에 100% 해외제품에 의존하던 시장에 의료기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br/><br/> 사업실패를 겪어 한 때 알거지가 되기도 했지만 임플란트 기기와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 인증 받은 온열전위치료기를 개발, 대히트를 기록함으로써 메디컬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이어 수소수의 놀라운 효능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분야에 다시 뛰어들었다.<br/><br/> “수분은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물에 수소를 녹여 음용수로 사용함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수소는 몸의 유해산소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많이 마실수록 몸에 유익합니다.” <br/><br/> 현대인들은 요즘 물을 단순히 수분 보충용으로 마시지 않고 기능이 결합된 물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제품을 선택하곤 한다. 이미 다양한 회사에서 정수 및 알카리수를 만들어 내는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지만 솔고가 만들어 낸 수소생성기 ‘수소샘’은 이제 그 효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br/><br/> “질병은 보통 바이러스에 의한 것과 생활습관에 의한 것으로 양분됩니다. 바이러스 질병은 면역력 증강이 해법이고, 생활습관병은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가 답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화와 질병의 근본 원인인 세포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솔루션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수소수 생성기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br/><br/> 김 이사장은 백세건강연구소 소장 임동수(58)박사와 손잡고 연구를 했다. 연구핵심은 ‘가장 이상적인 항산화 물질 농도를 가진 수소수를 생성하는 기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br/><br/> 임동수 소장은 서울대와 KAIST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미국 애크론(Akron)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고분자공학)를 받았다. 특히 공학을 인간의 건강분야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br/><br/> “수소는 가벼운 물질이기에 보통 10분 후면 날라가 버려 장시간 녹아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6중 티타늄백금을 이용한 전기분해 시스템을 통해 잘게 쪼개진 수소 분자를 물 분자 사이에 용존시키는 수소수 개발에 드디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br/><br/> 이 분야에서만 13개 특허출원을 이룬 임 박사는 “<span class='quot0'>최대 용존 수소량이 1,200ppb 이상, 용존 기간이 3일, 고온에서도 수소가 용존되는 기술은 국내는 물론 해외업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span>”고 했다. 지난해에는 단 1회의 버튼 조작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수소수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한 기기 ‘수소샘’이 나와 큰 인기를 얻고 있다.<br/><br/> 임 소장은 “<span class='quot1'>일본에서 음료수로 판매되는 제품도 금방 날라가기에 빨리 마셔야 하는데 저희 제품(수소샘)은 정수나 생수를 생성기에 넣으면 간편하게 수소수가 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음용수 뿐 아니라 요리와 세정 등에도 적절히 사용해 항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br/> 수소수를 음용해 건강에 도움을 얻은 체험사례는 너무나 많다.<br/><br/> 71세의 김만철씨는 “<span class='quot2'>수소수 음용 후 혈압약과 전립선약을 모두 끊을 수 있었다</span>”며 “<span class='quot2'>물만으로도 이렇게 고질병이 호전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span>”고 했다.<br/><br/> 극심한 당뇨로 고생했다는 74세의 엄순자씨는 “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진단받아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그런데 수소수를 하루 1.2L씩 마시니 얼굴의 검버섯이 엷어지고 혈당수치도 200에서 110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체험사례는 이밖에도 수소수 장기음용을 통해 치매 불면증 비염 아토피 암질환 고지혈증 탈모 변비 등의 증상에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br/> 김 이사장은 “<span class='quot3'>수소수 체험사례를 살펴보면 당뇨와 혈압, 전립선, 관절염 등 만성병에 높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3'>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만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점이 수소샘 기기가 내세우는 제일 큰 장점</span>”이라고 밝혔다.<br/><br/> 김 이사장은 수소수의 이 신기한 효능을 알리기 위해 임동수 박사와 공저로 ‘백세건강 수소수가 답이다’(상상나무)를 출간했다. 베스트셀러인 이 책은 수소수를 생성기 수소샘이 왜 인체에 유익하고 항산화작용을 하는지 그 이론을 자세히 기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br/><br/> 두레교회에 출석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서곤 이사장은 “<span class='quot4'>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업을 하고 있다</span>”고 했다. 그래서 “70억의 세계인구가 새로운 발명과 연구로 더 건강해지고 장수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라 믿는다”며 밝게 웃었다(1522-4547,www.sspark24.com).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2.txt

제목: 노벨화학상, 스웨덴·미국 과학자 3명 공동 수상 “손상된 DNA 회복원리 밝혀 암 치료의 새 가능성 열어”  
날짜: 201510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2149479  
ID: 01100201.2016010721214947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해 노벨 화학상은 ‘생명 현상의 책’으로 불리는 유전자(DNA)의 손상과 복구 메커니즘을 밝혀낸 3명의 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DNA 손상으로 발생하는 노화나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7일 스웨덴 출신의 토마스 린달(77) 영국 프랜시스크릭연구소 명예교수, 폴 모드리치(69) 미국 듀크대 생화학과 교수, 터키계 미국인 아지즈 산자르(69)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바이오화학과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span class='quot0'>세 사람은 어떻게 세포가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유전정보를 지키는지에 대해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span>”고 설명했다. 린달 명예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스웨덴 왕립과학원 회원으로는 처음으로 영예를 안았다.<br/><br/> 우리 몸의 DNA는 자외선이나 활성산소, 담배연기 속 발암물질 등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외부 공격이 없어도 세포가 분열하거나 복제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이유로 유전물질이 완전히 분해되거나 혼란을 겪지 않는 이유는 세포 안의 분자시스템이 DNA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손상을 복구하기 때문이다.<br/><br/>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DNA를 이루는 분자의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린달 교수는 DNA도 여러 이유로 손상될 수 있고, 이런 결함을 수리하는 분자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이후 산자르 교수는 세포가 자외선 때문에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과정을 관찰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복구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점도 알아냈다. 모드리치 교수는 세포가 분열 또는 복제되면서 발생한 DNA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을 규명했다. 서강대 화학과 조규봉 교수는 “<span class='quot1'>암은 상당 부분 DNA 유전정보의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우리 몸이 어떻게 DNA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지 밝혀냄으로써 암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span>”고 말했다. 수상자들은 상금 800만 크로나(약 11억2000만원)를 나눠 갖는다.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3.txt

제목: 알츠하이머성 치매 ‘빛으로 치료’ 길 열었다  
날짜: 2015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523563  
ID: 01100201.2016010721052356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뇌에 빛을 쪼여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물질을 억제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빛을 이용한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br/><br/> 카이스트(KAIST) 신소재공학과 박찬범(사진 왼쪽) 교수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센터 유권(오른쪽) 박사팀은 빛에 반응하는 유기분자(포르피린)를 투여한 뒤 빛(청색 LED광)을 쪼이는 방법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쌓이는 것을 억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응집돼 쌓이면서 시작된다. 이 응집체가 뇌세포 손상을 유발해 치매 같은 뇌기능 저하를 일으킨다.<br/><br/> 병 부위에 빛을 쬐는 ‘광역학 요법’은 암 치료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에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초파리 실험에서 이 방법을 통해 신경·근육 접합부 손상, 뇌신경세포 사멸, 운동성 및 수명 감소 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br/><br/>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빛 치료법은 적은 양의 약물로도 높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span>”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앙게반테 케미’ 최신호에 표지논문으로 발표됐다.<br/><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4.txt

제목: “시험관서 인간정자 배양”… 불임男 희소식  
날짜: 201509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518032  
ID: 01100201.2016010721051803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프랑스 국립 연구기관이 실험실에서 성숙한 인간 정자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20일(현지시간) 전 세계 불임 남성과 독한 화학적 항암치료로 인해 정자 생성에 어려움을 겪어온 암 환자에게 획기적인 소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br/><br/>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프랑스 연구기관인 게노미크 퐁시오넬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불임 남성의 고환에서 채취한 미성숙 세포를 세포배양기(bioreactor)에서 수정이 가능한 성숙한 정자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다. 연구를 이끈 프랑스 생명공학 기업 칼리스템 출신의 필립 뒤랑 박사는 “<span class='quot0'>배양된 정자와 자연적인 정자가 동일한 걸 확인했고 연구 결과를 과학 저널에 공식적으로 발송했다</span>”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특히 “사람 정자를 키워내기 전 쥐와 원숭이 정자도 같은 방식으로 키워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연구를 통해 2년에서 4년 사이에 불임 남성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1년 일본 연구진이 쥐 세포를 이용해 정자 배양 및 수정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인간 정자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 <br/><br/>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5.txt

제목: [암과의 동행] 오리지널이냐 복제약이냐… “생산-출시 과정 알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34720  
ID: 01100201.2016010721043472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사례. 박지원(가명·55세)씨는 당뇨, B형간염으로 만성질환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 어느 날 신문을 통해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 특허가 만료되면서, 동일 성분의 제네릭(복제약)이 100여개나 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병원에 들러 의사에게 “<span class='quot0'>복용하던 치료제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느냐</span>”고 물었다. 담당 의사는 “<span class='quot1'>지금 처방되는 약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저렴한 약값에 약을 먹을 수 있다</span>”고 답했다. 박씨는 고민에 빠졌다. 같은 저렴한 값이면, 동일 성분이라고 해도 오리지널을 복용하는 것이 제네릭을 먹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 가격도 떨어진다. 때문에 의사에게 “이왕이면 오리지널약을 처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br/><br/> 몸이 아플 때 먹는 약도 오리지널과 제네릭(복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똑똑한 환자들이 늘어나며 약에 대한 ‘결정권’도 높아지고 있다. 즉, 내가 먹는 약은 내가 파악해 의사와 논의해 선택하겠다는 것. 그렇다보니, 오리지널약과 제네릭에 대한 차이점, 의약품 제조사 등을 파악해 약을 복용하려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차이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환자는 어떤 약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까. <br/><br/> 오리지널의약품은 최초에 개발된 약으로, 일정기간 특허로 보호를 받는다. 반면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면 간단한 실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일종의 복제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제네릭을 오리지널과 주성분, 안전성, 효능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언뜻 보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포장만 다른 똑같은 약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약은 개발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 오리지널의 경우 임상3상까지의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고 평균 10여년의 시간을 소요해 만든 의약품이다. 반면 제네릭은 여러 단계에 거친 임상시험을 모두 생략하고, 건강한 지원자를 모집해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시험약(제네릭)과 대조약(오리지널)을 각각 투여하고, 또 바꿔 투여한 뒤 혈액을 채취해 약물농도를 측정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을 거친다. 여기서 약효가 오리지널의 80∼125% 범위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동성시험은 한계점도 있다. 시험 과정에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환자들이 복용했을 때와 효과 및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일한 품질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오리지널을 분해해 그 생산방식을 알아낸 뒤 만든다 해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하다</span>”며 “<span class='quot2'>제네릭은 오리지널과 유사 약에 가깝다</span>”고 설명했다.<br/><br/> 그렇다면 제네릭이 많이 처방되는 이유가 뭘까. 가장 큰 이유는 ‘가격경쟁력’ 때문이다. 제네릭 가격이 오리지널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인 것. 물론 제네릭은 오리지널약에 비해 가격이 낮다. 하지만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약값 역시 제네릭 출시 이후 약가가 떨어진다. 한국의 보험약가제도에서는 오리지널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만료 첫 해에 오리지널 약값을 기존 약값의 70%로 깎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네릭 보험 상한가와 같은 53.55%로 인하하고 있다. <br/><br/> 한편, 올해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며, 제네릭들이 앞다퉈 출시될 예정이다. 릴리의 ‘알림타’가 5월 가장 먼저 특허가 만료됐고, 9월에는 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가, 10월에는 BMS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쿠르드’ 등이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시알리스와 바라쿠르드 약물은 벌써부터 특허 만료 이후 줄줄이 나오는 제네릭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값비싼 항암제도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6년 벨케이드, 타쎄바, 이레사, 2018년 허셉틴 등이 만료돼 관련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약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들 사이에선 오리지널약이 제네릭보다 처방에 있어 우세한 편이다. <br/><br/> 똑같은 약이라면 오리지널을 선택할 것인가, 제네릭을 선택할 것인가. 환자와 의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br/><br/>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6.txt

제목: [암과의 동행] 고난도 암 수술 3D 복강경 활용 빠르고 안전해졌다… 올림푸스 장비 의료진 고민 해결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23938  
ID: 01100201.2016010721042393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지난 5월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A(50·남)씨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소장 끝에서 횡행 결장까지 절제하는 우반결장절제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걱정이 앞섰다. 대수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달리 개복 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로 큰 흉터 없이 진행됐고, A씨는 입원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br/><br/> 이렇듯 최근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 비해 흉터가 덜 남고 회복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어 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강경 수술은 배를 절개하지 않고 복부에 0.5∼1.5㎝ 크기의 작은 구멍을 내고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과 수술 도구 등을 집어넣어 수술하는 방식이다. 개복 수술의 경우 5∼20㎝ 내외의 흉터를 남기지만 복강경은 보통 3∼4곳 정도에 1㎝ 내외만 절개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복 수술에 비해 균이 옮아 곪는 창상 감염 등의 합병증의 위험이 덜하고, 수술 후 생기는 통증도 적다. 회복이 빨라 입원 일수도 짧은 덕분에 빠르게 보편화 되는 추세다. 삼성서울병원 대장암센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장암 수술에서 복강경 비중이 2009년 50%를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80%에 이를 정도로 늘어났다.<br/><br/> 그러나 평면으로 표현되는 모니터에 의존해서 수술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장기의 거리감과 깊이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해왔다. 최근에는 3D 기술이 접목되기 시작하면서 병변의 깊이, 눈에 보이는 조직 뒤의 장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을 마치 개복 시야에서처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br/><br/> 올림푸스가 지난 해 선보인 3D 복강경 시스템은 듀얼 렌즈가 의료진의 눈을 대신해 뱃속을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영상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제품이다. 선단부에 탑재되어 있는 2개의 고화질 이미지 센서(CCD)로 전송 받는 영상을 전용 장비를 통해 고화질3D 영상으로 전환하고, 의료진은 이 영상을 3D 안경을 쓰고 모니터를 보면 수술 부위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영상이 구현되는 원리이다. <br/><br/> 또한 올림푸스의 3D 복강경은 끝 부분이 세계 최초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각각 100도까지 구부러져 일반적인 일자형 복강경으로는 보기 힘든 장기 뒤쪽까지 관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복강경 수술은 뱃속의 좁은 공간에서 수술 도구와 복강경 장비가 함께 움직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도구들과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올림푸스 3D 복강경의 방향전환 기능은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화 시켜주면서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에 도움을 주고 있다.<br/><br/> 특히 렌즈와 몸 속 조직 사이 거리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초점이 조절되어 조직을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도움을 주며, 현존하는 제품 중 유일하게 2D 모드와 3D 모드를 버튼 하나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의료진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br/><br/> 이런 우수한 기능 덕분에 3D 복강경 수술은 효과적인 최소침습 치료의 새로운 모델로 간담췌, 대장항문, 상부위장관, 흉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대부분의 외과 수술에서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br/><br/> 지난 4월 열린 대한위암학회 학술대회에서 일본 오사카적십자병원 외과 과장인 카나야 세이치로 교수는 올림푸스의 3D 복강경 시스템으로 수술한 진행성 위암에서의 림프 절제술 관련 프레젠테이션에서 “<span class='quot0'>위암 절제술에서 림프절을 정확히 절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올림푸스의 3D 복강경은 플레인과 레이어 등의 위치와 깊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절개 할 수 있다</span>”고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올림푸스한국 SP사업본부 권영민 본부장은 “<span class='quot1'>올림푸스의 3D 복강경 장비는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시야 확보를 통해 의료진이 정확하고 편리하게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화된 수술 시스템</span>”이라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7.txt

제목: [암과의 동행] ‘The Liver Week’ 성공개최… 대한간학회, 선진국학회와 합동세션 진행 위상 높여  
날짜: 201509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10432749  
ID: 01100201.20160107210432749  
카테고리: 문화  
본문: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간학회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간질환 연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회는 지난해에 이어 The Liver Week라는 학술대회 공식 명칭을 사용하며 국제학술대회로서의 면모를 뽐냈다. <br/><br/> 2015 The Liver Week는 소화기내과 뿐 아니라 간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소아과, 이식외과 각 분야 전문가가 모두 모여 우리나라의 간질환 치료현황과 발전된 치료법 등은 공유하는 자리다.<br/><br/> 간학회는 이번에 Curing Liver Disease: Past to the Future를 학술대회 주제로 내걸었다. 지난 20년간 국내 간질환 전문가들은 B형간염, C형간염, 간이식, 간암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도모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발표는 C형간염이다. <br/><br/> 백순구 대한간학회 학술이사(연세대 원주의대)는 “다른 국가에서 처방 가능한 C형간염 치료제가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내 C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 임상결과가 발표되어 신약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br/><br/> 2015 The Liver Week는 당초 6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한국이 메르스로 진통을 겪으면서 학술대회는 잠정 연기되는 위기에 놓였다. 해외 참석자들의 잇따른 참석 취소로 성공적인 개최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학회는 과감히 9월로 연기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려와 달리 The Liver Week는 국제사회에서 학회의 높아진 위상을 증명했다. 백순구 학술이사는 “<span class='quot0'>The Liver Week는 단순히 대한간학회의 학술대회 명칭이 아니라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한 학회가 국제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실제로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 일본 학회와의 합동 세션이 많다</span>”고 설명했다.<br/><br/> 기존 학술대회가 해외 의료진을 초빙해 초청강연을 듣는 수동적인 형식이었다면 The Liver Week는 선진국의 간질환 전문가들을 학술대회 세션 좌장으로 선정하거나 토론 패널로 초빙해 이름만 국제학술대회가 아닌 구체적 사례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광협 대한간학회 이사장은 “<span class='quot1'>국제 학술대회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번에 참석한 많은 해외 연자들이 학회의 운영과 원활한 학술대회 진행 상황에 놀라워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br/><br/> 한편 The Liver Week를 개최한 대한간학회는 아시아태평양간학회 학술대회 내년 4월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김단비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8.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9) 차병원 조성훈 박사팀] 최고 수준 안티에이징 시스템… 면역치료 새장  
날짜: 201509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913142  
ID: 01100201.2016010720491314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차병원그룹의 미래형 병원 차움(원장 이동모)이 지난 1일 암, 당뇨, 류머티즘성 질환 등 자가면역 이상 질환 예방을 위해 저항력을 키워주는 ‘면역증강센터’(센터장 조성훈)를 개설, 주목을 받고 있다.<br/><br/> 차움은 면역증강센터 개설과 함께 2000년대 초 국내에서 NK면역세포 치료를 처음 시도, 우리나라 면역치료계의 대부로 불리는 조성훈(50) 박사를 초대 면역증강센터장으로 영입했다.<br/><br/> 차병원그룹의 줄기세포 보관 기술력과 조 박사가 그동안 축적해온 면역치료의 노하우를 통합해 안티에이징(항노화) 치료 및 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다지기 위한 포석이다.<br/><br/> 보통 사람들은 이상 증상을 느낀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암 같은 중대 질환은 이 때 손을 쓸 수 없는 말기단계인 경우가 많다. 질병 치료에 쓸데없이 많은 의료비를 낭비하게 되는 이유다. <br/><br/> 이런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질병 예방 활동이요, 면역력 증진 노력이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 만병의 뿌리인 만성피로 해소와 스트레스 관리는 물론, 면역력 증진 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br/><br/> 면역력 향상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이 된다. 평소 질병예방 차원의 면역 증진 관리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큰 손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br/><br/> 차병원그룹 차움이 그간 질병으로 발전하기 직전의 회색지대, 즉 미병(未病)상태에 주목해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치료를 근간으로 하는 안티에이징(항노화) 치료와 관리 서비스에 집중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br/><br/> 면역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자연치유력이다.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고, 돌연변이세포가 생길 경우 그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도 면역이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면 적어도 신체건강에 대해선 두려울 게 없어진다. 바이러스 공격을 받아도, 뜻밖의 암세포가 생겨도 큰 고통 없이 금방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br/><br/> 우리 몸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중 가장 강력한 세포는 혈액(백혈구) 속에 있는 NK(Natural Killer·자연 살해)세포다. NK세포는 우리 몸속에 숨은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일일이 찾아내 파괴하고, 암세포와 같은 돌연변이세포를 제거하는 일을 한다.<br/><br/> 사실 우리 몸에선 건강한 상태에서도 암의 씨앗(돌연변이 세포)이 하루 5000여개씩 생기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암세포의 존재를 모르고 건강을 유지하며 잘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NK세포가 은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 싹을 제거하는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br/><br/> 차움 면역증강센터는 앞으로 기존의 서양의학, 동양의학, 통합의학 등을 총 망라한 의료기술력에다 조 박사의 임상경험을 보태 개인 맞춤형 면역치료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br/><br/> 이 프로그램에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통해 개인의 면역력을 측정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혈액 내 각종 유해 세균을 제거해 피를 맑게 하며 면역기능을 북돋워주는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림프 순환을 순조롭게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주는 ‘림프 드레이니지’(Lymph-drainage) 마사지, 멀티비타민 등 각종 항산화제를 이용한 면역요법 처방 서비스도 제공된다.<br/><br/> 필요하다면 차병원그룹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도쿄셀클리닉으로 환자를 보내 세포치료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받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 경우 면역 증진을 위한 NK세포 주입술은 2주 간격으로 한번씩, 총 6회 시술이 한 세트로 구성된다. 비용은 1회 450만 원(교통비 별도)이다. <br/><br/> 조 박사는 특히 NK세포를 이용한 면역요법 시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NK세포의 활성도 검사로 암의 발생은 물론 증식 및 전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예측, 평가해준다.<br/><br/> 조 박사는 “<span class='quot0'>앞으로 암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면역세포치료, 푸드 테라피(식이요법)를 연계한 면역 건강식 등의 연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 시행할 생각</span>”이라고 말했다.<br/><br/> 또 바이오기업 ‘차바이오텍’, 일본 도쿄셀클리닉 등과 손잡고 줄기세포치료제와 NK세포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면역치료 효과를 배가시키는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49.txt

제목: 뚱보 주범으로 비타민D 주목… 국내외 학자들 관련성 연구 박차  
날짜: 2015090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4819844  
ID: 01100201.2016010720481984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전 세계 많은 연구진들이 뚱뚱해지는 원인을 연구 중에 있다. 비만이 암과 만성질환의 치료율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관리의 대상을 넘어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들과 비슷한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찐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주목할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br/><br/> 인종에 상관없이 비만할수록 혈청 비타민D농도가 낮은 것이 확인됐다. 비만과 비타민D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남녀 1만8000명 이상의 체질량지수(BMI)와 혈중 비타민D농도를 알아보는 연구가 노르웨이에서 진행됐다. 관찰 결과 비타민D 섭취가 가장 높은 그룹과 가장 낮은 그룹 사이에서 BMI가 1㎏/㎡까지 차이 나는 것이 확인됐다.<br/><br/> 반대로 체중감량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체중의 5∼10% 감소한 비만여성에서 혈청 비타민D농도가 상승하는 것이 관찰된 연구도 있다. 앞서 연구들이 비만과 비타민D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비만과 비타민D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 체내 낮은 비타민D 농도가 살찌는 체질로 변하는 원인 인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br/><br/> 연구진들이 비만과 비타민D 연구를 계속하는 이유는 기전에 있다. 비타민D는 지방합성을 유도하는 효소를 억제하고 반대로 지방 분해와 관련 있는 효소를 촉진한다. 즉 비타민D 결핍 상태는 지방축적에 유리한 환경이 된다. 또 비타민D는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데, 칼슘은 지방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비타민D는 지방 생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로 작용한다.<br/><br/> 그렇다면 과체중 또는 비만한 사람에게 비타민D 보충요법을 시행했을 때 체중감소 효과를 불러올까. 비만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칼로리 제한 식사와 함께 비타민D 125 IU와 칼륨 600㎎을 함께 투여했다. 그 결과 칼슘과 비타민D 보충요법을 시행한 그룹이 칼로리 제한 식사만 시행한 그룹에 비해 내장 지방량과 내장 지방 분포 범위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체중 감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br/><br/> 노르웨이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었다. 445명의 과체중과 비만 성인을 무작위로 골라 1년간 2만 IU의 비타민D를 주 2회 투여하거나, 주 1회 투여하거나, 투여하지 않았다. 세 그룹을 관찰한 결과 비타민D의 최종 산물인 25(OH)D의 농도 변화는 있었지만 체중변화는 없었다. 앞서 연구들에 대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찬희 교수는 “<span class='quot0'>체중감량에 대한 비타민D 역할을 지지하는 여러 기전들과 실험 근거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비타민D 자체가 체중이나 체중감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연구 근거는 부족하다</span>”며 “<span class='quot0'>비만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비타민D사용을 권할만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span>”이라고 설명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0.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종양센터 김재용 교수팀] 뇌종양, 절반이상 고친다!  
날짜: 201508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3338668  
ID: 01100201.20160107203338668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TV속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불치병 소재로 등장하는 뇌종양은 사실 매우 복잡한 종양이다. 다른 부위와 달리 양성 종양도 암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 종류도 3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br/><br/> “뇌종양은 건드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아예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15∼20% 정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못 고치는 환자보다는 수술 또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고칠 수 있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br/><br/>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종양센터 김재용(47·신경외과)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뇌종양 환자 치료율은 양성과 악성을 모두 합쳐 약 50%다. 어떻게든 둘 중 하나는 살려내고 있다는 말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에 생긴 모든 종양을 총칭하는 병명이다. 물론 뇌 주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종양도 포함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사람들이 뇌종양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종류 만큼이나 치료율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다</span>”고 말했다.<br/><br/> 뇌종양은 다른 종양과 달리 혹이 두개골 안에서만 자란다.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경우란 수모세포종 등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에도 거의 신경계 밖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다.<br/><br/> 뇌종양은 최초 발생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 원발성 및 전이성으로 구분된다. 원발성은 두개골 안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고 전이성은 다른 부위에서 생겨 혈관을 따라 뇌 쪽으로 이사 온 종양을 말한다.<br/><br/> 원발성 뇌종양은 다시 세포 종류에 따라 주변의 신경조직 속으로 파고드는 ‘신경교종’(축내종양)과 그렇지 않고 압박만 하는 비(非)교종성(축외종양), 두 종류로 나뉜다. 신경교종이 전체 뇌종양 중 약 4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비교종성으로 수막종 20%, 뇌하수체선종 15%, 신경초종 15%, 기타 종양 10% 등의 분포다.<br/><br/> 뇌종양은 악성도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뉜다. 양성 뇌종양에는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청신경초종 뇌하수체 종양 등, 악성 뇌종양에는 역형성신경교종 교모세포종 뇌전이암 수모세포종 등이 대표적이다.<br/><br/> 양성 뇌종양은 대부분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만 해도 될 때가 적잖다. 종양이 여러 해 동안,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br/><br/> 문제는 이런 양성 뇌종양도 수술이 어려워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뇌간이나 뇌기저부, 또는 척수 속에 뿌리를 내린 종양은 완전 절제수술이 불가능하다. 수술 범위를 아무리 좁혀도 생명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와 척수에 손상을 안 입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br/><br/> 발병 시 무조건 진단 및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는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낫거나 당분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것에 칼을 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게 뇌종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br/><br/>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 진료과목의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각도로 협진을 하는 뇌종양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다. 한 사람이 잘못 봐도 다른 의사가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기 위해 여러 의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어서다. 결국 치료 효과도 극대화되기 마련.<br/><br/> 뇌종양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란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관련 진료과목의 교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최고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br/><br/> 환자들은 여러 진료과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의료진은 진료 시 각 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시스템은 완치율이 낮은 악성 뇌종양이나 일차 치료 후 재발되었을 때, 치료법 선택이 쉽지 않을 때 빛을 발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분당서울대병원도 뇌종양 치료에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치료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됐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부위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됐다</span>”고 강조했다.<br/><br/> 김 교수팀은 현재 뇌·척수 종양 수술 및 감마나이프 수술을 연평균 500건 이상 시행 중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1.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27)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종양센터 김재용 교수팀] 뇌종양, 절반이상 고친다!  
날짜: 20150825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5100000051  
ID: 01100201.2015082510000005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TV속 드라마나 영화에서 종종 불치병 소재로 등장하는 뇌종양은 사실 매우 복잡한 종양이다. 다른 부위와 달리 양성 종양도 암과 같은 대우(?)를 받고 그 종류도 30여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br/><br/> “뇌종양은 건드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아예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15∼20% 정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못 고치는 환자보다는 수술 또는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고칠 수 있는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br/><br/>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종양센터 김재용(47·신경외과)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뇌종양 환자 치료율은 양성과 악성을 모두 합쳐 약 50%다. 어떻게든 둘 중 하나는 살려내고 있다는 말이다. 뇌종양은 두개골 안에 생긴 모든 종양을 총칭하는 병명이다. 물론 뇌 주변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종양도 포함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사람들이 뇌종양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종류 만큼이나 치료율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다</span>”고 말했다.<br/><br/> 뇌종양은 다른 종양과 달리 혹이 두개골 안에서만 자란다.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는 경우란 수모세포종 등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에도 거의 신경계 밖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다.<br/><br/> 뇌종양은 최초 발생 부위가 어딘가에 따라 원발성 및 전이성으로 구분된다. 원발성은 두개골 안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고 전이성은 다른 부위에서 생겨 혈관을 따라 뇌 쪽으로 이사 온 종양을 말한다.<br/><br/> 원발성 뇌종양은 다시 세포 종류에 따라 주변의 신경조직 속으로 파고드는 ‘신경교종’(축내종양)과 그렇지 않고 압박만 하는 비(非)교종성(축외종양), 두 종류로 나뉜다. 신경교종이 전체 뇌종양 중 약 4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비교종성으로 수막종 20%, 뇌하수체선종 15%, 신경초종 15%, 기타 종양 10% 등의 분포다.<br/><br/> 뇌종양은 악성도에 따라 양성과 악성으로 나뉜다. 양성 뇌종양에는 뇌수막종 두개인두종 청신경초종 뇌하수체 종양 등, 악성 뇌종양에는 역형성신경교종 교모세포종 뇌전이암 수모세포종 등이 대표적이다.<br/><br/> 양성 뇌종양은 대부분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만 해도 될 때가 적잖다. 종양이 여러 해 동안, 심지어 수십 년 동안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br/><br/> 문제는 이런 양성 뇌종양도 수술이 어려워 완치를 기대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뇌간이나 뇌기저부, 또는 척수 속에 뿌리를 내린 종양은 완전 절제수술이 불가능하다. 수술 범위를 아무리 좁혀도 생명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와 척수에 손상을 안 입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br/><br/> 발병 시 무조건 진단 및 수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는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가 낫거나 당분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것에 칼을 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게 뇌종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br/><br/>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여러 진료과목의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각도로 협진을 하는 뇌종양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다. 한 사람이 잘못 봐도 다른 의사가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기 위해 여러 의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칠 수 있어서다. 결국 치료 효과도 극대화되기 마련.<br/><br/> 뇌종양 다학제 진료 시스템이란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혈액종양분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등 관련 진료과목의 교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최고의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최적의 치료계획을 짜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br/><br/> 환자들은 여러 진료과를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의료진은 진료 시 각 과 사이에 있을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시스템은 완치율이 낮은 악성 뇌종양이나 일차 치료 후 재발되었을 때, 치료법 선택이 쉽지 않을 때 빛을 발한다.<br/><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분당서울대병원도 뇌종양 치료에 다학제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치료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됐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부위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됐다</span>”고 강조했다.<br/><br/> 김 교수팀은 현재 뇌·척수 종양 수술 및 감마나이프 수술을 연평균 500건 이상 시행 중이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2.txt

제목: [한마당-임항] 잔류성 유해물질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21100000019  
ID: 01100201.2015082110000001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제활동의 부산물인 유해물질 가운데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과 중금속들이다. 이들은 생물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인체와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생물농축이란 먹이사슬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체내 오염도가 단위체적당 7∼10배씩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br/><br/> POPs는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DDT, 알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등의 농약류와 폴리염화비페닐(PCB)·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및 다이옥신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12개 물질이 POPs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서 23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br/><br/> POPs 가운데 다이옥신, PCB, 퓨란 등 3개 물질을 포함한 일군의 화학물질들과 납, 수은, 비소, 유기주석 등 일부 중금속은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통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한다. 이 물질들을 내분기계 교란물질(EDCs), 또는 통칭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른다. 태아나 어린이의 신체와 생식기관에 기형을 일으키고, 성인의 경우 내분기계통 암이나 생식능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1940∼71년 사이 유산 예방약으로 복용됐다가 생식기 기형 을 유발한 DES(디에틸스틸베스트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원료였던 다이옥신,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산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br/><br/>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의 최대 300배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유해성 검사 때마다 적발되지만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POPs가 아닌 EDCs 함유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과 정보 공개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호르몬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 주요 EDCs를 규제해야 한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 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3.txt

제목: [한마당-임항] 잔류성 유해물질  
날짜: 2015082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941778  
ID: 01100201.2016010720294177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제활동의 부산물인 유해물질 가운데 분해되지 않고 먹이사슬을 통해 동물의 체내에 축적되는 것들이 있다. 대부분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과 중금속들이다. 이들은 생물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 오랜 기간 인체와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 생물농축이란 먹이사슬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체내 오염도가 단위체적당 7∼10배씩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br/><br/> POPs는 면역체계 교란,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초래한다. DDT, 알드린 디엘드린 톡사펜 등의 농약류와 폴리염화비페닐(PCB)·헥사클로로벤젠 등 산업용 화학물질 및 다이옥신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12개 물질이 POPs로 지정됐으며, 국내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서 23개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br/><br/> POPs 가운데 다이옥신, PCB, 퓨란 등 3개 물질을 포함한 일군의 화학물질들과 납, 수은, 비소, 유기주석 등 일부 중금속은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통의 정상적 작용을 방해한다. 이 물질들을 내분기계 교란물질(EDCs), 또는 통칭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른다. 태아나 어린이의 신체와 생식기관에 기형을 일으키고, 성인의 경우 내분기계통 암이나 생식능력 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1940∼71년 사이 유산 예방약으로 복용됐다가 생식기 기형 을 유발한 DES(디에틸스틸베스트롤), 베트남전에서 고엽제 원료였던 다이옥신, 플라스틱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프탈산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br/><br/>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의 최대 300배까지 검출됐다고 한다. 유해성 검사 때마다 적발되지만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것은 POPs가 아닌 EDCs 함유 제품에 대해 수거 명령과 정보 공개 외에는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호르몬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전 예방의 원칙에 의해 주요 EDCs를 규제해야 한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 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4.txt

제목: ‘제대혈’의 배신?… 만병통치 논란  
날짜: 201508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625077  
ID: 01100201.20160107202625077  
카테고리: 사회  
본문: 제대혈이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대혈 보관 서비스 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했다.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갈수록 커지는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br/><br/> 제대혈은 출산 시 태반이나 탯줄에 존재하는 혈액이다.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대혈은 자기 치료에 쓰일 확률이 극히 낮아 ‘얼음쓰레기’에 불과하다. 보관료만 챙기는 사기극이다”고 주장하면서 불을 지폈다. 업체들은 “제대혈 산업은 계속 발전 중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민간 제대혈은행은 100만∼400만원의 보관료를 받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이를 보관하다 필요할 때 꺼내 치료에 쓰게 해준다. 2001년 이후 국내에서 제대혈 보관에 나선 사람은 52만명이나 된다.<br/><br/> ◇‘기적의 치료제’ vs ‘얼음쓰레기’=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국내에 보관된 기증 제대혈은 4만4667건인 반면 가족 제대혈은 52만3487건이다. 전체의 약 94%가 민간 업체에서 운용 중인 자가 제대혈이다. 같은 기간 제대혈을 이식받은 건수는 가족 제대혈이 390건, 기증 제대혈이 801건으로 이식률은 각각 0.07%, 0.20%다.<br/><br/> 제대혈을 보관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상태인 경우 이식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식률 수치만으로 제대혈의 효과나 필요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활용도가 뛰어나지는 않다. 201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보고서는 제대혈이 보관 건수에 비해 실제 활용 비율이 낮아 관련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백혈병 등 유전적 원인의 질환은 본인이나 가족의 제대혈을 이용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점이 언급됐다.<br/><br/> 시민단체들은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민단체들은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말 세종시 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백혈병 치료에 도움을 받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며 “자가 제대혈 보관 서비스가 백혈병 등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용될 확률도 많아야 0.04%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br/><br/> 반면 제대혈 서비스 업체들은 ‘바이오 신사업’ ‘미래사업’이라는 점을 들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난치병은 발병률 자체가 낮아 이식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보관자 중 성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용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의학계 입장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제대혈 서비스 시장은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br/><br/> 한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가 제대혈을 보관한 현재 아동이 성인이 돼 병에 걸렸을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고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자가 제대혈은 혈액암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뇌신경계 질환, 성인 암 보조치료제로도 쓰인다. 다양한 케이스로 활용 가능한데 시민단체는 혈액암에 국한해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일부 네티즌을 지난 10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br/><br/> ◇소비자 혼란…“서비스 취소와 환불은 불가”=업체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환불받기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약관과 계약서에 따라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2월 산부인과에 판촉을 나온 상담사 권유로 175만원을 내고 제대혈 30년 보관 서비스에 가입한 민모(29·여)씨는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제대혈을 폐기해도 업체로선 초기 발생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된 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br/><br/> 보건 당국이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0여개 제대혈은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가 제대혈 관련 계약이나 정보 고지에 대한 일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고 이때 제대혈 채취·입고·보관·폐기와 과대광고 여부 등을 모두 평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2013년 평가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다</span>”고 말했다.<br/><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5.txt

제목: ‘제대혈’의 배신?… 만병통치 논란  
날짜: 20150818  
기자: 김미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8100000130  
ID: 01100201.20150818100000130  
카테고리: 사회  
본문: 제대혈이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제대혈 보관 서비스 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부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했다.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갈수록 커지는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br/><br/> 제대혈은 출산 시 태반이나 탯줄에 존재하는 혈액이다. 조혈모세포가 풍부해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대혈은 자기 치료에 쓰일 확률이 극히 낮아 ‘얼음쓰레기’에 불과하다. 보관료만 챙기는 사기극이다”고 주장하면서 불을 지폈다. 업체들은 “제대혈 산업은 계속 발전 중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한다. 민간 제대혈은행은 100만∼400만원의 보관료를 받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이를 보관하다 필요할 때 꺼내 치료에 쓰게 해준다. 2001년 이후 국내에서 제대혈 보관에 나선 사람은 52만명이나 된다.<br/><br/> ◇‘기적의 치료제’ vs ‘얼음쓰레기’=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국내에 보관된 기증 제대혈은 4만4667건인 반면 가족 제대혈은 52만3487건이다. 전체의 약 94%가 민간 업체에서 운용 중인 자가 제대혈이다. 같은 기간 제대혈을 이식받은 건수는 가족 제대혈이 390건, 기증 제대혈이 801건으로 이식률은 각각 0.07%, 0.20%다.<br/><br/> 제대혈을 보관했지만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상태인 경우 이식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식률 수치만으로 제대혈의 효과나 필요성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활용도가 뛰어나지는 않다. 2013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보고서는 제대혈이 보관 건수에 비해 실제 활용 비율이 낮아 관련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백혈병 등 유전적 원인의 질환은 본인이나 가족의 제대혈을 이용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점이 언급됐다.<br/><br/> 시민단체들은 활용도가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말 세종시 복지부와 청와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혈병을 앓는 A군(5)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A군이 자가 제대혈 보관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백혈병 치료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업체가 홍보하지만 사실상 자가 제대혈을 사용할 확률은 많아야 0.04%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br/><br/>반면 제대혈 서비스 업체들은 ‘바이오 신사업’ ‘미래사업’이라는 점을 들며 향후 발전 가능성과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난치병은 발병률 자체가 낮아 이식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고, 보관자 중 성인이 없기 때문에 아직 사용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의학계 입장이라고 강조한다. 국내 제대혈 서비스 시장은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br/><br/> 한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자가 제대혈을 보관한 현재 아동이 성인이 돼 병에 걸렸을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지를 보고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자가 제대혈은 혈액암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 뇌신경계 질환, 성인 암 보조치료제로도 쓰인다. 다양한 케이스로 활용 가능한데 시민단체는 혈액암에 국한해 사용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업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일부 네티즌을 지난 10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br/><br/> ◇소비자 혼란…“서비스 취소와 환불은 불가”=업체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환불받기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약관과 계약서에 따라 이를 번복하기란 쉽지 않다. 지난 2월 산부인과에 판촉을 나온 상담사 권유로 175만원을 내고 제대혈 30년 보관 서비스에 가입한 민모(29·여)씨는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제대혈을 폐기해도 업체로선 초기 발생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약된 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br/><br/> 보건 당국이 2011년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20여개 제대혈은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자가 제대혈 관련 계약이나 정보 고지에 대한 일부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1'>2년마다 정기심사를 하고 이때 제대혈 채취·입고·보관·폐기와 과대광고 여부 등을 모두 평가한다</span>”며 “<span class='quot1'>2013년 평가에서 적발된 사례는 없다</span>”고 말했다.<br/><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br/>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6.txt

제목: [알츠하이머와의 전쟁] “증상 진행속도 1/3 감소” 미국 신약개발 큰 진전… MSD 예방약은 임상 돌입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8904  
ID: 01100201.2016010720234890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다. 바로 ‘치매’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인 불명의 치료제도 없는 ‘알츠하이머’는 고령층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다.<br/><br/>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억력 감퇴나 지적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와는 다른 질환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독성물질’을 생성해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베타아밀로이드(beta-amyloid)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에 침착되며 뇌세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발병의 핵심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br/><br/> 알츠하이머는 한 번 발병하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남기는 질병이다.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뇌 조직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떨어진다.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로 시작해 계산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후 이상 행동, 심할 경우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또한 기억 상실로 인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br/><br/>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최근 5년간 치매환자는 약 81%, 진료비는 약 120%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암과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치료제 개발도 시급하다.<br/><br/>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 질환은 제약사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솔라네주맙’성분의 이 신약은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3분의 1가량 줄이는 약물이다. 현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약 4400만명의 치매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인 메디포스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성물을 개발, 국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br/><br/>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예후가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약물 개발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 다국적 제약사인 엠에스디(MSD)는 알츠하이머 예방약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에서도 임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스디(MSD)가 개발 중인 ‘MK8931-019(코드명)’ 의약품은 현재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약 1500여명 규모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 국내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을 바탕으로, 뇌의 퇴행 정도가 미세한 알츠하이머 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br/><br/> 한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까지 알츠하이머를 완치하거나 퇴행된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부재한 만큼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발견하여 뇌의 퇴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치료책이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나올 치료제들이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 돌입한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을 만하다</span>”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7.txt

제목: [알츠하이머와의 전쟁] “증상 진행속도 1/3 감소” 미국 신약개발 큰 진전… MSD 예방약은 임상 돌입  
날짜: 201508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6  
ID: 01100201.20150817100000046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있다. 바로 ‘치매’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인 불명의 치료제도 없는 ‘알츠하이머’는 고령층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다.<br/><br/>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억력 감퇴나 지적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치매와는 다른 질환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 성분이 대사 과정에서 ‘독성물질’을 생성해 뇌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베타아밀로이드(beta-amyloid)라는 작은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뇌에 침착되며 뇌세포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발병의 핵심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br/><br/> 알츠하이머는 한 번 발병하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상흔을 남기는 질병이다. 알츠하이머가 발병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뇌 조직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떨어진다.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로 시작해 계산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이후 이상 행동, 심할 경우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또한 기억 상실로 인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br/><br/> 한국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로 최근 5년간 치매환자는 약 81%, 진료비는 약 120% 증가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암과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모두 합한 비용을 초과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치료제 개발도 시급하다.<br/><br/>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 질환은 제약사들에게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약회사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 ‘솔라네주맙’성분의 이 신약은 뇌세포를 파괴해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3분의 1가량 줄이는 약물이다. 현재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약 4400만명의 치매환자에게 희망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국내 바이오 기업인 메디포스트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조성물을 개발, 국내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br/><br/> 알츠하이머는 진행성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을 늦출 수 있어 예후가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알츠하이머 예방을 위한 약물 개발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 다국적 제약사인 엠에스디(MSD)는 알츠하이머 예방약을 개발하고 현재 국내에서도 임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에스디(MSD)가 개발 중인 ‘MK8931-019(코드명)’ 의약품은 현재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를 위해 약 1500여명 규모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돌입, 국내에서도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을 바탕으로, 뇌의 퇴행 정도가 미세한 알츠하이머 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br/><br/> 한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현재까지 알츠하이머를 완치하거나 퇴행된 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부재한 만큼 알츠하이머를 조기에 발견하여 뇌의 퇴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의 치료책이다</span>”며 “<span class='quot0'>향후 나올 치료제들이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 돌입한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거둘지 기대를 모을 만하다</span>”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8.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선 치료 바로알자… 머리 부위 치료할때만 머리카락 빠진다  
날짜: 20150817  
기자: 이영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36  
ID: 01100201.20150817100000036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내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암 환자는 22만 명으로 이 중 절반가량은 치료 또는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다. 암 치료에 있어 방사선치료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인해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원자력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김미숙 박사의 사례와 도움말로 방사선 치료의 편견에 대해 알아본다.<br/><br/> 병원 인근에서 하숙을 하며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환자가 유독 말이 없고 풀이 죽어있어 암에 대한 공포 때문인가 싶어 위로해 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알고 보니 우울증에 빠진 원인은 따로 있었다. 젖먹이 아기가 집에 있는데 따로 나와 혼자 있으니 아기가 보고 싶고 또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집과 병원이 가까운데 가서 돌봐주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 자신의 몸이 방사선에 오염되었을 것 같아 아기에게 해가 될까 봐 집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br/><br/> 이런 사례는 방사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방사선치료는 치료 순간에만 작용이 일어나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지 치료 장비로부터 벗어나면 몸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 방사선 오염이라는 것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직접 주입하거나 직접 우리 몸에 묻거나 흡입되어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방사선을 쬔다는 것은 방사능을 가진 물질로부터 눈에 안 보이게 빛처럼 나오는 방사선만 이용하는 것이며 그 물질 자체는 새어나오지 않게 단단히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기 엄마는 이제 집에서 통원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고 명랑함을 되찾았다.<br/><br/> “선생님, 머리가 빠집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는 암환자나 가족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다. 방사선은 국소 요법이므로 치료하는 부위의 피부에만 영향을 준다. 그러니 머리에 방사선 치료를 할 때에만 머리카락이 빠지고 목이나 가슴처럼 머리가 아닌 곳을 치료할 때에는 빠지지 않는다. 다만, 피부 표피세포는 방사선에 약하므로 쉽게 화상을 입는다. 따라서 표피에 가까운 방사선치료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유방이나 목을 치료할 때에는 피부가 상하면 방사선 피부 보호 연고나 크림을 발라 준다. <br/><br/> 항암 화학요법은 몸속으로 들어온 약성분이 전신에 퍼져 암세포를 죽이는 전신요법이므로 성한 머리카락 세포가 상해 머리카락이 빠지고, 위장이 약해져 메스껍고 소화가 안 되며, 골수가 상해 백혈구가 감소한다. 암을 수술로 치료할 때에는 수술 자국이 흉으로 남는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는 자국이 남지도 않고 몸의 일부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므로 장점이 많은 치료 방법이다. <br/><br/> 최근 다양한 방사선 치료 기계들이 개발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면을 조절해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세기변조 방사선치료, 환자의 자세 및 호흡에 의한 종양의 움직임 등을 보정하여 치료하는 영상유도 방사선치료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칼 대신 방사선을 이용한 방사선적 수술이 가능한 사이버나이프 등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각각에 대한 치료방법 및 질병에 대한 적응증은 다양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자신에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br/><br/>이영수 기자 juny@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59.txt

제목: [암과의 동행-희귀암 정보] 악성 골종양, 팔·다리 등 긴 뼈에서 주로 발생  
날짜: 20150817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1  
ID: 01100201.2015081710000004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골종양은 우리 몸의 뼈에 생기는 종양으로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 골종양은 뼈를 파괴할 수 있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반면 악성 골종양은 결합 조직, 연골, 뼈, 혈관과 림프관 등 근골격 조직에 발생한 암으로 이를 흔히 육종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어린이들과 젊은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육종은 우리 몸 206개의 뼈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지만 주로 팔 다리의 긴 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악성 골종양, 팔·다리 등 주로 발생=악성 골종양은 발생하는 원발 부위에 따라 원발성과 전이성으로 구분하는데 근골격 조직에서 발생한 경우 원발성 골종양,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생긴 종양이 근골격 조직으로 전이된 종양을 전이성 골종양이라고 한다. 근골격계 종양은 기본적으로 종양 세포가 어떤 세포에서 기원했는지에 따라 분류하는데 악성 골종양의 가장 흔한 종류로는 골육종이 있고, 그 외에 연골에서 발생하는 연골육종, 소아에게 흔한 유잉 육종 등이 있다. 흔히 발생하지 않는 악성 골종양으로는 섬유 육종, 악성 거대 세포종, 척색종 등이 있다.<br/><br/> 2014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2만4177건의 암 가운데 악성 골종양은 남녀를 합쳐 479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253건, 여자 226건으로 남자가 더 많고, 연령별로는 10대 19.0%, 50대 15.2%, 40대 14.8% 순이었다. 골육종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나친 뼈의 성장,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 암 유전자, 방사선 노출, 항암제, 골질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 ◇절단 없는 사지 구제술 보편화 추세=악성 골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다. 야간 통증, 휴식 중의 간헐적인 통증, 운동 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진단은 원발성 골종양의 경우 원인을 모르는 뼈의 통증이 계속되고 종괴(腫塊)가 만져질 경우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핵의학검사(골 스캔),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진단하며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자칫 진단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방법의 조직검사로 인해 절단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성 골종양 환자는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br/><br/> 악성 골종양은 최근 방사선학적인 진단 방법과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의 발달에 따라 치료 결과가 크게 호전되고 있다. 악성 골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 크기, 위치, 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 전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골연부종양 전문의,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항암제치료 전문의 등이 팀을 이뤄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을 조합해 치료한다. 수술 방법도 과거에는 절단술 내지는 관절 이단술(관절에서 절단 또는 분리하는 것)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시행되고, 대부분의 경우 사지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적출하는 사지 구제술(보존술)의 비율이 80∼90% 이상을 차지하며 보편화되는 추세다.<br/><br/> 원발성 악성 골종양은 골조직에 림프계가 없어 혈액을 통해 전이가 이뤄지는데 주로 폐나 타 부위 뼈로 전이된다. 5년 생존율은 △골육종 70∼80%(전이 20∼30%) △연골육종 50∼90% △유잉 육종 50∼70%(전이 30% 이하) 등으로 알려져 있다. <br/><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0.txt

제목: [암과의 동행-희귀암 정보] 악성 골종양, 팔·다리 등 긴 뼈에서 주로 발생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5753  
ID: 01100201.2016010720234575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골종양은 우리 몸의 뼈에 생기는 종양으로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양성 골종양은 뼈를 파괴할 수 있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반면 악성 골종양은 결합 조직, 연골, 뼈, 혈관과 림프관 등 근골격 조직에 발생한 암으로 이를 흔히 육종이라고 부르는데 주로 어린이들과 젊은 성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육종은 우리 몸 206개의 뼈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지만 주로 팔 다리의 긴 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 ◇악성 골종양, 팔·다리 등 주로 발생=악성 골종양은 발생하는 원발 부위에 따라 원발성과 전이성으로 구분하는데 근골격 조직에서 발생한 경우 원발성 골종양, 신체의 다른 부위에 생긴 종양이 근골격 조직으로 전이된 종양을 전이성 골종양이라고 한다. 근골격계 종양은 기본적으로 종양 세포가 어떤 세포에서 기원했는지에 따라 분류하는데 악성 골종양의 가장 흔한 종류로는 골육종이 있고, 그 외에 연골에서 발생하는 연골육종, 소아에게 흔한 유잉 육종 등이 있다. 흔히 발생하지 않는 악성 골종양으로는 섬유 육종, 악성 거대 세포종, 척색종 등이 있다.<br/><br/> 2014년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를 보면 201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2만4177건의 암 가운데 악성 골종양은 남녀를 합쳐 479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0.2%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자 253건, 여자 226건으로 남자가 더 많고, 연령별로는 10대 19.0%, 50대 15.2%, 40대 14.8% 순이었다. 골육종은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나친 뼈의 성장,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 암 유전자, 방사선 노출, 항암제, 골질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br/> ◇절단 없는 사지 구제술 보편화 추세=악성 골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이다. 야간 통증, 휴식 중의 간헐적인 통증, 운동 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통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의심할 수 있다. 진단은 원발성 골종양의 경우 원인을 모르는 뼈의 통증이 계속되고 종괴(腫塊)가 만져질 경우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핵의학검사(골 스캔),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진단하며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자칫 진단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방법의 조직검사로 인해 절단 수술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악성 골종양 환자는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br/><br/> 악성 골종양은 최근 방사선학적인 진단 방법과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의 발달에 따라 치료 결과가 크게 호전되고 있다. 악성 골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 크기, 위치, 암의 진행 정도, 환자의 나이, 전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 골연부종양 전문의,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항암제치료 전문의 등이 팀을 이뤄 수술, 방사선, 항암제 등을 조합해 치료한다. 수술 방법도 과거에는 절단술 내지는 관절 이단술(관절에서 절단 또는 분리하는 것) 등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시행되고, 대부분의 경우 사지의 기능을 보존하면서 종양을 적출하는 사지 구제술(보존술)의 비율이 80∼90% 이상을 차지하며 보편화되는 추세다.<br/><br/> 원발성 악성 골종양은 골조직에 림프계가 없어 혈액을 통해 전이가 이뤄지는데 주로 폐나 타 부위 뼈로 전이된다. 5년 생존율은 △골육종 70∼80%(전이 20∼30%) △연골육종 50∼90% △유잉 육종 50∼70%(전이 30% 이하) 등으로 알려져 있다. <br/><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1.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는 안전성이 관건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1100  
ID: 01100201.2016010720235110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환자에게 항암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암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환자 생명연장에 기여한다. 하지만 항암제에도 복제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br/><br/>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항암제 복제약을 먹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항체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효능을 갖는 복제약을 일컫는다. 보통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을 가진 약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제들보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해야 한다. 독성이 조금만 더 강하게 나타나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제와 비교 동등성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를 더욱 엄격히 심의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의 ‘허쥬마’의 경우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를 관찰하기 위해 3상 임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br/><br/> 암은 치료결과에 따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복제약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암환자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치료받지 않고 싶어하지 않는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약제와 동일한 조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참여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회사들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 개발에 뛰어든 회사 중 이미 중도에 개발을 포기한 곳도 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테바가 스위스제약사 론자와 함께 개발하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TL-011)는 성과가 없이 종료됐으며 삼성이 2012년 2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SAIT 101’과 ‘리툭산’의 글로벌 비교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나 1상 임상을 마치고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한화케미칼 역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했다. 세계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제네릭 사업부 산도스가 개발하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2011년 시작한 3상 임상을 아직도 끝맺지 못하고 있다.<br/><br/>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도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질환 영역보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일례로 항암제 허셉틴의 경우 발매 초기 7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가 때문에 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이 컸다. 영국에서는 2006년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도중 약 투여를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높은 약가 때문에 항체의약품 항암제의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가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다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영역의 약물이 오리지널 항암제보다 효능과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때 의사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한편, 화이자, 로슈 등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바이오시밀러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쓰일지도 눈여겨 볼 일이다. 장윤형 기자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2.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바이오시밀러’는 안전성이 관건  
날짜: 201508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9  
ID: 01100201.20150817100000049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환자에게 항암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암이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항암제를 투여하면 암세포를 사멸시키고 환자 생명연장에 기여한다. 하지만 항암제에도 복제약이 있다는 것을 아는 환자들은 많지 않다.<br/><br/>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은 “항암제 복제약을 먹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항체의약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효능을 갖는 복제약을 일컫는다. 보통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는 독성을 가진 약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제들보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면밀해야 한다. 독성이 조금만 더 강하게 나타나도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제와 비교 동등성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안전성 자료를 더욱 엄격히 심의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셀트리온의 ‘허쥬마’의 경우 충분한 안전성 데이터를 관찰하기 위해 3상 임상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서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br/><br/> 암은 치료결과에 따라 사람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복제약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암환자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치료제로 치료받지 않고 싶어하지 않는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약제와 동일한 조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참여 환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회사들이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 개발에 뛰어든 회사 중 이미 중도에 개발을 포기한 곳도 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테바가 스위스제약사 론자와 함께 개발하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TL-011)는 성과가 없이 종료됐으며 삼성이 2012년 2월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SAIT 101’과 ‘리툭산’의 글로벌 비교 임상시험에 착수했으나 1상 임상을 마치고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한화케미칼 역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했다. 세계적 제약사인 노바티스의 제네릭 사업부 산도스가 개발하는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2011년 시작한 3상 임상을 아직도 끝맺지 못하고 있다.<br/><br/>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서도 항암제 바이오시밀러는 다른 질환 영역보다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일례로 항암제 허셉틴의 경우 발매 초기 70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가 때문에 환자들에게 약값 부담이 컸다. 영국에서는 2006년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도중 약 투여를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높은 약가 때문에 항체의약품 항암제의 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바이오시밀러가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다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영역의 약물이 오리지널 항암제보다 효능과 안전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를 환자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때 의사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br/><br/> 한편, 화이자, 로슈 등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바이오시밀러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널리 쓰일지도 눈여겨 볼 일이다. 장윤형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3.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서울시동부병원 8월 20일 ‘유방암’ 강좌 外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3  
ID: 01100201.2015081710000004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시동부병원 20일 ‘유방암’ 강좌=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 여성들의 암 발병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동부병원 외과 전문의 조익행 과장이 강연을 펼치고 △유방암의 올바른 이해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검진을 통한 유방암의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문의: 02-920-9388)<br/><br/><br/><br/>◇암 수술 도중 방사선 치료 가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중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IORT 장비를 최근 직장암 환자에게 적용해 성공적으로 시술했다고 밝혔다. IORT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는 지난해 유방암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케이스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암센터 백승혁(대장항문외과, 대장암센터장)-이익재(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직장암을 앓고 있는 48세 여성환자의 재발 부위를 절제한 후, IORT용 인트라빔 장비를 이용해 약 26분 동안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를 했다.<br/><br/><br/><br/>◇여의도성모병원 최신 암 유전자 진단장비 도입=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첨단 분자병리 진단장비인 BioView DuetTM Workstation(이하 BioView) 분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10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번에 도입된 BioView는 폐암, 유방암, 악성림프종 등의 질환에서 표적항암 치료제사용에 필수적인 유전자 돌연변이(ALK, ROS1, RET, HER2, BCL2 등)를 확인한다.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을 포함한 국내 20여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연간 1000여건의 검사의뢰를 받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 13종의 돌연변이 검사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br/><br/><br/><br/>◇아바스틴, 1일부터 난소암 치료 급여 적용=한국로슈의 신생 혈관 생성 억제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이 8월 1일부터 백금계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아바스틴은 급여가 적용된 최초 난소암 표적치료제로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Platinum-resistance)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재발 시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과 병용 투여 시에 적용된다. 한편 아바스틴은 이번 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난소암뿐 아니라 자궁경부암 및 직결장암 치료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적용받게 됐으며, 자궁경부암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급여를 획득했다.<br/><br/><br/><br/>◇아스트라제네가-이노비오 항암제 개발 협력=아스트라제네카가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와 항암제 개발과 관련한 제휴를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이노비오의 'INO-3112'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R&D 계열사인 메드이뮨은 INO-3112를 다른 면역치료제와의 병용요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이노비오에 계약금 2750만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7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INO-3112는 킬러 T세포의 반응을 촉진해 자궁경부암의 원인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HPV16과 18에 의해 유발되는 암을 표적으로 하며 현재 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을 대상으로 1/2상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4.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서울시동부병원 8월 20일 ‘유방암’ 강좌 外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47527  
ID: 01100201.2016010720234752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울시동부병원 20일 ‘유방암’ 강좌=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20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지하 1층 강당에서 ‘유방암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시민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한국 여성들의 암 발병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동부병원 외과 전문의 조익행 과장이 강연을 펼치고 △유방암의 올바른 이해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검진을 통한 유방암의 예방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문의: 02-920-9388)<br/><br/><br/><br/>◇암 수술 도중 방사선 치료 가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중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IORT 장비를 최근 직장암 환자에게 적용해 성공적으로 시술했다고 밝혔다. IORT 이용한 수술 중 방사선 치료는 지난해 유방암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케이스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암센터 백승혁(대장항문외과, 대장암센터장)-이익재(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은 직장암을 앓고 있는 48세 여성환자의 재발 부위를 절제한 후, IORT용 인트라빔 장비를 이용해 약 26분 동안 수술 부위에 직접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를 했다.<br/><br/><br/><br/>◇여의도성모병원 최신 암 유전자 진단장비 도입=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첨단 분자병리 진단장비인 BioView DuetTM Workstation(이하 BioView) 분석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10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이번에 도입된 BioView는 폐암, 유방암, 악성림프종 등의 질환에서 표적항암 치료제사용에 필수적인 유전자 돌연변이(ALK, ROS1, RET, HER2, BCL2 등)를 확인한다.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병리과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병원을 포함한 국내 20여개 대학병원으로부터 연간 1000여건의 검사의뢰를 받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 13종의 돌연변이 검사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br/><br/><br/><br/>◇아바스틴, 1일부터 난소암 치료 급여 적용=한국로슈의 신생 혈관 생성 억제 표적치료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이 8월 1일부터 백금계 저항성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는다. 아바스틴은 급여가 적용된 최초 난소암 표적치료제로 백금계 약물에 저항성이 있는(Platinum-resistance)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재발 시 파클리탁셀, 토포테칸 또는 페길화 리포좀 독소루비신(pegylated liposomal doxorubicin)과 병용 투여 시에 적용된다. 한편 아바스틴은 이번 복지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난소암뿐 아니라 자궁경부암 및 직결장암 치료에서도 건강보험급여를 확대 적용받게 됐으며, 자궁경부암의 경우 아시아 최초로 급여를 획득했다.<br/><br/><br/><br/>◇아스트라제네가-이노비오 항암제 개발 협력=아스트라제네카가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와 항암제 개발과 관련한 제휴를 체결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이노비오의 'INO-3112'의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의 R&D 계열사인 메드이뮨은 INO-3112를 다른 면역치료제와의 병용요법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 대신 이노비오에 계약금 2750만달러를 지불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7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INO-3112는 킬러 T세포의 반응을 촉진해 자궁경부암의 원인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하는 HPV16과 18에 의해 유발되는 암을 표적으로 하며 현재 자궁경부암과 두경부암을 대상으로 1/2상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5.txt

제목: [암과의 동행] 3세대 치료제 면역항암제, 폐암 치료 가능성 높다  
날짜: 201508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202350493  
ID: 01100201.2016010720235049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중동 국적의 흑색종 환자(81)는 종양이 피부, 겨드랑이 림프구에 이어 뇌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암이 급속도로 전이된 후 환자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상태였다. 기존 항암제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기에 의사는 면역항암요법을 사용했다. 면역항암제 투여 3∼4주 만에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게 됐다. <br/><br/> 다니엘 찬 싱가포르 국립대 종양학과 박사는 ‘면역항암제 임상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 “<span class='quot0'>환자에게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지 3∼4주 만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제 투여 후 약간의 발진은 있었으나 구토도 없으며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었다</span>”며 면역항암요법의 획기적 효능에 대해 말했다. <br/><br/> 지난달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2015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베스트논문(Best of ASCO)으로 선정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순회학회가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는 아태지역 종양 전문의들이 모여 차세대 항암요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주요 임상결과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면역항암제가 흑색종에 이어 사망률이 높은 폐암의 치료 가능성까지 넓혔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br/><br/> ◇면역 항암제 기전 논의 활발=학회에서 의료진들은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를 넘어서는 차세대 항암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획기적인 치료제이지만, 내성 위험과 적용 가능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를 3세대 치료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체내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했다. <br/><br/> 그렇다면 면역항암제가 표적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마이클 보이어 호주 시드니대학교 의대 박사는 “아직까지는 면역항암제가 단독요법으로 표적항암제를 완전히 대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돌연변이된 특정유전자를 타킷으로 한 표적항암제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다만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임상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좋게 나오는 만큼 두 치료제를 병용하는 요법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면역항암제 치료효과가 높은 만큼 자가면역질환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보이어 박사는 “<span class='quot0'>면역 기전과 관련된 부작용은 면역항암제 사용에 있어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재 항 PD-1 면역항암제의 경우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부작용 위험을 낮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페암 치료 주목=현재까지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치료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폐암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해 활발한 임상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연구는 폐암치료에 관한 연구다. 그중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펨브롤리주맙을 이용한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비소세포폐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 임상연구에서는 전체 환자 중 59%가 종양 크기의 감소를 보여, 비소세포폐암에 있어서 펨브롤리주맙의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다.<br/><br/> 마이클 보이어 박사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PD-1 면역항암제의 임상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약제가 ‘마법(Magic)’과도 같다는 것이다. 경과가 좋은 환자들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 약물이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최적의 치료 결과를 보이는 환자군을 선별해 치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면역항암제인 펨브롤리주맙의 경우 임상을 통해 좋은 반응률과 지속성을 보여 암환자를 치료하는 패턴을 변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이미 흑색종뿐 아니라 폐암 등에서도 입증됐다. 미국에 이어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정부에서도 면역 항암제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장윤형 기자<br/><br/> vitamin@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6.txt

제목: [암과의 동행] 3세대 치료제 면역항암제, 폐암 치료 가능성 높다  
날짜: 20150817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17100000048  
ID: 01100201.2015081710000004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중동 국적의 흑색종 환자(81)는 종양이 피부, 겨드랑이 림프구에 이어 뇌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암이 급속도로 전이된 후 환자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만 있는 상태였다. 기존 항암제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기에 의사는 면역항암요법을 사용했다. 면역항암제 투여 3∼4주 만에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건강하게 밥을 먹고 움직일 수 있게 됐다. <br/><br/> 다니엘 찬 싱가포르 국립대 종양학과 박사는 ‘면역항암제 임상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 “<span class='quot0'>환자에게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지 3∼4주 만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span>”며 “<span class='quot0'>항암제 투여 후 약간의 발진은 있었으나 구토도 없으며 백혈구 수치도 정상이었다</span>”며 면역항암요법의 획기적 효능에 대해 말했다. <br/><br/> 지난달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는 2015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회의에서 베스트논문(Best of ASCO)으로 선정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순회학회가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는 아태지역 종양 전문의들이 모여 차세대 항암요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의 주요 임상결과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면역항암제가 흑색종에 이어 사망률이 높은 폐암의 치료 가능성까지 넓혔다는 임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다. <br/><br/> ◇면역 항암제 기전 논의 활발=학회에서 의료진들은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를 넘어서는 차세대 항암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1세대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부작용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며, 2세대 표적항암제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획기적인 치료제이지만, 내성 위험과 적용 가능 대상 환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를 3세대 치료제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체내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면역항암제를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했다. <br/><br/> 그렇다면 면역항암제가 표적항암제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마이클 보이어 호주 시드니대학교 의대 박사는 “아직까지는 면역항암제가 단독요법으로 표적항암제를 완전히 대체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현재까지 돌연변이된 특정유전자를 타킷으로 한 표적항암제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다만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를 함께 투여하는 임상이 진행 중이며, 결과가 좋게 나오는 만큼 두 치료제를 병용하는 요법을 우선적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면역항암제 치료효과가 높은 만큼 자가면역질환 등의 부작용 위험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보이어 박사는 “<span class='quot0'>면역 기전과 관련된 부작용은 면역항암제 사용에 있어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재 항 PD-1 면역항암제의 경우 용량을 조절함으로써 부작용 위험을 낮출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br/> ◇페암 치료 주목=현재까지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치료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폐암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해 활발한 임상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임상 연구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연구는 폐암치료에 관한 연구다. 그중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펨브롤리주맙을 이용한 임상결과가 발표됐다, 비소세포폐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 임상연구에서는 전체 환자 중 59%가 종양 크기의 감소를 보여, 비소세포폐암에 있어서 펨브롤리주맙의 가능성이 주목을 받았다.<br/><br/> 마이클 보이어 박사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PD-1 면역항암제의 임상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약제가 ‘마법(Magic)’과도 같다는 것이다. 경과가 좋은 환자들에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적 약물이다. 물론 결과가 좋지 않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최적의 치료 결과를 보이는 환자군을 선별해 치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면역항암제인 펨브롤리주맙의 경우 임상을 통해 좋은 반응률과 지속성을 보여 암환자를 치료하는 패턴을 변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혁신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이미 흑색종뿐 아니라 폐암 등에서도 입증됐다. 미국에 이어 호주 정부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 정부에서도 면역 항암제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장윤형 기자<br/><br/> vitamin@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7.txt

제목: 서양식 식습관이 부르는 대장암… 간으로 전이될 때 유전자 돌연변이 무려 4배 늘어나  
날짜: 2015080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60107194413001  
ID: 01100201.20160107194413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장암은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곡물 섭취보다 고기 섭취가 많은 서양식 식사를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높아져 갔다.<br/><br/> ◇대장암 위험요인=대장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는 50세 이상의 연령, 기름진 음식을 즐겨하는 식사,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등이 꼽히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는 50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나 형제 중 55세 이하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가 있다면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하다. 또한 선종성 용종이 발견된 경우 그 크기에 따라 절제하고 대장내시경 검진주기를 5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시켜 상태를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r/><br/>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발견된 대장 용종은 추후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인자로 꼽힌다. 따라서 대장용종이 발견돼 제거했다면 자신의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용종을 발생시킬 만한 행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에 따르면 대장용종은 흡연과 비만, 소염진통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 잦은 육류 섭취, 낮은 섬유질 섭취, 낮은 칼슘 섭취라는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생겨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용종을 줄여나가는 생활 및 식습관과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는 일이다.<br/><br/> ◇대장암 유전자 변이별 치료계획 달라져=대장암에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p53 유전자는 암억제유전자로 불린다. 많은 대장암 환자들에게서 암억제유전자 p53이 변이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정상적인 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킨다. 이 밖에도 종양에서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관찰된다. <br/><br/> 국내 연구진이 원발성 대장암과 간으로 전이를 일으킨 대장암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치료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내놓았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외과 이원석 교수는 정상적인 대장조직과 원발성 대장암, 간 전이 대장암 등 서로 다른 대장 상태를 가진 15명에 대해 돌연변이 수를 알아보는 전체 엑솜염기서열분석을 실시했다. <br/><br/> 그 결과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에서 가장 많은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원발성 대장암에서 1079건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으나 간 전이 대장암 조직에서는 이보다 4배 많은 4366건의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br/><br/> 암세포 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발성 대장암 조직에서는 47%에 그친 반면 간 전이 대장암에서는 67% 발견됐다.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혈관생성 유전자, KDR 단백질이 대장암 원발 부위 조직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전이 병변에서는 26.7% 발견됐다. 이는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환자에는 KDR 유전자를 타깃으로 한 표적항암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한 이원석 교수는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찾기 위해 원발 부위의 조직을 떼서 약물 반응성 검사를 해본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같은 대장암일지라도 원발 부위와 전이된 대장암 부위에서 다른 돌연변이 분포를 보이므로 대장암의 적정 치료를 위해서 원발 부위 데이터로 치료계획을 세우기보다 전이성 대장암 병변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8.txt

제목: 서양식 식습관이 부르는 대장암… 간으로 전이될 때 유전자 돌연변이 무려 4배 늘어나  
날짜: 20150803  
기자: 김단비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803100000027  
ID: 01100201.2015080310000002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대장암은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을 위협하는 암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곡물 섭취보다 고기 섭취가 많은 서양식 식사를 선호하게 되면서 국내 대장암 발병률은 해마다 높아져 갔다.<br/> ◇대장암 위험요인=대장암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는 50세 이상의 연령, 기름진 음식을 즐겨하는 식사, 비만, 유전적 요인, 선종성 용종 등이 꼽히고 있다.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는 50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5년에 한 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나 형제 중 55세 이하에 암을 진단받은 경우가 있다면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라고 조언하다. 또한 선종성 용종이 발견된 경우 그 크기에 따라 절제하고 대장내시경 검진주기를 5년에서 3년 이하로 단축시켜 상태를 관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br/>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발견된 대장 용종은 추후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인자로 꼽힌다. 따라서 대장용종이 발견돼 제거했다면 자신의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용종을 발생시킬 만한 행동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에 따르면 대장용종은 흡연과 비만, 소염진통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 잦은 육류 섭취, 낮은 섬유질 섭취, 낮은 칼슘 섭취라는 생활습관을 가졌을 때 생겨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용종을 줄여나가는 생활 및 식습관과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켜내는 일이다.<br/> ◇대장암 유전자 변이별 치료계획 달라져=대장암에서 다양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p53 유전자는 암억제유전자로 불린다. 많은 대장암 환자들에게서 암억제유전자 p53이 변이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돌연변이 유전자는 정상적인 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킨다. 이 밖에도 종양에서 여러 종류의 돌연변이가 관찰된다. <br/> 국내 연구진이 원발성 대장암과 간으로 전이를 일으킨 대장암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치료계획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내놓았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외과 이원석 교수는 정상적인 대장조직과 원발성 대장암, 간 전이 대장암 등 서로 다른 대장 상태를 가진 15명에 대해 돌연변이 수를 알아보는 전체 엑솜염기서열분석을 실시했다. <br/> 그 결과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에서 가장 많은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원발성 대장암에서 1079건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됐으나 간 전이 대장암 조직에서는 이보다 4배 많은 4366건의 돌연변이가 발견됐다. <br/> 암세포 사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원발성 대장암 조직에서는 47%에 그친 반면 간 전이 대장암에서는 67% 발견됐다.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돕는 혈관생성 유전자, KDR 단백질이 대장암 원발 부위 조직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전이 병변에서는 26.7% 발견됐다. 이는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환자에는 KDR 유전자를 타깃으로 한 표적항암제가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한 이원석 교수는 “대장암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찾기 위해 원발 부위의 조직을 떼서 약물 반응성 검사를 해본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같은 대장암일지라도 원발 부위와 전이된 대장암 부위에서 다른 돌연변이 분포를 보이므로 대장암의 적정 치료를 위해서 원발 부위 데이터로 치료계획을 세우기보다 전이성 대장암 병변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r/>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69.txt

제목: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美서 연구용 원자로 도입 50년 만에 原電 수출국 대열  
날짜: 20150727  
기자: 김유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7100000029  
ID: 01100201.2015072710000002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전을 짓게 되면서 ‘원전 수출 국가’가 됐다. 1959년 미국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지 50년 만이자, 1978년 미국 기술로 지어진 첫 원전 고리1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0여년 만의 일이다. 과거 해외 원전 기술에 의존했던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수준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원전 수출 분야가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br/> ◇중동에 짓는 ‘사막의 기적’…UAE 첫 원전 수출=2009년 12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UAE 원자력공사로부터 UAE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약 270㎞ 떨어진 바라카 지역에 총 4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한전은 프랑스 아레바, 미국 GE-일본 히타치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UAE 원전사업은 순수 토종 한국형 원전(APR1400)을 처음으로 수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APR1400은 1400㎿급 가압형경수로로 2002년 개발됐다. 원전을 수출하는 ‘원자력 선진국’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캐나다에 이어 한국이 6번째로 이름을 올렸다.<br/> 1호기는 201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7월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주요 기기가 설치됐다. 올해는 원자로 등 핵심기기가 설치된다. 지난달에는 2호기에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설치됐다. 지난 5월 기준 UAE 원전 1·2호기 종합 공정률은 66%에 달한다.<br/> UAE 원전 수출의 경제적 효과는 200억 달러(약 23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형 승용차 100만대,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을 수출하는 효과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40여개 시공 하도급사들과 80여개 기기 제조사, 원자력 연관 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원전 수출로 인한 경제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br/> ◇순수 국내 기술 ‘스마트 원자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우리나라는 지난 3월 2조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SMART) 원자로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한다는 내용의 ‘스마트 공동파트너십 및 인력양성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스마트 원자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다. 모든 기술과 설계를 우리나라가 개발한 100% 국산 원자로다.<br/> 중소형 원자로 시장은 대형 상용 원전을 건설하기 힘든 소규모 전력망 국가를 대상으로 전망이 밝다. 스마트 원자로 1기 건설비용은 1조원 내외인 데다 건설 기간도 3년 정도로 짧다. 또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어 대형 원전을 건설할 경우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국가에도 유용하다. 담수 시설을 많이 가동해야 하는 물 부족 국가 역시 스마트 원자로가 파고들 수 있는 틈새시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 사우디는 2040년까지 전력의 15∼20%를 소형 원전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13년 미국 네비간트 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시장 수요는 18.2GWe(기가와트일렉트릭)로 100MWe 규모인 중소형 원자로 182기에 달한다. 또 205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세계 시장 규모가 약 3500억 달러(약 40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br/> ◇요르단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도 국내 기술로=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2010년 1월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사업을 따냈다. 요르단이 원자력발전 도입을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연구·교육용 원자로 건설 프로젝트였다. 우리나라는 연구로 건설 경험이 적고, 해외 수출 경험도 전무했기 때문에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를 우리 기술로 설계·건설·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나로는 지금까지도 국내 갑상샘암 치료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구로다.<br/>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은 열출력 5㎿의 연구용 원자로와 원자로 건물,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 행정동 건물 등을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북쪽으로 70㎞ 떨어진 이르비드의 요르단과학기술대학교(JUST) 캠퍼스 내 부지에 건설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에는 최초 전원가압 공정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초 전원가압은 원자로에 전원을 넣는 공정으로 본격적인 시운전 착수를 의미한다.<br/> 연구용 원자로 역시 우리나라가 공략할 수 있는 원전 수출 시장이다. 연구용 원자로는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용 원자로(원전)와 달리, 핵분열 시 생성되는 중성자를 활용해 여러 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원자로를 말한다. 암 진단 및 치료 등에 쓰이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식품 멸균 등에 쓰이는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br/>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br/> ▶ 原電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사 모두보기]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0.txt

제목: 국제 해양탐사 참여 박영수 박사, 암 사망 1년 만에 사이언스 등재  
날짜: 20150724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4100000115  
ID: 01100201.2015072410000011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제해양탐사프로젝트에 참여해온 해양 과학자의 수년에 걸친 연구 성과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에 세계적 학술지에 실려 빛을 보게 됐다.<br/>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석유자원연구실 고(故) 박영수 박사가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 결과가 24일자 사이언스에 실린다고 23일 밝혔다. 고인은 2013년 7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해 8월 62세로 유명을 달리했다.<br/> 박 박사는 2004년부터 26개국 연구자들이 함께 추진해온 국제해양탐사프로그램(IODP)에 2011년부터 참여했다. IODP는 해양 과학 시추를 통해 지구과학의 미해결 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다.<br/> 박 박사는 특히 2012년 ‘IODP 탐사사업 337’의 일환으로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본의 시추선 ‘지구호’에 승선해 일본 시모키타 바깥바다 탐사에 나섰다. 바닷속 2.5㎞ 깊이의 갈탄층(석탄층의 일종)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시추 탐사를 통해 얻은 시료 분석 결과가 이번 논문에 실렸다. 박 박사는 모두 46명의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br/> 박 박사는 젊은 연구자도 꺼리는 시추 탐사를 자원했다. 암 판정 전 몸에 이상을 느끼면서도 장기간의 승선생활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암 투병 중에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동 연구진에 분석 자료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열정을 보였다. <br/>민태원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1.txt

제목: 3D 프린팅의 기적… 뼈암 10대 여학생 일어났다  
날짜: 20150724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4100000100  
ID: 01100201.20150724100000100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골반뼈에 암이 생겨 장애를 겪던 10대 여학생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만든 맞춤형 골반뼈를 이식받고 1주일 만에 걸을 수 있게 됐다. 이 학생은 기존 방법으로 치료할 경우 하반신 마비 위험이 있었지만 최신 의료기술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br/>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골반뼈에 악성 종양이 생겨 골육종을 앓던 강모(16)양이 지난 3월 중순 3D 프린팅을 이용해 만든 ‘인공뼈’(티타늄 소재)로 왼쪽 골반뼈 교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강양은 수술 1주일 뒤부터 걷기 시작했다. 3D 프린팅은 최근 의료계 전반에 활용되고 있지만 이 기술을 이용해 골반뼈 교체 수술에 성공한 것은 국내 처음이다.<br/> 강양은 지난해 7월부터 심한 허리 통증을 느껴 학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오다 4개월 뒤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br/>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신동아 교수팀은 강양의 수술 후 삶의 질을 고려해 골반뼈 왼쪽 절반만 제거하고 최대한 신경을 살리기로 했다. 골반뼈 신경을 다 자를 경우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로 대소변 가리는 걸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br/> 신 교수팀은 강양에게 이식되는 맞춤형 골반뼈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확도 높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신 교수는 “<span class='quot0'>앉았을 때 척추가 상체 무게(30∼40㎏)를 충분히 지탱하고 수술하지 않는 오른쪽 골반뼈와 무게가 거의 비슷하도록 좌우균형이 맞아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3D 프린팅은 컴퓨터로 환자의 뼈 모양에 맞게 정확한 디자인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맞춤형 정장과 같다</span>”고 설명했다.<br/> 수술 시간은 짧아졌고, 회복 속도는 빨랐다. 기존 골반뼈 절제술은 8∼9시간 걸렸지만 3D 프린팅 수술은 2시간 이상 단축됐다. 기존 수술법은 골반뼈 대체물이 환자에게 정확히 맞지 않을 경우 수술 도중 다시 재단해 맞춰야 해서 수술시간이 더 소요됐다. 하지만 3D 프린팅 수술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2.txt

제목: [암과의 동행] 40조원 시장 겨냥 면역항암제 개발 힘쓰지만… 낮은 반응·부작용·비싼 값 ‘3중고’  
날짜: 20150720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1  
ID: 01100201.2015072010000004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면역항암제가 암(癌)치료의 신대륙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약 분야 시장조사기관인 이벨류에이트파마는 2020년 세계 면역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350억 달러(약 39조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br/><br/> ◇암치료의 신대륙 기대감…2020년 40조 시장 성장=면역항암제가 특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기존 항암제와 암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 부작용이 적고 기존 항암제 대비 개선된 치료 효과까지 기대되기 때문. 또 이론적으로는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역항암제는 이름 그대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강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세포와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항암제다.<br/> 반면 기존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에 비해 증식 속도가 빠른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증식 속도가 활발한 모낭세포와 혈액세포 등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환자들의 머리가 빠지거나 백혈구가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심했다. 이어 선보인 표적항암제는 이러한 화학항암제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암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만을 골라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다. 출시 당시 ‘꿈의 암 치료제’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내성 문제와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을 때만 효과를 나타내는 등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br/> ◇국내 리아백스 등 4종 허가…임상연구 활발=현재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치료제 ‘키트루다’(MSD)와 ‘옵디보’(BMS), ‘여보이’(BMS)를 비롯해 이달 판매를 시작하는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삼성제약) 등 4가지다. <br/> 여기에 항암면역세포치료제로 간암 치료에 쓰이는 녹십자셀의 ‘이뮨셀-LC’도 광의적 개념에서 면역항암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뮨셀-LC는 간암에 이어 뇌종양 및 췌장암으로의 적응증 확대까지 기대되고 있다. <br/>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면역항암제는 작용기전에 의해 부르는 이름일 뿐 통상적으로 항암제는 화학과 바이오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최근 면역항암제와 세포치료제 등의 임상관련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span>”라고 전했다.<br/> ◇“연간 약값이 1억4000만원”…‘그림의 떡’ 우려=그러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환자 반응률이 아직 15% 안팎에 불과하고, 면역 강화라는 기전에 따른 부작용 발현율 또한 적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너무 ‘고가’라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br/> 이 가운데 환자 반응률이나 부작용 문제는 앞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지만, 고가 우려는 당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업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되면 한 번에 1000만원이 넘는 비싼 약값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지난해 9월 옵디보가 출시됐을 당시 연간 약 1500만엔(약 1억3877만원, 체중 60kg 기준)의 높은 약값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부에서 현실적으로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또 다른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3.txt

제목: [암과의 동행-암 극복위해 뛰는 사람들] 이진우 녹십자엠에스 연구소장  
날짜: 20150720  
기자: 박주호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51  
ID: 01100201.201507201000000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녹십자의 자회사이자 진단시약 및 기기 전문업체 녹십자엠에스는 최근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제품인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br/> 이 제품은 갑상선암에서 주로 발견되는 BRAF 돌연변이 유전자만을 증폭시켜 종양조직 내 유전자의 돌연변이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검사법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이 적용돼 맞춤형 암 치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진우 녹십자엠에스 연구소장(사진)을 만났다.<br/> -‘제네디아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키트’의 장점은.<br/> 기존 염기서열분석법의 경우 검사결과 확인까지 약 이틀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 제품은 2시간 정도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돌연변이가 주로 발생하는 부위만 특이적으로 증폭시키는 녹십자엠에스만의 ‘MEMO-PCR’이라는 기술 때문이다. 이 기술은 정상 유전자의 증폭은 억제하고 돌연변이 유전자의 증폭만 수행하도록 설계돼 발견이 어려운 갑상선암 발생 초기에도 조기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있다. 갑상선 유두암의 약 90%는 BRAF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br/> -‘MEMO-PCR’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br/> MEMO-PCR 기술은 지난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다. 흔히 PCR이라고 불리는 핵산증폭기술은 최근 유행한 메르스 확진 검사 등 다양한 검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전체 유전자 중 1∼2개 차이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PCR 검사로는 그 구분이 어렵다. 즉 갑상선 초기일 경우 일반적인 핵산 증폭을 수행하게 되면 정상 유전자와 돌연변이 유전자가 함께 증폭돼 돌연변이 여부를 가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기술은 핵산 증폭과정에서 돌연변이 유전자만 증폭시켜 이를 통해 검체에 포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결국 극소량의 돌연변이 유전자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돌연변이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게 돼 조기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br/> -MEMO-PCR 기술 외에 현재 중점을 두고 개발 중인 기술이 있다면.<br/> 최근 진단사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야가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다. 2003년 인간유전자지도가 휴먼게놈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이후 맞춤형 의약, 생명연장, 암 정복 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최근 발달된 유전자분석기술은 100만∼200만원만 지불하면 단 하루 만에 한 사람의 전체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개인별 유전자분석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개인별로 성인병을 앓게 될 가능성, 암이 걸릴 가능성, 선천성 유전자 변이 유무 등을 상세히 알 수 있게 돼 예방과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br/> -앞으로의 계획은.<br/> 현재 대장암과 비소세포성폐암과 관련된 ‘KRAS’,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 키트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KRAS는 9∼10월 중, EGFR은 내년 중 선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뇌종양과 혈액암 관련 유전자 돌연변이 검출 키트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br/>박주호 기자 epi0212@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4.txt

제목: [암과의 동행] 방사선 치료기 국산화 앞당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6MeV급 고출력 방사선 발생 성공  
날짜: 201507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4  
ID: 01100201.2015072010000003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기존 장비보다 성능이 우수한 방사선 치료기기 국산화를 앞당기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은 최근 방사선 치료기의 국산화에 있어 핵심 기술인 6MeV(메가일렉트론볼트, 100만 전자볼트)급 고출력 방사선 발생(암치료용 컴팩트형 방사선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br/> 이번 성과는 국내 최초로 C-밴드형 가속관 기술이 적용됐다. 이는 지난해 1차 개발한 방사선원보다 월등히 향상된 성능을 보임으로써 방사선 치료기 국산화를 앞당길 전망이다. 의학원은 ‘동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포항가속기연구소, ㈜태성정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의학원 측은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입 방사선 치료기와 동등한 성능을 목표로, 3년의 연구기간 동안 설계·제작·성능시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2년차인 지난해 4월에 4MeV급 방사선원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10개월 동안 고주파 출력과 빔의 집속력을 높여 올해 초 6 MeV급 전자선과 엑스선의 발생 실험에 성공해 3년차 연구를 마쳤다. 6MeV 에너지는 1.5V(볼트) 건전지 40만개로 낼 수 있는 에너지로, 치료용 가속기의 성능 범위에 해당한다.<br/> 이번 연구에 사용된 C-밴드형 가속관은 기존 방사선치료기에 사용되는 S-밴드형보다 길이가 짧고, 방사선 발생에 필요한 전자 가속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어 컴팩트형 가속관으로 불린다.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로 방사선 치료기로 개발하면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br/> 양광모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span class='quot0'>앞으로 가속관 등 핵심부품들의 제작 기술을 실용화하고, 국내의 강점인 기계와 전자 제어기술 그리고 의료용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방사선 치료기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br/>송병기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5.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은 치료효과 극대화 시켜  
날짜: 201507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47  
ID: 01100201.20150720100000047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암 치료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암환자가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조언한다. 치료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 치료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조금씩 건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br/> 또한 암치료 과정에서 암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항암제는 암세포의 특징인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공격한다. 따라서 암세포 이외에 빨리 자라는 세포인 머리카락 세포, 구강이나 식도, 장 점막의 세포, 골수의 조혈모세포 등이 항암제의 공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탈모, 점막염, 설사, 골수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부작용은 암환자의 몸이 암과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작용으로 인해 너무 힘들 때는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br/> 치료 중에는 ‘열심히’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체중이 감소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항암치료는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기도 하는데, 손상된 세포들이 스스로를 복구하려면 아낌없는 영양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항암치료가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많이 먹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체중을 유지하고, 충분한 칼로리가 포함된 식사를 하도록 권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를 2∼4kg 정도 늘리고,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나 생선, 두부, 달걀, 콩류 등이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 있으므로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매 끼니마다 먹는 것이 좋다.<br/>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을 되찾는 것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회복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우선 병을 부른 나쁜 습관을 버리고,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등 좋은 습관으로 바꾼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은 최대한 줄이고, 흡연을 한다면 지금 당장 금연해야 한다.<br/> 의료진을 만날 때는 항상 질문할 목록을 준비한다. 환자는 병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아야 한다. 평소 환자에게 계속되는 증상과 새롭게 나타난 증상, 책을 통해 얻은 정보나 다른 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한다. 경험자의 체험담을 귀담아 듣는 것도 암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이다. 암을 치료중인 사람이나, 치료를 도와주는 환자 가족들의 체험담을 많이 듣게 되면 투병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나는 암환자이지만, 바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순간의 삶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br/>송병기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6.txt

제목: [암과의 동행]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 후 장기 생존율, 수술환자와 큰 차이 없어  
날짜: 20150720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20100000033  
ID: 01100201.20150720100000033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치료 후 장기 생존율이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위암센터 최일주 박사(사진) 연구팀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립암센터에서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 적응증으로 내시경점막하절제술을 받은 261명과 수술을 받은 114명의 장기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비교 결과 내시경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95.7%로 수술 치료 후 93.6%와 비교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팀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확대 적용한 경우에도 내시경 치료를 받은 165명(5년 생존율 97.5%)과 수술 치료를 받은 292명(5년 생존율 97.0%) 사이에 장기 생존율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br/>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위 전체가 보존돼 치료 후에도 삶의 질이 수술 전과 동일하다. 또 수술 이후 일부에서 발생하는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내시경 치료 후에 ‘처음 치료한 위암이 완치된 후에 위의 다른 부위에 새로 생기는 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부 환자에서 있었지만, 추가 내시경 치료로 대부분 완치됐으며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br/> 조기 위암의 내시경 치료 적응증은 위 주변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확인된 위 점막층에 국한되고, 크기 2㎝ 이하의 분화도가 좋은 조기 위암으로 내시경 치료가 1차 치료로 추천된다. 또한 내시경 치료 확대 적응증은 절대 적응증의 조건을 조금 벗어나지만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기 위암이며, 내시경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 내시경 치료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br/> 연구의 책임저자인 최일주 박사는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이 되는 조기위암에 대해서는 내시경 치료 후 장기 추적 결과가 수술과 비교해 손색이 없어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처음 치료한 위암이 완치된 후에 위의 다른 부위에 새로 생기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시경 치료 후에 주의 깊은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 한편, 이번 연구 결과들은 소화기내시경 분야 권위의 국제학술지 소화기내시경(Gastrointestinal Endoscopy)과 내시경학(Endoscopy) 최근호에 연이어 게재됐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7.txt

제목: [오늘의 설교] 일과 쉼  
날짜: 20150717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7100000011  
ID: 01100201.2015071710000001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국의 과학 잡지 사이언스는 1993년 유전자 ‘p53’을 ‘올해의 물질’로 선정했습니다. 79년에 처음 발견된 이 유전자는 발암 유전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보겔스타인 박사와 화이트 박사에 의해 항암 유전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p53이 건강할 때는 손상된 다른 세포들을 통제해 변형된 세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는 암이나 이상한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p53이 손상돼 다른 세포들의 변이나 나쁜 세포를 생성시키는 것을 못 막으면 우리 몸은 병에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p53을 세포를 쉬게 해주는 휴식 유전자라고도 부릅니다. 건강한 세포는 세포를 쉬게 해주는 p53을 생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세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br/>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손상을 받아 ‘쉼의 유전자’인 p53이 생산되지 않아 쉴 수 없게 된 세포입니다. p53이 변이되거나 없어져 ‘쉼의 물질’이 생산되지 않는 것이지요. 과학자들은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같은 시험관에 넣고 암세포가 얼마나 빨리 정상세포를 정복하는지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p53을 통해 정상세포로 회복된 겁니다. p53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br/> 본문에서 제자들은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들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십니다. “<span class='quot0'>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span>”고 말씀하십니다.<br/> 사람은 육체·정신적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휴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배를 타고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리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쉬고자 했던 예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깐 쉬라고 하셨는데 그 잠깐의 쉼은 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span class='quot0'>이때 예수님께서 가졌던 유일한 쉼은 배 타고 가시면서 취했던 선상의 쉼이었을 것이다.</span>” 누가복음 9장 10절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 잠깐의 휴식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겐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잠깐의 쉼을 통해서 얻은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산적한 문제 앞에서 복음을 외치고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br/>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쉼은 반성 묵상 대화 독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시간을 내서 묵상에 잠겨 보십시오. 숲 속을 걸어 보십시오. 별들을 응시해 보십시오. 당신이 받은 복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찬양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하루 주님과 소통하며 쉼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br/>이재훈 목사(파주루터교회)<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8.txt

제목: 연세대 윤호근·울산대 최경철 교수팀, 암 세포 스스로 죽게 만드는 단백질 발견  
날짜: 20150714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14100000051  
ID: 01100201.2015071410000005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 세포가 스스로 죽게 만드는 단백질을 새로 발견됐다. 새로운 ‘타깃(표적) 항암제’ 개발이 기대된다.<br/> 연세대 의대 윤호근(사진) 교수와 울산대 의대 최경철 교수팀은 위암 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세포사멸유도단백질(PDCD5)의 기능과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온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br/> 항암 치료는 보통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방법을 쓴다. 세포 사멸은 비정상적이거나 손상된 세포, 노화된 세포가 스스로 죽어 없어지도록 몸속에 입력돼 있는 프로그램이다. ‘p53’이 세포 사멸을 유도해 암을 없애는 대표적 단백질이다. 반면 ‘HDAC3’은 p53의 활성을 방해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왔다.<br/> 연구진은 7년간 암세포 사멸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유전자 변화를 분석한 결과 ‘PDCD5’ 단백질이 ‘p53’을 활성화시키고 ‘HDAC3’의 기능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찾아냈다.<br/> 윤 교수는 “<span class='quot0'>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PDCD5가 적게 나타날 경우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고, PDCD5를 통해 p53을 활성화하면 암세포에서 종양이 자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span>”고 설명했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79.txt

제목: 알코올 중독 치료제, 악성 소아 뇌종양 제거 효과  
날짜: 20150707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7100000008  
ID: 01100201.2015070710000000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알코올의존증(중독증) 치료제 다이설피람(disulfiram)이 소아 뇌종양 중 악성도가 가장 높은 ‘비정형 유기형·간상 종양’(ATRT)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은 소아신경외과 김승기·최승아 교수팀이 쥐 실험을 통해 다이설피람이 ATRT 치료제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교수팀은 알데히드탈수소효소(ALDH)를 차단하면 뇌종양줄기세포의 활동과 대사가 억제돼 항암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br/> 다이설피람은 ALDH 발현을 억제한다. 알코올의존증 치료제 다이설피람이 뇌종양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뇌종양줄기세포는 뇌종양 안에 조금 존재하는 미분화 세포로 종양의 발생, 재발, 전이에 관여한다.<br/> ATRT는 소아 뇌종양 중 예후가 가장 나쁜 암이다. 수술 후 항암·방사선 치료에도 평균 생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보통 3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다. 고용량 항암치료에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애를 태우기 일쑤다.<br/> 김 교수팀은 생쥐 실험군에 다이설피람을, 대조군에 위약을 투약했다. 그 결과 다이설피람을 투여한 실험군의 종양은 대조군의 것보다 4분의 1 크기로 줄었다. 평균 생존기간도 실험군(105일)이 대조군(91일)보다 길었다. 다이설피람이 ATRT 환자의 생존율 향상뿐 아니라 항암·방사선 치료의 강도와 기간을 조절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뜻이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미국식품의약국(FDA)도 시판을 승인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상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신경종양학 분야 국제학술지 ‘뉴로 온콜로지’ 6월호에 게재됐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0.txt

제목: 큰 업적 남기고 떠난 도윤경 UNIST 교수 “에이즈 등 난치병 예방백신 개발 가능성 제시”  
날짜: 20150707  
기자: 민태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707100000089  
ID: 01100201.20150707100000089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5년 넘게 난소암으로 투병하다 요절한 젊은 여성 과학자의 논문이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다. 이 과학자는 논문 게재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눈을 감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br/> 울산과학기술대(UNIST)는 고(故) 도윤경(43) 교수가 몸속 면역 반응에 중요한 ‘수지상세포’ 중 하나인 ‘폴리큘러 헬퍼 T세포’의 분화 과정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관련 논문은 세계적 학술지 셀의 자매지 ‘셀 리포츠’ 최신호(6월 30일자)에 실렸다.<br/> 혈액 등에 존재하는 수지상세포는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이 체내에 침입할 경우 면역계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등 전반적인 방어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한다. 이번 논문은 체내 면역 반응의 비밀을 밝혀 흑사병, 에이즈, B형 간염 등 난치성 질병의 예방백신 개발에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br/> 하지만 도 교수는 지난 3월 말 암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어렵사리 이룬 연구의 결실을 끝내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도 교수는 면역학 분야에서 촉망받는 생명과학자였다. 세계 최초로 ‘수지상세포’를 발견해 201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고 랄프 슈타인만 미국 록펠러대 교수의 제자다. 포스텍 생명과학부와 서울대 분자생물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버지니아의대에서 면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록펠러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9년 개교한 UNIST 교수로 부임했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중 2010년 2월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br/> 도 교수는 암 투병 중에도 “사람들이 산속에서 쉬라고 하지만 저는 학교 제 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 좋다.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점심 먹고, 커피 내기하는 소소한 일상이 좋다”며 연구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고 한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일째인 지난 5일 학교 홈페이지에는 추모 글이 많이 올라왔다. 가족과 동료들은 투병 중에도 연구를 쉬지 않던 그를 그리워했다.<br/> 도 교수의 남편인 순천향대 의생명연구원 류성호(47) 교수는 “<span class='quot0'>아내가 고통을 참으며 후학들에게 가르치려 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진통제를 맞고 학교로 향하던 모습이 선하다</span>”고 말했다.<br/> 20여년 과학자의 길을 함께 걸어온 류 교수는 도 교수와 이번 논문을 함께 이끈 공동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려 아내의 마지막 연구를 지원했다.<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1.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9)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암클리닉 이동기 교수팀] 췌장·담도 지킴이  
날짜: 20150630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30100000034  
ID: 01100201.20150630100000034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췌장과 담도에 생기는 질환은 암이건 염증이건 모두 생명을 위협해 속칭 ‘골치 아픈 질환’으로 꼽힌다. 특히 췌장암은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간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5% 내외에서 꼼짝도 않고 있는 중대 상병으로 분류된다. 담도암의 5년 생존율도 약 25%에 그친다. 췌담도에 병이 생겼다고 하면 간 질환, 위장병 등 다른 소화기병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공포감을 갖게 되는 이유다.<br/> 그렇다고 대처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췌담도 질환 전문가들은 아무리 막강한 적군(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 치료하면 섬멸하지 못할 병은 없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췌담도 암이 그렇다. 조기 발견은 암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는 수술로 곧장 연결돼 건강을 회복하는데 튼튼한 디딤돌이 된다.<br/> 물론 췌담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선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 먼저 췌장암은 당뇨와 관련이 많다. 오랜 기간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췌장암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잘 조절되던 혈당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조절되지 않을 때는 한 번쯤 췌장암 검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평생 당뇨라곤 모르고 지냈는데, 60대 이후 당뇨가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br/> 췌장암은 어느 암보다도 체중 감소가 심하다. 이유 없이 갑자기 자기 체중의 5∼10% 정도가 줄었다면 췌장암 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체중 감소 증상을 동반하기 쉬운 당뇨나 만성 췌장염 환자는 항시 췌장암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br/> 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암클리닉이다. 암병원장까지 역임하고 팀장 역할을 하는 소화기내과 이동기(57)·이세준(53) 교수팀이 간담췌외과 윤동섭(55)·박준성(46)·김재근(41) 교수팀, 영상의학과 이광훈(47)·주승운(37) 교수팀과 함께 각종 췌담도 질환 방어진지를 탄탄하게 구축해놓고 있어서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암클리닉에는 암 환자뿐만 아니라 췌담도질환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다.<br/>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많이 시술하는 생체부분간이식 수술 후 합병증이다. 생체부분간이식 수술 환자 3명 중 1명꼴로 경험하는 것이므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는 발생률이다. 대개 공여 받은 간의 담관과 췌담도 암 환자의 담관을 연결해준 부위가 협착증으로 좁아지는 경우가 많다.<br/> 이동기 교수팀은 생체간부분이식 수술 후 이 같은 담관 합병증 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이 교수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찾아올 정도다.<br/> 이 중 가장 인기를 끄는 시술이 공여자와 수혜자의 간을 연결하는 담관 부위가 완전히 막혔을 때 자석을 이용해 뚫어주는 ‘자석문합술’이다. 다른 병원에서는 재수술을 받거나 평생 동안 담즙을 받아내는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하는 것을 내시경 시술로 간단히 고치니 그렇게 간편할 수가 없다.<br/> 이 시술은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한다. 일본내시경학회는 올해 초 학회지에 ‘새로운 시도’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담즙을 받아내는 주머니를 수년간 갖고 다녔다는 한 환자가 이 시술 후 비로소 대중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자 눈물이 나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할 수 없는 보람을 느꼈다</span>”고 말했다.<br/>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클리닉은 담석증 치료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담도에 생긴 담관결석은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제거해준다. 성공률은 95% 이상이다. 거대 담관결석의 경우엔 풍선확장술로 담관을 부풀린 다음 결석을 빼낸다.<br/> 이 교수팀은 최근 등 푸른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성분을 경구용 담석 용해제로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 기왕에 간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는 ‘우루소데속시콜린산’ 성분과 합방하면 먹는 약 또는 건강식품으로도 담석을 녹여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교수는 기대하고 있다. 이 교수팀은 또한 췌장암의 진단 마커 및 치료 타깃을 찾기 위해 서울대학교 바이오 컨버젼스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항암제 약물 방출 담도배액관 스텐트’ 산업화를 위한 임상시험연구도 새로 시작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br/> ▶ 명의&인의를 찾아서 [기사 모두보기]<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2.txt

제목: “호흡기 면역력에 도움”… 활성산소 재발견  
날짜: 20150630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30100000035  
ID: 01100201.2015063010000003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산소 쓰레기 정도로 알려진 활성산소가 경우에 따라선 인터페론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는 뜻밖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br/> 서울대학교병원은 이비인후과 김현직(사진) 교수팀이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호흡기 점막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면역계의 핵심물질인 인터페론 분비가 촉진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29일 밝혔다.<br/> 김 교수팀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채취한 호흡기 점막 세포를 시험관 안에서 배양한 후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뒤 항산화제로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한 실험군과 아무 것도 주지 않고 그대로 둔 대조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각각 관찰했다.<br/> 그 결과 실험군에서 호흡기 점막 인터페론의 일종인 ‘인터페론 람다’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바이러스 사멸에 관여하는 인터페론 유도성 유전자의 발현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인플루엔자A 바이러스 감염 정도가 대조군보다 더 심해졌다. 호흡기 점막 세포에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도록 막았더니, 뜻밖에도 면역체계의 핵심물질인 인터페론의 분비가 줄어들고 이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된 것이다.<br/>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뉜다. 선천성 면역체계는 바이러스를 포함한 외부 병원균들과 직접 접촉하는 비강을 포함해 호흡기, 소화기, 생식기 등의 점막에서 작동한다. 이 중 호흡기 점막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그것을 인식하고 저항하기 위한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데, 점막의 선천성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핵심물질이 인터페론이다.<br/>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바이러스 감염 시 호흡기 점막 내 활성산소 생성과 인터페론 람다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주면 호흡기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br/> 연구결과는 미국호흡기학회지(AJRCMB) 5월호 인터넷 판에 실린데 이어 바이러스 분야 국제 학술지 ‘안티바이럴 리서치’ 7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3.txt

제목: 노박의원 암치료법은… 부작용 억제·면역력 증강 초점 ‘따뜻한 암치료’  
날짜: 20150624  
기자: 김무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24100000014  
ID: 01100201.20150624100000014  
카테고리: 사회  
본문: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은 암환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가능한 한 줄이고,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노 원장은 이를 ‘따뜻한 암치료’라 부른다. 그가 소개하는 면역을 이용한 암치료법 몇 가지를 알아본다.<br/><br/> ◇미슬토(Mistletoe) 주사 항암면역요법=미슬토는 나무에 반 기생하는 다년성 식물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선 겨우살이라고도 부른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파괴하는 데 쓰인다. 특히 ‘면역조절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며, ‘베타 엔도르핀’의 분비를 촉진해 암환자의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미슬토 주사 항암면역요법’은 정식 항암치료제로 등록해 민간요법의 차원을 넘어선 상태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초기 환자는 1∼2년, 중기 환자는 2∼3년, 그리고 말기 환자 등은 그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br/><br/> ◇싸이모신 알파1=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면역조절작용을 하는 이 물질은 동물의 흉선에 존재한다. 사용법은 이를 추출해 항암치료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억제와 각종 종양치료 등에 병행요법으로 쓰인다.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이것 역시 인체의 자연적인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따뜻한 암치료’의 일종</span>”이라고 말했다.<br/><br/> ◇항암면역세포치료=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즉 ‘T세포’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T세포는 세균과 같은 항원이 침입했을 때 이를 억제 및 파괴하는 기능을 한다. 이 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환자의 혈액을 추출해 체외에서 T세포를 배양한 다음 이를 다시 환자 몸에 주입해 면역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원리로 한다. 국내에서도 녹십자에서 세포 배양을 해 치료에 적용하고 있다. 고가라는 단점이 있지만 항암면역세포주사가 대표적 치료제이다.<br/><br/> ◇고주파 온열암치료=암은 체온이 낮고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할 경우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체온을 올리면 그만큼 암의 발생 확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운동 등을 통해 우리 몸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암이 열에 약한 점을 이용, 고주파를 흘려보내 암세포의 온도만 선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다. 누구나 치료기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의료보험이 적용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br/> 노 원장은 “<span class='quot0'>이밖에도 면역치료법은 많지만 우리 몸이 스스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자연 치유’에 주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현대의학은 암치료에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과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물론 암치료에 도움을 주지만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span>”고 했다. 아울러 “암은 치료하기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환자가 식습관, 운동,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환자나 가족, 그리고 의료진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김무정 선임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4.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면역항암제] 美 임상종양학회서 이목 집중  
날짜: 20150615  
기자: 장윤형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5  
ID: 01100201.2015061510000004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의학기술 발달과 항암제 개발로 암은 ‘정복 가능한’ 질병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한다.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연간 820만명이 암으로 사망했다. 암이 조기 발견되면 종양 절제 수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 난치암, 암이 재발된 환자들은 항암제를 통해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br/> 최근 항암제는 1∼2세대를 거쳐 3세대까지 진화했다. 1세대 항암제들은 암세포를 빠르게 사멸하는 효과를 지녔지만, 정상세포까지 공격해 환자에게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2세대인 ‘표적항암제’는 특정 유전자 변이에 의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해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다만 표적항암제는 암 유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치료제 내성으로 인한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이 한계다.<br/> 최근 3세대 항암제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면역항암제’다. 올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는 수만명의 종양 전문의가 모여 암 연구의 동향과 신약에 대해 담론을 나눴다. 이번 학회의 화두는 단연 면역항암제였다. <br/> 올해 새롭게 발표된 임상 연구 중 다양한 암에 대한 펨브롤리주맙의 효과를 뒷받침 해주는 혁신적 데이터가 종양 전문의들의 주목을 받았다. 펨브롤리주맙은 현재 흑색종에 적응증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ASCO에서 13개 암 종에 대한 펨브롤리주맙 단독요법 및 병용요법의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개돼 적응증 확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얻었다. <br/> 항암제가 반드시 특정 암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암에서의 임상을 통해 효능을 보이면 적응증이 추가돼 다양한 환자군에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면역항암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해 신속허가를 하는 등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의학계가 면역항암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신체의 면역체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암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암에서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 면역항암제는 흑색종, 폐암, 유방암, 위암, 신장암, 림프종, 두경부암 등 30가지 이상의 암종에 쓰일 수 있는 가능성에 기반해 활발한 임상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올해 ASCO에서는 흑색종을 비롯해 식도암, 난소암, 비소세포폐암을 포함한 여러 난치성 암에 대해 종양 감소 효과를 보여 그 가능성을 뒷받침했다.<br/> 면역항암제와 관련 난치성 암으로 알려진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의 약 85∼90%를 차지한다. 매년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약 50만명의 환자들이 비소세포폐암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ASCO에서는 비소세포폐암에 대한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에서 나온 초기 결과가 최초로 발표됐다. 진행성 비소세포폐암에 있어 표준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펨브롤리주맙의 병용요법이 PD-L1 발현에 관계없이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들에게 유망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졌다. <br/> KEYNOTE-02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은 25명의 환자 중 21명(88%)에게 종양감소 효과를 보였고 28%의 전체 반응률을 보여 항암 효과를 입증했다. 아직까지 면역항암제가 획기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을지, 다양한 암종에 사용할수 있을지 추가 임상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의 부작용과 한계를 딛고 암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의학계는 물론 환자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5.txt

제목: [암과의 동행] 후코이단 효능 규명 논문 봇물  
날짜: 20150615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8  
ID: 01100201.20150615100000048  
카테고리: IT\_과학>IT\_과학일반  
본문: 해조류의 항암물질로 알려진 후코이단 관련 학술논문이 잇따라 발표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데이터 베이스(Pubmed, www.pubmed.org)에 올해만 벌서 54편의 논문이 등재됐다. 논문 발표국 역시 상당히 다양하다. 후코이단 산업이 비교적 큰 우리나라, 일본, 중국, 호주는 물론이고 브라질,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이며, 현재까지 누적된 논문편수만 1200편에 달한다.<br/> 논문은 주로 후코이단의 항암작용에 관한 것으로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후코이단의 아포토시스 기능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생혈관 억제 기능 ▲암의 전이를 막는 혈소판 점착 억제기능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증강기능 등이 활발하게 규명되고 있다. 최근에는 후코이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기전 연구 논문이 주로 등재되는 추세다. 이러한 연구 붐은 최근 들어 세계 후코이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해조류가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갈조류의 항암물질인 후코이단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제 후코이단 시장을 확대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br/> 후코이단 업계는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현재 약 20억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국제 후코이단 시장이 5년 내에 두 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역귀, 다시마 등 후코이단을 생산할 수 있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국내산 미역귀 후코이단은 후코이단 품질의 기준인 황산기 함량이 30%를 넘나들 정도로 높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전망도 밝은 편이다. 백수오 사태 이후 건강식품에 소비자의 평가기준에 학술논문의 양과 질이라는 평가기준이 추가됐고, 후코이단 등 논문자료가 풍부한 소재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 후코이단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br/>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후코이단 전문기업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span class='quot0'>후코이단 관련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는 해외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세계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논문자료와 품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6.txt

제목: [암과의 동행] 항암제 건보적용 아직 ‘높은 벽’… 약값 마련 어려워 진료포기 속출해서야  
날짜: 20150615  
기자: 조민규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15100000049  
ID: 01100201.20150615100000049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암은 이제 불치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이 되어가고 있다. 예전처럼 무조건 죽는 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 관리한다면 만성질환처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가 평등하게 치료를 받기는 어렵다. 일부환자는 치료제가 없거나, 치료제가 있어도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비용이 높아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br/> 최초의 항암제는 나이트로젠 머스타드(Nitrogen mustard)로 2차 세계대전에서 화학무기로 사용된 독성물질이다. 악성종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1943년 호지킨 림프종 치료에 사용됐는데 분화속도가 빠른 정상세포까지 구분 없이 공격해 탈모·구토·합병증 등의 강한 부작용이 있다. 1977년에는 전립선암에서 70%의 치료효과를 보이는 백금계 화학치료로 3제 복합제가 사용됐고, 1986년 인터페론 알파, 1990년대에는 항원억제 유전자가 발견되며 암 치료의 새로운 변기를 맞게 된다.<br/> 1997년 2세대 항암제인 표적치료제가 처음 등장했는데 특정 유전자변이에 의한 종양세포만을 표적해 작용함으로써 전신 화학항암요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반응율은 높였지만 암 유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치료제의 내성발현이 문제로 제기됐다.<br/> 최근 3세대 항암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면역항암제’이다. 몸속 면역세포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항암제인데 신체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암세포를 면역체계가 인지하고 공격하도록 돕는다.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가 좋아 암을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최신 치료제다. 일례로 폐암의 경우 발견됐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가 늦은 경우가 많은데 최근 면역항암제 임상연구에 따르면 폐암에 효과적인 유효성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비소세포성폐암에 획기적인 치료제로 부각되고 있다.<br/> 문제는 이러한 효과적인 치료제들을 환자들이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인데 가격이 비싸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환자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면역항암제가 표적치료제 등과 병용했을 경우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두 가지 약제를 비보험으로 사용했을 경우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치료제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어야 좋은 치료제다. 약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값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br/>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7.txt

제목: [기고-고기 가즈타카] 국제산업보건대회에 바란다  
날짜: 2015060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2100000007  
ID: 01100201.2015060210000000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제산업보건대회가 지난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3년마다 개최하는 산업보건 분야의 가장 큰 대회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올해 제31회 서울대회는 국제산업보건위원회와 한국의 안전보건공단,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br/> 국제산업보건위원회는 1906년 설립됐다. 산업보건 분야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목표다. 국제산업보건위원회는 국제산업보건대회를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다.<br/> 지금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가 확대되면서 고용환경이 다양화되고, 근로자의 건강 수준 차이도 점차 커지고 있다. 때문에 각국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br/> 국제산업보건위원회는 그동안 직업병 예방을 위해 다른 국제기구나 세계 여러 나라와 석면 금지, 업무상 질병 예방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활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직업병 목록 최신화 작업이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의 직업병 목록 개정 작업에 참여해 직업병의 범주를 확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인자로 인한 질병, 호흡기 질환, 피부병,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직업병 범주에 포함됐다. 정신질환과 행동장애는 2010년 처음으로 직업병 목록에 올랐다.<br/> 이번 서울대회에는 35개의 과학분과위원회와 국제산업보건위원회 실무그룹이 함께 모여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산업현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험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근로자 건강 보호·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br/> 국제산업보건위원회에 소속된 과학분과위원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직업병 예방 문제를 다뤄왔다. 지난 3년간 100회가 넘는 학술회의와 심포지엄을 통해 세계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건강 문제나 산업보건 서비스 취약분야 등 핵심 현안들을 파악해 왔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진전된 논의 사항은 이번 서울대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br/> 먼저 고령화,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생식위험, 사회심리적 요인, 교대근무 및 작업생산성 저하, 면역독성학, 심장학, 신경독성학, 산업위생 등 근로자 건강 유해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성과가 논의된다. 또한 서비스업, 간호학, 산업의학, 산업보건교육훈련, 농업, 건설업, 화학산업, 소규모 사업장, 실업문제 등 분야에서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일하는 여성이나 광업, 나노물질, 응급치료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분과의 실적도 주목할 만하다.<br/> 특히 이번 서울대회에선 처음으로 글로벌 정책포럼이 개최된다.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도전과 동력’을 주제로 산업보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보건의 미래 비전과 실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과 새로운 형태의 산업보건 서비스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br/> 이번 국제산업보건대회가 2015년 이후 산업보건 분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길 바란다.<br/> 아울러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5년 서울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br/>고기 가즈타카 국제산업보건委 회장<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8.txt

제목: 국산 면역세포 치료제, 간암 재발률 40% 낮춘다  
날짜: 20150602  
기자: 이기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2100000038  
ID: 01100201.20150602100000038  
카테고리: 사회  
본문: 토종 면역세포 치료제가 간암 재발위험을 40%나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br/><br/> 서울대학교병원은 소화기내과 윤정환(사진)·이정훈 교수 연구팀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5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간암 생존자 230명을 대상으로 국산 면역세포 치료제의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면역세포 치료로 간암 환자의 재발 및 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br/><br/> 연구팀은 연구 대상자를 면역세포 치료군(115명)과 1차 치료 후 특별한 추가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115명)으로 나누고 총 60주간(1년3개월) 추적, 관찰하며 각 군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조사했다. 연구 및 치료용 면역세포는 국내 바이오기업 녹십자셀이 제공했다.<br/><br/> 그 결과 1차 치료 후 무병생존기간(암이 재발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이 대조군은 30개월에 그친 반면 면역세포 치료군은 평균 44개월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면역세포 치료군의 무병생존기간이 대조군보다 무려 1년2개월이나 길었다. 면역세포 치료군은 재발률과 사망률 역시 대조군에 비해 각각 37%, 79%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br/><br/> 윤 교수는 “간암은 완치 목적의 치료(수술, 고주파열치료, 에탄올주입술)를 받더라도 보통 5년 내 재발률이 70%에 달해 1차 치료 후 재발 및 사망 위험을 낮추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앞으로 면역세포 치료가 간암환자의 재발 및 사망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br/><br/> 연구결과는 소화기학 분야 국제학술지 ‘가스트로엔테롤로지(Gastroenterology)’ 최신호에 게재됐다.<br/><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89.txt

제목: 노바티스, ‘새 치료옵션’ 2세대 ALK 양성 표적항암제 개발  
날짜: 2015060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60110017445252  
ID: 01100201.20150601100174452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표적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폐암치료는 획기적으로 진보했다. 최근 10여년 새 폐암환자에게서 암세포를 만드는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고, 해당 유전자를 차단하는 표적항암제 개발이 두드러졌다. 폐암환자의 약 70%가 진행된 병기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폐암환자의 상당수는 수술과 더불어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따라서 표적항암제의 진보는 병기가 높은 폐암환자에게 완치라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희망이 된다. <br/><br/> ◇폐암과 유전자변이 그리고 표적항암제 치료=같은 폐암환자라도 종류가 다르다. 검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 폐암의 종류가 나뉘고 사용하는 약제도 달라진다. EGFR 유전자가 폐암에서 발견되면서 이 유전자를 차단하는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만들어졌다. 문제는 ALK 유전자 변이를 지닌 폐암환자다. EGFR 유전자에 비해 비세포 폐암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비율이 2∼7%에 지나지 않아 해당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항암제의 개발이 더딘 편이다. 그러나 ALK 양성 폐암환자는 음성 환자에 비해 암세포 증식이 빠르고 전이가 잘돼 악성암으로 꼽힌다. 재발 위험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나 간 전이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어, ALK를 타깃으로 하는 다양한 표적항암제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br/><br/> ◇2세대 ALK 양성 표적항암제 등장 ‘뇌 전이 막는 유일 대안’=ALK 유전자변이가 발견된 경우 지금까지 크리조티닙(Crizotinib) 성분의 표적항암제로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표적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기존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세대 ALK 억제제 표적항암제가 개발됐다. 노바티스에서 나온 세리티닙(Ceritinib) 성분의 자이카디아(Zykadia)는 조기 허가승인을 받을 정도로 임상연구에서 크리조니팁에 내성을 갖는 환자에서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 과거 ALK 표적항암제 치료경험이 있는 폐암환자 163명과 치료경험이 없는 83명을 대상으로 자이카디아를 투여한 결과, 약제에 반응하는 환자군이 61.8%를 차지했다. 여기서 자이카디아로 첫 치료를 시작한 83명의 환자군의 질병무진행 생존기간이 18개월을 웃도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br/><br/> 특히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일컬어지는 뇌전이 폐암환자에게서도 치료 가능성이 입증됐다. 암이 뇌로 전이된 124명의 환자에게 자이카디아를 투여한 결과, 55.6%가 약제에 반응했고 29명이 참여한 임상연구에서 3분의 1이 자이카디아 투여 후 뇌로 전이된 종양의 크기가 줄었다. <br/><br/> 자이카디아 임상연구를 진행한 마가렛 듀건 박사(노바티스 글로벌 프로그램 헤드 수석부사장)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기자와의 만남에서 “암 유전자를 연구하는 정밀 종양학의 최신 성공 사례로 자이카디아를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폐암환자는 기존의 ALK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1년도 안 돼 병이 진행됐다. 자이카디아를 이용한 임상시험에서 병의 무진행기간이 1년을 넘겼다는 점과 치료제에 대한 반응률이 약 56%에 달했다는 점, 뇌로 전이된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사실은 이전과 다른 획기적인 결과”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임상연구에서 높은 치료효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경우 1차 치료제로 승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br/><br/> ◇자이카디아, 가치 인정받아 이례적 빠른 승인=자이카디아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혁신적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분류됐다.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받은 의약품은 빠른 허가승인이 가능하다. 현재 자이카디아는 국내와 상가포르에서 과거에 크리조티닙 항암제로 치료받은 적이 있거나 뇌로 전이를 보이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허가승인을 받았다. 지금까지 미국, 유럽연합, 멕시코, 칠레, 한국, 과테말라, 에콰도르 등에서 허가를 받았다. 유럽 여성 폐암환자 연대기구(WALCE) 스테파니아 발론 국제관계 담당관은 “ALK 양성 비소세포 폐암을 겨냥한 치료 대안이 매우 제한적인 형편임을 상기할 때 자이카디아의 허가승인은 폐암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이카디아의 본격적인 국내 출시가 예상돼 폐암환자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br/><br/>싱가포르=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0.txt

제목: “은행, 미래의 VIP ‘노령 자산가’ 잡아라”  
날짜: 20150527  
기자: 선정수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27100000088  
ID: 01100201.20150527100000088  
카테고리: IT\_과학>인터넷\_SNS  
본문: 해외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경제력 있는 노령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非)금융 서비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 노령층 자산가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테크뿐 아니라 건강·스포츠·여행 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아직까지 비금융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실정이다.<br/> 26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금융사의 시니어고객 대상 비금융 서비스 사례’ 보고서를 통해 “<span class='quot0'>금융사를 이용하는 시니어고객은 금융·비금융상의 필요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사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span>”고 밝혔다.<br/> 연구소는 미국 웰스파고은행, 일본의 SMBC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등을 비금융 서비스 제공의 성공사례로 꼽았다. 웰스파고은행은 노령 자산가들이 독립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예약 및 약 처방, 간병인 서비스, 집안 관리 등 생활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노령층 자산가의 가족까지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고객충성도 강화 및 은행의 대외이미지 제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r/> SMBC은행의 ‘SMBC Club 50s’는 50세 이상으로 연령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수금 잔고 500만엔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은퇴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거래잔고 1000만엔 이상 고객에게 전화 건강상담, 암 및 건강검진 할인, 여행 할인 등을 제공한다. 영국의 바클레이스은행은 노령층 고객 대상 디지털기술 교육 인력 7000여명을 고용해 교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br/> 반면 우리나라는 노령 자산가에 대한 비금융적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소는 “급격한 고령화 진전을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층 고객을 위해 국내 금융사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 국내 시중은행이 노령층에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는 외환은행의 ‘행복 노하우 클럽’, KB국민은행의 ‘골든라이프 서비스’ 정도를 찾아볼 수 있다. ‘행복 노하우 클럽’은 연금 입금실적에 따라 우대금리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우대 서비스(PH등급), 녹십자 헬스케어, 여행사 상품 할인, 상조 서비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1.txt

제목: [항암 밥상-검은콩국수] 글리시테인 풍부한 ‘블랙 푸드’ 대표 주자  
날짜: 20150518  
기자: 조규봉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5  
ID: 01100201.20150518100000045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컬러 푸드(color food)’가 주목받고 있다. 컬러 푸드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유의 색상을 가진 자연식품을 말한다.<br/> 과일과 채소 등에 함유된 천연 색소가 몸에 나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미국 암 협회는 컬러 푸드의 항암효과에 주목해 하루에 5가지 이상 다른 색깔을 지닌 채소나 과일을 먹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Five a day’라는 공식 구호와 함께 다양한 컬러 푸드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을 정도다.<br/> 컬러 푸드 중에서도 ‘블랙 푸드’는 항산화, 항암, 항궤양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블랙 푸드에는 검은색을 내는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어 항산화 능력을 길러주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및 암을 예방해준다.<br/> 블랙 푸드의 대표 주자로는 검은콩을 빼놓을 수가 없다. 검은콩에는 노란콩에는 들어있지 않은 글리시테인(glycitein)이라는 항암물질이 들어있으며, 검은콩의 껍질에는 안토시아닌, 이소플라본이 풍부해 노화 억제 및 항암 효과가 일반 콩의 4배 이상 높고, 다른 곡류에 비해 단백질이 2∼3배 풍부하기도 하다.<br/> 이외에도 검은콩에는 골밀도를 유지하고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 또한 규칙적으로 콩을 섭취하면 중성지방을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고밀도지방단백질(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br/> 검은콩은 10월경에 서리를 맞은 뒤 수확하는데, 서리를 맞아가며 자란다고 하여 ‘서리태’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리태는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이 매우 풍부하고 신체의 각종 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B군, 특히 B1, B2와 나이아신 성분이 풍부하다.<br/> 이 검은콩을 고를 때는 껍질은 검은색, 속은 파랗고 윤기가 많이 나는 것을 고르고,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서 3개월가량 보관이 가능하다. 검은콩 속 안토시아닌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조리 전에 물에 오래 두는 것은 좋지 않다.<br/> 다가오는 여름에는 시원함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콩국수’를 검은콩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비주얼부터 맛까지 평범한 콩국수와는 다른 새로운 식탁을 완성할 수 있다. <br/>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2.txt

제목: [암과의 동행] “내시경 검사 한국형 가이드라인 필요”… 50대 이상 대장암 유병률 韓·美 비교  
날짜: 201505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3  
ID: 01100201.20150518100000043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과 미국 남성의 대장암 유병률은 비슷한 반면, 여성의 대장암 유병률은 한국 여성이 미국 여성보다 낮다는 국내 의료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차재명(사진) 교수 연구팀은 미국 버지니아 메이슨병원 연구팀과 공동으로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장 종양 특성 비교’ 연구를 수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br/> 이번 연구는 강동경희대병원과 미국 버지니아 메이슨병원에서 각각 대장내시경 선별검사를 받은 50∼60대 남녀 5653명(한국인 약 2193명, 미국인 약 3460명)을 비교해 그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진행성 종양의 경우 한국남성 유병률은 7.1%로 미국남성의 7.4%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여성은 2.7%의 유병률을 보여 4.7%의 미국여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크기가 10㎜이상인 큰 폴립의 평균크기, 발생률도 한국여성이 더욱 낮았다. 연구팀은 “과거 한국과 미국에서 대장 종양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이번처럼 두 나라의 특성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br/>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장 종양 특성을 직접 비교함으로써, 한국인의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적정시기 논의에 밑거름이 될 중요한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2012년 발표한 우리나라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은 ‘미국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권고안’을 따라 남녀 동일하게 50세 이상이면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 마련의 토대가 된 미국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권고안은 서양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어서 우리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인과 서양인은 식습관, 생활환경, 체격조건 등이 다른 만큼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br/> 이에 대해 차재명 교수는 “<span class='quot0'>기존에 서양인·아시아인을 기준으로 한 대장질환 조사는 많았지만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대장내시경 선별검사 적정시기를 구체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인의 대장질환 위험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span>”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지 게재가 결정됐으며, 최근 열린 대한장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3.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양 신약물질 특허 취득 外  
날짜: 2015051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47  
ID: 01100201.20150518100000047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셀트리온 유방암 치료양 신약물질 특허 취득=셀트리온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유방암 치료용 신약물질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돌라스타틴 10 유도체,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항암제 조성물’에 대한 것으로,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유방암 치료신약 CT-P26의 항체에 결합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는 항암 화합물질에 관한 것이다.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제약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CT-P26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ADC(Antibody-Drug Conjugate)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유방암 치료용 신약이다. 셀트리온 측은 “<span class='quot0'>CT-P26 신약물질 특허를 계기로 바이오시밀러에서 신약에 이르는 셀트리온 개발 전략 실행에 탄력이 붙을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br/><br/>◇출산 경험 많으면 유방암 발병시 생존율 우수=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유방센터 이정선 교수와 부산백병원 임상시험센터 오민경 교수팀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유방암학회에 등록된 유방암환자 2만9167명을 분석한 결과 폐경 전후 유방암 환자들의 자녀수와 첫 분만 나이에 따라 생존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렸을 때 자녀 2∼3명을 출산한 여성이 출산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 치료 후 생존율이 최대 61% 증가했다. 또한 폐경 전 유방암 환자 중 자녀를 1명 출산한 여성이 출산하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유방암 치료 후 생존율이 53% 증가했고, 2명 출산 시 61%, 3명 출산 시 42%, 4명 출산 시 10% 늘었다. 하지만 5명 이상 출산여성은 출산하지 않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33% 생존율이 감소됐다.<br/><br/>◇바이오 빅데이터 약물작용점 발굴 분석법 개발=국내 연구진이 바이오 빅데이터에서 약물작용점을 발굴하는 분석법을 개발해, 빅데이터 기반의 항암신약개발 프로세스 구축 성과를 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NExT연구과 남승윤·김연희 박사 연구팀이 바이오 빅데이터에서 약물작용점을 발굴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다학제적 노력을 통해 PATHOME(작용기전 및 전사체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이라는 네트워크 분석법을 개발했고, 작용기전의 검증이 가능한 약물작용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연구팀은 이 분석법을 한국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위암’ 바이오 빅데이터에 적용해 HNF4α-WNT5A로 이뤄진 새로운 약물작용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br/><br/>◇순천향대부천병원 20일 ‘위암’ 건강강좌=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20일 오전 11시부터 병원 본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위암 완치는 가능한가’, ‘위암 오해와 진실’ 등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에는 외과 조규석·정귀애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문의: 032-621-5753)<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4.txt

제목: [암과의 동행-인터뷰] 올림푸스한국 타마이 타케시 의료총괄부문장 “임상현장 요구 기술 꾸준히 개발”  
날짜: 20150518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8100000052  
ID: 01100201.2015051810000005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올림푸스는 지난 1919년부터 인류의 건강 증진과 행복을 위해 진단, 치료 분야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의료진과의 꾸준한 협력 연구로 첨단 제품 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병 치료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br/> 지난 4월 올림푸스한국 의료총괄부문장 겸 신설된 GI(Gastrointestinal)사업본부장을 겸임하게 된 타마이 타케시(사진) 부문장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이 올림푸스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br/>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1919년 설립된 올림푸스는 현미경과 소화기내시경, 카메라 등 사업분야를 확대하며 외과수술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로 성장했다. 창립 초기 일본 내 현미경 국산화를 목표로 했던 올림푸스는 1949년 ‘광학기술을 이용해 위암을 치료하는 데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도쿄대학 부속병원 외과 의사 우지 다쓰로의 생각에서 본격적인 내시경 개발에 나선다. 위 카메라 개발에 착수한 올림푸스는 1950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고, 1952년 ‘가스트로 카메라 I형(GT-I)’을 상용화했다. 이는 현재 올림푸스가 추구하는 ‘의료진과의 협력 연구를 통한 제품 개발’이라는 사업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대해 타마이 타케시 부문장은 “<span class='quot0'>의료진과의 공동 개발은 보이지 않던 곳을 보이게 하고, 치료 불가능했던 부분을 치료 가능토록 하는 올림푸스의 강점</span>”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림푸스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독창적인 기술로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올림푸스는 소화기내시경과 외과수술장비 영역 2개로 의료사업 분야가 나뉜다. 또한 전 세계 6개 대륙 200여개 이상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의료분야 사업을 펼치고 있다.<br/>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올림푸스가 바라보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소화기내시경 의료진과 의술을 보유한 곳’이다. 타마이 타케시 부문장은 “최근 한국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 주목을 받을 정도로 한국 의사들의 수준은 세계 최고다. 또한 복강경 수술 등 관련 분야를 실제 임상현장에 활용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올림푸스는 이러한 한국 의료진의 성과를 도와 세계적인 진단·치료 분야 경쟁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의료진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림푸스한국은 지난 4월 의료사업부문 사업 성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의료분야 사업부서를 의료총괄부문으로 통합했다. 한국 생활 3년차인 타마이 타케시 부문장은 총괄 책임자로서 “<span class='quot0'>새로 개발된 첨단 제품과 기술을 한국 의료진에게 가장 먼저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span>”라며 “<span class='quot0'>국내 시장 점유율을 좀 더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span>”라고 밝혔다.<br/> “올림푸스의 제품과 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에 공헌할 수 있다면, 매출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조기 진단과 최소침습치료로 질병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는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올림푸스의 기업 철학은 인류를 위한 공헌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타마이 타케시 부문장은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첨단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는 올림푸스의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힘줘 말했다. <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5.txt

제목: 미래부, 사물인터넷 공모결과 발표… 융합실증 사업 본격 착수  
날짜: 20150510  
기자: 김준엽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10100000078  
ID: 01100201.20150510100000078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미래창조과학부 융합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융합실증 사업 공모결과를 10일 발표했다.<br/><br/> 총 8개 컨소시엄이 경쟁을 벌인 끝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컨소시엄(가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컨소시엄(에너지), 카톨릭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보건의료), 자동차부품연구원 컨소시엄(자동차)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은 세부 내용 조율 및 협약 과정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향후 3년간 추진할 계획이다.<br/><br/> 개방형 홈 사물인터넷(IoT) 실증 사업은 TV, 냉장고와 같은 다양한 전자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공통요소(API)를 개발하고, 이를 모든 기업에게 개방해 호환성 부재로 인한 홈 IoT 분야의 시장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br/><br/> 스마트그리드 보안 실증 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최근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는 스마트 계량기, 에너지관리시스템, 전기차 충전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대한 보안 취약성을 분석하고 국내 보안기술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한다.<br/><br/> 중증질환자 애프터케어 실증 사업은 암,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자의 퇴원 후 재택재활 및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의료진에게는 환자별 맞춤 진료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1000여 명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br/><br/> 스마트 카톡(Car-Talk) 실증 사업은 차량의 서비스 안전성, 보안성, 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도로시험장 개선, 일반도로 실증 인프라 구축 등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운전편의, 차량관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br/><br/> 미래부는 향후 IoT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발굴, 중소·중견기업 육성, IoT 시큐리티센터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br/><br/>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6.txt

제목: 국내 연구진, 항암제 부작용 최소화 길 열었다… 신경전달물질 ‘뉴로펩타이드 Y’ 발견  
날짜: 20150508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810017217522  
ID: 01100201.201505081001721752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경북대 배재성(사진)·진희경 교수팀이 골수조혈줄기세포를 이용해 항암제 부작용을 억제하는 신경전달물질 ‘뉴로펩타이드 Y’(NPY)를 발견했다고 미래창조과학부가 7일 밝혔다. 심각한 항암제 부작용인 급성 골수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 항암치료요법 중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약물치료법은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급성골수손상은 골수 재생성에 관여하는 조혈줄기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성 골수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암 환자가 화학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br/><br/> 연구팀은 유전적으로 NPY가 나타나지 않는 생쥐의 골수는 정상 생쥐의 골수보다 조혈줄기세포 수가 적은 것을 발견했다. NPY는 뉴로펩타이드 중 하나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서 풍부하게 분비된다. 식욕중추를 조절하거나 다양한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br/><br/> 연구팀은 조혈줄기세포의 감소가 세포 생존·유지에 필수적인 골수 내 신경세포와 내피세포가 죽었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또 NPY가 나타나지 않는 생쥐의 조혈줄기세포 감소는 항암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나타나는 골수손상 부작용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분야 학술지인 ‘엠보 저널’ 4월 27일자에 실렸다.<br/><br/>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7.txt

제목: 고대안산병원 개원 30년, 830병상 갖춰…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연구혁신 의료기관 도약  
날짜: 20150504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4100000330  
ID: 01100201.20150504100000330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다. 경기도 안산에 지난 1985년 100병상으로 문을 연 고대안산병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며 두 번의 증축을 통해 최근 830병상 규모를 갖췄다. ‘30세가 돼 기초를 확립했다’는 ‘이립(而立)’의 나이가 된 고대안산병원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상의 환자 진료와 임상연구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포부를 밝혔다.<br/><br/> ◇안산 최초 대학병원=개원 당시 15개 진료과 100병상으로 시작해 3년 만에 300병상으로 확장됐다. 개원 10년 만에 신축본관 준공으로 600병상을 갖춘 후, 2014년 본관 3개층 증축으로 830병상 규모로 갖췄다. 지난 2012년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후 올해 재지정을 받아 지역 대표 병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고대안산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고려대의 구국이념과 정부의 의료복지 정책 등이 맞물려 지역 환경에 맞는 특성화센터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교통 요충지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직업환경의학센터, 재활의학센터, 응급의료센터를 특성화하고,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운영해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1월 암센터를 설치해 ‘진단·검사·치료·재활 원스톱서비스’, ‘다학제 통합진료’ 등 암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높였다. 최병민 진료부원장은 “<span class='quot0'>고대안산병원은 최근 암센터, 무균병동, 뇌혈관·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와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리모델링으로 질환별 전문센터화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있다</span>”고 강조했다.<br/><br/> ◇융·복합연구를 선도하는 연구혁신병원=지난 30년 역사에서 고대안산병원이 이룬 성과 중 하나가 ‘연구역량’ 강화다. 2005년 의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인체유래물은행, 통합임상시험센터, 인간유전체연구소, 단원재난의학센터 등을 설립해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확보했다. 최근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전기연구원 등과 지역 내 산·학·연 연구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단원재난의학센터는 세월호 사고 시 재난의료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적 의료와 대응 체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의학분야 선도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대 안산병원은 안산지역 산·학·연 기관들과 연계해 국내 보건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융·복합연구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승훈 연구부원장은 “<span class='quot1'>임상진료와 기초 및 임상연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혁신형 첨단임상진료센터’와 다기관협력 연구를 위한 산·학·연·병원과 벤처 및 융합연구 플랫폼인 ‘산·학·연·병 융합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지역 클러스터 기반의 ‘연구혁신병원’으로 도약하겠다</span>”고 강조했다.<br/><br/>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병원=고대안산병원은 개원 30주년 슬로건으로 ‘행복의 가치, 나눔의 가치, 지역주민과 같이’를 선언했다. 환자와 지역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솔로 선남선녀! 커플 백년해로!(15일)’, ‘사랑으로 한걸음! 희망으로 다 함께! 자선기금마련 걷기대회(16일)’ 행사를 하고 6월 3일에는 지역주민 대상의 건강검진과 의료봉사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어 6월 3∼4일에는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을 위한 건강바자회도 연다. 차상훈 고대안산병원장은 “30주년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다. 지난 30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상생하는 고대안산병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r/><br/>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8.txt

제목: 고난도 종양제거 척척, 합병증 걱정도 최소화… 강북삼성병원 로봇수술 도입 1년  
날짜: 20150504  
기자: 송병기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4100000324  
ID: 01100201.20150504100000324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호철)은 오는 6월 2일 로봇수술 도입 1주년을 맞이한다. 이 병원의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Si는 수술 환자 합병증 감소, 삶의 질 향상,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병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입됐다. 로봇수술은 최소 절개로 흉터를 최소화하고 합병증은 낮출 수 있다. 강북삼성병원의 로봇수술 장비는 수술 시야를 10배 이상 확대해, 출혈은 줄이고 질병 원인만을 제거하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종양만 제거하면 주변 혈관·장기·신경은 자극을 최소로 받아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br/><br/> 유방·갑상선암센터 외과 윤지섭 교수는 갑상선암과 부신종양 분야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갑상선암 수술은 목소리 신경과 부갑상선 등을 잘 보전하고 합병증을 줄여 수술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강북삼성병원은 1999년 국내 최초로 갑상선 내시경 수술에 성공해 국내 최다 빈도의 갑상선 내시경 수술을 선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봇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해 환자 중심의 치료로 선택권을 넓혔다. 국내에서 단일통로 복강경적 부신절제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며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높은 부신 종양 제거수술에도 로봇수술을 적용한다.<br/><br/> 위·대장·간·담도·췌장암을 치료하는 소화기암센터는 암 전이·재발을 막기 위한 림프절 제거 시 로봇을 이용,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소화기암센터 간담췌외과 이성열 교수는 미국 시애틀 오버레이크 메디컬센터 외과팀과 배꼽을 통한 단일공하 로봇담낭절제술의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대만로봇학회 연자로 초청을 받은 바 있는 이 교수는 단일공하 로봇담낭절제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 교수는 단일공하 로봇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국내 의료진과 빅데이터를 분석해, 오는 9월 아시아·태평양 내시경복강경학회에서 발표한다. 배꼽을 통해 장기 깊은 곳에 위치한 담낭에 접근하는 담낭수술은 안전성, 빠른 회복, 미용 효과 등에서 우수한 수술법으로 주목받고 있다.<br/><br/> 전립선암은 수술 후 소변줄 착용이 약 2주일 이상 필요하지만 로봇수술로 1주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 전립선은 치골 아래 골반 깊은 곳에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수술 시간이 길어 다량의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주관중 비뇨기과 교수는 “로봇수술로 출혈이 적은 정교한 수술을 시행하고 발기와 관련된 신경을 보존하는데 유용하다”며 “방광과 요도의 섬세한 봉합은 요실금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은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이행부협착, 요관석 수술 치료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설명했다.<br/><br/> 산부인과 김우영 교수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근종 절제술, 난소종양 절제술, 천골질벽 고정술 등 부인과 종양 영역에서 여성성을 지키면서 수술을 하는 데 주력한다. 자궁경부암은 자궁방이라고 불리는 자궁 주변 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할 때 골반 저 부위에 위치한 방광과 요관이 손상 받기 쉽다. 또한 동맥 주위 혈관 분포가 많은 림프절은 접근이 어려운 후복막 공간에 있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다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로봇수술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세한 혈관을 확대해 필요 범위만 제거하기 때문에 출혈을 최소화한다. 자궁근종절제술의 경우 근종 제거 후 섬세한 봉합이 가능해 자궁파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br/><br/> 신호철 원장은 “우리나라는 로봇수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수술 술기로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수술 영역에서 시작한 로봇수술이 현재는 외과 수술의 전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며 “내시경 수술의 일반화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였듯이 수술 후 합병증을 더욱 낮춘 로봇수술은 앞으로 의학 발전을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br/><br/>송병기 기자<br/><b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언론사: 국민일보-1-199.txt

제목: “탐지견이 소변냄새로 암 검진… 일본서 시험도입”  
날짜: 20150503  
기자: 이종선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50503100000093  
ID: 01100201.20150503100000093  
카테고리: 국제  
본문: 일본 지바(千葉)현 가도리(香取)시와 일본의과대학 연구팀은 이르면 올가을부터 암 탐지견을 활용한 암검진을 시험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일 보도했다.<br/><br/>탐지견은 암환자의 소변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로, 가도리시는 암검진을 받는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게 탐지견 검진도 실시해 암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을지 검증할 예정이다.<br/><br/>암환자의 소변에는 건강한 사람과는 다른 특유한 냄새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br/>이 냄새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후각이 발달한 개를 적절하게 훈련시켜 경찰 탐지견처럼 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br/><br/>보도에 따르면 연구팀이 지금까지 실험에서 유방암, 위암, 대장암 등 암환자 300명의 소변을 채취한 후 탐지견에게 냄새를 맡도록 한 결과, 암환자 소변 식별 확률이 99.7%에 달했다. <br/><br/>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br/><br/><b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br/><br/><br/>[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